

불교활동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병욱

서문

삶에는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피지도 못하는 꽃도 있고 날지도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결실로 본다면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축생계에서는 오로지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에 충실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자손 남기는 것을 삶의 결실로 본다면 축생계의 삶과 마찬가지로일 것입니다.

보다 높은 삶을 지향하는 수행자에게도 삶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결실입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의 국왕 아자따삿투는 부처님에게 “현세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결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D2.15)라며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수행자의 삶의 길(magga)을 말하면서 수행자의 삶의 결실(phala)은 고귀한 과위(ariyaphala)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행자의 삶은 팔정도의 삶이고, 수행자의 삶의 결실은 흐름에 든 경지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와 과를 이루면 노예나 농부는 물론 왕까지도 예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런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결실(samaññaphala)’이라 했습니다.

재가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여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정평불과 인연을 맺은 이래 여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블로그에 기록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재가활동에 대한 삶의 결실일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과물을 하나로 합쳐 책의 형식으로 출간하려 합니다.

두 가지 타입의 불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실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의 이익의 실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지 않

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화장용 장작은 양 끝이 불타고 중간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A4.95) 라 하여 화장터장작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화장터에서 타다 만 장작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버터크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소에서 우유가 나옵니다. 우유에서 크림이, 크림에서 신선한 버터가, 신선한 버터에서 버터기름, 버터기름에서 버터크림이 나옵니다. 이것들 가운데 버터크림이 최상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개인적 수행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병행하는 사람을 최상이라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가불교활동은 자리이타행입니다. 오로지 개인적 수행에만 전념한다면 네 종류의 인간에서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사람은 최악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실천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수승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실천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타인의 이익의 실천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실천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개인적 실천수행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회향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보살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보살행은 ‘상구보리하와중생(上求菩提下

化衆生)’입니다. 먼저 자신의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동시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재가불교활동에서 강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부가 덜 되었더라도 사회적 실천을 병행한다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닦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개인적 이익의 실천과 타인의 이익의 실천입니다. 이와 같이 재가불교단체에서는 자리아타를 근본으로 합니다

재가불교단체 정평불에서 활동한 것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책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글을 모아보니 76편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눈부처학교 관련 글이 십편이고 정평법회관련 글이 십여편 됩니다. 이 밖에도 작년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보냈던 적폐청산 관련 글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설조스님 단식관련 글도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빠짐 없이 참가 했는데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글로 남겨 두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도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심지어 왜곡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는다면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결실로도 역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빠짐 없이 가급적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노력했습니다.

재가불교활동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적폐청산입니다. 불교내부에 켜켜이 쌓여 있는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밝히고 바로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저항은 난공불락의 철옹성파도 같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막대한 토지와 문화재 등 불교문화유산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문화재관련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 그들에게 불교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재가불교단체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바꾸어 보고자 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뿐 지금 이대로 영원히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불교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첫번째 방법은 몸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피켓팅, 삼보일배, 기자회견, 촛불법회 등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두번째 방법은 글로 알리는 것입니다. 종단 권력층들의 모순과 위선과 거짓에 대하여 글로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용운스님이 이 시대에 살아 있다면 각종 인터넷매체에 기고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백여년전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에 적극적으로 기고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문이나 잡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자후를 토하는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바일 시대입니다.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유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시대이기 때문에 에스엔에스에 글을 올리면 과급효과가 매우 큼니다. 누군가 글을 읽었을 때 현장에 참여하는 것 못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글을 남겼습니다.

적폐청산 세번째 방법은 계율을 중시하는 종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불교의 가장 문제는 계율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율의 바탕 없이 성립된 종단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고 밀 빠진 독에 물붓기식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승단에 아무리 몸으로 저항하고 글로 기고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이럴 때는 계율에 바탕을 둔 종단을 지원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울장정신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종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율중시의 종단이 성장하고 발전 했을 때 기성종단은 긴장하고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적폐청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불교활동은 사회적 실천 현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병행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리이타행입니다. 부처님도 칭찬한 개인적 이익의 실천과 타인의 이익의 실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결실에 대한 기록을 한권으로 책으로 엮어 내고자 합니다. 이런 책이 나오게 되기 까지 정평불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정평불임원, 그리고 정평불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01-15

정평불사무총장 이병욱

목차

1.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눈부처학교1
2. 역류도(逆流道)의 삶에 대하여, 눈부처학교2
3. 기본소득제가 대안이다, 눈부처학교3
4.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 눈부처학교4
5.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평불 창립법회
6. 자본의 폭주를 멈추어야, 눈부처학교5
7. 왜 생명에 간섭하려 하는가, 눈부처학교6
8. 인정질서가 확립되면 분배질서도, 눈부처학교7
9.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되자, 12월 정평법회
10.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사이가, 눈부처학교8
11. 정의로운 삶을 위한 대자대비의 소신공양, 눈부처학교9
12. 정평법회(正平法會)가 뭐길래? 1월 정평법회
13. 쇠망치로 쳐서 나온 불꽃처럼, 2월 정평법회
14. 진리의 맛을 알았을 때 그 길로 갈 수밖에, 3월 정평법회
15.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정평불 금선사토론회
16. 내가 정평법회 가는 이유
17.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4월 정평법회
18. 정평불 사무총장을 맡고
19. 시대는 참여보국(參與報國)을 요청한다
20. 정평불 월정사 봄소풍
21. 우리는 생체로보트가 아니다, 정평불 월정사 워크숍
22. 정평불이 뭐하는 데예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자주불교
23. 현명한 소비자는 불량품을 사지 않는다
24. 연기법은 희망의 메시지, 5월 정평법회
25. 우중(雨中)의 2018 서울국제연등축제
26. 갓가지 꽃들로 장엄된 카페를 놀이터로
27. 짧고 굵게, 승의적 초월의 길
28. ‘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을 읽고
29. 권승들은 참회하고 자리를 떠나시라
30.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대리참회하며
31. 불자님들을 6월 정평법회에 초대합니다
32. 6월 9일 광화문에서 평화의 촛불을
33. 참여하는 것은 복짓는 것이다
34. 사회적 실천을 하면 사회가 완성된다, 6월 정평법회

35.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6.9평화촛불
36. 청정한 삶은 음식청정으로부터, 구기동모임
37. 선한 사람들이 기폭제가 되길, 설조스님 단식 나흘째
38. 아는 것만큼 알려주고 능력껏 보시하고
39.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간다, 리더의 조건에 대하여
40. 자타(自他)가 이익되는 삶을 위하여, 7월 정평법회안내
41. 카페는 한물 간 것일까?
42. 왜 보시의 시대가 말법시대인가? 설조스님단식 16일차
43. 설조스님의 승의적 초월의 길, 단식 18일차 토요일법회
44.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설조스님 단식 23일차
45.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참여불교, 2018년 7월 정평법회에서
46. 권승들의 아수라 리더십, 설조스님 단식 25일차
47. 설조스님을 살려내려면
48. 단식을 멈추게 하고자, 우정공원에서 올린 300배
49. 가만 있으면 다 죽는다
50. 건강보다 교단이 우선, 설조스님 단식 30일차
51. 불교도대회의 추억
52. 7.21범불교도대회, 설조스님 단식32일차
53. 승려대회는 열릴 수밖에 없다
54. 대통령님 설조스님을 살려주세요, 설조스님 단식37일차
55. 정의로운 삶을 위하여, 설조스님 단식 39일차
56.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새로운 역사, 정평불 8월 정기법회 안내
57. 불자들이여, 총궐기하라!, 8.4촛불법회
58. 자타가 이익되는 삶을 위하여, 8월 정평법회날을 맞이 하여
59.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과 함께 한 보신각촛불법회
60. 암베드까르의 공정한 사회, 8월 정평법회
61. 재가의 힘을 키워야, 제3회 정평불교포럼
62. 망해야 산다는데, 원로의원 설득
63.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계수련회1-예불
64. 한방울의 물에도 한알의 곡식에도, 하계수련회2-식사
65. 가르침과 계율안에서 성장하는 모임, 하계수련회3- 토론
66. 폐사지 석탑의 교교(皎皎)한 보름달, 하계수련회 4-보원사지
67.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정평불 하계수련회 5-수행
68. 회비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69. 개혁이 좌절 되었을 때
70. 한국불교가 죽어야 불교가 살아난다, 9월 정평법회
71. 그들만의 리그에 맞서

- 72. 아젠다를 설정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야, 10월 정평법회
- 73.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정평법회 1주년
- 74. 한태식총장의 연임반대와 직선제 지지, 정평불성명서
- 75. 왜 자비실천행을 하는가? 관음사길 등산로청소를 하면서
- 76. 영광스런 한해를 보내며, 정평불송년회

1.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눈부처학교 1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세상에서도 눈길을 끄는 콘텐츠에 눈길이 머물습니다. 대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은 매우 짧습니다. 사진 한장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듯합니다.

긴 글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경전을 근거로 한 이야기 등 교훈적인 내용은 쳐다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신 매혹적이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콘텐츠에 대중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문학강좌 안내를 보았습니다. 정평불, 즉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주관하는 ‘문명의 지속과 불교의 지혜’라는 대주제의 강좌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정평불 6기 눈부처’라 하여 11 개의 강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부처’라는 말은 ‘눈높이 부처’를 말합니다. 마치 사섭법 동사(同事)에서

‘동등한 배려’를 연상케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시대에 맞게 설명하자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정평불 불교인문학 강좌를 보면

정평불에서 주관하는 ‘문명의 지속과 불교의 지혜’ 강좌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강좌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강: 10 월 19 일,
전쟁과 폭력의 증대와 평화의 길, 이병욱 고려대 강사
- 2 강, 10 월 26 일,
문명의 지속과 사멸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대안,
이도흙 한양대 교수
- 3 강, 11 월 2 일,
탐욕 극대화화 도덕성 위기 시대의 불교윤리,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 4 강, 11 월 9 일,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장성우 동국대 강사
- 5 강, 11 월 16 일,
식량 및 음식문화의 위기와 채식, 사찰음식,
김현진 마지아카데미 대표
- 6 강, 11 월 23 일,
4 차 산업혁명과 문명의 지속 문제, 이도흙 한양대 교수

7 강, 11 월 30 일,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의 지
 혜, 유상호 한양대 교수
 8 강, 12 월 7 일,
 교육 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
 안,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9 강, 12 월 14 일,
 생태계 위기에 대한 불교적 대
 안,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장
 10 강, 12 월 21 일,
 사회적 소통의 위기와 불교적
 대안,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11 강, 12 월 28 일,
 문명의 지속과 정토구현의 길-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깨달음의
 사회화, 박경준 동국대 교수

대주제는 ‘문명의 지속’ 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이나
 환경파괴 등 문명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좌라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불교인문학강좌라 볼 수
 있는데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와 보니

10 월 19 일 열리는 1 강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한양대학교 인문관

311 호실입니다. 오후 7 시에
 강좌가 시작 되기 때문에
 명학역에서 4 시 반에 전철을
 탔습니다. 한양대역에
 도착하니 막 어둠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구를
 나오자마자 한양대 본관과
 마주 하는 것이 색다른
 풍경입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대학교 교정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아마 이곳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에 와
 봤습니다. 주변을 보니 온통
 젊은 사람들뿐입니다. 머리가
 반백인 자가 서 있으니 마치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로벌 시대이서일까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역 근처 우동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니 금새 어두워
 졌습니다. 인문관은 산
 꼭대기에 있는 듯 합니다.
 한양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에 오르듯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마침에
정상에 서니 저 아래 세상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교수가 있는데

제 1강은 이병욱 교수의
‘전쟁과 폭력의 증대와 평화
의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의 이름과
동명(同名)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름이 같아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욱 교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어느
비구비구니스님부터
개인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니다.
요즘은 카톡시대라 이곳 저곳
카톡방에 초대 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자료 잘
받았습니다”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보내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에게 동명임을 설명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동명의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몇 차례 통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동명의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전쟁관에 대하여

한시간 강의에 사오십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포된
유인물 내용을 보면 경전을
근거로 하여 불교의 평화관과
불교의 전쟁관을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본 것은 ‘불교의
전쟁관’입니다.

불교의 전쟁관은 어떤 것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병욱교수는
‘대살차니건자소설경’을
근거로 불교의 전쟁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주를
보니 ‘대정장 9권,
338하’라 되어 있습니다.
일본 신수대장경에 실려 있는
대승경전입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을 보면
마치
‘병법서(兵法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급적 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어적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외교나 무력의 과시를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만은 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겨야
합니다. 경에 따르면 승리하기
위한 보병전술까지 소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병사를 전진
배치하여 두려움을 내지 않고
용감히 전쟁에 임해야 함을
말합니다.

전쟁하다 죽으면 지옥간다

불교와 전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비의 종교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승경전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서는
전쟁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 되어 있지만
초기경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윳따니까야 ‘전사의
경(S42.3)’ 이 있습니다.
왕년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존장은 부처님에게
전쟁터에서 죽은 자는
‘전사자의 하늘’ 이라는
천상에 태어나는지 물어
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존장이여, 전사가
전쟁터에서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면 그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구타하거나 결박하거나
절단하거나 박멸하거나 없애
버려야 한다.’ 는 생각 때문에
이미 저열해졌고 불우해졌고
사악해졌습니다. 그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자를 적들이
살해하여 죽인다면,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전사자의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S42.3,
전재성님역)

한마디로 전쟁하다 죽으면
지옥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뜻밖의
말을 들은 존장은 몹시 당황해
합니다.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전사자들만이 간다는 천상에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긴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던진 말이 충격으로
다가 왔던 것입니다. 전쟁하다
죽은 자는 ‘지옥’ 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요심없이 전쟁할 수 없다

전쟁은 증오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전우가 쓰러져 갈 때 극도로 흥분하여 적을 살상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전쟁광(戰爭狂)들은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광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적을 발견했을 때 먼저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증오심에 가득 차서 살인을 하고 증오심으로 죽어갑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어 가는 자들이 전사의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마음에서 서로 죽이고 죽기 때문에 전쟁하다 죽으면 전사자의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전사자의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살생(不殺生)’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살생의 가르침은 전쟁터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라’ 라며 전쟁터로 향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불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가르침을 따르자니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없고, 국방의 의무를 따르자니 가르침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일까 신라시대 원광법사는 살생유택이라 ‘살생을 가려서 하라’ 고 했습니다. 이런 계율은 그때 당시 시대가 요청한 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쟁없는 평화의 시대는 가능할까요?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분노

지구촌 곳곳에서는 끊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큰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은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분노도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친구한테 화를 내면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과 싸우면 다시는 오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를 책임 지고 있는 자가 분노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갚따라니까야에서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길을 따르네.” (A4.70) 라 했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소멸되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익을 취하려는 순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움은 증오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싸우고, 증오심으로 전쟁을 하면 남는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없고 약탈이 없고 가시덤불이 없는, 변영하고 풍요하고 안온하고 평온하고 위해가 없는 대륙을 다스리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을 사용한다.” (D30)

디가니까야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에 실려 있는 가르침입니다. 칼이나 몽둥이 등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담마위자야(Dhammavijaya)’라 합니다. 가르침의 승리 또는 가르침의 정복을 뜻합니다.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

담마위자야는 오로지 정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원전 3세기 전인도를 통일한 아소까대왕은 담마위자야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을 말합니다. 아소까대왕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천명했습니다.

첫째, 온 세상을 전쟁없는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
둘째, 전쟁에 의한 정복이
아닌 담마에 의한 정복을
이루기 위해
셋째, 이웃나라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넷째, 세상의 평화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아소까, 일아스님)

아소까대왕은 정복왕으로서
무력에 의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칼링가전투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으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오로지 행복과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역사서 디빠왕사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온전한
84,000 가지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매 가르침을 존경하여 한
가지의 가르침에 하나의
승원을 즉 84,000 개의 승원을
세우겠다.” 라고 발원한
것입니다.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소까대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담마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까지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담마에
의한 정복을 천명한 것은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아소까대왕은 8 만 4 천개의
마을에 8 만 4 천개의 승원을
짓고 곳곳에 바위칙령을
세우고 전세계로 담마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위칙령에 13 호에 써 있는
것처럼 “담마에 의한 정복을
가장 훌륭한 정복이라고
생각한다.” 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라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널리
세계구석구석까지 빈틈 없이
퍼졌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담마위자야(Dhammavijaya)
즉,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입니다.

2017-10-20
진흙속의연꽃

2. 역류도(逆流道)의 삶에 대하여, 눈부처학교 2

“나 자신을 변화하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박병기 교수가 한 말입니다.
박교수는 정의평화불교연대 ‘눈부처학교’ 세 번째 강좌에서 ‘탐욕의 인류문명과 불교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교원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윤리학자 박병기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윤리에 대하여 강연했습니다. 탐욕으로 이룩된 인류문명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정평불
눈부처학교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한양대 인문관
311 호실에서 저녁 7 시에
시작됩니다. 이번에
참석함으로써 세 번째 입니다.
개근을 하고 있는 범우님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총
11 강좌가 있는데 끝나는 날은
12 월 28 일 목요일입니다.
가급적 완주를 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서 정리할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상은

박병기교수는 강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일상’ 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직업으로서 교단에 서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이년도 아니고 수십년 교단에 섰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박병기 교수는 달변입니다. 강연 내내 청중을 휘어 잡으며 끌어 가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준비한 프린트가 14 페이지에 달하지만 말로서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노트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대중 앞에 서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직업과 관련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해서 개발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20 년간 입니다. 전공에 맞게 회로설계를 하고, 회로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인쇄회로기판 설계를 합니다. 또 기판에 부품을 삽입하여 납땜하고 특성검토를 합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이상이 없으면 양산합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 대부분을 기계 앞에서 보낸 것입니다.

개발자로서 셋톱박스를 20 년간 개발 했습니다. 이후 12 년은 일인사업자로서 삶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설계(PCB)업입니다. 동시에 ‘블로거’로서 삶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 년 동안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생이 교단에서 쓰는 것이 일상이듯이, 블로거에게 있어서 일상은 글쓰기입니다.

중산층의 삶에 대하여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날이 그날처럼 보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어제 같은 삶입니다. 이런 말은 어법에 맞지 않지만 큰 변화없이 사는대로 살아 가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박병기교수는 “생각없이 살면 사는대로 산다.”라 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구족해 보이는 중산층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병기교수는 교사들의 연수에 강사로 자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매우 안정된 직장이라 합니다. 더구나 부부가 교사인 경우 재벌 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직업이 교사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생활 사오년만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고용은 보장 되어 있고 은퇴후에는 연금이 보장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중산층의 삶을 사는 자일수록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끌려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다.”라든가,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생각 없이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시원찮게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욕망의 바벨탑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불과 삼십년만 하여도 현재와 같은 풍요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에 살 때 호롱불
키고 살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원시시대를 산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대낮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석연료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래 자원이
고갈되든 말든 흥청망청
소비하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풍요에서일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자원은 점차 고갈되어가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구나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폭탄으로 인하여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세대가 지나면 과연
인류가 생존가능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이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명에 대하여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하늘을
날아 다니는 거대한 비행기,
길고 긴 다리와 터널 등을
보면 작고 보잘것 없는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문명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더
편리하게, 좀더 빠르게, 좀더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정신문명도 동시에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화려한 물질문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은 욕망의 바벨탑이기
쉽습니다. 욕망이 투영된
물질문명은 자본주의로
정착되었습니다. 물질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자본주의
역시 더욱 더 강화 되어
마침내 1%가 대부분을 가져
가는 1대 99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인공지능으로 대표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0.1%대
99.9%의 세상이 될 것이라
합니다.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반대로
‘디스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해법이 있다!

물질문명은 발달했지만
정신문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나 사상은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래학자들은 동양의
종교와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프리츠포 카프라’는
동양사상이 미래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동서양의 석학들
역시 21세기에는 불교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제까지 수 많은
사상과 종교가 출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큰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이루어진 물질문명
사회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구 달리는 탐욕의
기관차를 멈추게 하려면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이나
사상, 종교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만이 유일한
대안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 박병기 교수는
‘철학으로서 불교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와

‘멈춤(止)과
통찰(觀)수행’으로 세계관을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안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윤리학자라 불리우는
피터싱어는 ‘선호공리주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된다.’라는 소극적 원칙이
아니라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따른 적극적 원칙을 말합니다.

피터 싱어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실용 윤리의
전문가이며 선호 공리주의와
무신론의 관점을 가지고
윤리적 문제에
접근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자본주의
논리를 윤리화 한 것이라
하는데, 피터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는 좀 더 보완된
것이고 좀더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대
99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점차 자본주의가 강화
되는 시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와 멈춤과
통찰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으로서 불교

박병기교수는 현재사회와
미래사회의 대안으로서
불교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떠나 몸과
마음을 충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친 듯이 달려 갈
것이 아니라 옆도 볼 줄 알고
멈추어서 뒤도 돌아 볼 줄
알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연쇄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멈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폭주하는 듯한
앙굴리말라에게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M86)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못삶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M86)라며 폭력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폭력대신 ‘욕망’ 이나 ‘분노’
등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멈추면 보인다’ 는
사실입니다. 마치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자에게
자신이 이전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이것이
사마타입니다. 또 멈추어서
관찰하면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위빠사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춤과 통찰을 말씀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입니다.

수행은 먼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을 위한 충전이라기 보다
욕망을 내려 놓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욕계를 탈출하려면 욕망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멈추고
통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와
멈춤과 통찰수행이 일상에
과고 들었을 때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병기교수는 ‘철학으로서
불교’ 라 했습니다.

종교로서 불교

철학으로서 불교가 있다면
 ‘종교로서 불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업’과
 ‘업의 과보’로 설명되고 더
 나아가 ‘내세’와 ‘윤회’의
 가르침으로도 설명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종교로서
 불교’를 말합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업의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외도와 논쟁을 하여
 연기법으로 논파하는데
 바탕에는 행위와 행위에 대한
 과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못살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이다.” (M135)라 했고,
 “수행승들이여, 과거세의
 거룩한 님, 올바른 원만히
 깨달은 님이었던 세존들도
 업을 설하고 업의 과보를
 설하고 정진을
 설하였다.” (A3.135)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사람이 업을 지으면, 어떠한
 업을 짓든 간에, 그는 그
 상속자이다.” (Thag.144)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의
 가르침을
 ‘업자성정견(業自性正見 :

kammassakata-
 sammāditthi”’이라 합니다.

업자성정견을 ‘세간적
 정견’이라 합니다. 반면에
 멈춤과 통찰에 따라 욕계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은
 ‘출세간적 정견’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세간적 정견은
 철학의 범주로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것은 내세와
 윤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세간적 정견에 대한
 것으로 종교로서 불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정견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도 말씀 하신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나는 올바른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번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어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올바른 견해가 있고,
 수행승들이여,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경지에 드는
 올바른 견해가 있다.” (M117)

두 가지 정견이 있는데 하나는 번뇌가 있지만 공덕행을 하는 정견이 있고, 또 하나는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정견이 있음을 말합니다. 전자는 업자성이 정견이라는 세간적 정견이고, 후자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는 출세간적 정견을 말합니다.

세간을 살아 가는 자들에게는 세간적 정견이라 일컬어지는 업자성정견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보시를 하면 과보가 따른다’는 등의 ‘공덕행’으로 요약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하고 지계하면 생천(生天)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세세생생 윤회하는 삶을 살지만 가급적 선업공덕을 짓고자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로서 불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봅니다.

역류도(逆流道: paṭisotagāmi)

욕망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욕망의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욕계의 중생은 욕망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전법하는 것을 포기하려 한 것도 욕망과 정반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거슬로 올라가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묘한 진리를 어둠에 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보지 못하네.” (S6.1)라 하여 전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계승에서 “흐름을 거슬로 올라가는”라는 말은 ‘역류(逆流)’를 말합니다. 욕계에서는 모두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욕망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역류도(逆流道: paṭisotagāmi)’라 합니다.

물질문명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인류는 위기를 느낍니다. 한정된 자원을 마구 써 버렸을 때 후대에 남겨 줄 유산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을 때 최대한 즐기는 살고자 합니다. 그 결과 자연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자꾸만 오염되어 갑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서양의 성장일변도의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를 창세기에 실려 있는 “더 생육하고 번식하라! 땅을 차지하라! 다스리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이를 창세기에 따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구가

폭발해서 발디딜 틈 없이
 늘어난다고 해도 창세기
 명령대로라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자연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땅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라 하여 성장과
 소비를 부추기는 듯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욕망을
 부추기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식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식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류도의 삶입니다.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철학적 범주에 넣는다면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와
 같은 근본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멈춤과 통찰이라는
 명상수행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선근공덕이 있는
 소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다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 삶을 살아 갑니다.
 명상수행과 같은 적극적 삶의
 방식을 살아 가는 사람들은
 드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업과
 업의 과보라는
 업자성정견이라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위에 대한 과보’ 의
 가르침입니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설령 이 생에서
 못받는다해도 다음생에서
 받습니다. 다음생에서
 못받으면 후생에서 받습니다.
 한번 지은 행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상수행을 통하여 세계관을
 재구성할 수도 있지만 업의
 가르침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세간적 정견과 세간적 정견,
 그리고 철학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 모두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2017-11-03
 진흙속의연꽃

3. 기본소득제가 대안이다, 눈부쳐학교 3

매주 목요일은 한양대 가는 날입니다. 인문관 311 호실에서 인류문명의 지속과 불교적 해법에 대한 강연이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밝히는 총 11 강 중에서 네 번째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동국대 장성우 교수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빈곤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는 총 14 페이지에 달합니다. 프린트물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연 타이틀이 말해 주듯이 키워드는 ‘빈곤’입니다. 먼저 빈곤은 실상은 무엇인지,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빈곤극복의 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빈곤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하루에 1.25 달러로 살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에서 보는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삶의 조건”으로 정의됩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자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이 줄어 들었을 때 빈곤하다고 느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부의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는 미국 전체 가계소득의 19.3%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가계소득의 22%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를 내버려 둔다면 1%대 99%사회가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서 0.1%대 99.9%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부의 불평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촌 상위 1%의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나머지 전 인구의 재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상위 부자 8명이 전 세계인구 중

소득 하위에 50%에 해당하는 36억명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0.1%대 99.9 프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되어 하위층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부의 불평등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의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제가 대안이다

빈곤하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의 능력문제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장애가 있을 때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산업화가 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그것도 ‘신자유주의’입니다.

무한경쟁 했을 때 정신적으로 월등한 자 그리고 자본이 많은 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라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장이 멈춘 시대에 일자리가 없는 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내버려 둔다면 커다란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 했을 때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소득제’입니다.

흔히 일한만큼 벌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게 된다면 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진 자에게만 복지혜택이 돌아 간다면 직장을 잃은 자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장기간 노는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 개념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공평하게 일정금액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매월 천만원을 번 자에게 소득의 50%인 5 백만원을 세금을 내게 하고, 5 백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40%인 20 만원을 세금을 내게 하고, 150 만원을 번 사람에게는 30%인 50 만원을 세금을 내게 합니다. 총 걷힌 세금은 750 만원입니다. 이를 세 명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250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250 만원씩 공평하게 지급하면 천만원 버는 사람은 750 만원의 수입이되고, 5 백만원 번 사람은 550 만원, 150 만원을 번 사람은 350 만원이 실소득이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소득이 늘어납니다. 더구나 가난한 자는 번 돈 보다 기본소득제로 가져 가는 돈이 더 많아 생계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기본개념으로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두가 승리(Win-Win)하는 제도입니다. 미래는 기본소득제가 빈곤문제의 해결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제 개념은 획기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일정금액을 마치 월급의 기본급을 지급하듯이 국민모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은 시대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성장의 시대에 만들어진 복지시스템이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시대에는 들어 맞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인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뜨거운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일까 장성우 교수는 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연대를 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

기본소득제는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된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한
시대가 요청한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자나 세금을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일정금액을 차별 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제는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수록 불교에 해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성우교수는 개별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개별적
차원입니다.

빠알리니까야야라 불리우는
초기경전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해법이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은
깨달음에 대한 것이나 수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경제에 대한 것입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번 것을 자신 보다
치지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 없이 내 놓았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빈곤의
개별적 해법에 대하여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올바르게 벌어서 올바르게
써야 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앙굿따라니까야
‘알맞은 처리의
경(A4.61)’에 있습니다.

“장자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완력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로 다섯
가지 헌공, 즉 친지에 대한
헌공, 손님에 대한 헌공,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헌공,
왕에 대한 헌공, 신들에 대한
헌공을 합니다. 이것이 그
재물을 세 번째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알맞은
처리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A4.61)

부처님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에 대한 헌공은 오늘날 세금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진 자라면 이웃과 주변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자의 의무이자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빈궁한 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불교적 해법이 있습니다. 장성우 교수는 장아함 ‘전륜성왕수행경’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정의롭게 통치하는 전륜성왕은 ‘외롭고 늙은이나 빈궁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온갖 사악한 것으로 넘쳐 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가니까야 ‘전륜왕 사자후의 경(D26)’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법으로 전세계를 정복한 전륜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재물을 훔친 자들 용서해주고 오히려 잘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후대로 감에 따라 이런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서 재물없는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빈곤이 늘어났다. 빈곤이 늘어나자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났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나자 무기가 늘어났다. 무기가 늘어나자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늘어났다.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늘어나자 못살들의 수명도 줄어들고, 용모도 퇴락했다. 못살들의 수명도 줄어들고, 용모도 퇴락하자 수명이 팔만사천 년이었던 인간은

자손대에 와서 사만 년이 되었다.” (D26)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고 장애를 가진 자나 능력이 부족한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월하고 부자인 자들이 이들을 내버려 둔다면 정의로운 사회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법으로만 통치하는 전륜왕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흠치는 자에게 오히려 재물을 주며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복지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또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같은 것입니다.

경에서는 몽둥이와 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배가 고과 담을 넘은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 했을 때 악순환이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하여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았을 때 오계를 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가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무기가 늘어나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마치 오늘날 신자유시대의 빈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연대해야 하는가?

빈궁한 자는 구제되어야 합니다.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무능력자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베푸는 삶이 요청됩니다. 팔의 힘과 이마의 땀으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물을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도개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우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과 국가와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이고 보편적인 진리[正法]인지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국제질서를 창출하여 계기를 마련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장성우 교수)

장성우교수에 따르면 빈곤은 신자유주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제약없이 무한경쟁한다면 많이 가진 자나 능력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두었을 때 모두 과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불교적 해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소육지족의 삶과 베푸는 삶이고 국가적으로는 빈곤한 자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서 불교적 평등주의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성장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등주의입니다.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이럴 때 불교적 해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등주의’입니다.

불교는 평등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윳따니까야에 따르면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멸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S7.9)라 했습니다. 고급전단나무를 멸감으로 한 것이나 소똥을 말려 멸감으로 한 것이나 불이 불습니다. 어떤 멸감이든지 화염과 광채, 그리고 빛깔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가촉천민이라도 가르침을 접하면 사쌍팔배의 성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불교의 평등사상은 상가(saṅgha)에서도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가는 사성계급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불가촉천민이라도 상가에 들어가면 모두 평등합니다. 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밧디야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희 싸끼야 족들은 교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발사 우빨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출가시켜주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싸끼야족들의
싸끼야족 교만이 제거 될
것입니다.” (울장소품 7 장
참모임 분열의 다발, 여섯
명의 싸끼야 족의 출가)라
했습니다. 왕족이나 이발사나
상가에서는 모두 평등함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더 이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가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한계 내지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안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잘 사는
평등사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단이 상가입니다.
상가가 비록 수행자
집단이기는 하지만 소족지족과
베푸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과 자비로운 삶 등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공동체가
대안입니다. 이제 시대는
자본주의에서 평등주의를
요청합니다.

2017-11-11

진흙속의연꽃

4.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 눈부처학교4

맛을 알고부터

이 세상은 맛을 알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판 창세기라 볼
수 있는 디가니까야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D27)’에
따르면 맛의 갈애로 인하여
남녀가 생겨나고, 맛의 갈애로
인하여 계급이 생겨 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맛의 갈애로 인하여 업을 짓고
업의 과보로 인하여 세세생생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의 갈애는 어떻게
시작 되었을까요?

디가니까야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D27)’에 따르면 맛의
갈애 대한 극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극광천에서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극광천(abhassara)은 색계 2 선천에 있는 천상으로서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경에서는 “그들은 거기서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로서, 기쁨을 먹고 지내고, 스스로 빛을 내고, 허공을 날며, 영광스럽게 오랜 세월을 산다.” (D27)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쁨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는 색계 2 선천이 희열과 행복과 평온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하늘의 존재도 공덕과 수명이 다하면 어떤 세상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미얀마속담에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 라는 있다고 하듯이 윤회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광스런 존재가 아래 세상으로 떨어짐으로써 공겁기가 끝나고 성겁기가 시작 됩니다. 가장 먼저 왔으므로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를 창조주라 여깁니다. 나중에 태어난 자들은 먼저 와 있는 자에게 “이 존귀한 자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다.” (D1)라며 창조주로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 먼저 태어난 자를 보았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D1)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겁기가 시작되었을 때 남자도 여자의 구분도 계급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들이 땅이 있는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땅조각 하나를 입에 대 보았습니다. 일종의 땅조각 쿠키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이 있었다.” (D27)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기쁨을 먹고 살던 존재가 최초로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알게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맛있는 땅조각을 손으로 맛보자 그것에 매료 되어 갈애가 그를 엄습했다.” (D27)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맛을 알아 버리게 되자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맛의 갈애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혀 끝에 놓인 것만으로 칠천

개의 미각신경이 퍼져나가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되어
갈애가
생겨났다.” (Smv865)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맛을 알아버린 존재는
맛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맛있고 달콤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에
탐닉할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용모는 거칠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생에서
빛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허공을 날며 기쁨을 먹고 살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맛에
탐닉하다 보니 몸은
무거워지고 용모는
추악해졌습니다. 마침내
남자에게는 남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특징이 나타나 남녀가 구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에 대한
갈애는 성적 갈애로
전개됩니다. 경에 따르면
“그러자 여자는 남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탐애가
생겨났고 몸이 달아 올랐다.
그들은 몸이 달아 올라
성적교섭을 행했다.” (D27)라
되어 있습니다. 맛에 대한
갈애가 마침내 성적갈애로
전개된 것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갈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두 욕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근원을
따져 가면 맛의 갈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맛을
알고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맛에 대한
갈애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욕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깊고 그윽한 육욕우동의 맛

맛에 대한 갈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우동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양대
앞에 있는
‘가조쿠우동’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찾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불교인문학 강연 참석에 앞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육욕우동으로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찾은
것입니다. 얼큰하고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깊고 그윽한
맛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먹어 보면 알 수 있다.’ 라
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런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평불 다섯 번째 강연을 듣고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다섯 번째 강좌는 맛에 대한 것입니다. 사찰음식전문가 김현진 대표의 ‘식량 및 음식문화의 위기와 채식, 사찰음식’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김현진대표는 오신채를 쓰지 않는 다는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와 ‘마지아카데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저녁 7시에 한양대 인문관 311호실에서 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열리는 불교인문학강좌입니다.

사찰음식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박람회에서 본 사찰음식은 보통불자가 보기에는 매우 고급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스님들이 정말 저렇게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기만 없을 뿐 진귀한 식재료를 사용한 사찰음식을 보면 ‘황제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종 사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비구니스님들의 법문을 듣습니다. 한결 같이 말하는 것은 사찰음식이 수행의

한방편이라 합니다. 그러나 불교박람회에서 본 왕의 식탁과 같은 사찰음식을 떠올렸을 때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찰음식은 고급요리로서 보통불자들은 근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입니다. 불자들이 접하는 사찰음식은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서 얻어 먹는 ‘비빔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 김현진대표의 강연을 듣고 음식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마지 김현진 대표는 ‘사찰음식과 채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스크린 자막으로 띄어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그런 김현진 대표는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와 마지아카데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종교음식전문가와 살림큐레이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밥상

김현진대표는 먼저 채식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김현진대표가 말하는 채식은 한마디로 ‘생명밥상’이라 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과 평화의 밥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염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불교로
 말한다면 불살생의 원칙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일
 잔칫날이고 매일 파티날과
 같습니다. 식탁에 고기가
 끊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과
 삼사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치킨(Chicken)지옥’이라
 불리울 정도로 치킨이 상품화
 되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 내듯이 공장식
 축사에서 상품처럼 출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킨(닭)은
 엄연히 생명입니다.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즐겁게
 즐기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육식을
 즐깁니다. 수백명이 식사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고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고기가 끊긴다면 항의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잔칫날이고 매일매일 파티날과
 같은 식탁입니다.

채식을 생명과 평화의
 밥상이라 합니다. 고기가 들어
 가지 않고 채식으로 이루어진
 식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백질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재료이든지 미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소는 풀만 먹고도 몸집을
 거대하게 불러 갑니다. 이는
 “소는 풀만 먹지만, 풀을
 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고, 그 미생물이 발효한
 산물들을 소화, 흡수해서
 단백질과 같은 필요한 양분을
 얻는다. 풀만 먹는 소가
 몸무게 500kg에 이르는
 덩치로 자라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풀만 먹는 소는
 미생물을 먹고 덩치가 커졌다,
 미디어붓다 2016-03-28)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채식만으로도 단백질이 공급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콩이나
 된장과 같은 식재료가 좋다고
 합니다. 된장이 들어간 밥상은
 생명과 평화의 밥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에 대하여

매일매일 판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몸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에서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면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합니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것을 먹지 않음을 말합니다. 양념을 넣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 마늘이나 파와 같은 자극이 심한 식재료를 쓰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리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 합니다. 요리하는 자가 탐심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리과정이 수행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 역시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현진 대표는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인드풀이팅’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아차라면서 음식먹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띠(sati)하는 것이 행주좌와어묵동정간에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먹을 때도 사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이팅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미 검색어로서 등록 되어 있습니다. SBS에서는 ‘마음챙김먹기, 마인드풀이팅(Mindful Eating)’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3일 방송을 탄 바도 있습니다. 주로 다이어트에 대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마인드풀이팅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언제 먹어야 하고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라 했습니다. 음식을 단지 허기를 채우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풀이팅은 ‘스님들의 식사법’이라는 책의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티벳한 스님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접할 때 관하고
음식을 씹을 때 관하는 식으로
마인드풀이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맞은 분량을 안다는 것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합니다.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노동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세 끼는
기본입니다. 농촌에서는
새참으로 하여 오전과 오후에
두 번 먹기도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다섯 끼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간식을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 없이 입을
놀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먹는 것은 맛에 대한
갈애 때문일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고기와 술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식탁의 기름진 반찬을 접했을
때 먹는 재미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고기를
먹었을 때 자연과 환경은 파괴
되고 자원은 고갈됩니다.
그래서일까 일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자동차가 500 만대 운행을
하지 않는 효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구달여사’가 기후변화를
염려하여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것도 좋은 예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인드 이팅과 같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음식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양곳따라니까에서 세 가지
원리로 설명했는데 “ 1)
감각의 문을 수호하는 것, 2)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3) 깨어 있음에 철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지키면 “번뇌를 부수기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얻는다.” (A3.16)라 했습니다.
여기서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bhojane
mattaññu hoti)’는 것은
마인드풀이팅과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외동아들 라훌라에게도
“선한 친구와 사구어라. 인적
없이 외딴 곳,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라.” (stn.339)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음식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고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식사할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새로운 괴로움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 것이다.’ 라고 깊이 성찰하여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식사할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A3.16)

부처님은 음식을 대할 때 놀이나 사치 등으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즐기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S35.239)라 하여 몸에 기름칠 할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적당량을 청정한 삶을 이루기 위해 수행의 차원에서 먹어야 함을 말합니다.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누군가 음식을 즐기며 먹는다면 고기와 술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삶의 낙인 사람이라면 먹는 재미로 살 것입니다. 맛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니들이 이 맛을 알아?” 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맛의 갈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맛에 탐닉 하는 자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원히 욕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계를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또 괴로움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본래 빛으로 된 몸을 가지고 허공을 날아 다니며 기쁨을 먹고 영광스럽게 사는 존재들이 어느 순간 맛의 갈애를 알게 되어 맛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끼만

끓어도 죽을 듯이
괴로워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자들은 다른
것도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욕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대로
살다 보니 세세생생 윤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음식에
적당량을 아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식을 대할 때 아들고기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의
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
부모와 죽은 아들고기를 먹을
때 맛을 즐기며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가타에서
‘브라흐마닷따’ 존자는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아들의 고기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라.” (Thag.445) 고
했습니다.

푸드마일리지가 짧은 것을
먹어라

수행자라면 고기를 접할 때
아들고기를 접하는 심정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로 연명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는 맛으로 자양분으로 먹지
말고 아들고기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발전통이 사라진
동아시아에서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식위주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금하는
범망경 계율도 절에서 음식을
해 먹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합니다.

마지 김현진 대표의 강연을
듣고 채식과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불자들이 생각하는 사찰음식은
‘비빔밥’ 이나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님들은
황제식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교박람회나 사찰에서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사찰음식은 전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가
짧은 것이라 합니다.
푸드마일리지가 가장 긴 것이
어류라 합니다. 먼 바다에서
우리들 식탁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방부제 처리
등을 하여 독소를 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오래
보관된 고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철에 주변에서 나는 것이라
합니다. 사찰 뒷산이나 앞의
밭에서 채취한 나물이나
채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재래시장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보다 동네
입구에서 제철에 나는 나물과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좌판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내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매일매일 된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된장국에는 호박,
버섯 등 제철에 나는 온갖
식재료를 투입합니다. 특히
동네 좌판의 할머니 것들을
팔아 줍니다. 고작 이삼천에
불과하지만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는 할머니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팔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8 개월 지속했더니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음식전문가이자
살림큐레이터인 마지 김현진
대표에 따르면 채식을 통하여
“내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 했다는
사실입니다.

채식을 하여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먹는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나 고기반찬,
그리고 음주를 다반사로
한다면 몸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일상화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했을 때 몸이
신호보내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둔한 몸이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채식으로
몸을 민감하게 만들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캐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대표의 사찰음식과
채식에 대한 강연을 듣고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막행막식(莫行莫食)’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행자라면 음식을 수행의

측면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1) 감각의
문을 수호하는 것, 2)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3)
깨어 있음에 철저한
것” (A3.16)라고 세 가지
조건을 말씀 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2017-11-17
진홍숙의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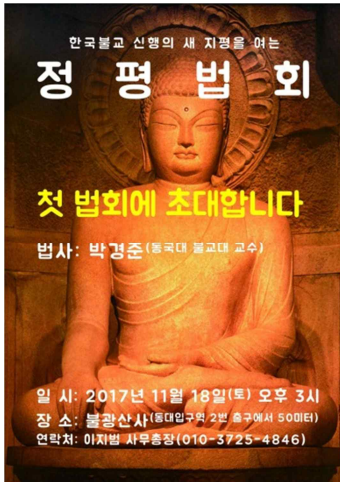
5.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평불 창립법회

평온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이지만
일인사업자에게는 주말이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밤낮없이, 주말없이, 휴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날 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일인사업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이 글쓰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말 없이 일터에 나와
자판을 두드립니다.

정평법회에 초대받고

정평법회가 처음으로 11 월
18 일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주최한
최초의 여법한 법회라 합니다.
대만불광산사의 서울분원이라
볼 수 있는
서울불광산사법당을 빌어
개최한 것입니다.
서울불광산사는 장충동에
있는데 지하철 3 호선 동대역
입구인 태극당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정평법회에 초대 받았습니다.
정평불회원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회원들과의
안면도 있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11 월 18 일
토요일 오후 3 시 불광산사
지하법당에서 입니다.
정평불이 생겨난 이래 첫
법회라 합니다.



교계신문에서는 ‘승려타락
보다못해 시민 법회
창립’이라는 타이틀이
실렸습니다. 부제로서는
‘정평불, 박경준 교수 초청
18일 첫 법회’라 했습니다.

정평법회에 대하여 시민법회라
칭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즉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법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계신문에서는 ‘스님 없는’
법회라 했습니다.

정평법회에서는 왜 스님없는
법회라 했을까요? 취지를 보면
“계율을 어긴 권승들로 이루

어진 범계 카르텔이 너무 견고
하고 스님들 타락과 범계가 극
에 달해 종단이 변화할 가능성
이 거의 없다. 정평불은 종단
바깥에서 청신한 재가불자 중
심으로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 법회
는 스님 없는 시민법회이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님 없는 시민법회가
열렸습니다. 지도법사는
박경준교수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동국대불교학과
교수입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일년 남겨 놓고 있는데 40년
가량 학생들과 스님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평법회에서 매월 법문하는
것으로 그 동안 쌓은 공덕을
회향하겠다고 합니다.

법회는 여법(如法)하게

정평법회는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를
법당으로 선택한 것도
여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범계승이 판을
치는 한국불교 현실이고 또한
스님 없는 법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절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광산사가 비록 대만절
소속이기는 하지만 한국불교가

본 받아야 할 요소도 많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람은 약 40명 가량 됩니다. 주로 정평불회원이지만 박경준 교수와 인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법한 법회를 지향하는 정평법회에서는 ‘명종(鳴鐘)’을 타종하는 것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모두 다섯 번 타종했습니다. 커다란 싱잉볼(Sing bowl)의 여운이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명종에 이어 네 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향을 사르고, 차(茶)를 올리고, 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이후 삼귀의, 자비경봉독, 발원문낭독, 입정, 법문 순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명종 이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천수경 독송도 있었습니다.

법회 식순 자료는 이도흠교수가 준비 했습니다. 법회를 앞두고 문안을 우리말로 다듬고 프린트를 하는 등 밤을 세워 준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식순자료를 보면 삼귀의가 절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보에 대한 것입니다.

삼귀의에 대하여

정평법회에서 삼귀의는 “거룩한 불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보에 귀의합니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한글삼귀의문을 보면 승보에 대하여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삼귀의문에서 승보를 ‘거룩한 스님들’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경준교수에 따르면 삼귀의문은 본래 ‘귀의불양족존(歸依佛兩足尊) · 귀의법이욕존(歸依法離欲尊) · 귀의승중중존(歸依僧衆中尊)’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글삼귀의문으로 바뀌면서 승보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평법회에서는 “거룩한 승보에 귀의합니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평법회에서 불보, 법보, 승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寶)’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보배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삼보를 의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 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삼보가 왜 피난처일까요?
그것은 ‘귀의한다’ 라는 빠알리어 사라나(saraṇa)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빠알리 예경에서 삼귀의(ti-saraṇa)는 “붓당사라낭갓차미 (Buddham saraṇam gacchāmi), 담망사라낭갓차미(Dhammam saraṇam gacchāmi), 상강사라낭갓차미(Saṃgham saraṇam gacchāmi)” 라 합니다. 여기서 귀의한다는 뜻의 사라나에 대한 빠알리 사전을 보면 ‘protection; help; refuge; a shelter.’ 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의’ 하는 뜻이지만 원문을 보면 피난을 뜻하는 ‘refuge’ 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귀의에 대하여 ‘The 3-fold Refuge’ 라 합니다.

왜 피난처라 하는가?

영어로 된 삼귀의문을 보면
“I take my refuge in the Buddha! I take my refuge in

the Dhamma! I take my refuge in the Saṃgha!” 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삼귀의문에서는 분명히 ‘피난처’ 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보에 대한 것을 보면 “I take my refuge in the Saṃgha!” 라 하여 “나는 상가안에서 상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삼귀의문에서처럼 ‘스님들께’ 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삼보가 피난처인 것은 상윳따니까야 ‘자신을 섬으로의 경(S22.43)’ 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S22.43)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섬으로’ ‘가르침을 섬으로’ 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섬(dīpa: 島)’ 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윤회의 바다에서 섬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여섯 가지 감역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각에 대해서는 시각의

바다라 합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을 건디어 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님이라고 한다.” (S35.238)라
 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시각이라는
 바다에는 상어와 나찰 등이
 가득해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섬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신을 섬으로’
 ‘가르침을 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윤회의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삼보라 하여 불자들은 귀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피난처’입니다.
 영어에서와 같이 “I take my
 refuge in the Buddha!” 라
 하여 “나는 부처님 안에서

부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 하는
 것입니다. 정평법회에서 불,
 법, 승에 대하여 보배로 보아
 불보, 법보, 승보라 하여
 피난처로 삼는 것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불교시민단체를

정평법회 지도법사 박경준
 교수의 법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청법가와 같은 식순은
 없었습니다. 여법하게 법회를
 하긴 하지만 한국불교의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준교수는 제일성으로
 “제대로 된 불교시민단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현실과 현장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창립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도흠 교수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정평불이 생겨난 것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이 있은 후부터라 합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큰 이슈이었는데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열띤 세미나 등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문수스님이 분신하자 그 정신을 이어 받고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오늘날 정평불이 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정평불에서는 자승스님의 재선을 막기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도흠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삼보일배, 성명발표, 촛불 등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보았다.” 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불교적폐청산에 대하여 촛불법회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승스님 보다 더 허물이 많은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이 됨으로써 이제 승가에 대한 미련은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가의 개혁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재가자들 만이라도 여법한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정평불 슬로건은 “우리가 우리불교를 만든다” 입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이번에 처음 열린 정평법회라 합니다. 그 동안 6 회제를 맞는 ‘정평불 눈부처학교’와 더불어 이번에 창립법회까지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재가불교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가자들만이라도 여법하게

한국불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활동가들과 불교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정의평화불교연대라 합니다.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문수스님을 따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 졌는데 적극적으로 현실참여 했다고 합니다. 유신과 오공시대에 목숨을 걸고 치열한 투쟁을 한 불교활동가들과 교수 등 불교지식인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고 있는 눈부처학교에서는 마치 불교인문학강좌와 같은 강연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여법한 법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사 법회다운 법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재가단체에서 세미나도 하고 법회를 열게 된 것은 오로지 스님들의, 스님에 의한, 스님을 위한 스님들만의 불교로 전략해 버렸기 때문이라 봅니다. 권승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재가자들만이라도 여법하게 살 수 있는 불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탄생된 것이 정평법회라 볼 수 있습니다.

대중공사방식을 따라서

박경준교수는 법문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는 개인적 수행에 갇혀 있음을 비판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가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경전에서 보는 승가공동체의 장점을 도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만장일치제입니다.

초기승가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첫 법회에서도 대중공사방식을 따라서 만장일치제를 도입했습니다.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박수를 치는 식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대중공사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구성원들을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불교공동체가 반드시 승가공동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승가공동체가 무너진 한국불교 현실에서 여법한 재가공동체가 탄생한다면 승가공동체는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재가불교공동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체 만 체 하며 오히려 더욱 더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했을 때 이를 깨는 방법은 승가공동체보다 더 여법한 재가공동체를 만드는 수 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음성공양 ‘민아 민아’

박경준교수의 법문이 끝나고 간단한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음악인 조현덕님의 음성공양입니다. 범능스님의 ‘민아 민아’입니다. 박경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현덕님은 박경준 교수의

동생인 ‘박문옥’ 님과 활동을
같이 해 왔다고 합니다.
박문옥님은 ‘직녀에게’ 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연합뉴스에서는 박문옥님께
대하여 ‘한국의 밥 딜런’ 이라
소개 되어 있는데 포크 가수겸
작곡가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야보살 조현덕님이 부른
범능스님의 ‘민아 민아’ 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현덕님은 국악풍의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고한
범능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국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범능스님은 정세현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음악과 국악을
접목하여 수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아 민아 백성민아” 라고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아 민아 백성민아
꽃이 피는 춘삼월에 비 올
바람 몰아치니,
민아 민아 백성민아
바람이 불면 일어나고 비가
오면 젖지 마라.

민아 민아 백성민아
새가 우는 오뉴월에 비 올
바람 몰아치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참된 세상
찾아가세.”

백성을 민초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풀은 밟아도 다시
일어나듯이, 백성들은
짓밟혀도 다시 일어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라 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눕는
풀과 같습니다. 백성을 잘
살펴 주면 바람처럼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억압하고 짓밟으면, 마치
짓밟힌 잡초가 다시
일어나듯이 폭정에 시달린

민초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하여 “바람이 불면 일어나고” 라 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오후 3 시부터 시작된 최초의 정평법회가 5 시에 끝났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과 자기소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취지로 창립된 정평법회가 순항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도법사 박경준교수의 말대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가능할 수 없을 정도가 될지는 지켜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첫 발을 내 댔다는 것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여법’ 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평법회에서 시종 강조된 것은 ‘여법(如法)’ 입니다. 여법이라는 말은 ‘법답게’ 라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난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법이라는 말은 ‘정의롭게’ 라는 말과도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초기경전에서 법답게, 여법하게, 정의롭게

라는 말은 ‘dhammena’ 또는 ‘dhammika’ 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Justly, righteously’ 의 뜻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라 번역됩니다. 여법과 관련하여 테라가타에서는 “여법하지 못한 삶과 여법한 죽음이 있다. 여법한 죽음이, 여법하지 못한 삶보다 낫다.” (Thag.670)라 했습니다. 이 계송에 대하여 명진스님은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불의에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라 번역하여 범문한 바 있습니다.

만일 통치자나 성직자가 정의롭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양곳따라니까야 ‘정의롭지 못함의 경(Adhammikasutta)’ 에 따르면 “해와 달도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된다.” (A4.70) 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길을 따르네.” (A4.70) 라는 계송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의롭지 않을 때, 즉 법답지 않을 때, 또는 여법하지 않을 때 해와 달의 운행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의 운행이 바뀌면 지진,

태풍, 해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여법하게 살지
않는다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여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법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가르침(Dhamma)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살면
평화가 찾아 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면 열반이 실현되듯이,
정의롭게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와 평화는 지혜와
자비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평법회 발원문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정평법회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취지는 발원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원문 신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

(발원문)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한
불보와 법보, 승보에
귀의하오니 크나큰
자비원력으로 보살펴지이다.

발원재자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법우들은

오늘 첫 법회를 맞아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바르지 못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서
욕심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어
지은 업장을
한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만을 밝혀야 하거늘,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망상에 휘둘린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라도 더 베풀고 나누어야
하거늘,
제 것을 더 불리는 데만
골몰하고
남의 것을 탐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고운 말로 모든 이를 기쁘게
해야 하거늘,
나쁜 말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
내고
거짓과 꾸밈말로 타인을 속인
잘못을 참회합니다.

아무리 낮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처럼 섬겨야
하거늘,
제 욕심과 이해관계대로
부리고 억눌러

마음과 몸을 괴롭힌 죄를
참회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참고 또
참아야 하거늘,
제 뜻과 마음에 맞지 않고
제게 이롭지 않다고 화를 낸
잘못을 참회합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거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음욕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지 않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온 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님처럼 존귀하거늘,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모든
생명을
돌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
잘못을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첫 법회를 시작하는 오늘
발심의 미약함을 마음 깊이
돌이켜
참회의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리니,
저희들의 참회를 받아들여
주시옵고
일체 어둠을 밝게 비춰
저희 정평불이 가는 길을 환히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랜 동안 쌓인 죄업이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앞으로는 모든 욕심과
어리석음, 성냄이 사라지고
오로지 진리만을 밝히고
모든 중생을 부처처럼
섬기어서
부처로 이끌고 저희도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정의평화불교연대 정평법회
발원문)

2017-11-19
진흙속의연꽃

6. 자본의 폭주를 멈추어야, 눈부처학교 5

이번 주 정의평화불교연대
불교인문학 강좌는 이도흙
교수의 ‘문명의 지속과
불교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눈부처학교
개강 때 강연하려 하던

것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뒤로 밀린 것입니다. 이번 총 11강에 달하는 불교인문학 강좌의 총론적 성격을 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이룩한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지속될 수 없다면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즐겨 보는데

인문학 강좌를 즐겨 봅니다. 주로 EBS에서 봅니다. 감명 깊게 본 것은 포항공대 이진우 교수가 강연한 ‘니체, 신이 죽은 시대를 말하다’입니다. 또 서강대 최진석 교수의 노자강연도 유익했습니다. 요즘은 케이블 채널에서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나 설민석님 등 이 시대의 달변가들이 벌이는 말의 향연을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상식이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볼 거리가 많습니다. 보고 나면 노트를 하고 반드시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누구에겐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합니다.

인문학 강연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그거

들어서 뭣에다 써먹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욕락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돈도 되지 않는 강연을 듣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시간 낭비, 정력낭비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습고 배부르니 할 짓이 없는 모양이다”라 말할지 모릅니다.

대부분 오욕락을 즐기며 살아 갑니다. 저녁 시간 TV에서 먹방을 본다든가, 한상 거하게 차려 먹고 마시는 것에 낙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문학강좌는 돈도 안되는 일에 올인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보고 듣고 쓸 뿐입니다.

백만분의 이(二)의 가능성을 보고

문명은 지속될 것인가? 거대한 담론입니다. 마치 말롱끼야뽀따가 ‘우주는 유한한가, 우주는 무한한가?’라며 물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잘 살고 있음에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염려 하는 것에 대하여 돈도 안되는 일에 몰두 한다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에 걱정하는 자들은

기후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온 정열을 바쳐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나비의 작은 날개 짓에 불과할지라도 카오스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연(緣)이 되어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위지교수에 따르면 자신은 수험생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백만분의 이(二)의 가능성이라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고시생 등 ‘성원정사’와 인연 맺은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가능성이라 합니다. 비록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백만분의 이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조건(緣)으로 하여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카오스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4 차 산업혁명에 자본이 결합 되었을 때

정평불 6 차눈부처학교 여섯 번째 강좌는 이도흠 교수의 문명의 지속과 불교적 해법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 인류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담론입니다. 이런 의문은 4 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삶든 4 차 산업혁명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은 체제가 유지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입각한 자본주의가 4 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계속 된다면 문명의 종말은 물론 인류의 종말로 귀결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도흠 교수에 따르면 4 차 산업혁명시대가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와 결합 했을 때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소수의 자본가들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1%대 99%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4 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0.1%대 99.99%의 시대가 되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 합니다.

영화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2014 년)를 보고

4 차 산업혁명시대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 자본이

결합되면 더욱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케이블 영화채널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 영화 중에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2014 년)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침에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채널을 돌리다가 시선이 고정된 것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류의 장르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다운로드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기억은 살아 있는 강인공지능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려한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네트워크에 투입하여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에이아이(A.I)관련 영화를 보면 미래는 비관적입니다. 강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을 때 호모사피엔스는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공급되면 영원히 사는 기계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미래에는 호모사피엔스시대가 가고 새로운 반인간반기계와 같은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것이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지금 당장 멈추어야

영화에서 보는 미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공통적으로 거대자본의 개입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자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을 말합니다. 탐욕의 자본가가 마치 봉건 영주시대처럼 로봇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전자조작 등을 하여 생명을 무기로 갖는 자본가도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4 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여전히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면 디스토피아, 지옥이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도훈 교수는 강연에서 ‘여기서 멈추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머지않아 사멸하거나 인조인간이나 디지털인간으로 대체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종점을 내다보며 일단

멈추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
했습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멈추어서
옆도 보고 뒤도 돌아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멈추라고 했습니다.
연쇄살인마 양굴리말라에게
“양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M86)라 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미쳐
날뛰는 살인마에게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양굴리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부처님이
“양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못삶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
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M86)라며 멈추기를 말한
것입니다.

폭주하는 자를 쉽게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신통을 행사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그때
세존께서는 초월적인 힘을
행사하여 홍적 양굴리말라는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M86)라고 했습니다.
양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힘껏 내달렸지만
마치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하듯이 제자리 걸음만 한
것입니다.

연쇄살인마 양굴리말라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양굴리말라는 예전의
양굴리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성자가 된 양굴리말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는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M86)

멈추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잘
보입니다. 양굴리말라는
멈추고 통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라 했습니다.
멈추어서 대상이 집중 했을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선정을 닦아라.” (Dhp.371)라 했습니다.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보이면 관찰하게 됩니다. 멈춤(止)과 통찰(觀)입니다. 그것은 생겨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입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Dhp.372)라 했습니다.

일곱 개의 태양의 출현했을 때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에서는 1994년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나 원자력 등에 의존하여 마구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지구는 뜨거워져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라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기경전을 보면 우주가 뜨거워져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일곱 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A7.66)’이 있습니다. 우주의 괴겁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괴겁기가 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뜨게 됩니다. 당연히 대지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태양이 차례로 났을 때 물이 말라 버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하늘에 여섯 개의 태양이 출현했을 때 이 세계는 불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곱 개의 태양이 출현했을 때는 이 세상이 소멸되는데 “버터나 참기름이 불이 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듯이” (A7.66)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하여 “이 산의 제왕인 수미산이 불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는다.” (A7.66)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형성된 것들은 무상(無常)하기에

우주가 괴겁기(壞劫期)가 되면
 “불꽃이 바람에 날려 하느님
 세계에 까지 이른다.”
 (A7.66)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세계는 범천을 말합니다.
 전조는 하늘에 두 개위 태양이
 뜨면서부터 시작 됩니다.
 하늘에 일곱 개의 태양이 떴을
 때 우주는 검댕이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색계 3 선천 까지
 소멸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합니다.
 마치 마음이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유정물이
 생노병사(生老病死)하듯이,
 우주 역시 성주괴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제행무상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곱 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을 설할
 때에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견고하지 않고,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불안정하다.” (A7.66)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은 우주도 때가 되면

소멸될 것임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은 “수행승들이여, 그러한
 일체의 형성된 것들에서
 싫어하여 떠나야 하며,
 사라져야 하며, 해탈해야
 한다.” (A7.66)라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열반에 들라는 것입니다. 설령
 완전한 열반에 못들더라도
 색계 4 선천 이상에 태어나면
 우주의 성주괴공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삼계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색계 4 선천 중에서도 아나함,
 즉 돌아 오지 않는 자들이
 간다는 정거천입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 탐욕과
 성냄이라는 거친 번뇌가
 소멸되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오하분결)이 풀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완전한 열반에 듭니다.

정거천은 삼계 중에 가장
 수승한 천상입니다. 무엇 보다
 일겁마다 성주괴공하는 우주로
 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괴겁기가 되면 색계 3 선천
 까지 모조리 파괴되어
 소멸되는데 색계 4 선천인
 정거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한 것임을 알아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했을 때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일겁을 주기로 생성과
파괴를 거듭합니다. 성겁기가
되면 색계 초선천 천상부터
생겨나 차례로 지옥까지
형성됩니다. 반대로 괴겁기가
되면 지옥부터 소멸되어
차례로 색계 초선천까지 파괴
됩니다.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과학의 이론과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
되었지만 어느 시점 부터는
수축하여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이를 빅뱅과는 반대로
‘빅크런치(Big Crunch)’ 라
합니다. 또 하나는
‘엔트로피법칙(Entropy’s
law)’ 입니다. 닫혀진 계
내에서 엔트로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기 때문에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겨난
우주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는 ‘생겨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부처님의
제행무상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빠알리니까야 논서이자
수행지침서라 볼 수 있는
청정도론에 따르면 우주가
파괴 되는 것에 대하여
‘겁화(劫火)’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했을 때
우주가 파괴되는 겁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치성하면 불에 의해 색계
초선천까지 파괴되고, 성냄이
치성하면 물에 의해
색계 2 선천까지 파괴되고,
어리석음이 치성하면 바람에
의해 색계 3 선천까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환자들이 간다는 색계
4 선천은 겁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어 현재처럼
자본이 개입 되었을 때 이는
탐욕이 치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치성하면
겁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에
의해서 지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만약 폭주하는
자본주의를 막지 못하면
지구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탐욕스런 자본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이도흠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재현의 위기에 현혹되지 않고
여실지견(如實知見)하게 실제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며 권력과 자본에 옳게 맞서야 한다.

둘째, 자본의 논리가 4차 산업혁명의 생산과 분배를 관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법, 제도,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본주의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셋째, 생명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정치에 맞서서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생명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탐욕적인 자본이 더 이상 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자본이 개입된다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하여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해체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미래 자본주의 대안이 공동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공동체의 삶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도흠 교수는 ‘눈부처’로 설명합니다. 이는 “서로 눈동자에서 눈부처를 바라보고 자신의 동일성을 해체하고 무아와 무상을 진정으로 깨달아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를 섬겨서 부처로 만들 때 비로소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로 설명됩니다.

좀 불편하게 좀 가난하게 살자

인류문명은 지속할 수 있을까? 거대한 담론입니다. 말풍끼야뻐따가 ‘세상은 영원한가 무한한가?’와 같이 고민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관심 밖에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단하게 하루 하루 사는 자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자들에게는 속된 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등 미래의 사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만 사는 세상이라면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마구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또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마구 에너지를 써 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손 들은 형편 없는 조상이 물려준 형편 없는 유산으로 비참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럴 때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일 것입니다.

좀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마구 써 버리고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는 좀 더 불편을 감수하며 좀 더 가난하게 살면 후손들에게는 좀 더 나은 자연과 환경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서 옆도 보고 뒤도 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멈추면 통찰이 일어납니다. 멈춤과 통찰입니다. 멈추어서 보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실제(Real)’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실재가 일치했을 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2017-11-24
진흙속의연꽃

7. 왜 생명에 간섭하려 하는가, 눈부처학교 6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

죽음은 은폐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생명의 환희로 가득하지만 죽어 가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꽃은 피었을 때 주목 받지만 시들면 아무도 쳐다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아무도 모르게 죽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장례식장에서조차 은폐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보려면 중환자실에 가야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현실과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이 세상은 아픈 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죽어
가는 자들을 보려면
호스피스병동에 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법구경에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Dhp129) 라는 계송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어가는
자의 얼굴에서 너 자신을
보라.” 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중환자실에
또는 호스피스병동에 누워
있어야 할 운명입니다.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 과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정의평화불교연대 눈부처학교
강연을 들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양대인문관 317 호실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목요강연은 7강으로 한양대
의대 유상호 교수의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의
지혜’ 입니다. 제목이 말해
주듯이 키워드는

‘간섭’ 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간섭’ 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명치료’ 입니다.

유상호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망자는
24 만명 가량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약 75%인 18 만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가
1,500 명 가량이라 합니다.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한번
산소호흡기가 부착되면 함부로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1997 년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 이
시발이라 합니다. 담당의사가
가족동의하에 산소호흡기를 떼
주었으나 또 다른 가족에게
고발당하여 징역 1 년을
살았는데 이후 절대 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보라매병원사건 이후로
산소호흡기를 함부로 뗄 수
없었습니다. 호흡기를 떼면
처벌 받기 때문에 가족도
의사도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에 대하여 ‘의료집착증문화’ 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9 년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상호교수는 ‘역사적 판결’ 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뱉 수 없었던 호흡기를 이제 가족들 동의만 있으면 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까지 10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내년 2 월이 되면 연명치료는 완전히 중단 될 것이라 합니다.

죽을 권리도 없는 시대

유상호교수의 강연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주어진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 몰입했습니다. 유상호교수의 강연을 들으니 의료기술의 역사는 ‘생명간섭의 역사’ 처럼 보여집니다. 생명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간섭으로 인하여 인간은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신장투석기 등도 생명연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 날 가망성이 없는 ‘비가역적(非可逆의)’

상태의 환자에게도 억지로 생명을 연장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호흡기를 부착하면 누구도 뱉 수 없을 때, 이를 달리 말하면 죽을 권리도 없음을 말합니다.

요즘은 죽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죽어 가는 중환자에게 각종 연명장치를 부착했을 때 죽는 것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명치료에 대하여 유상호 교수는 ‘생명에 대한 간섭’ 이라 했습니다.

생명간섭의 역사

생명에 대한 간섭의 역사는 19 세기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동종요법이라 하여 각 나라마다 전통적인 의료법에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 같은 것입니다. 19 세기 이후부터는 이종요법으로 바뀝니다. 동종요법이 열에는 열로 대응하는 식이라면, 이종요법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종요법이든 이종요법이든 생명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간섭입니다. 특히 장기가 망가졌을 때 생명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연장은 현대의학 발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장기를 살리기 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질병의 원인에 대한 대상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장기를 제거 하는 것입니다. 맹장염 수술 같은 것입니다. 유방암이 걸렸을 때 유방을 절제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장기에 붙어 있는 암을 제거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암은 제거 되지 않습니다.

암은 세포 어디엔가 숨어 있어서 재발합니다. 숨어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한 대상이 세포가 되었습니다. 세포조직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암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차츰 차츰 미시화, 극소화 하다 보니 마침내 유전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암치료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생명연장을 위한 현대의학은 장기, 조직, 세포, DNA 순으로 극소화 되었습니다. 암의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니 마침내 유전자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암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음을 밝혀 낸 것입니다. 그 결과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장기를 만들어 낸다든가 ‘유전자 가위(CRISPR)’를 이용하여 유전자 조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생명연장에 대한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간섭입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쓰는 비용

생명에 대한 간섭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연명치료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구 가지 경우 모두 엄청난 금액의 돈을 필요로 합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환자의 경우 죽기 하루 전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죽기 일주일전에 사용하는 의료비용이 일생동안 쓰는 것 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들어 가는 비용은 가족들도 원치 않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생명간섭입니다. 다행히도 내년 2월 부터는 더 이상 연명치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면 완전히 연명치료가 중단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간섭 두 번째는
장기치료입니다. 장기치료를
위하여 유전자조작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장기가 망가지면 죽는 것으로
알았으나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대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하면 떠 오르는
인물이 황우석박사입니다.
그런데 유상호교수에 따르면
설령 황우석 교수가 논문조작
스캔들에 말려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아줄기세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 사이에
성체줄기세포와
배반포줄기세포기술이 개발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손상된 장기 조직이나 세포를
대체하거나 생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기존 항암치료는 실패했다

항암치료 하면 연상되는 것은
‘대머리’ 입니다. 항암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까지 죽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2억개의
세포가 매일 생성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를
죽여 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빈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유상호 교수는
기존의 항암치료 방법에
대하여 ‘웃기는 연구’ 라
합니다.

이제까지 항암치료는 ‘어느
사람에게 적용 해 보았더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이
잘 잡히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설령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숨어 있는 1%가 증식하면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항암치료 방식에 대하여
‘실패 했다’ 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항암치료라 합니다. 숨어 있는
1%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면역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숨어 있는 1%의 암을
면역시스템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 하여 항암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면역항암제
‘옵디보(Opdivo)’ 라 합니다.

생명이 자본과 결합 되었을 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집념은 자본주의와 결합 될 때 탄력을 받습니다. 생명산업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 될 때 자본이 집중 투입되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면역항암제’ 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현재 함암치료의 정점에 있다고 합니다. 옵디보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6%라 합니다. 이는 기존의 5%와 비교하면 월등한 것입니다. 옵디보에 대하여 유상호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항암제가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거나 그 성장을 억제 하는 것이라면 옵디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PD-1 수용체에 작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일본 오노약품공업이 미국의 BMS 와 함께 개발한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폐암 항암제입니다. 가격은 100mg 당 200 만원인데 1년간 치료 받는데 1 억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옵디보가 판매된지 첫 해 매출이 1조

5 천억이라는 사실입니다. 3년 후 매출이 12 조원에 이를 것이라 하는데 현재 오노약품공업의 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3 년도 안되어서 이정도 라면 얼마나 큰 돈을 벌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명산업에 자본주의가 개입한 것입니다.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는 스님에 따르면 어느 중환자는 “내가 왜 죽어야 해?” 라며 살고 싶은 의지를 드러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비가역적 환자에게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막대한 의료비용이 투입됩니다.

생명에 자본이 개입되면 인간장기를 밀매 하기도 하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또 생명연장을 위하여 고가의 항암치료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항암치료제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모두 생명연장을 위한 생명간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간섭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유상호 교수는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불로장생과 불멸을 꿈꾸는 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이 잘못된 인식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유상호교수)

‘불로장생’ 과 ‘불멸’ 이라는 말이 눈길을 끄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일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상, 락, 아, 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된 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탐, 진, 치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실체없음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더러운 것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A4.49)라 했습니다.

탐, 진, 치로 살 때 신선처럼 살고 싶은 불로장생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된 가치관은 여실지견(如實智見)하면 사라집니다.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보았을 때 불로장생과 같은 허황된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못삶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stn575)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이
간접하다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자본이 개입되면
‘괴물(Chimera)’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생명산업이
자본주의와 결합했을 때
생명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조작하고 간섭했을 때
인류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탐욕에 바탕을 둔
생명에 대한 간섭은 멈추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정말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사(不死: amata)의
가르침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5)

2017-12-01
진흙속의연꽃

8. 인정질서가 확립되면 분배질서도, 눈부처학교 7

인정질서와 분배질서, 이 두
가지 단어는 박병기 교수가 한
말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눈부처학교 강연에서
들었습니다. 12월 7일 저녁
7시 한양대 인문관
317 호실에서 박병기 교수는
‘우리의 교육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사(師)자 들어가는 직업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師)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의사, 판사, 검사,
판사, 교수 등 우리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한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직 공무원, 교사
등도 사(師)자 대열에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오피니언리더들입니다.
모두 기득권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질서’라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박병기교수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인정질서는 심하게
왜곡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끼리 모여 살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새로운 카스트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들끼리
적절한 분배구조까지 갖춘
것입니다.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말하는 완벽한
복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예를
든다면, 한번 공무원이 되면
고용보장, 신분보장,
연금보장이라는
‘삼중축복(三重祝福)’ 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한국에는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카스트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스트에는 소위
사(師)자 들어가는 직업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만의
리그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건고한 기득권층이
된 것입니다.

사(師)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자에 준하는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른바 자산가들이나 재벌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왜곡된 인정질서’ 라
합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실붕괴 현상을 보며

교육학자 박병기 교수에
따르면 요즘 공교육은 붕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위
스카이(SKY)대학에 들어 가기
위하여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다 보니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현상
때문이라 합니다.

미국은 공교육은 붕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로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케이블채널에서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교사는 학생들의 놀이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영화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생활비를 대며 외롭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모두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된 미국에서 더 손해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립학교에 보내자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실도 미국의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보통입니다. 인정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학생은 수업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르친다고 떠드는 것에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50 대 교사가 10 대 학생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충격적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국 영화에서 보는 교실붕괴 장면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교육은 고통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삼중축복(三重祝福)의 혜택

한국에서 인정질서와 분배질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정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 되다 보니 수업시간에 대부분 잠을 자거나 수업시간에 학원공부를 하는 등 교실붕괴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정질서와 올바른 분배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인정질서에 편입되고자 합니다. 소위 사(師)자 불은

직업을 선호 하는 것입니다.
사(師)자가 되지 못하면 돈을
벌어서 사(師)자에 준하는
인정질서에 편입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정질서에 편입되고
나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천년
만년 해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야말로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의
욕망이 투영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인정질서에 들어 가면 평생
동안 그 지위를 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권한이
있는 자들이 그자신들 미래를
위하여, 자신들 노후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공무원연금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이
법은 저성장기 내지 마이너스
성장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낸 것의 세 배 가량
타고 그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타가는 것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공무원연금은
유산처럼 ‘상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법을 집행하고,
그들이 법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
대부분이 ‘공시생’입니다.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은
정의로운 분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질서에 속하는 자들의
소위 고용보장, 신분보장,
연금보장이라는 삼중축복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각은
따가운 것입니다.

자기자신부터 떳떳해야

인정질서에 속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올바른
인정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정질서를
말합니다. 그것은 타자뿐만
아니라 자기자신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박병기 교수는 다음과 같은
법구경 계송을 소개합니다.

“현명한 님이라면 먼저
자신을
최적으로 확립하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번뇌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Dhp. 158,
전재성님역)

남을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
합니다. 사(師)자 들어 가는
직업은 모두 선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師)자
들어가는 자들이 개인적
이익만 챙기고 집단이기주의만
추구했을 때 더 이상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師)자 붙은 자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자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먼저 자신을
최적으로 확립하고” 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주석을 보면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고귀한
가문의 처신을 실천해야
한다.” (DhpA. III. 142)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이
수행승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스승 사자 붙은
직업에 가진 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욕지족하는 자가 있다면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스스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타로부터 인정 받았을 때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인정질서에 포함 된다면
비난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권고하는 자격을 확립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고통에 빠진다.”
(DhpA. III. 142)라 했습니다.

교단에 서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인은 물론
자신도 인정했을 때 몇몇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기득권자들 즉,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부자, 자산가, 재벌 등 소위
인정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자들은 무엇 보다 자기자신에
대하여 몇몇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소유의 행복은

작년 촛불항쟁에서 국민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층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땅의
오피니언리더들이자 선생의

위치에 있던 자들의 추악한
면모가 여지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르침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괴로운 자는 이 괴로움이
어서 끝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위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이 타자의 고통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행복만을 추구했을 때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분배에 대한
요구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에 대하여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 (A8.54)이라
했습니다. 근면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재산에 대하여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의 행복은 ‘베푸는데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푼다.”
(A8.54)라 했습니다. 진정한
소유의 행복은 베푸는데
있습니다.

인정질서가 확립되면 분배질서도

인정질서에 편입된 자들은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자타가 인정하는
진정한 인정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협력이 요청됩니다.
이에 대하여 박병기 교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라 했습니다.

사회복지망을 촘촘하게 깔아
주었을 때 분배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제’ 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신자유시대의 1%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인정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인정질서와 분배질서, 이 두
개의 개념은 대립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입니다.
인정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

소육지족의 허물 없는 삶을
추구할 때 타자에 대한 공감과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정질서가
확립되면 분배질서도
확립됩니다.



2017-12-08
진홍숙의연꽃

9.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자, 12월 정평법회

두 번째 정평법회가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재가활동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주최하는 재가자 중심의
법회입니다. 그렇다고
스님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법회입니다. 다만 승단의
개혁에 한계를 느껴
재가자라도 여법하게 가르침을
따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회입니다.

재가자들이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 했을 때 승단은 되돌아
보게 될 것입니다. 승가보다
더 여법하게 가르침을 따랐을
때 사부대중을 각성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승가내부에서도 여법하게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승가가 출현하는 계기를
이끈다면 법회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율이 없는 불교는 사상누각

한국불교는 여법하지 않습니다.
승가는 계행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
된 듯합니다. 진주선원
원담스님은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의해 침탈될
당시 한국불교는 거의 전멸

상태에 있었다. 교학과 수행이
미미하게 전해져왔으며 계율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교학이란 것도 한문경전의
해석이 전부라 체계적인
불교를 이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다.
수행이란 것도 중국에서
전해진 참선이 전부인데다
그것조차도 전승이 희미해졌다.
계율은 아예 언급할 정도도
아니라 수계하는 계단자체가
불완전했다.

우리에게는 선각자 스님들이
없었는가? 일부 몇 스님이
있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큰
스승처럼 교학과 수행을 다
갖추고 국민적 지지를 받은
분이 하나도 없었다.
용성스님이나 만해스님,
석전스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
세계불교의 동향을 조금 눈치
채긴 했지만 몸소 해외로 나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접하지 못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유의
폭도 한자문화권을 넘지
못했다.

한국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승가를 재건하지 못했고,
불교의 전통을 중흥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일본불교의
국가주의적, 세속적인
대처불교에 물들고 말았다.

제일 아쉬운 점은 울장에
의거한 여법한 계단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는 계율이
없다. 있다고 주장한다 해도
유명무실하다. 그러니
한국에서 불교를 중흥하자,
불교를 정화하자, 승가를
청정하게 하자고 주장해도
모두 사상누각이다. 왜냐?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국민적 지지와 감시아래
승가가 울장대로 재건되고
운영되지 않는 한 한국불교는
계정해 삼학에서 다리가
부러진 절름발이 불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담스님,
섬세일기 2017년 가을-8,
2017-11-26)

원담스님에 따르면
한국불교에는 계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율이 없는 불교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억불숭유정책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법하게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계행은 지켜 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속에서
그것도 한자문화권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불교에서 계율이

없는 불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구승들의 행태를 보면 승인지 속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불교는 사실상 반승반속입니다. 반승반속은 승에서도 배척받고 승에서도 배척받습니다. 마치 화장터에서 타다만 나무토막처럼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한국불교가 중흥하려면 먼저 계단부터 새워야 합니다. 출가자들이 먼저 계행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계학이 굳건해야 그 다음 단계로 정학과 혜학으로 나아갑니다. 계행이 없는 불교는 무늬만 불교일 뿐 불교가 아닙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일생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처님 그 분이 누구인지, 부처님이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포대기에 아기가 보이지 않듯이, 한국불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없습니다.

제가자들이 여법(如法)하게

승단에 실망하여 제가자들이 여법하게 봉행하는 법회가 정평법회입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평화’가 키워드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법답게’ ‘여법하게’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광의로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법답게 살아서 열반을 실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일까 이번 정평법회의 주제는 ‘이고득락(離苦得樂)’입니다.

정평법회에서는 재가자가 법문합니다. 법문은 스님이 하거나 법사 자격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배의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합장하고 반배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달 셋 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정평법회입니다. 12월 17일에 열린 두 번째 정평법회에서는 이도흠교수가 법상에 앉았습니다.

이도흠교수는 준비된 자료에 ‘모두를 위한 이고득락의 길’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실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3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스님들 법문을 보면 자료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주제와 관련이 없는
신변이야기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받아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법문의 경우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이도흠교수는 법문할 때
자료를 보지 않고 말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읽는 식이라면
그다지 전달력이 약할
것입니다. 글로서 정리 하기
위해 자료를 읽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자비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변으로 눈을
돌림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깨닫고 난 다음
중생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는 만큼 능력 것
알려 주는 것도 하화중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비커밍(inter-becoming)에 대하여

이도흠교수의 법문 중에 눈의
떠는 말이
‘상호생성자(inter-
becoming)’입니다. 이 말은
존재(being)와 대응되는
말입니다. 나혼자만 잘 살려

한다면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아에 기반을 둔 감각을
즐기는 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추구하면
할수록 갈증만 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에
집착하여 마치 ‘스토커’ 처럼
달라 붙어 욕망을 채웠다면
‘뒹, 별거 아니네’라며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향해 갈
것입니다.

욕망의 속성을 아는 자는
욕망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에 기반한 자의
욕망은 신기루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환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을 위하여 목숨을 걸 듯
살아갑니다. 오로지 오감에
따른 감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남는 것은
‘허(虛)’와 ‘무(無)’ 일
것입니다.

갈애는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감각에 목숨을 걸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망을
잠시 내려 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자 되겠다는
욕심하나만 내려 놓아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옆도 보고 뒤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자비의 마음도 생겨 나게
됩니다. 욕망을 내려 놓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도흠교수는 비잉(being)과
인터비커밍(inter-becoming)을
말했습니다. 비잉에는 서양의
실체론적 사고에서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정태적인(static) 존재로
파악합니다. 반면에
인터비커밍은 인 간존재를
연기론이거나 관계론적
사고에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서로 깊은 연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맺고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는
역동적(dynamuc) 존재로
파악합니다. 나와 너가 서로
한 몸처럼 생성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비커밍에 대해서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를
생성하는 상호생성자라 했고
이를 ‘눈부처’라 했습니다.
눈부처란 서로 눈을 바라
보았을 때 서로의 눈에
상대방이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홀로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말합니다.

인터비커밍은 연기적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서로를 보듯이 어느 것
하나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연기를
뜻하는 빠알리어
빠뎃짜사뭇빠다(paṭiccasamupp
āda: 緣起)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paṭicca+samuppāda’의
합성어입니다. 빠뎃짜는
‘concerning’의 뜻으로
조건을 뜻하고, 사뭇빠다는
‘arising’의 뜻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연기라 하고 영어로는 간단히
‘arising’이라 합니다.

인터비커밍은
‘어라이징(arising)’이라고
도 볼 수 있습니다. 비잉이라
하면 고정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어라이징이라 하면
연기적 존재라 볼 수 있습니다.
비잉은 서양에서 생겨난
것으로 ‘명사적’ 개념이고,
어라이징은 ‘동사적’
개념으로 동양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서구적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대체로
이기적이라 볼 수 있고,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대체로 이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타적
성향에 대하여 이도흠 교수는

불과 삼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었던
‘까치밥’과
‘개다리소반’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거울신경세포체계(mirror neuron system)에 대하여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마치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영적존재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면을 갖는 인간은
때로 이기적이며 때로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도흠교수는
‘거울신경세포체계(mirror
neuron system)’으로
설명합니다.

거울신경세포이론이 발견 된
것은 1998 년이라 합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뇌도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나
동물에게는 없는 공감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 공감능력은 다른 아닌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자비심을 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도흠교수에 따르면 세친의
불성론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
말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이는
욕망의 달성이 행복인 사실과
욕망의 지멸이 열반에 이르는
길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기에 나만의
행복과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의 열반을
미루고 그들을 구제하는
실천을 행함을 말합니다.
원효대사의 진속불이와 같은
말입니다. 유마경에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라 했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초기경전에는
거울신경세포시스템을 연상케
하는 자비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공평한
자비의 가르침은 아마
상웃파니까야에 실려 있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불행의
경’에서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우리도 한 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S15.11)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자만’ 이 되기
쉽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식이 된다면
진정한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도 티내지 말고 주라는
무주상보시야말로 최상의
보시라 합니다.
한편에서는 우월감으로 주고
또 한편에서는 열등감으로
받는 다면 자비의 마음은
반감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불행과 가난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윤회의 여정에서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가난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윤회하는 중에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부유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이번에는 ‘행복의
경’ 에서 “수행승들이여,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우리도 한 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S15.11)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공평합니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지 않고, 행복하고
부유한 자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뿜기는 순간이라도

이고득락,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유래한 이
말은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감각적 즐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각적 즐거움 보다
더 즐거운 것은 이타적 행위를
했을 때 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귀가하는 자의 마음에는
잔잔한 행복이 꽤 오래
지속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채우고 나서 얻는 일시적 거친
행복이나 허무감에 비할 바
아닙니다.

이도흠 교수는 법문 말미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행복을
잡으려는 데서 고통은
시작됩니다.” 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쾌락이든
불쾌든 모든 것은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이라고 아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일까 앙굿따라니까야 ‘벨라마의 경’에서는 “학습계율을 갖추는 것 보다,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이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A9.20)라 했습니다. 또 무상과 관련하여 “학습계율을 갖추는 것이나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보다, 단지 손가락 뿜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는다면, 그것이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A9.20)라 했습니다.

안등(岸藤)의 비유

두 번째 열린 정평법회에 50 여명 가량 참석했습니다. 승단에 실망하여 승단에 각성시키고자 열린 열림법회가 정평법회입니다.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사는 법회가 정평법회입니다.

정평법회는 시종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승가보다 더 여법한 법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도흠교수의 법문이 끝나고 박경준교수의 입보리행론 강의를 짚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송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 모든 예경의 대상인 분들에게 예경 드리으며 경전에 따라 보살님들의 수행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시작되는 일종의 삼보예찬 계송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삼보에 대하여 피난처와 보배로 설명했습니다. 삼보는 단순하게 귀의처 또는 의지처라기 보다는 구월에 이르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삼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와 같습니다. 이처럼 피난처로서의 삼보, 그리고 보배로서의 삼보에 대하여 ‘안등(岸藤)의 비유’ 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불자라면 한번쯤 들어 보았을 안등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 위건 돌
틈이건 안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 곁 등나무 뿌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퉁퉁한
바닥에 시커먼 독룡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며
사방에서 혀를 널름거리는 네
마리의 독사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까,
그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쫓아온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밟아버릴
태세다.

믿을 것이라고는 가느다란
등나무 뿌리 한 줄기뿐이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끓아먹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무언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들었다. 꿀이었다.
등나무 덩굴 위에 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똑, 똑, 똑,
똑, 똑, 다섯 방울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온몸을
쏘아대고, 두 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쉼없이,
사나운 들불이 일어나 광야를
태우는 데도 그는 눈을 꼭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렸다. 다섯 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약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안등의 비유를

‘안수정등(岸樹井藤)’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만든 부처님생애에
실려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이 비유를 낳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채택된
것이라 합니다.

안등의 비유를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당시 불교선생님, 요즘
말로 교법사 선생님께서 들은
것입니다.
조용길선생님이었습니다.

연지동에 있었던 동대부중에
배정받았습니다.
교법사선생님으로부터 불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안등의 비유를 실감나게 설명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지금까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등나무 넝쿨에 매달린 자의 신세가 너무나도 구구절절하게 다가 왔습니다. 앞으로 갈수도 없고 뒤로 갈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경험한 것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알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접한 불교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접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율장대품 야사의 출가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청정하여 반점이 없는 천이 울바로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Vin.I.16)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 네 살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참사람이 되자

정평법회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충동 불광산사를 빌어 열린 법회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점차 가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50 여명 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지성들과 실천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여법하게 사는 불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훌륭한 삶입니다. 모두 안락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것도 후원금까지 내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만큼 알려 주고, 할 수 있는 한 능력껏 행하는 아름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향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향내 나는 사람은 바람을 거슬러 사방팔방으로 널리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전단향도 따라라향도 멀리까향도,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Dhp.54)라 했습니다.

한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
향내가 나고 세상이
청정해집니다. 향기가 나면
나비가 오듯이,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참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 듭니다.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했을 때
가르침에 목마른 자들이 찾을
것입니다.

2017-12-17
진흙속의연꽃

10.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사 이가, 눈부처학교8

정평불 6기눈부처학교의 열
번째 강좌는 유승무교수의
‘마음의 소통과 마음사회의
사회학’ 입니다. 제목만큼이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학에 문외한인 입장에서
마음이라는 키워드와 사회라는
핵심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한양대 인문관
317호실에서 유승무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1강을 시작으로

단 한번만 빠지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문명의 지속과
불교의 지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눈부처학교
6기 강좌는 총 11강입니다.
한국불교에서 ‘내로라’ 하는
지성들이 벌이는 불교인문학의
향연입니다. 블로그 ‘수행-
신행-봉사’ 방에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관련 카톡방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하여

유승무교수는
중앙승가대교수입니다.
승가대에서만 28년째라
합니다. 사회학이 전공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마음의
소통과 마음의 사회학에 대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서구에서는 마음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적
믿음은 고대 그리스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근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성적 믿음이 서구의 특수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동일율, 모순율, 배중률 등이 있지만 이분법은 사실상 흑백논리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서구의 이분법적 논리에 대하여 유승무 교수는 ‘폭력성’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제국주의’적 사고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승무교수에 따르면 서구의 이성관은 서구에서 발생한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아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서구의 이성관은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반사회성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성관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이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사이’가**

불교의 연기법은 이분법이나 흑백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사이’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완충지대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색깔 스펙트럼에서 중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연기법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상호관계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연기송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됩니다.

imasmim sati idam hoti.
이따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Imassuppādā idam uppajjati.
이맛쑤빠다 이당 읍빻자띠
Imasmim asati idam na hoti.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Imassa nirodhā idam
nirujjhati.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약유차즉유피 (若有此即有彼)
약생차즉생피 (若生此即生彼)
약무차즉무피 (若無此即無彼)

약멸차즉멸피 (若無此卽滅彼)

when this is present, this
comes to be,
when this arises, this
arises.

When this is not present,
this does not come to be,
when this does not arise,
this does not arise.

상웃따니까야 ‘열 가지 힘의
경(S12.21)’에 실려 있는
연기송(緣起頌)입니다. 이와
같은 짝막한 계송으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연기의 가르침을 압축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의
특징은 ‘상호의존’과
‘조건발생’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조건하여
발생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기법은 조건발생뿐만 아니라
조건소멸도 늘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조건발생하는 생멸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조건소멸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이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은
네 구절로 되어 있는 연기송이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분법이나
흑백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소위
‘유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
무엇이 있음을 말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조건(paccaya:緣)’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연결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상호작용입니다.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극복되어야

유승무교수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태극을 예로 듭니다. 태극을
보면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태극이라는
하나의 단위 안에 두개의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하여
‘연결성’으로 설명합니다.

세발술이 있습니다. 발이 세 개인 술을 말합니다. 발이 세 개인 것이 가장 안정상태라 합니다. 발이 네 개인 것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세 발처럼 안정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발로 선 것에 대하여

‘정립(鼎立)’이라 합니다. 정립은 가장 균형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두 극단만 있다면 싸움이 그칠날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두 거대 정당만 있다면 사활을 건 싸움이 끊임 없이 없을 것입니다. 제 3의 정당이 있어서 어느 쪽도 독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치와 사회는 안정될 것입니다. 이분법적 흑백논리만 있다면 사회는 각박해질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신과 타자사이에 아무 것도 없다면 늘 대립하고 반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구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아와 타자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서구의 특수한 사고방식이 전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서세동점이라는 제국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서구의 특수한 사고방식으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 대안은 동양의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극이라든가, 세발로 서는 것(鼎立)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상적으로는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분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상호의존과 조건발생, 조건소멸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기법에 양극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든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무양극단은 연기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를 말했을 때 연기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연기의 조건소멸에 따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이나 자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은 단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신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고 단멸을 주장한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누구든지 행위를 하는 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라는 연기의 조건발생에 따라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코드와 사회의 코드가 결합 했을 때

이성을 중시의 서구의 사조에 따르면 자아와 타자로 구분되는 이분법이 됩니다. 문제는 이분법은 필연적으로 흑백논리를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흑백논리로 일관하면 싸움이 그칠날이 없어서 각박해집니다. 대안은 동양적 사고방식입니다. 자아와 타자사이에 완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승무교수는 마음사회학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음양이 어우러진 태극을 연상케 하는 도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마음의 코드와 사회의 코드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코드와 사회의 코드가 결합되었을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코드에는 탐욕이 있으면 금욕이 있고, 사회의 코드에는 지불이 있으면 비지불이 있습니다. 만일 개인의 탐욕과 사회의 지불이 결합되면 과소비가 됩니다. 금욕과 비지불이 결합되면 절제가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코드와 사회의 코드는 상호침투해서 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승무교수의 마음의 코드와 사회의 코드의 결합이론에 따르면, 자아와 타자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중중무진의 결합에 대하여 유승무교수는 “서구이론 전체를 갈아 엮는 것입니다.” 라 했습니다. 이를 ‘사이이론’ 으로 설명합니다.

유승무교수의 사이이론

유승무교수가 준비한 자료는 도표를 포함하여 모두 13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많은 자료를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음과 사회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際事)’라는 말이 눈에
떨립니다. 이 말은 유승무교수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를
‘사이이론’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양자사이에서
찰라생 찰라멸 하는 사건이나
사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아 타자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작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소통이론은 자아와
타자의 절대적 이분법적
분리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동양사상은 자아와 타자의
불가분의 관계에 기초하여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실제로
동양사상의 경우, 연기법이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저것의
지시체이고 저것이 이것의
지시체이듯, 타자(인간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회이든), 타자와의 관계,
타자경험 등은 자아의
존재기반이다. 또한
동양사상의 경우, 이것과
저것의 사이의 작동에서
법계연기의 실상이 드러나듯,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동 즉
제사(際事)야말로 지금 여기의
실상을
의미한다.” (유승무교수,
마음의 소통과 마음사회의
사회학)

유승무교수에 따르면
‘중간영역은 있다’라
했습니다. 자아와 타자사이에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중무진연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드라마의
그물처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상호의존의
법계연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자는 내
존재의 조건이 되는데, 이와
같은 타자성에 대하여
‘소셜(social)’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언어보다 마음으로 말할 때

요즘은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카톡이 대표적입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자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을 하지
않을 경우 오해 하기 쉽습니다.
침묵도 대화라 하는데 침묵이

길어질 때 흔히 하는 말이
‘썩는다’ 또는 ‘썩간다’ 라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무시입니다. 답신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무시한다’ 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 이전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
있을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통하는
것입니다. 석영중 교수의
인문학 강좌 ‘톨스토이 불륜을
말하다’ 에 따르면, 안나와
브론스키의 불륜커플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말을 하며 사랑을 확인하지만,
레빈과 키티의 성장커플은
눈으로 말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진실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로서 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또 말로 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문자와 말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영역입니다. 자신타 타인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하는 매개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전달물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위기’ 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착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자와 함께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언어 이전에
마음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 사람을 잡으려면 말보다는
마음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조건입니다. 연기법에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라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조건은 ‘공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그리고 ‘배려’ 하는 것입니다.
사섭법에서 말하는
‘동사(同事)’ 입니다.

동사는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뜻합니다. 마치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잘
‘검침’했을 때, 즉 겸손하게
들어 주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유승무교수의 강연을 듣고
시를 하나 써 보았습니다.

“나와 네 사이에 사이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공간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너와 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다.
육육법에 따라 호와 불호,
괘와 불괘가 일어난다.
지은 업이 무겁고 더러우면
사이가 왜곡되어 뒤틀린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행위로 파장이 일어난다.
촘촘한 관계 그물망에
파장이 일면 우주가 재편된다.

나는 네게 가벼운 존재인가
무거운 존재인가.
함께해서 즐거운 존재인가
괴로운 존재인가.

절대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의 무게에 따라
시간이 달리 흐른다.

나의 운명은 네 운명이다.
나의 사소한 행위가
네 운명을 가른다.
나와 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

2017-12-23
진흙속의연꽃

11. 정의로운 삶을 위한 대자대비의 소신공양, 눈부처학교 9

하나뿐인 목숨인데

최근 아이돌스타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자에 대한
추모방송을 보니 자연스럽게
슬픔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는 왜 세상을 달리해야만
했을까?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숨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오랜 가르침입니다.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숨이 끊어진 자는 나무토막과도 같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생명이 다하면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거릴 힘도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큼니다. 그럼에도 전쟁광들은 “언젠가 죽을 목숨이다. 목숨을 아끼지 말라.” 라고 부추깁니다. 반면 평화를 중시하는 자들은 “오로지 한번 뿐인 목숨이다. 목숨을 경시하지 말라.” 라며 고 말합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극적인 변화가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 ‘6기 눈부쳐학교’ 마지막 강연은 ‘자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한양대 인문관에서 열린 눈부쳐학교는 총 11강입니다. 12월 28일 마지막 강연은 정평불 고문이자 정평법회 지도법사인 박경준 교수의 ‘정원스님 및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와 평가’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자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살을 아무리 미화하여도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자살을 미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하다 안되면 죽어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업과 업의 과보를 무시한 단편론적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박경준 교수의 강연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고 나서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준비한 자료와 강연을 통하여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의 행적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글이나 강연에서는 자살이라는 말 대신

‘소신공양(燒身供養)’ 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 안되니 스스로 죽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의 실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의 소신(燒身)에 대하여

정원스님은 올해 1월 7일
분신했습니다. 촛불항쟁이
막바지에 치달을 무렵 약간
소강상태가 있었습니다. 더욱
더 촛불이 거세게 일어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1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원스님은 왜 소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원스님은 왜 대중공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판론자는 수긍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신공양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수스님은 2010년 5월 31일
소신했습니다. 문수스님 역시
소신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준비된 장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존은 일찍이 중아함경에서
“만일 스스로도 요익하고
남도 요익케하며 많은 사람을
요익하게 하고 세간을 가없이
여기며 하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 이치와 요익을 구하며
안온과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이고
위대하고 높고 우두머리이고

뛰어나고 존귀하고
미묘하다.” 라고 설하신 바
있다. 요컨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틱광독 스님이나
전태일, 강희남 목사나
문수스님, 그리고 정원스님의
경우 그들은 남을 이롭게는
하였지만 자신을 이롭게
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은 그들의 죽음을
이른바 ‘자기희생’ 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삶의
가치를 수명이라는 시간의
척도로 재려고 하는 통속적인
고정관념의 산물일 수도 있다.

삶의 목적을

‘자기실현’ 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짧고 굵게’
질적으로 충실하고 값지게
사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자기실현(self-
realization)이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현실화 하는
것이며, 잠재적 능력은
근본적으로 가치 창조의
능력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은 ‘수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였고, 그러한 큰 가치를 창조한 그의 분신은 결국 ‘자기희생’이 아닌 ‘자기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수스님과 정원스님의 죽음 또한 그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온 생명을 위해 대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고 그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피적 자기파괴가 아니라 적극적 자기실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생산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들은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음직하며, 따라서 두 스님의 죽음을 우리는 ‘소신공양’ 또는 ‘대자대비’의 보살행’이라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경준 교수, 정원스님 및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와 평가, 18 쪽)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의 자살에 대하여 보살행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대자대비의 보살행’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살을 미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박경준 교수는 “필자는 지금도 누군가가 두 스님과 같이 분신하겠다고 나선다면 반대할 것이다.”라며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결행된 사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 자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희생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소신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틱광дук’ 스님이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결정한 ‘기획소신’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전태일이 분신했습니다. 역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과는 천지차이보다 더 큼니다. 이에 대하여 자리아타(自利利他)로 설명합니다.

소신을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그것이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소신한 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자기희생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다지 높게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것이 되었을 때 가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구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정원스님과 문수스님, 두 분의
스님에 대하여 생사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생사해탈했다는 것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철저하게 자기검증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자에게

생과 사를 초월한 자에게
있어서 하루를 사나 백년을
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범부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번뇌 다한 아라한은
삶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
테라가타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 (Thag.606)

자아관념이 떠난 무아(無我)의
경지인 아라한에게 있어서
삶은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지도 않고 삶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아관념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오온의 죽음은 정말
죽음이지만, 무아의 성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아인 자에게 있어서 죽음도
관념이라면 삶도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과 삶을 초월한 것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 ‘어찌
내가 오래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삶을 원하지도
않는다.’ 라고
생사일여(生死一如)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다.” (ThagA. II.257)라고
설명 했습니다.

장수축원 해 주는 이유는

아라한의 인생관은
생사일여(生死一如)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탈한 자에게
있어서 하루를 사나 백년을
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일까 범구경에서는
“불사(不死)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4)라 했습니다. 불사의 진리를 본 자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천의 품에 따르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불사의 진리와 최상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차라리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단지 구십년, 백년을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산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준 교수는 “짧고 굵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병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그래서일까 최대의 축원은 ‘장수축원’ 이라 합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축복 보다 더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경해 주는 자에 대하여 “오래 사시오. 장수를 누리시오. (ciraṃ jīva, dighamāyupālehi)” (A5.58)라며 축원을 해줍니다. 또 보시하는 자에 대하여 “장수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건강하기를! (āyuvaṇṇo sukham

balam)” (Dhp.109)라며 축원을 해줍니다.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수축원 해주는 것은 오래 사는 동안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로 잘못 살았다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여 선업(善業)을 많이 지으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연장될수록 선업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박경준 교수의 마술

불사(amata)의 진리를 맛본 자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생사가 일여이기 때문에 불사의 진리를 맛 본 자에게는 생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삶도 자신의 것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오온이 파괴 될 때 정말 죽음이 찾아 옵니다. 하지만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기법에 따른 오온의 생멸은 감지되지만 늡음, 죽음이라는 말은 단지 명칭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마술을 보여 주며 설명했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생사일여를 설명하면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라 합니다. 이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라며 묻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나(我)는 없는 것이라 합니다. 단지 인연화합에 따른 붙여진 명칭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거짓 나라 합니다. 마치 다음과 같은 계송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모든 부속이 모여서 수레라는 명칭이 있듯이, 이와 같이 존재의 다발에 의해 뭇삶이란 거짓이름이 있다네.” (S5.10)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 한다면 잘못된 의문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존재가 무엇이고, 존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등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S12.35)라 했습니다. 나나 존재라는 것은 다만 명칭만 있을 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래는 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S12.35)라며, 연기의 유전문과 연기의 환멸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미를 볼 때 내가 장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현상이 장미라는 현상을 본다라 합니다. 나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나는 단지 상호관계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태어남도 없고 늡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됩니다.

태어남, 늡음, 죽음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모두 상호관계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과 손바닥으로 바닥을 때리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불이 켜지는 것도 조건이고 불이 꺼지는

것도 조건입니다. 불은 다만 연기적 관계속에서만 존재할 뿐 불이 실체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我)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연기적 관계속에서만 존재할 뿐

박경준 교수는 생사일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실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면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맞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경(M49)’에서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망상가형 하느님(Brahma)에게 “하느님여, 나는 땅을 땅으로 곧바로 알고 땅이 땅이라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 나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M49)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연기적 관계속에서 단지 명칭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지 실체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땅뿐만 아니라 ‘물, 불, 바람, 존재, 신들, 창조주, 하느님,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승자천, 모든 것’ 에도 적용됩니다.

경에서 ‘모든 것(Sabba)’ 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명칭 붙여진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늡음, 죽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sabbassa sabbattena ananubhūtaṃ)” (M49)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죽음’ 을 대입하면 ‘죽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연기적 관계속에서 단지 죽음이라는 명칭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연기법을 아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연기적 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생사해탈한 자’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에 대하여 ‘자기검증 된 자’라 했습니다.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이 소신을 했지만 자기희생이라기 보다는, 자기검증 된 자의 행위로 봅니다. 생사를 초월한 자에게 자기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리아타의 실현으로 봅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앙굿따라 ‘화장용 장작의 경(A4.95)’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사람 가운데 최상이고 수승하고 가장 훌륭하고 훨씬 탁월하다.” (A.95)

박경준 교수는 자리아타(自利利他)행을 강조했습니다. 자리아타행은 자각각타(自覺覺他)라는

말보다 더 수승한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살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스님의 소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공양이었을 말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최상이고 수승하고 가장 훌륭하고 훨씬 탁월하다.” (A4.95)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물 없는 자살에 대하여

자살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단지 삶이 힘겨워서 사는 것이 지겨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청정한 자의 자살은 부처님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는 자살이라는 불리한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청정한 자의 자살에 한합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볼 수 있는 고디까의 자결(S4.23), 박갈리의 자결(S22.87), 찬나의 자결(S35.87)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런 자살에 대하여 경에서는 허물없는 자결, 비난 받을 수 없는 자결이라 합니다.

번뇌가 다한 생사일여인
 자에게 삶과 죽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도
 축복이고 죽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일까 우다나에서는
 번뇌를 부순자에 대하여 나의
 삶도 축복이고 나의 죽음도
 축복이다.” (Ud.45)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해탈에 이른 자에게도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의 해탈을
 이룬 자가 칼로 자신의 목을
 베었을 때 두 가지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성취했다고
 해서 이를 빠알리어로
 ‘사마시시(samasīsi)’ 라
 합니다. 임종순간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자에 대하여
 ‘시마시신(samasīsin:首等者)
 ’ 이라 합니다. 이 용어는
 주석에서 볼 수
 있는데 ‘인시설론(人施設論,
 Pug.19)에서 처음 나타나는
 단어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자살은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범부의
 자살은 죄악이지만, 성자의

자살은 죄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자살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탁발하다가
 남의 준 것을 먹다 보면
 콜레라 등 병에 걸렸을 경우
 등, 치유 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허물 없는 자에 한해서 자살을
 허용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위한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소신공양(燒身供養)

숫따니빠따 ‘화살의 경’ 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Stn.588)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자살을
 아무리 미화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자살 그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비판론자와 회의론자들은
 자살에 대하여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자의
 자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청정한 자의
 자결에 대하여 부처님도
 허용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리이타행에 따른
 대승보살행입니다.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도 실려 있는
소신(燒身)에 관한 것입니다.
생사해탈을 이룬 자의 소신을
말합니다. 이런 소신에 대하여
자리이타행이라 합니다.

박경준 교수는 숫따니빠따
‘담미까의 경’에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목인해서도
안된다.” (Stn.394)와 “남이
거짓말 하는 것을 목인해도
안된다.” (Stn.394)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불의(不義)를 보고 참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오계를 지켜야 하지만,
남이 오계를 어기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자비의 분노도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
다면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공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을 미화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자살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한
자가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비로운
보살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자살도
아니고 자기희생도 아닙니다.

자기검증 된 자의 대자대비에
따른 중생들을 위한
소신공양입니다.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의 소신이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스님의 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법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2017-12-29
진흙속의연꽃

12. 정평법회(正平法會)가 뒤킨래? 1월 정평법회

주문이 갑자기 밀려 듭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왜 일이
없지?’라며 걱정 했었습니다.
일인사업자에게 일이 생기면
밤낮없이 주말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익이 나는

곳이라면 지옥에라도 간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은 일감 주는 고객입니다.

어제는 감기몸살에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예외입니다. 약을 타 왔습니다. 그러나 주사는 맞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저항력, 면역력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에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지요.

다음날 하루 밤 자고 났더니 컨디션이 회복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맹렬하게 밀어부쳤습니다. 그리고 글도 하나 완성했습니다. 인도순례기 7편 사르나트에서의 초전(初轉)이야기를 역시 맹렬히 썼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구상 해 놓았기 때문에 자판만 요란하게 치면 됩니다. 정평법회 전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매일 셋 제주 토요일은 정평법회(正平法會)날입니다. 이번 1월 법회로 세 번째입니다. 모두 참석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개근하게 될 것입니다. 정평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오랜 만에 오더가 넘쳐서 처리 해야 하나 법회 참석하는 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정평법회는 왜 참석하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오르듯이, 법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배울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앉아서 들으면 그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는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수고스럽지 않게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다 많이 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남는 장사입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8박 9일 동안 인도성지순례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인도는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우선 기후조건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봄날씨입니다. 다음으로
초록의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춥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더욱 더 스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도의 겨울은 항상
초록입니다. 농촌에는
유채꽃이 피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인도성지에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빠알리 쉐팅을
하고 성지와 관련된 경을 읽고
명상을 했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지
안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분위기’ 일 것입니다.
정평법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평법회에는 참으로 훌륭한
님들이 많습니다.
한국불교계에서 내로라하는
오피니언이 가장 많은 모임일
것입니다. 또한 재가수행자도
많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놀이 즐기면 불선업 짓는
것이지만 법과 관련하여

모이는 것 자체가 공덕 쌓는
행위입니다. 5월에는
1박 2일로 일지암으로
순례가고, 8월에도 1박 2일로
김해 정토원에서 수련회
한다고 합니다.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중국에서
거사림불교가 승가불교와
한축을 이루고 있듯이, 한국에
청신사와 청신녀의 거사불교가
활성화 된다면 한국불교는
몰라 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정평법회에서 시발이
될지 모릅니다.

정평법회에서는 돌아 가면서
법문합니다. 누구나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배울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우고도
남습니다.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청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외 다른 것 없습니다.

2018-01-20
진흙속의연꽃

**13. 쇠망치로 쳐서 나온
불꽃처럼, 2월 정평법회**

2월 정평법회에 참석 했는데

2월 정평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2월 셋째 주 토요일이나 설연휴 관계로 일주일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할 것이라 합니다. 넷째 주 토요일은 실천법회 하는 날로서 현장을 찾아 가는 모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2월 정평법회는 그다지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법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모여야 힘을 받을 것입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 하는 등 광고를 하고 공지를 했음에도 저조한 숫자는 바빠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회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이윤이 떨어질 때 폐업을 고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이른바 ‘한방’ 이 있어서 수주만

받으면 매출이 지수곡선으로 상승합니다.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죽어 버리면 아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벤처회사 생존율이 5%도 되지 않지만 문닫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근면하게 준비 해 놓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큰 것 한방을 노리는 것처럼

여법한 예불의식과 함께 시작한 2월 정평법회는 한양여대 김광수 교수의 심회향품법문과 동국대 박경준 교수의 입보리행론 강좌가 있었습니다.

김광수교수는 심회향품 법문을 하면서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선종에서는 오로지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깨달음 위주로 되었을 때
육바라밀과 보살행을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육바라밀과
보살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들어
깨달음만을 추구했을 때 더
이상 대승불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 마치
큰 것 한방을 노리는 것처럼
깨달음에 올인 한다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인
육바라밀과 보살행을 놓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 지상주의가 한국불교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옥이 감옥인줄 모르고

박경준교수의 입보리행론
강좌는 매월 계속 됩니다.
이번 법회에서 여러 개의
계송을 소개 했는데 그 중에
9송이 있습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분들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부처님의 아들, 딸(보살)이
되어

인간과 신들에게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9 송)

윤회를 감옥으로 비유했습니다.
감옥이 감옥인줄 모르고
감옥에서 빠져 나올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송에 따르면
감옥에서 빠져 나오려면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은 자가
되면 인간과 신들의 예경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윤회의 감옥과 관련하여
박경준 교수는 ‘안동(岸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다가
우물로 숨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그네는 등나무 뿌리를
불잡고 있습니다.
우물아래에는 독룡이 있어서
내려 갈 수 없습니다.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로지 줄에 매달려
있는데 흰 쥐와 검은 쥐가
줄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 갈 수도 없어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달콤한
꿀이 똑, 똑, 똑, 똑, 똑

떨어졌습니다. 달콤한 꿀맛에 잠시 괴로움을 잊어 버렸습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감기에 걸려 몸과 마음이 괴롭지만 시간 지나면 깨끗이 낫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고팔고(四苦八苦)가 그것입니다.

안등의 비유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물안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문수스님과 정원스님 소신공양과 관련된 강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한양대 인문관에서 열린 눈부처 학교 강좌입니다. 이를 ‘정원스님과 문수스님을 추모하며, 정의로운 삶을 위한 대자대비의 소신공양(燒身供養)(2017-12-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불의 비유로 생사윤회를 설명했습니다. 또

손뼉치기로 설명했습니다. 손뼉을 치면 탁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에 대하여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라 합니다. 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라며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지 인연화합에 따라 붙여진 명칭으로만 존재함을 말합니다.

삶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다

안등의 비유를 접한 것은 중학교시절입니다. 종립중학교 불교시간에 불교선생님, 즉 교법사가 안등의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몹시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서 절망적입니다. ‘삶은 절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십이연기 정형구를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S12.2)라고 되어 있어서 삶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진퇴양난의 안등의 비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적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sokapar i devadukkhadomanass ūpāyāsā’ 라는 복합어로 나타나는데, 태어난 모든 존재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십이연기는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습니다. 유전문으로 본다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우물에서 등나무 뿌리 줄기에 매달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십이연기는 유전문만 있는 것이 환멸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빠져 나갈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적 상황이 조건발생적이라면, 조건을 소멸하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이연기 환멸문에서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S12.2)라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을 해서 근심이 없어진다면

조건 발생하고 조건 소멸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조건

소멸과 조건 발생을 간단히 말하면 생멸입니다. 지금 슬프다고 하여 울고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숫따니빠따 ‘화살의 경(Sn3.8)’에서는 “비탄해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Stn.583)라 했습니다.

여기 근심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근심을 해서 근심이 없어진다면 근심이 없어져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염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Dhp.5)라 했습니다.

근심 한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서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해서 근심이 없어지고, 미워해서 미움이 없어진다면 현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심을 내려 놓아야만 근심이

없어지고, 미움을 내려
놓아야만 미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근심이라는 번뇌의
화살, 미움이라는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함을
말합니다.

근심이나 미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조건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소멸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뇌는
조건발생하고 조건소멸합니다.
그럼에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면 근심함으로써
근심을 일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고 우는 것으로 슬픔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만 소멸시키면

우물에 빠진 자는
절망적입니다. 그가 살아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명만 단축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십이연기 정형구에서처럼
‘sokapar i devadukkhadomanass
ūpayasa’ 즉,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한다고 하여, 근심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소멸시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로 시작되는
십이연기 환멸문입니다.

결국 무명입니다. 무명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납니다. 궁령다면
무명은 무엇일까?
상웃따니까야 ‘분석의
경’에서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S12.2)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성체를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사성체는
조건발생과 조건소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명을
모른다는 것은 연기법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연기법을 모르는 자는 윤회의
감옥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윤회의 감옥에 사는
자는 우물에 빠진 자가 줄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귀결됩니다.

감옥이 감옥인 줄 모르고

오온을 내 것이라고 보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고 걱정되면 근심합니다.
마치 몸을 내것이라 여기듯이,
슬픔과 근심도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현자들이
보았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
대하여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 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입니다.” (Stn.584)라
했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미워해
보았자 자신만 손해입니다.
실체도 없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자는 절망의 느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손뼉치기와 같고 쇠망치로
쳐서 나온 불꽃과 같습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렸을 때 윤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옥이 감옥인 줄

모르고 감옥이 좋다고 살아
갑니다. 우물에 빠진 자가
썩은 동아줄에 의지하여
달콤한 꿀맛을 들기는 것과
같습니다.

“쇠망치로 쳐서
튀겨나와 반짝이는 불꽃이
차츰 사라져 가니,
행방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처럼 올바르게 해탈한 님
감각적 쾌락의 속박의 거센
흐름을 건넌 님,
동요를 여의고 지복에 도달한
님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 (Ud.93)

2018-02-10
진흙속의연꽃

14. 진리의 맛을 알았을 때 그 길로 갈 수밖에, 3월 정평법회

누구나 맛에 대한 갈애가
있습니다.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다시 찾게 됩니다.

미각으로 알 수 있는 맛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가 초기경전에 있습니다. 우주 생성기에 천상에서 수명과 공덕이 다한 못살들이 땅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몸이 빛으로 되어서 하늘을 날아 다녔고 기쁨을 음식으로 먹고 살았던 ‘미세한 물질계(色界)’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의 세계에 태어난 못살들은 어느 날 맛있는 쿠키 같은 땅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맛있는 땅조각을 손으로 맛보자 그것에 매료되어 갈애가 그를 엄습했다.” (D27)라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맛의 갈애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허 끝에 놓인 것만으로도 칠천 개의 미각신경이 퍼져나가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되어 갈애가 생겨났다.” (Smv. 865)라 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3월 정평법회가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창립법회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법회입니다. 이번 3월 법회는 이희선 정평불 공동대표가 법문했습니다.



이희선님은 자신의 수행체험담을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를 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닐 때 학생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고 이후 민중불교연합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십년 전에 독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은 집중수행에 참여하기로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금년 초에는 천안호두마을에서 집중수행에 참여 했다고 합니다.

이희선님은 법문에 앞서 법구경 계송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경호님이 이희선님에게 사전에 문자로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감로수를 마셔본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깨달음의 진리를
즐거워한다.” (Dhp. 79)

진리의 맛을 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경호님의 설명문에 따르면

“부처님의법은 감로수와 같아서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 되어 있습니다.

이희선님은 2010 년 위빠사나 집중수행 할 때 사마타체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다 선정체험을 한 것입니다. 배를 대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데 언뜻 언뜻 표상이 떠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봄, 봄’ 하며 무시하고 넘어 가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표상이 강렬하여 표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정지하는 듯 하고 강렬한 희열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희열은 이틀간 지속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 쯤 되는 날에는 세상이 전혀 달리 보였다고 합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로 술과 고기를 완전히 끊는 계기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도가 보였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들 때 들려고 하는 의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도에 대하여

위빠사나 두 번째 지혜에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희선님은 강렬한 체험을 맛 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쾌한 체험을 한 후에 술과 고기를 끊었고 계율은 자동적으로 지켜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약간 맛 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전문적인 수행을 해야 하리라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먹어 본 자만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리에도 맛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여 체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범구경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멀리 여임의 맛을 보고
적정의 맛을 보고
진리의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악을 여의고 고뇌를
여윈다.” (Dhp.205)

욕망을 멀리 여의면 희열 등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적정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주석에서는

열반의 맛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적정의 맛을 본 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맛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맛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번 감로의 맛을
본자는 다시 그 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본 자임에도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데는 최대
일급 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희선님은 법문에서 먼저
진리의 맛을 보라고 합니다.
대상에 집중하여 강렬한
희열을 맛 보았을 때 이
맛으로 인하여 진리의 세계로
계속 나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희열은 하나의
수행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체험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들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행을
통해서 희열이나 행복일 수도
있고 교학을 통하여 원리를
알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맛을 알았을 때 죽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8-03-10
진흙속의연꽃

15.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정평불 금선사토론회

누구든지 미래를 불안해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정평불이라
합니다.
금선사에서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지에
대하여

8 명의 회원들이 토론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입니다.
정평법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법안스님을
찾았습니다.
작년 촛불이 햇불이 되어 타
오를 때
실천승가회를 대표한 바
있습니다.
작은 다실에 9 명이
앉았습니다.

다실은 작을수록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있을 때
진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chat간을 거듭할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

법안스님 다실에서 한국불교
미래에 대하여 고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가자가 50 명
이하라 합니다.

100 명 이하 붕괴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는 종교시장에서
3 등이라 합니다.
통계상으로 2 위 이지만
조직력의
천주교에 밀릴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어쩌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불교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미신적이고 전근대적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스님들이 점을 봐주고
부적을
파는 등 무속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금선사에서 템플스테이 거처간
인원이 연 5 천명이라 합니다.
받은 무종교인이고, 종교인중
받은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관심 있는 것은 명상이라
합니다.
한국불교가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을 제시 하는 듯합니다.

종단의 미래도 걱정했습니다.
종회에서 안건이 하나
부결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종단권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작년에 불교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권승들은 최소한 마곡사와
용주사
문제는 해결 했었어야 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권승들의 카르텔은 더욱
강화되고
그들만의 리그는 공고화
되었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한국불교 미래를
권승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다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님들이 못한다면
재가불자들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모두 한국불교가 잘 되기
위해서 입니다.

2018-03-25
진흙속의연꽃

16. 내가 정평법회 가는 이유

“저 사람 때문에 안나갑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모임이나
단체에 나갈 수 없다는 말
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기 좋으면?

직은 법회 모임 총무
소임을 3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배웠고
인내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배우는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
멀리 했을 때는 아쉬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모임 저런모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백번 소통하는 것
보다
만나서 한번 대화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이
더 낫습니다.

정평법회가 열립니다.

4월 14일(토) 불광산사에서
열립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열린 이래
개근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기를
남겼습니다.

4월법회는 정평불 지도법사
박경준교수의 법문이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에
대한 강설입니다.

정평법회에 다섯 번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좋은 사람이 많아서
입니다.

법회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불자가 주제 넘게 글
쓴다고

때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쓸 뿐입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필명으로만
소통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명 사용합니다.

그러나 얼굴만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얼굴 공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 거나

“뭔가 떴떴하지
않느냐?” 라고.

얼굴 공개 안하는 것은

얼굴에 자신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것이

내 얼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얼굴과 오늘 얼굴
다릅니다.

얼굴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웃는 얼굴, 근심하는 얼굴 등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내
얼굴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얼굴과 이름이 매칭 되었을 때
비로서 그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지금 내 얼굴이 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이외수작가를 떠올리라고
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수작가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글을 감칠 나게 쓰기
위한 방편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법우님도
있습니다.
작년 촛불법회 때 스님들
단식할 때
자원봉사한 법우님이 있습니다.
이외수 이야기를 하면
페이스북에
“내가 보았는데
꽃미남입니다.” 라 합니다.

꽃미남 아닙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니
꽃미남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기에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4 월 정평법회가 4 월 14 일(토)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열립니다.
스님들이 못하니
재가불자들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슬로건은 한국불교 신행의
새지평을 여는 법회입니다.
지평(地平)을 넓히면 세상도
넓어집니다.
인식의 지평을 넓혔을 때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정평법회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보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2018-04-02
진흙속의연꽃

17.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4 월 정평법회

여섯 번째 정평법회가
열렸습니다. 4 월 14 일 장충동
불광산사 4 층 법당에서
29 명의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식전에 천수경 낭송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법회가 시작 되기 전에 목탁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삼귀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법회의 핵심은 법문입니다. 정평불 지도법사이자 동국대 교수인 박경준 교수가 ‘불교는 희망의 종교’ 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정평법회는 재가불교단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2017년 11월 첫 법회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 법회가 매달 빠짐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평불과 정평법회에서는 무엇을 지향할까?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한마디로 ‘실천’ 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사회적 실천입니다.

대부분 불자들은 불교를 신행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 수행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수행은 공덕 쌓기에 해당됩니다. 공덕은 크게 선업공덕, 보시공덕, 수행공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야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공덕 쌓는 것은 복을 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복 짓는 행위는 대부분 개인적 공덕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정평불과 정평법회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적 수행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실천을 실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참여불교를 지향하는 것이 정평불과 정평법회의 정체성임을 말합니다.

사회적 참여와 관련하여 정평불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근원은 문수스님 소신공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의로운 삶을 위한 대자대비의 소신공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자의 소신 내지는 자기실현한 자의 소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평불과 정평법회에서는
재가불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기복이나 개인적
수행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
발전을 위한 적극적
사회참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공업(共業)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업과 업의
작용에 따른 연기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업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업론은 대승열반경에서 토지,
사대, 시절, 인민이라는 네
가지 조건에 근거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홀로만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포함하여 자연과 환경에
이르기 까지 모두 조건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업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이 작용하여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 나의 업의 과보도
받지만 동시에 주변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선업공덕
것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공동체의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평불과
정평법회가 추구하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천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우리
함께 가즈아~”가 될 것입니다.

2018-04-14
진흙속의연꽃

18. 정평불 사무총장을 맡고

“궁극적으로 평온이 열반의
성취이니” (Vism.1.159)
청정도론 1장 계행에 나온 말
입니다.
평온을 광의의 열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평온, 평정, 평등, 평화 모두
동의어입니다.

정의(Justice)와 평화(Peace),
이 두 단어는 매력적입니다.

전쟁과 평화처럼 대립적 뜻이
아니라
상생하며 서로 보완하는
의미입니다.

정의는 법(法)과 동의어입니다.
가르침에 담마네나(Dhammanena)
또는 담미까(dhammikā)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법한’ ‘법다운’
의 뜻입니다.
영어로
‘righteous(정의롭게)’ 의
뜻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곧 부처님
가르침을 뜻합니다.
‘정의롭다’ 라는 말은
‘여법하다’ ‘법답다’ 라는
말입니다.
가르침(法: Dhamma)을
실천하는 것이
다름아닌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화는 청정을 뜻합니다.
마음의 오염원이 가라앉은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입니다.
가르침의 실천에서 오는
평온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줄여서 ‘정평불’ 이라 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재가불교단체입니다.

이번에 정평불 사무총장과
디지털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왕
말은 거
주어진 2 년 동안 완전연소 할
것입니다.



정평불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카페에
‘정의평화불교연대’
라는 이름으로 개설했습니다.
허핑턴포스트처럼 필진을
모시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합니다.
내공을 가진 개인이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에 108 명의 정평행자를
모십니다.

수 많은 모임이나 단체가
생겨났다 소리없이 사라집니다.
정체성이 없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정평불의 정체성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득권의 도덕적 의무라
합니다.
소유한 자, 배운 자, 능력
있는 자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가
요청됩니다.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여
개인적 성장과 향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동선(共同善),
이것이 정평불이 추구하는
정체성입니다.

2018-04-18
진흙속의연꽃

19. 시대는 참여보국(參與報國) 을 요청한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생각하라.
그대들에게 공포는
사라지리라.” (S11.3)
상웃따니까야 ‘깃발의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산중 칠혹 같은 어둠
속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무섭증이 들면 견딜 수
없을겁니다.
이럴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
문제없습니다.

불자들은 삼보를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습니다.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죽어도 좋아” 라
할겁니다.
삼보의 덕성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헌신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도적의 칼 앞에서 태연합니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보살에게, 스승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하는 목숨
오하려
‘잘됐다’ 는 식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불교인들은 업(業)과
업(業報)을 믿습니다.

선업공덕 쌓으면 천상에
태어남을 믿습니다.
지계공덕, 보시공덕,
수행공덕은
내생 지혜구족자의 바탕이
됨을 압니다.

삼보에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삼보에 던졌을 때
죽음도 불사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 때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생계도 좋지만 나라에
보은한다는
거대한 이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충을 들고 서 있는 것만
애국이 아닙니다.
수출전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할 바를
다 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사업보국이라는 이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술보국(技術報國)’이라는
이념이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기술개발로 나라에 보은 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제품은 생산됩니다.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긍심으로 일했습니다.
일을 해도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하는 일이 모두에게 도움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獻身)하게 됩니다.
기꺼이 목숨마져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대화 때도 그랬고 민주화
때도 그랬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소임을 맡았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놀 무대가
생겼습니다.
임기 내에 한번 날 뛰어 볼
생각입니다.

시대는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공덕쌓기를 넘어
공동체의 삶에도 관심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참여보국(參與報國)을
요청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순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땅의 사회민주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후, 환경 등도
대상입니다.

개인적 수행과 함께 사회적
실천도 요청됩니다.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참여보국입니다.
정평불과 정평법회에서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번 신명나게 놀아 보지
않으렵니까?

2018-04-21
진흙속의연꽃

20. 정평불 월정사 봄소풍

이른 아침 새소리가
따갑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합창하듯이
이곳저곳에서 지저귀니다.
월정사 전나무숲의 아침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1박 2일
춘계소풍겸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월정사에서 20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우의를 다졌습니다.

이곳저곳이 개발의 현장입니다.
아름드리 전나무는 잘려
나가고
땅은 파헤쳐서 처참한
모습입니다.
난개발지역을 보는 듯 합니다.

매포소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막아 놓고 절에 가진
안거진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새소리와 물소리의 전나무
숲은 평화롭습니다.
초입에서 본 월정사는
개발현장입니다.
한사람의 원력이 월정사를
발전시켰을까 망가뜨려
놓았을까?

전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티브이에도 나오는
월정사를 대표하는 길입니다.
신록의 계절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공양은 소박합니다.
절집에서 맛볼 수 있는
청정한 식단입니다.
남김 없이 먹고
설거지했습니다.

적광전 앞 석탑이 솟아
있습니다.
석탑에 희견보살(喜見菩薩)이
공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몸을 불살라
공양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려 가는 길에 원행스님을
만났습니다.
탄허스님 예언대로 남북통일이
머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노스님과 함께 “화이팅!”
했습니다.

“다왔다, 다왔다...”
단독군장에 10 키로 구보할 때
합창하듯 격려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
가파른 길에 정근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보궁에 올랐습니다.
중대사자암을 거쳐
단숨에 올라 왔습니다.
여기는 상원사 적멸보궁입니다.

길지 중의 길지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안은하게 품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 하는 듯

조상들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월정사에 가면 보궁에
가야합니다.
그러나 보궁에는 진신사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신사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I have arrived. I am home.”
“나는 도달했네. 나는 고향에
있네.”
틔낫한 스님의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여기가 극락이고 열반입니다.
이세상이
현법정토(現法淨土)입니다.
진신사리는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회원들과
차담을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하여 논의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제였습니다.
사하촌 개발에 대하여
‘난개발’
아니냐며 도발적 질문도
했습니다.

스님은 명상센터와 문화마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했습니다. 한국불교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주지스님으로 부터
지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점심공양을 하고 난 다음
‘난다나’ 에서 커피타임
가졌습니다.

“스님, 스님은 다음
생에도 스님으로 살렵니까?”
뻔한 질문이라며
범우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자유를 위해
출가 했다고 합니다.
개념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 뿐이라 했습니다.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난다나(nandana), 환희의 정원
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천상의
정원입니다.
신록의 봄바람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2018-04-23
진흙속의연꽃

21. 우리는 생체로보트가 아니다, 정평불 월정사 워크숍

자유의지가 없다는데

“자유의지는 정말 없는
겁니까?” 뜬금없이
출간회장에서 누군가 던진
질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박사의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출간회장에서의
일입니다. 책의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이에
전현수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는 분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현수박사의 불교 TV

마음테라피 강연을 보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블로그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지만
생체로봇처럼 살 순
없다.(2017-11-27)’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강연을 녹취하여
초기경전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워크숍에서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4 월
21 일과 22 일 양일간
월정사에서 춘계사찰순례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20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회원들간의 친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술토론도
겸한 것입니다.

도착 당일 늦은 오후 큰방에
모였습니다. 상임대표
이도흠교수가 준비해온 논문
‘4 차 산업혁명과 불교’ 를
생각했습니다. 논문에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논문대로 라면 우리들은
단지 프로그램된
‘생체로봇’ 에 불과합니다.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최근
EBS 에서 본 4 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보면 약간
황당무계(荒唐無稽)하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학자가 달변으로 거침
없이 말 했을 때 ‘정말
그럴까?’ 라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상태에 대한 분석(ākāraparivittakkena)

4 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들으면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반대로
‘디스토피아’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초기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
떠 오릅니다.

“갈라마들이여, 당신들이
미심쩍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은 미심쩍은 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이나 전승이나 여론에 꼬달리지 말고, 성전의 권위나 논리나 추론에도 꼬달리지 말고,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에도 꼬달리지 말고, 그럴듯한 개인적 인상이나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에 꼬달리지 마십시오.” (A3.65)

부처님 당시에는 사상의 혼란기였습니다. 소위 육사외도라 하여 갖가지 견해가 난무하여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일반사람들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10 가지에 달합니다. 그 중에 ‘상태에 대한 분석(ākāraparivittakkena)’ 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태에 대한 분석’ 에 꼬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 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빠알리어 아까라빠리비따까(ākāraparivittakka)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빠알리어

아까라(ākāra)는 ‘a mine’ 의 뜻으로 ‘광산’ 또는 ‘광물’ 을 뜻합니다. 다름 아닌 물질입니다. 빠알리어 빠리비따까(parivittakka)는 ‘reflection; consideration’ 의 뜻으로 ‘분석’ 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까라빠리비따까(ākāraparivittakka)는 ‘상태에 대한 분석’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불언에서는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멋진 이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밝혀진 것은

전재성박사의 니까야강독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와 넷째주 금요일 저녁에 전재성박사 서고에서 열립니다. 지난번 강독모임 때 ‘깔라마의 경(A3.65)’ 을 강독했습니다. 전재성박사는 ‘상태에 대한 분석(ākāraparivittakkena)’ 에 대하여 오늘날 과학적 이론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거의 대부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지 않았음에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맹신의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 된 것만 믿는
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깎라마의 경에 따르면
‘상태에 대한 분석’에도
끄달리지 말라고 했으므로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전재성박사는 과학적 이론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깎라마의 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과학적
발견사실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밝혀진
것은 100% 올바른 관찰이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물질에 바탕을 둔
학문입니다. 특히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기법으로 인류는 수 많은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고
놀라운 발명품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물질에 기반한
것입니다.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로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에 대한 것

부처님 당시에 유물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신도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멸론(斷滅論)’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헌공도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화생하는 못살도
없다.” (S24.5)라고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로 구성된 몸이 무너지
죽으면 물질에서 파생된
정신도 죽어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허무주의적 견해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실험도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실험도구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실험도구도
정교해집니다. 이와 같은
실험도구의 변화는 이전에
과학적 사실이 때로 뒤집어
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밀비재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 하더라도 좀더 정교한 실험도구를 사용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태에 대한 분석(ākāraparivittakkena)’에도 꼬달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이라는 잣대로 파악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부정됩니다. 부처님이 설한 업(kamma)과 업의 작용(kamma vipaka: 業異熟)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는 오로지 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이라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연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미래 사회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대부분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두뇌를 연구하는 것도 물질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위주의

과학에서는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 특히 뇌를 연구 하는 학자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 많은 실험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정평불 월정사 세미나에서 이도흠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벤저민 리벳은 자유의지에 관한 유명한 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1000분의 350 초 전에 뇌에 이미 신호가 났음을 밝혀 자유의지가 뇌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도흠교수, 4차 산업혁명과 불교)

전현수박사도 불교 TV 강연에 따르면 1886년 ‘헤르만 헬름홀츠’의 뇌실험 이후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험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 채기 전에 이미 상당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앞서 뇌 속에서 무의식중에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행위 하기 전에 먼저 뇌에서 알아차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환상이라 합니다. 뇌가 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전에 이미 과정이 있어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아름다운 환상이다.” 라든가, “자유의지는 착각이다.” 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생체로봇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 생체로봇에 불과하다면 여러가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범죄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살생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생체로봇에 불과하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수행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정념스님 방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정평불 순례팀은 상원사와 적멸보궁을 순례 한 다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방에 모였습니다. 정념스님과 차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 자유의지에 대한 세미나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도흠 교수가 세미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교수는 3 중외도설을 인용하여 자유의지론이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초기경전에 삼중외도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명론(pubbekatahetuvāda), 존우론(issaranimmanahetuvāda), 무인론(ahetuvāda)입니다. 이 세 가지 설은 모두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행위와 행위의 과보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전생탓으로 돌린다면, 모든 것을 창조주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원인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삼중외도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하게 되면

상견과 단견이라는 양극단에 빠져서 현생 뿐만 아니라 내생도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중외도에 대하여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무작설(無作說: akiriya)’이라 하여 연기법으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굿따라니까야 ‘머리털로 만든 옷의 경(A3.135)’에 따르면, 부처님은 스스로 작론자(作論者: kiriyavādin)라 했습니다. 이는 경에서 “수행승들이여, 과거세의 거룩한 님, 올바르게 원만히 깨달은 님이었던 세존들도 업을 설하고 업의 과보를 설하고 정진을 설하였다.”라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칠불 등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들의 한결 같은 가르침은 “업을 설하고 업의 과보를 설하고”라는 것으로 모두 ‘작론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체로보트가 아니다

행위와 행위의 과보,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하면 숙작인론, 존우론, 무인론과 같은 무작론자가 됩니다.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하면 외도의

사상이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착각이다’라거나.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자유의지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대개 물질에 기반을 둔 과학론자들입니다. 부처님 당시 유물론자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S24.5)라 하여 행위와 행위의 과보, 업과 업의 작용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화생하는 못살도 없다.”(S24.5)라 하여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무작론자들에게는 오계를 준수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수행을 하여 해탈과 열반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물질에서 파생된 정신도 죽기 때문에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지금 이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면 그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삼중외도설은 최악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견해는

결국 영원주의나 허무주의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법에 따르면
양극단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자유지무용론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을
탐구하는 과학자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실험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적 이론을
발표하지만 그 실험도구 역시
물질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을 탐구하는 신종
유물론자들이라 볼 수 있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지가 없는 생체로보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영역’입니다.
정신영역에서는 실험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체로보트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실험도구를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하지만
정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교한
이론으로 자유의지는
착각’ 이고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깔라마의 경에 따르면
‘상태에 대한
분석(ākāraparivitakkena)’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소문이나 전승이나 여론에
고달리지 말고, 성전의 권위나
논리나 추론에도 고달리지
말고,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에도
고달리지 말고, 그럴듯한
개인적 인상이나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에 고달리지
마십시오.” (A3.65)

2018-04-23
진흙속의연꽃

22. 정평불이 뭐하는 데예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자주불교(自主佛敎)

“정평불이 뭐하는
데예요?” 정평불가입을
권유했을 때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재가불교단체로서
불교개혁운동하는
곳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대부분 개혁과 운동이라는

말에 멈춥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평불의 시작

정의평화불교연대, 줄여서
정평불이라 합니다.
정평법회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정평불 정평법회’라고도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제가불교단체입니다. 발단은
문수스님 소신공양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단지 불교개혁을
외치다 소신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자의 대자대비의
소신공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지식인들과
불교활동가들이 뜻을 함께 한
것이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시작입니다.

정평불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보다 정의를
생각하고, 불의에
분노하고,...”로 시작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보살행을
실천한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평불이 추구하는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평불이 새롭게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평법회입니다. 매월
한차례 여법한 법회를 통하여
정평불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불자들이 개인적인 구복이나
수행에 열중해 왔다면 이제
사회로 눈을 돌려야 할 때
입니다. 마치 심산유곡에서
공부가 된 스님이 저자거리로
내려와서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평불의 정체성은 무엇까?

현재 여러 개의
제가불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결여
되었을 때 열정은 식어 버리고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평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정평불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제가불교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임에도 중책을 맡겨
주었습니다. 총장소임을
수락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과연 정평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숙고해 보았습니다.

재가불교단체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승가의 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승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가자의 큰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한국불교

작년 촛불법회가
성황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촛불법회가 열릴 때마다 천명
가량 되는 불자들이 참여하여
불교적폐청산과 불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습니다.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승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최소한
용주사와 마곡사 만큼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문수스님
소신이래 수 없이 개혁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최악의
총무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종단의 권승들은
재가불교단체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한국불교는
오로지 비구승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익으로
똥똥 뭉쳐진 이익공동체에
이제 철퇴가 내려지려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방영되는
피디수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계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에 탈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작년 총무원장 후보
설정스님의 학력사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쓴 바 있습니다.

“허위학력사칭 등으로 점철된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면
한국불교의 망신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회분위기에서
허위학력사칭은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송 등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면 그 순간

한국불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진흙속의연꽃,
학력사칭
설정스님은 사퇴하시라!,
2017-09-26)

불행하게도 예견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피디수첩에서 날날이 밝혀질
때 전국민은 충격에 빠지고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종종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양사도박
사건이 났을 때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더 이전에는
스님들이 각목을 들고
종권다툼을 했는데 TV로
생중계 되었고 CNN에도
방송되어 국제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100 명이 결집하면

더 이상 타락한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재가불자들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조직화 되지
않으면 모래알이나 자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래와

자갈에 시멘트를 섞어서 물을
부으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듯이, 능력있고 재능있는
재가불자들이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평불에서는 108 명의
정평행자를 모집합니다.
예로부터 100 명만 모이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108 이라는 숫자를 중시합니다.
108 명이 정평행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 때 권승들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8 명이 216 명이 되고,
216 명이 432 명이 되어 배가
된다면 한국불교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여법하게 또는 정의롭게 사는 것

“정의는 밝혀지고 진실은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진실이라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이는
빠알리어 담마(Dhamma)가 법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르침,
진리, 원리, 정의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불의에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Thag.670)

테라가타에 실려 있는
게송입니다. 명진스님이
법회에서 즐겨인용하는
게송이기도 합니다.
고닷따존자가 읊은 게송으로
테라가타 십사련시집에
실려있는 게송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여법하지 못한
삶과 여법한 죽음이 있다.
여법한 죽음이, 여법하지 못한
삶보다 낫다.”

(Thag.670)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여법하게’ 또는
‘정의롭게’ 라는 말은
빠알리어 ‘Dhammena’ 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담마(Dhamma)입니다.

부처님 가르침(Dhamma)대로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여법한 삶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고닷따 존자는 “여법한
죽음이, 여법하지 못한 삶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가르침으로 인한 죽음,
즉 여법한 죽음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법한 죽음은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서
여법하고 천상계에 도달하거나
열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식자들이 칭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Thag.A.II.280)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여법하게 또는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 아닌
것(非法: adhamma)이 득세할
때 이에 편승하지 않는 것이
가르침(正法: Dhamma)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닷따존자는 “정법으로
불익을 보는 것이, 비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낫다.” (Thag.666)라 했습니다.

고닷따존자는 수년전 소신한
문수스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테라가타에서 본 고닷따존자의
십사련시집을 보면 마치
한국불교 현실을 나무라는 듯
합니다.

시대의 산물 민중불교

누군가 물어 봅니다.

“정평불이
뭐하는데예요?” 라고. 이럴 때
불교개혁운동하는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더 좋은 것은
정의롭게 사는 곳,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재가단체라고
알려 주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은 ‘자주(自主)’ 라는
말입니다.

자주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몇 번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인터넷검색결과 아직까지 자주불교라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2006년 각목스님이 범어불전 국역을 주장하면서 불교신문에서 자주불교라는 말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단체에서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중불교라는 말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실려 있는 용어로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민중의 고통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운동”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4년에 형성된 민중불교운동연합을 시발점으로 봅니다.

민중불교운동은 시대적 산물이라 봅니다. 암울했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불교운동 시발이 전재성박사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70년대 암울하던 시절 76년에 개최된 대불련 하계수련대회에서 전재성 당시 회장이 ‘민중불교운동론’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대는 또 다른 불교를 요구합니다.

한국재가불교의 톨모델 ACBC

앞으로 한국불교는 이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와 재가가 역할 분담하는 것입니다. 재가에서 사찰과 교단의 운영을 맡고 승가는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가장 이상적인 톨모델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사부대중공동체입니다.

스리랑카 사부대중공동체를 ACBC(All Ceylon Buddhist Congress)라 합니다. 전스리랑카불교대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일종의 교단입니다. 교단은 사부대중공동체로서 재가자가 운영합니다. 승단은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된 이부대중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단과 승단으로 분리 되어 이원화 된다면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보는 것과 같은 승려들의 타락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스리랑카불교대회(ACBC)는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1919년 콜롬보에서 재가의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발전하여
1955년 스리랑카 국회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창립
35년만에 교단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ACBC는 재가불자들이
주도하여 교단을 운영하고
재가자들을 교육하고,
각종 행사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재가불교단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부대중공동체이기 때문에
빅쿠들도 참여 하는데
감사역할만 합니다. 미래
한국불교, 특히 재가불교의
롤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자주불교를 요청한다

시대는 새로운 불교를
요청합니다. 1970년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불교를 요청했고,
1980년대 역시 시대에 맞는
불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무엇을
요청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주(自主)라 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불교, 자주불교를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신도들은 스님들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 내지
주종관계였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일부 스님들의 이익
추구에 한국불교가 나락에
떨어졌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설령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찬잔속의
흔들림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피디수첩보도처럼 외부에서
충격을 주어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불자들이 참여하여 연대하면
한국불교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불교를 실현하면 더 이상
추락은 없고 오히려 중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불교의 최종목표는 교단과
승단의 분리입니다.

여기 청신사와 청신녀의
재가전문가 주도하여 사찰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행사하는 사부대중공동체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과 승단으로 이원화
되었을 때 한국불교의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불교일
것입니다. 자주불교를 위하여
정의롭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정평불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2018-04-29
진흙속의연꽃

23. 현명한 소비자는 불량품을 사지 않는다

원고청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글을 써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글쓰는 노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것입니다.

원고청탁을 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개월 전에 알려 주었는데
마감일이 되어서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것입니다.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쓰고 있습니다.
긴글은 사무실에서 PC로 쓰고
짧막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씁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업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돈도 안되는 글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씁니다.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얼굴입니다.
글로서밖에 달리 판단할
없습니다.

글을 써서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그렇게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는 만큼 능력껏 알려 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능기부라 볼
수 있습니다.

정평볼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문을 연지 3주 되었습니다.
누적방문이 7,460 회, 회원은
113 명,
게시글은 203 개, 댓글은
266 개 입니다.

일평균 방문자는
이삼백명대입니다.
신규카페로서는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진이 특징입니다.
회원중심으로 필진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필진은 20 명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재능기부한
것입니다.

- 1) 김광수칼럼
- 2) 무설자의 차(茶)이야기
- 3) 박병기칼럼
- 4) 이도흙의 불교개혁

- 5) 이희선의 불교와 사회
- 6) 이병욱의 니까야강독
- 7) 유병화의 사찰음식이야기
- 8) 박경준의 교리산책
- 9) 이현숙의 불교음악이야기
- 10) 문윤정의 오지여행이야기
- 11) 최경애의 생태환경이야기
- 12) 민정희의 기후환경이야기
- 13) 최연의 절(寺)이야기
- 14) 사기순의 소육지족이야기
- 15) 이용성의 풍경소리
- 16) 각운의 명상수행이야기
- 17) 김형근의 미국불교이야기
- 18) 홍영주의 불교영어이야기
- 19) 이학종의 귀농일기
- 20) 최원녕의 공(空)놀이터

필진은 확보 되었습니다.
 속속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빈방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채워질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불량품을
 사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으면 관심 받듯이,
 건질 것이 있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교양있고 양식있는 불교인들이
 즐겨 찾을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웃과
 사회에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재가불교단체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2018-05-06
 진흙속의연꽃

24. 연기법은 희망의 메시지, 5월 정평법회

평온한 일요일 오전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듯 날씨는
 맑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5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 인하여 우중충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면
 외출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날씨는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5월 정평법회에서

5월 정평법회가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정기법회입니다. 재가불교신행 단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여법한 법회입니다. 종단 권승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한국불교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요즘 재가불교단체에서라도 여법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평법회를 위하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교계신문사 사이트에 기고 했고, 블로그와 카페, 페이스북 등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비하여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모임 패턴이 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임이 토요일 몰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날씨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발길을 자제할 것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대개 일시적으로 오다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자정에 이르기까지 비가 그치지 않았던 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정평법회가 열리는 날 그리고 서울연등축제의 날에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비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5월 정평법회에는 24명이 참석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잊지 않고 참석한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했다면 하나라도 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오신분들을 위하여 이미우이(Imee Ooi) 음악씨디를 한장씩 선물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겨나는 신비한 음악입니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법문만한 것이 없습니다.

목련이 진들

정평불 지도법사 박경준 교수의 5월 법문 주제는 ‘연기법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법문에 앞서 노래를 하나 소개

했습니다. 그것은 ‘목련이
진들’이라는 민중가요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생각하며
선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의 작사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를 쓴
사람은 박용주님입니다.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 이런
시를 지었을까?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련꽃이 한날 목련꽃이
진다해도
무에 그리 그리 슬프랴.
피었다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어디 목련꽃 뿐이라.
우리네 오월에는 목련꽃보다
더 하얗고
순결한 영혼 영혼들이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박문옥 - 목련이진들, 유튜브)

프린트물에 실려 있는 악보
가사를 옮겨 본 것입니다.
시에서 인상적인 구절은
“피었다 지는 것이 어디
목련꽃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목련꽃이
아름답기로 진 목련꽃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1980년 당시 오월 광주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이 목련꽃처럼
떨어졌습니다.

오월의 노래 ‘목련이
진들’의 작곡자는
박문옥님입니다. 박문옥님은
박경준 교수의 친동생입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입니다.
박용주가 작사하고 박문옥이
작곡한 ‘목련이 진들’
노래를 배웠습니다. 음악인
조현덕 선생이 유튜브실려
있는 노래(목련이 진들)를
들려 주고 한소절씩 따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조현덕
선생 독창으로 부른 것을
들었습니다.

정평법회의 특징은 법문을
시작 하기 전에 노래를 합니다.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달
정평법회 때는 범능스님의
‘먼 산’을 함께 노래
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어떤
노래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박경준 교수의 ‘연기법의 오해와 진실’

5월 정평법회 주제 연기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프린트물을 준비
했습니다. 자필로 작성된
한페이지 짜리 프린트 물에는
1)붓다의 외도 비판,
2)연기법의 오해, 3)연기법의
제해석 이라는 세 가지 큰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연기법을 빼버리면 더 이상 불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교가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곧 불교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기법이 중요한가? 그것은 외도사상을 모두 이 연기법으로 논파 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부처님당시 소위 육사외도와 바라문의 영원주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외도사상의 치명적 약점 두 가지

여러 가지 외도사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가지를 들라면 신의론, 숙명론, 우연론이라 하는데 이를 소위 삼종외도(三種外道)라 합니다. 신의론은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것을 말하며 ‘존우화작론’ 이라고 합니다. 숙명론은 모든 것을 전생의

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하며 ‘숙작인론’ 이라 합니다. 우연론은 모든 것이 원인없이 이유없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인무연론’ 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삼종외도가 왜 문제일까?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죄악(10 악업)의 문제’ 라 했습니다.

외도사상의 치명적 약점은 죄악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유일신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것은 신의 뜻입니다.” 라고 신에게 범죄행위를 떠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누구도 도덕적 삶을 살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숙명론자가 오계를 어겼을 때 전생의 업보 탓으로 돌린다면 역시 도덕적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외도 사상도 죄악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계를 어겨도 모두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면 이 세상은 악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작용하는 짐승의 세계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짐승처럼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순간을 즐길
뿐입니다. 이 순간의 행복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서
창조적 노력은 저 멀리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사상은 두 가지 결함, 즉
‘죄악의 문제’와 ‘창조적
문제’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약점은 앙갚따라니까야 외도의
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론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와
같이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더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말한다.

내가 질문하면 그들은
‘그렇다’ 라고 동의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이간질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욕지거리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꾸며
대는 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탐욕스럽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분노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절대자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셈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김을 잃게
되고 수호를 잃게 되는데,
자신을 수행자라 칭할 타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논박이다.”
(A3.61)

외도사상은 ‘죄악’ 과
‘노력’ 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계를 지킬 명분이
없어집니다.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행을 하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연기법으로 모든 외도사상이
논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위 삼종외도의 잔재는
불교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스님이 범문할 때
모든 것을 ‘전생 탓’ 이라
이야기한다면 숙명론의 잔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두 번째 주제로서
‘연기법 오해’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연기법 오해 사례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한국불교에서 연기법이
오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법을 잘못 이해 하여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간적 연기’ 를 말합니다.
연기법을 ‘공간적
상의성’ 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본
불교학자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うい
はくじゅ, 1882-1963)’ 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연기법을 오해하게 된
배경으로 한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연기송이라
불리우는 문구에서 이것과
저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하는 연기,
즉 연기상의설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공간에도 적용되어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연기의
근거가 되었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먼저 연기송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masmim sati idaṃ hoti.
이때 이마스밈 사띠 이당 호띠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이맛습빠다 이당 읍빳자띠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약유차즉유피 (若有此卽有彼)
 약생차즉생피 (若生此卽生彼)
 약무차즉무피 (若無此卽無彼)
 약멸차즉멸피 (若無此卽滅彼)

when this is present, this
 comes to be,
 when this arises, this
 arises.
 When this is not present,
 this does not come to be,
 when this does not arise,
 this does not arise.

(연기송 정형문)

연기송은 상윳파니까야 ‘열
 가지 힘의 경(S12.21)’ 등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짝막한
 계송으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연기의 가르침을
 압축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한자식 표현입니다.

중국식 한자어 표현을 보면
 ‘이것(此)’ 과
 ‘저것(彼)’ 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
 문구를 보면 ‘imasmim’ 와
 ‘idaṃ’ 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것’ 의 뜻입니다.
 한자어처럼 ‘이것’ 과
 ‘저것’ 이 아닙니다.
 영어해석도 모두 ‘이것’ 을
 뜻하는 ‘this’ ‘this’ 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연기송
 빠알리문구 “imasmim sati
 idaṃ hoti” 을 다시 해석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 합니다. 모두
 이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 ‘sati’ 와
 ‘hoti’ 에 대하여 각각
 ‘이다’ 와 ‘일것이다’ 라
 했습니다. 이는 ‘sati’ 에
 대하여 ‘be’ 로 보고,
 ‘hoti’ 에 대하여
 ‘become’ 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만일 한문식대로
 “약유차즉유피
 (若有此即有彼)” 로 표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과 저것으로 표현 했을 때
 ‘그 역도 성립한다’ 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라고 성립되면,
 정반대로 “저것이 있을 때
 이것도 있게 되며” 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호의존
 연기의 근거가 됩니다. 연기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화엄교학의 법계연기 토대가
 되며 인드라마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연기법을
 잘못해석한 것이고 연기법을
 오해한 것이라 합니다. 빠알리
 문구에 따르면 ‘이것’
 ‘저것’ 이라는 말은 없고
 모두 ‘이것’ ‘이것’ 입니다.

연기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imasmim sati
 idam hoti)” 라 됩니다. 또
 “이것이 생겨날 때 이것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Imassuppada idam
 uppajjati)” 가 됩니다. 이는
 영어로 된 해석 “when this
 is present, this comes to be,
 when this arises, this
 arises.” 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이다삿짜야따(idappaccayata)
 로 설명합니다. 이를 한자어로
 차연성(此緣性)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having its
 foundation on this’ 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연기는 일본불교학자 우이
 하쿠쥬가 주장한대로
 ‘상호의존성(相依性)’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일본학자의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경준교수에 따르면 한문식
 연기법은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유고차유(彼有故此有)” ,
 즉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문식 연기법은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
 즉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라고 여기서
 끝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 역도 성립함을
 뜻하는
 “피유고차유(彼有故此有)” 가
 되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열린논단에도 실려 있는
 것이라 합니다. 검색해 보니
 2009 년 9 월 불교평론에
 ‘열린논단 초기불교의

연기상의설 재검토 /

박경준' 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연기법을 한문장으로 표현하면

박경준 교수의 연기법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는 연기법의 제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연기에는 찰나연기, 연박연기, 분위기연기 등 다양한 연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관통하는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일어나므로(緣起) 그 조건과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緣滅)”

박경준 교수는 한문장으로 압축된 연기법을 ‘연기(緣起)’와 ‘연멸(緣滅)’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아닌 조건발생과 조건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풀어 놓은 것이 “모든 고통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일어나므로(緣起), 그 조건과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緣滅)”가 됩니다.

이것이 연기를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연기와 연멸의 연기법에서 박경준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연멸’입니다. 연기만 말하고 연멸을 말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고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로 시작되는 조건발생과 함께, 반드시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로 시작되는 조건소멸이 설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기를 이해했을 때 “나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나는 불사를 얻었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연기법은 희망의 메시지

정평법회를 알리기 위하여 ‘귀인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이곳저곳에 알렸습니다. 글에서 “한사람과 마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사람의 인생과 접하게 됩니다.”라 했습니다. 누군가 대화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힘들이지 않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에 비하면
강연이나 법문을 듣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정평법회 홍보를 했음에도
그다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빠서일
것입니다. 특히 오월의
토요일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문을
통하여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식의 지평은
넓어집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도 정평법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는 사람들이나 가르침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월 정평법회에서 박경준
교수는 연기법의 진수를
한장짜리 프린트물에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멘트로서 “불교는 인간을
구제하는 종교입니다.” 라
했습니다. 인간구제는 다름
아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이 조건발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소멸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건소멸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더구나 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희망의
메시지라 했습니다.

2018-05-13
진흙속의연꽃

25. 우중(雨中)의 2018 서울국제연등축제

듣던 말 중에 “비 온다고
전쟁 안하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적의
기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비가 오면 행사는 취소되기
쉽습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
날씨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큰비가 오거나 큰바람이
불거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난이

닥쳤을 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취소 되지 않습니다. 비가 불어도 바람불어도 눈이와도 행사는 강행됩니다. 5월 12일 연등축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연등축제에 참가하기로

5월 12일 연등축제하는 날 비가 올 것이라 예보됐습니다. 비가 오니 우산이나 우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의가 필요합니다. 우산을 들고 제등행렬 할 수 없습니다. 우의를 준비하고 정평법회에 참석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법회를 참석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연등축제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등축제는 참가신청 하지도 않았고 참가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연등법회 일주일을 앞두고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가해서 정평불이 추구 하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아마 재가불교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종단 수뇌부의 파렴치한 범계행위가 피디수첩에 날날이 보도 되었을 때 국민들은 경악했는데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무언가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잔칫집에 재를 뿌릴 수 없습니다. 축제분위기도 살리면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념을 알리는 좋은 구호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낸 것이 “정의로운 세상” 과 “평화로운 세상” 입니다.

하루만에 만든 두 개의 현수막

연등축제날이 만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연등축제에 들고 갈 현수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문의하니 최소 이삼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업체에 물어 보니 하루만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없고 문구만 있는 세로 현수막입니다. 시안을 받았습니다.

시안은 명조체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단체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가로 60mm 세로 130mm 사이즈로 상단과 하단에 나무 막대로 수평을 잡습니다. 길이 2미터 길이의 알미늄 봉에 노끈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 하루만에 현수막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연등축제 행렬에 끼는
것입니다. 연등회에 문의 해
보았습니다. 비록 참가 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끼어서 행진
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불광산사에
정평법회가 끝난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운 후에 십여명의
회원들이 동대운동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날씨에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지난 2004 년부터 내리
14 년동안 연등축제를 지켜
보아 왔습니다. 이번 처럼
하루 종일 온적은 없었습니다.
비가 온 해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어 말끔히 개인
놀라운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등축제날에
내린 비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단 한차례도 쉬지 않고
자정이후 까지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사상 최악의
연등축제가 될 조짐을 갖춘
것입니다.

2018 년 연등축제는
사상 최악의 날씨에
치루어졌습니다. 지난 10 여년
동안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관하여 사진도 찍고 글도
썼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 때문에
‘폭망연등축제’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폭삭망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은처자, 재산,
학력사칭 등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현조계종총무원장의
범계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피디수첩에도 방영되어
불교망신을 시켰는데 하늘도
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총무원장은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연등축제
제등행렬을 알리는 선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국대 대운동장은 흰우의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컬러풀한
복장의 볼자들로
축제분위기일터인데 하염없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 몹시
불편해 하는 듯 했습니다.
정평불회원들은 준비한
정평깃발과 두 개의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등도
준비했습니다.

하루 전의 시안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 무척 둔보입니다. 아직까
지 연등축제에서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이라
는 구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연등축제를 참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질적이고 전
에 없었던 구호입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구호입니
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말은
가르침대로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법을
말하고 이는 담마의 뜻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타락한 것은 일부
승려들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족계를
받았지만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을 뿐 지키는 승려들은 거의
없습니다.

승려들이 돈이 되는 사찰을
접수하여 통행료를 받는가
하면 나라로부터 국고를 지원
받아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위직 승려의 경우
처자식까지 두었다 하니
한국불교는 뿌리가 썩은
보리수와 같습니다. 이럴 때
알맞은 구호는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의 잔치에 촛불법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구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구호입니다.

처음에는 후미에 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선두에 서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관음종이
있고 뒤에는 수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음종의
경우 매혹적인 무희단과
풍물놀이패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왔습니다. 비가
세찬 것은 아닙니다. 우산이나
우의를 입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연희단의 무희들은 온몸에
비를 맞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연등축제 시작점 동대문

연등축제 행진은 실질적으로
동대문에서 시작됩니다.
고색창연한 보물 제1호
동대문은 언제 보아도
기품있습니다. 연등축제의
시작점 동대문에서 종로 2가
까지 2.5 킬로미터의 거리로
도보로는 40분 가량
소요됩니다.

연도는 썰렁했습니다. 계속 끝
임 없이 내리는 비로 종로 양
측 인도에 마련된 자리에는 텅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 좋은 자리에는 우산
을 들고 환호 하는 불자들도

많습니다. 아마 매년 연등축제를 즐기는 불자들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는 연등

종로 5 가를 지나 종로 4 가로 진입할 때쯤 되면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일몰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엘이디(LED) 연등에서 화려한 불빛이 새어 나와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선두에 섰기 때문에 후미에 어떤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객석에 앉아 약 두 시간 가량 전과정을 지켜 보았기 때문에 연등축제가 얼마나 볼만한 장관인지 알 수 있었지만 선두에 서서 행진하다 보니 앞뒤의 행렬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연등은 점점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등도 진화를 거듭합니다. 이른바 장엄등의 등장입니다. 코끼리가 등장하고 불교경전에서 볼 수 있는 상상속의 용, 금시조 등이 등장합니다. 또한 각사찰에서는 대규모 연희단을 만들어 화려한 의상과 함께 매혹적인 율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등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등은 왜 드는 걸까?

중학교 시절 제등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종립중학교였기 때문에 3 년 동안 빠짐 없이 종로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출발지는 동대운동장이었습니다. 동대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동대문과 종로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르는 길로 오늘날 코스와 동일합니다.

중학교 때 제등행렬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연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할 뿐 별다른 퍼포먼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진화하여 마치 브라질 삼바축제를 연상케 하는 듯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등축제는 부처님오신날 일주일 앞두고 열립니다. 요즘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 일간 열리는 데 ‘연등회’라 합니다.

하일라이트는 토요일 밤에 열리는 연등축제입니다. 연등축제가 열릴 때가 되면 해마다 외국에서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일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종로 2가와 3가는 외국인이 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연등축제는 불자들의 자부심입니다. 기독교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이날만큼은 불자들의 세상입니다. 행렬에 참여 하는 불자들도 연도에서 구경하는 시민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부처님세상입니다.

연등(蓮燈)은 연꽃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 연등축제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면 영어로 'Lotus Lantern Festival' 이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등이 반드시 연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갖가지 형상의 등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등이라는 말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어느 스님은 연꽃을 뜻하는 연등(蓮燈)이라는 말대신 빛을 내는 등이라는 뜻의 '연등(燃燈)'이라는 말을 쓰자고 합니다. 실제로 연등회 공식사이트에서는 '연등회(燃燈會)'라 표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된일지 연등축제를 알리는 외국어 표기명은 'Lotus Lantern Festival' 입니다.

한자어 연등이라는 말은 연등불을 연상케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메다존자로 삶을 살 때 수기를 주었던

'디빵까라붓다(Dīpaṅkara Buddha: 燃燈佛)'를 말합니다. 불교경전에 따르면 과거 24 불 중에 첫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디빵까라(Dīpaṅkara)라는 말은 'one who lights a lamp'의 뜻으로 '램프처럼 빛을 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자들이 연등(燃燈)을 든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서 십바라밀행을 하며 살았듯이 불교인들도 부처님처럼 살기를 발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연등과 함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정의로운 세상’ 과
‘평화로운 세상’ 입니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연등을
밝히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 세기 전륜성왕이라
칭송받던 마우리아 왕조
아소까대왕도 전쟁없는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아소까 비문에는 “세상의
평화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을 전쟁없는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르침대로 살면 이 세상과
저세상의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소까비문에서는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행복을
가져온다. 모든 큰 기쁨을
담마와 연관된 기쁨에 두도록
하자. 왜냐하면 담마와 연관된
기쁨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작은 바위 각문
13)라 했습니다. 이른바
가르침의 의한 정복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 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비문의
행복론은 경전에 근거를
둡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자신을 악행에 묶지 말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 어렵네.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버려야 할 때
무엇이 진실로 자기의 것인가?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를 따라 다닐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든
공덕과 죄악,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닌다네.

그러므로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쌓아야 하리.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못살들에게 의지처가
되리.” (S3.4)

전쟁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이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등을 들었을 때
정의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정의로운 세상’ 과
‘평화로운 세상’ 이라는
깃발을 든 이유입니다.

2018-05-13
진홍숙의연꽃

26. 갖가지 꽃들로 장엄된 카페를 놀이터로

하루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책을 보지 않으면 헛바늘이 돋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무수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넷에서도 놀이터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심지어 노인이건 간에 인터넷은 놀라운 것으로 가득찬 놀이터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정평법회 후에 대표 중의 한분이 카페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4월 16일 처음으로 ‘정의평화불교연대’ 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 5월 16일 현재 카페기본정보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방문: 10,063 명
- 2) 회원: 134 명
- 3) 게시글: 246
- 4) 댓글: 363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매일 적게는 160명 많게는 310명 가량 방문합니다. 페이지뷰는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카페 개설 첫번째 주에는 3,782명으로 폭발적 방문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평불 사무총장겸 디지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카페지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2005년 블로그 개설 이래 지난 13년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카페를 꾸미고 관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방문자 숫자를 대폭 늘릴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정의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재가불교단체입니다.
개인적인 신행이나 수행을
초월하여 이웃과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사회의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부수는
재가결사단체입니다.

한국불교 신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존의
카페와 다르게 꾸며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필진입니다. 이른바
불교판 허핑턴포스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현재
필진은 22 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1) 김광수칼럼
- 2) 무설자의 차(茶)이야기
- 3) 박병기칼럼
- 4) 이도흠의 불교개혁
- 5) 이희선의 불교와 사회
- 6) 이병욱의 니까야강독
- 7) 유병화의 사찰음식이야기
- 8) 박경준의 교리산책
- 9) 이현숙의 불교음악이야기
- 10) 문윤정의 오지여행이야기
- 11) 최경애의 생태환경이야기
- 12) 민정희의 기후환경이야기
- 13) 최연의 절(寺)이야기

- 14) 사기순의 소육지족이야기
- 15) 이용성의 풍경소리
- 16) 각운의 명상수행이야기
- 17) 김형근의 미국불교이야기
- 18) 홍영주의 불교영어이야기
- 19) 이학종의 귀농일기
- 20) 최원녕의 공(空)놀이터
- 21) 남상욱의
생활속수행이야기
- 22) 임승택의 불교이야기

필진구성은 재가의 각계각층의
쌤(선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빈방도 있지만
조만간에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글이 올라 올 때
마다 갈증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한모금의 감로수와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필진은 마치
갖가지 꽃들로 장엄된
세상같습니다.

“세상은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華藏世界)이네.
크고 화려한 한종류의
꽃으로만
장엄된 세계가 아니네.

들에 가면 들꽃,
산에 가면 야생화,
온갖 이름 모를 갖가지 꽃들로

장엄된
잡화엄(雜華嚴)세계라네.

꽃은 형태와 빛깔은 달라도
대지에 뿌리 내리고 있다.
나무들 뿌리가 엉켜 있듯이,
온갖 잡꽃들은 대지를
어머니로 하고 있다.

세상은 온갖 사람들이
살아 가는 불국토라네.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성향 또한 모두 다르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한 하늘아래에서
한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이병욱 줄시)

내가 만들어 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상입니다. 불국토는
비구승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구를 포함하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의 사부대중이
만들어 가는 세상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가르침에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비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내립니다. 다만 담는
그릇이 문제입니다.
전단향나무이든 소똥이든 모든
연료에 불이 붙듯이, 누구나

가르침을 실천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카페는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불자들에게 감로수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 신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의평화불교연대
카페가 이제 힘차게
도약합니다.

2018-05-16
진흙속의연꽃

27. 짧고 굵게, 승의적 초월의 길

청정도론 자애수행편을 보면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고픈 자를 위해서
스스로 먹이가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전생담은 보살행에 대한
것입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보살이었을 때 사아승지
십만겁동안에 초월의길을
완성하여” 바라밀을
완성하시면서” (Vism.9.26)라
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빗자짜라나삼빠나(vijjācaraṇa-
samppanna), 즉 명행족이라
합니다. 지혜와 공덕을 구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애와 보살행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사무량심과
10 바라밀을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 전생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보시바라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바라밀(dāna-pāramī):
예를 들어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을 기부하는 것은
일반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고,
손이나 발 등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우월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고,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승의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다.”

부처님 전생담에서 보는
보시바라밀은 승의적 초월의
길(dasaparamatthapāramī)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가 되기로 서원한 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평불
이념의 토대라 볼 수 있는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동샘님이 김동수 열사
추모식에 다녀 왔습니다.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대불런 선배로서
5.18 당시 도청에서 산화한
후배를 추모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김동수열사도
보살행을 한 것입니다. 도청에
들어가면 99%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들어간 것은 승의적
초월의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벌써 38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58 년 개띠들은
이제 60 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은 22 세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산 자들은 부처
의식을 느껴 87 년에 향쟁했고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놈만 불쌍하지.” 라고.
그러나 초월의 길을 가는 자에
게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
을 것입니다. 짧고 굵게 산 것
입니다. 아마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나도 보살행을 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2018-05-26
진흙속의연꽃

28. ‘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을 읽고

하나의 잘 만든 콘텐츠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에게
충분합니다. 정평카페에
임승택 교수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22명 필진
가운데 하나인 임승택 교수의
방에 처음 올려진 글은
‘논문-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모두 20 페이지에 달하는
pdf 문서입니다.

가르침에 갈증 나는 자들에게 단비를

임승택 교수는 올린 글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인도철학 제 51 집 게재)
한 편을 올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무아에 관해
논의가 많았음에도 오해와
혼돈이 많았던 것
같아 정리해본 것입니다.” 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카페에 걸맞는 글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평카페가 생겨난지 이제
42 일 되었습니다. 5 월 27 일
현재, 누적 방문자 11,917 명,
회원 144 명, 게시글 293,
댓글 496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2 명의
필진에서 이번에 임승택
교수의 글이 올라 옴으로
인하여 빈방은 3 개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글이
올라와 방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려 합니다.

임승택 교수는 경북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카페에 올려진
논문 ‘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은
2015 년 경북대학교
복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카페에 공개함으로 인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갈증 나는
자들에게 단비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적 무아 세 가지

임승택교수가 말하는 무아와
윤회는 어떤 것일까? 서문에
간략히 소개 되어 있고 본론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임승택 교수에
따르면 “필자는 무아 해석의
시대적 단층이 ‘형이상학적
무아’와 ‘실천적 무아’로
대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라는 말로 논문을
시작합니다. 키워드는
형이상학적 무아와 실천적
무아입니다.

무아이면서 윤회할 수 있을까?
불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유아론을 배경으로
깔고 묻는 더러운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이런 논의는
부파불교시대때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악이
단편론적 무아윤회일 것입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무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결론부에

있는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윤회 부정의
무아’는 죽음 이후 자아를
부정한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히 ‘윤회 부정의
무아’는 삼매에 의한 초월적
지혜를 통해 제시되는 윤회의
교설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바로 이것은
사쌍팔배(四雙八輩)라는
교리체계를 거스르게 된다.

2) 한편 ‘비아와 교체 가능한
무아’는 직접적인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구사론의 비판 에서처럼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진실한
자아가 결코 초월적인 것일
수도 유의미한 것일 수도
없다는 논리적 난점을 안고
있다.

3) 마지막으로 ‘무아
윤회’의 논리를 펼치는
‘윤회와 공존 하는 무아’는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는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무아 자체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무아 윤회’는 극복해야 할
윤회의 상태와 윤회가 멈춘
이상적 경지를 동일한

차원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임승택 교수, 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숫자로 구분하여 편의상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멸론적 윤회는 1 번 항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에 기반한 단멸론적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수는 유전자윤회론을 주장하는데 단멸론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번항을 보면 비아(非我)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역 경전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빠알리문헌 번역가 나까무라 하지메와 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리스 데이비스 여사 역시 비아론의 신봉자라 합니다.

3 번 항에서는 무아이지만 윤회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아와윤회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접목하여 이론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김승택 교수는 “경험적 차원을 벗어나는 논리로써 규명해 들어간다.” 라고 비판합니다.

실천적 무아론에 대하여

임승택 교수가 주장하는 무아윤회론은 어떤 것일까 결론부에 실려 있는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실천적 무아’의 양상은 오온(五蘊)에 대해 자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서 멈추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소극적 진술은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이것이 형이상학으로의 도약을 의도적으로 멈춘 무기(無記, avyākata)의 정신과 통해 있다고 생각한다.” (임승택 교수, 무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양상들)

임승택교수가 파악하는 무아윤회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 보여주는 문구에 근거하여 경험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세 가지 형이상학적 무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의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주로
형이상학적 무아와 관련된
윤회 세 가지를 소개 했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실천적 무아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미에
“필자의 일관된 의도는
‘형이상학적 무아’ 에
엮매이지 말고 원래의
가르침인 ‘실천적 무아’ 에
각성하자는 것이다.” 라
했습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실천가능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의 소멸을 통해

임승택교수의 실천적 무아와
관련하여 청정도론의 한구절을
들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번뇌의 소멸을 통해 윤회가
종식된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밝힌다.
오온의 상속에 의한 윤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다한 불처럼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Vism.22.88)라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라는 탐, 진,
치가 소멸하여 행위를 해도
업으로 남지 않고 단지 작용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승택 교수는 논문에서 주로
형이상학적 무아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실천적 무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형이상학적 무아와 실천적
무아를 비교 검토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논문이
기다려 집니다.

Khīṇaṃ purāṇaṃ navaṃ natthi
sambhavaṃ
Virattacittā āyatike
bhavasmim,
Te ñīṇabilā avirūḷhicchandā

Nibbanti dhīrā
yathāyampadīpo,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Stn.234)

2018-05-27
진흙속의연꽃

29. 권승들은 참회하고 자리를 떠나시라

피디수첩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종단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을 타기 전에 그토록 외치던 것들입니다. 만약 그때 외침을 수용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5월 29일 방영된 피디수첩 ‘크스님께 묻습니다 2’ 시청률이 5.3%라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50 만명이 본 것입니다. 유튜브 등으로 시청한다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조계종, 아니 한국불교 민낯이 날낯이 드러났습니다. 불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빈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까지 그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촛불법회 때 중앙언론에서는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속의 흔들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단과 반대측에 있는 교계신문에서는 연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종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매체에서는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폭력프레임, 이교도 프레임으로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비난 받아야 할 자를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종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불교계는 종교적폐청산 1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MBC 피디수첩에서 불을 당겼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힘에 의한 적폐청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활동을
보건데 내부적으로 자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전국민들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방송은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승들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승들이 일개 방송사 프로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관으로
규정하여 대응하지만 2 탄은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치부가 국민들에게
날날이 알려진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절에
가는 사람들도 크게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폭행이나
저지르는 집단으로 인식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피디수첩
방영은 대단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불자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들어
주었어야 합니다.

이제 조계종 권승들은
엠비시와 싸우고 있습니다.
엠비시가 대신해서 싸워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승들은 참회하고
자리를 떠나기 바랍니다.
국민들 보기 창피합니다.

2018-05-30
진흙속의연꽃

30.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대리참회하며

적폐청산시민연대 3기가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시즌
쓰리(3)’입니다. 작년
촛불법회가 시즌
원(1)이었다면 올봄
촛불법회는 시즌
투(2)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에 따라 초여름이
시작된 6월 1일에 열린
법회는 시즌 쓰리의 개막을
알리는 법회입니다.
적폐청산시민연대 3기는 6월
5일 공식으로 출범합니다.이

시작은 미미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한
미미합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 몇 명에서 ‘이래서는
안된다.’라며 ‘우리라도

움직여 보자’ 해서 시작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광화문촛불도 그랬고, 작년 촛불법회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촛불이 햇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불교적폐청산 시민연대 3기 출범식 역시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7시 보신각 광장에 낮익은 얼굴들 하나 둘 보였습니다. 길거리 법회가 있는 날이면 볼 수 있는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법우님들입니다. 단체소속도 있고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이 있는 삶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내서 참여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법우님들의 경우 원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참불자’라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깃발을 세우고

깃발을 세웠습니다. 보신각 광장에는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깃발꽂이대가 설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아마

보신각 광장에서 각종 집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배려해 놓은 것이라 봅니다. 적폐청산시민연대 깃발, 참여불교재가연대 깃발, 불력회 깃발, 정의평화불교연대 깃발, 이렇게 네 개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깃발은 상징입니다. 일종의 군기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깃발을 중심으로 뭉치기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광화문촛불에서 수많은 깃발이 이를 말해줍니다. 불교적폐청산시민연대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깃발이 세워집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도 깃발을 들었습니다. 녹색바탕에 흰글씨와 흰코끼리가 그려진 문양입니다. 촛불법회등 각종 법회가 열리면 빠짐 없이 등장하고 5월 12일 연등축제 때 종로거리에서 행진할 때 선 보인 바도 있습니다.

진장에서 깃발은 때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초기경전에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전사는 흙먼지가 이는 모습은 견디지만, 깃발의

모습만 보아도 용기를 잃고 전의를 상실하고 건디지 못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A5.75)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발을 들었을 때 불의의 세력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채증작업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참회법회는 문자 그대로 ‘참회’가 주제였습니다. 잘못된 권승들이 했음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권승들을 대신해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참회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한몸 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돈과 정력은 문제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피치 못해서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홍보가 미흡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단과의 관계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아마 생계형신도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총무원직원이 나와서 채증작업했습니다. 권승들의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생계형직원은 이곳 저곳 사진을 찍어 갔는데 어쩌면 “뭐, 별거 아니네.”라며 보고했을지 모릅니다. 이날 참회법회 참석인원은 사오십명 가량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수만명 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법회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수만명 모이는 것보다 수십명이라도 매주 끈질기게 모여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유병화 선생님은 “기복불교 하지 맙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타락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복에 있음을 말합니다. 불자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여 향상하는 삶을 나아가야 함에도 기도에만 의지하는 불교가 되었을 때 신도들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무지할수록 성직자의 권위는
높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불교가 기복에서 수행의
불교로 전환 되었을 때
한국불교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공동대표는 ‘부패한 종교인과
손잡는 것은 악마와 손잡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종교인과 손을 잡았을 때
부정한 거래이기 쉽습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자가 종교인과
손을 잡았을 때 비난 받아야
할 자를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자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검찰이 종교와 손잡았을 때
결국 종교의 손해로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피디수첩 보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정스님에
따르면 오늘날 스님들은
무능력자라 합니다. 천안통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선방에
십년 앉아 있다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스님이 되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속처럼 변하는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무능력자이거나 바보와 다를
없다고 했습니다. 도정스님은
“깨어 있는 불자가
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대리참회하며

불교에서는 참회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죄를 저질렀더라도
참회하면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장에서 말하는
참회는 어떤 것일까?
양국따라니까야 ‘죄악의
경’ 에 따르면 참회죄에
대하여 “여러분, 나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 242)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장에서
말하는 참회죄는 재가 든
자루로 얻어 맞는 정도의
그다지 무겁지 않은
형벌입니다.

6월 1일 모인 스님들과
불자들은 국민과 불자님들에게
참회했습니다. 참회의 의미로
108배를 했습니다. 광장 맨
바닥에 방석을 깔아 놓고
박종린법사의 우렁찬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맞추어
차분하고 사뭇하게 절을

했습니다. 국민과 불자들에게
죄송함과 용서를 비는 참회의
절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권승들을 대신하여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대리참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란 무엇일까?



네 가지 죄가 있는데

참회죄(pācittiya)는 한역으로
단타죄(單墮罪)라 하는데
비교적 경미한 죄로 4인
이상의 수행승에게 고백하여
참회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회죄보다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입니다.

승단추방죄(pārājika)는
한역으로 단두죄(斷頭罪)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머리를
자르는 중죄로서 승단에서
추방되는 죄를 말합니다.
경에서는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나.” (A4.242)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적교섭이나 도둑질, 살인,
신통위력의 과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피디수첩에 방영된 큰스님들은
모두 머리가 잘릴 정도로
큰죄를 지었기 때문에
승단추방죄에 해당됩니다.

승단잔류죄(saṅghādisesa)는
한역으로 승잔죄(僧殘罪)라
합니다. 경에 따르면 “여러분,
나는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라고
표현됩니다. 몽둥이로 얻어
맞을 정도로 무거운 죄로
대중에 참회하면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승단내에서 폭력 등을
저지른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피디수첩에 등장하는
큰스님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백죄(pāṭidesaniya) 가
있습니다. 참회죄보다 가벼운
죄로 한사람에게 고백는
것으로 죄가 참회되는 경미한
죄를 말합니다. 경에서는
“여러분, 나는 책망받아야
마땅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라고 표현됩니다.

네 가지 죄를 보면 가장 무거운 것부터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참회죄, 고백죄의 순입니다. 그런데 참회하여 용서되는 죄가 있고 참회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승단추방죄는 아무리 참회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승단추방죄는 외부에서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죄는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기 때문에 승단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참회를 받아 주어야 하지만

6월 1일 참회법회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회의 108 배를 올렸습니다. 초여름 도심의 한가운데서 “국민들과 불자님들께 참회합니다.”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연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국민들과 불자들은 이런 참회를 받아 줄까?

참회를 하면 참회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승단추방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하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에 따르면 참회죄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승이나 수행녀든지 참회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날카롭게 두려움을 지각하는 자는 ‘참회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참회죄를 범한 자는 여법하게 그 처벌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명하다.” (A4.242)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이든지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단추방죄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외입니다. 피디수첩에 등장하는 큰스님들은 승단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권승들의 심장부에 정의의 깃발을

잘못을 하면 참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잘못된 자는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방송에 대하여 ‘방송법란’으로 규정하고 전국 사찰에 엠비시시청 거부운동을 펼칠 모양새입니다.

피디수첩에서 단두죄를 저지른
권승들은 참회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단추방대상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성적교섭이나 도둑질, 살인,
신통위력의 과시에 해당되는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단추방죄에
해당되는 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 있는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참회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들은 뺏뺏한데
죄 없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대리참회 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깃발은 매주 목요일 저녁
7 시에 보신각광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알리는 정의의
깃발입니다. 정의의 깃발이
권승들의 심장부에 세워지길
고대합니다.

2018-06-02
진흙속의연꽃

31. 불자님들을 6월 정평법회에 초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불자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도 되고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누구든지 붓다, 담마,
상가 삼보에 귀의하여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산다면 불자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회원들입니다. 제가불교
신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제가불교단체입니다.
양(陽)의 기운이 최고조
달하는 유월에 정평법회가
열립니다. 6월 9일 토요일
오후 3 시 불광산사입니다.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리더십에
실망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십년만에 이루어진 종교인구
총조사에서 무려
3 백만명이라는 불자들이
불교를 떠났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단 상층부에 있는
리더의 자질문제라 여겨집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이든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의 덕목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은행에서 벤처 사업가에 대출할 때 제일로 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CEO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최고 경쟁력은 최고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종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피디수첩에서 방영된 ‘큰스님에게 묻습니다.’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2탄 까지 방영된 것을 보면 한국불교는 복마전입니다. 마음 놓고 딸을 절에 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국불교가 이지경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자질이 되지 않는 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에 실망하여 불자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이 연타로 방송 될 때마다 수 십만씩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탐욕에 기반한 못된 중자의 권승들이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011년 창립이래 꾸준히 종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먼 권승들의 집단에게는 소리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단의 리더십에 아주 실망하여 재가자들끼리만이라도 여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눈부처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매년 학교를 개설하여 작년까지 6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평법회가 생겨나게 된 동기는 종단이 변화와 개혁을 거부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법회에서 또다시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종단의 권승들의 행태를 보아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가자들끼리라도 여법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미로 작년 11월 정평법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눈부처학교와 정평법회는 어쩌면 종단개혁이 좌절됨에 따라 생겨난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못하니 재가불자들이라도 여법하게 실천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진 만큼 능력껏 배풀고 아는
만큼 능력껏 알려 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정의평화불교연대입니다.
6월 정평법회는 정평불
지도법사이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박경준 선생을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됩니다.

2018-06-03

정평불 사무총장 이병욱

32. 6월 9일 광화문에서 평화의 촛불을

“북한은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아침 뉴스에서 들은
말입니다.
앞으로 정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새로운 황금시장이 될
것이라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 역시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진원지 광화문
광장에서
6.9 평화촛불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녁에 오랜만에 촛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건이 무르익어
결과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불교의 업과 업의 작용의
법칙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의 시대가 된
것은
시절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연(緣)을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세월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의 때가 온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시절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때 당시 업체사장과
경제이야기 했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 년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굳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현지공장 만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북한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면 투자는
활성화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비록 체제는 다를지라도 서로
왕래하다 보면 같은 나라나
다름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관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6월 9일 광화문에서 평화의
촛불을 들시다.

2018-06-05
진흙속의연꽃

33. 참여하는 것은 복짓는 것 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참여 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몸이 아파 중병에 걸린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등도
참여 하는 것 역시
언감생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고 즐기는데 열중한 사람,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있는
사람도
참여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여할까?
먹고 살만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일까?
하는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놀이로, 취미로 참여 하는
것일까?

한때 두문불출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회사다닐 때 입니다.

집하고 회사밖에 몰랐습니다.
밤낮없이 주말없이 일만
하다보니
5년,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일인사업을
할 때도
집과 사무실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대신 글쓰는 것으로
사회참여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블로그
누적조회수가
6백만명으로 불교계 넘버원
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세상밖으로
나온 것은 삼사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참여해
보았습니다.
글로 참여한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사회참여한 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주 목요촛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참여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하길
“힘을 실어 주려
나왔습니다.” 라 합니다.

제작년 광희문촛불 때
개별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생전처음 아내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소액결재도 참여라 봅니다.
몇 년 전 법우님의 권유로
승가원에 소액자동이체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몇 군데 소액후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의 5%이내는 후원하는
것이라고.
백만원 별면 5만원은 이웃과
주변과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한군데 몰아서 하는 것 보다
소액으로 여러군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등
쪼개서 하는 겁니다.

백명이 모이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108명의 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08명의 회원에
조건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먼저 회비납부일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자동이체 하면
조건이 됩니다.
정평법회와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조건이됩니다.

회비는 매월 카페에
공개됩니다.
회비납부 회원만
열람가능합니다.
매월 정평법회가 열릴 때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바랍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랍니다.
테라와다에서는 스님들은
“아유 반노 수강 발랑!” 하며
축원합니다.
“장수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건강하시길!” 라는
뜻입니다.

장수축원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산만큼
공덕지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공덕도 더 많이
지를 겁니다.

문화인이라면 소액결제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자동이체 한개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라 봅니다.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을 때 복을 지어야
합니다.
참여하는 것은 복짓는
것입니다.

2018-06-06
진흙속의연꽃

34. 사회적 실천을 하면 사회가 완성된다, 6월 정평법회

부처님은 전도선언에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S4.5)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설령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는 만큼 그리고 능력껏
가르침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6월 정평법회가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정평법회는 이번에 여덟 번째입니다. 과연 정평법회에서는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이익이 없으면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얻을 것이 없으면, 속된 말로 건질 것이 없으면 참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회는 담마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담마(Dhamma)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법회는 법회가 아니라 친목이나 취미와 같은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알려 주고 가르침을 접하는 곳이 법회입니다.

숫따니빠따에 ‘위대한 축복의 경(Sn2.4)’이 있습니다. 경에 따르면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5)라 했습니다. 또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6)라 했습니다. 법회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이야말로 전도선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익(hita)이고 안락(sukha: 幸福)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노래를

여덟 번째를 맞는 정평법회는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법사 박경준 교수는 매번 법회 때 마다 불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가르침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경전적 근거로 설명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법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래도 함께 부릅니다. 그렇다고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계절과 시대에 맞는 의미 있는 노래를 익힙니다.

4월 법회 때는 범능스님의 ‘먼 산’을 함께 부르고 익혔습니다. 5월 법회 때는 박문옥의 ‘목련이 진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범능스님의 ‘먼 산’의 가사를 보면 “그대에게 나는 지금 먼 산이요.”라 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인 열반을 의미합니다. 박문옥의 ‘목련이 진들’은 1980년 5월 광주에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번 6월 법회 때는 민요 ‘노들강변’을 배웠습니다.

소리꾼 노광희 선생 지도로

지도 법사이자 노래를 잘 부르는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민요 노들강변은 불교의 무상의 이치를 잘 노래한 것이라 했습니다. 가사 중에 ‘무정 세월’ 등으로 표현된 것이 이를 말합니다. 정평불회원 중에 소리꾼 노광희 선생 지도로 함께 배웠습니다.

노들강변은 1930년대에 유행한 신민요입니다. 경기민요 가락의 이 노래는 신불출 작사에 문호월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예명입니다. 일제시대 때 실명을 숨기고 예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사와 작곡은 한사람일 것이라 합니다.

노들강변의 가사를 보면 그때 당시 민중의 힘들고 지친 한스런 삶이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불교의 제행무상의 도리를 바탕으로 슬픈 노래 가사이지만 음조는 흥겹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6월 정평법회 주제는 ‘화합의 불교공동체, 승가’입니다. 지도법사 박경준 교수가 손수 작성한 프린물을 보면 승가에 대하여 열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승가(saṅgha)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승가라는 말이 빠알리어 상가(saṅgha)에서 유래 했지만 가나(gaṇa)라는 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모임, 집합, 무리 등의 의미입니다. 후대 율의 확립에 따라 종교적 공동체로서 승가로 정착 되었습니다.

공동체로서 승가는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화합중 또는
 화합승가라 합니다.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의 프린물에 따르면
 “비구가 화합하고 환희하여
 다투지 않고 마치 젖과 물처럼
 서로 친애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지낸다면” (증지부)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화합승가를 대표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율장과
 맞지마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습니다.

“아눛타와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기를 바란다.”
 (Vin.1.352, M128)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계행이
 바른지 알려면 한철 같이 살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합하라고 했는데 우유와
 물처럼, 그리고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나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에 따라 살면
 어떨까?” 라며 일심동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마을에서
 탁발하여 돌아 오는 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라 하여
 먼저 보는 자가 먼저 행하라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집에
 돌아 오는 사람이 사람이 밥을
 한다면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에서는 “배설물
 통이 텅 빈 것을 보는 자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치웁니다.” 라 했습니다. 이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먼저
 보는 자가 줍는 것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눈빛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육화(六和)에 대하여

화합승은 구체적으로
 육화(六和)로 나타납니다.
 박경준 교수는 프린트물에서
 육화경을 설명하면서 한자어로
 요약된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諍),
 의화무위(意和無違),
 견화동해(見和同解),
 계화동위(戒和同違),

이화동균(利和同均)’ 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육화는 승가대학에 가면 대방
주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면 오역죄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역죄란 ‘1)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2)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3) 아라한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4)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래의 피를 흘리게 한 경우,
5) 승가를 분열시키는
경우’ 를 말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 승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파법륜승과 파갈마승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파법륜승은 부처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고, 파갈마승은
회의할 때 질서를 교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승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오육죄에
해당되어서 우주기가 다할
때까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매우 무거운 죄에 해당됩니다.

화합승은 구체적으로
육화(六和)로 나타납니다.
박경준 교수는 프린트물에서
육화경을 설명하면서 한자어로
요약된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爭)

의화무위(意和無違),
견화동해(見和同解),
계화동위(戒和同違),
이화동균(利和同均)’ 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육화의 특징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배려, 친절, 인정,
이해, 용서, 존경, 사랑,
동참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화합승의 최종목표는

육화는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바라밀의 삶이 요청됩니다.
그래서일까 대방을 쓰는
승가대학 주련에서 육화를 볼
수 있습니다. 큰 방을 뜻하는
대방건물에 대하여
‘육화요(六和寮)’ 라는
현판도 볼 수 있습니다.

육화에 대한 가르침은
초기경전에도 실려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 ‘꼬삼비 설법의
경(M48)’ 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육화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일까?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원리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여, 올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해탈로 이끄는 원리로서
고귀한 견해아말로 가장

뛰어나고 이것이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포괄적이다.” (M48)라
했습니다. 육화 중에서
견화동해(見和同解)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은 고귀한, 해탈로
이끄는 견해가 있어 그것을
실천하면,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데, 수행승은
이와 같은 견해에 관하여,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 견해와의
일치를 도모해야한다. 이것은
새겨 둘 만한 것으로 사랑을
만들고, 존경을 만들고,
도움으로 이끌고, 논쟁의
불식으로 이끌고, 화합으로
이끌고, 일치로 이끄는
것이다.” (M48)

여기서 견해는 ‘해탈로
이끄는 원리로서 고귀한
견해’를 말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팔정도라 합니다. 이와
같은 팔정도에 대하여
경에서는 누각 가운데 침탑
같은 것이라 하여 “이것이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과 같다.” (M48)라

했습니다. 화합승의
최종목표는 해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열 가지
화합승을 설명했는데 일곱
번째 항목에 전법이 있습니다.
장아함경에 있는
부르나경(311)을 설명했습니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뽀나의
경(S35.88)’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법 제일이라는
부르나 존자의 목숨을 건
포교이야기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전법과
관련하여 기존불자 뿐만
아니라 비불교인도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매월 정평법회가 열리지만
기존불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 말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교도도
설법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부르나
존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르나 존자처럼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전법하는 것이 불자들의
제1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전도선언에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가르침을 접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아는
자라면 자비심이 생겨서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루나
존자처럼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목숨을 건
포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
化衆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지에 오르기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능력껏 알려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불교에 인연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추구하는 108 명의 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평불 108 회원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화합승 전법을
설명하면서 정평불 108 회원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백명
이상만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108 명의
부루나존자가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불자들은
개인적인 수행은 열심이지만
사회적 실천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불자수가
3 백만명이나 감소된 것도
불자들의 사회적 실천이 결여
되어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개인적 수행으로 개인을
완성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가 추락한 데에는

우리나라는 한때
불국토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처음 불교가 들어 왔을 때
그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마치
근대 기독교의 폭발적 신장을
보는 듯합니다. 불교가 전래
되고 일이세기 안에 방방곡곡
질이 세워졌고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21 세기 현재
한국불교는 불과 백년 좀 넘은

기독교에게 1위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한국불교가 추락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중의 무관심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건강, 학업, 사업, 치유와 같은 이른바 사대기도는 열심이지만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완성을 그칠 뿐 사회적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천박한 중산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타 정도는 타야 하고 재산은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는 경제적 지표로 중산층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는 중산층 개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이 세상이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시위하여 바로 잡아 이 세상을 밝히는 자가 중산층입니다.” 라 했습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이번 6월 정평법회는 모두 30 명이 참여했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중에 처음 나온 사람은 11 명입니다. 지인들 소개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진 광고포스터를 보고서 찾아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평법회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왔다는 것은 큰 마음을 낸 것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따르면 아이가 막대기로 부쳐님 형상을 그리면 그 인연으로 성불할 것이라 합니다. 정평법회와 비록 한번으로 그칠지라도 이 인연으로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사림불교를 활성화해야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피디수첩에서 2탄 까지 방영된 것을 보면 어디가서 불자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승가의 책임이 큼니다. 이차적으로 재가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만 매몰 되었을 때 신도는 무지하게 되고 성직자의 권위만 높아져 갑니다. 재가불자들이 많이 알게 되면 승가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만불교는 모범사례입니다.
그렇게 되기 까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승가가
타락했을 때 거사들이
앞장섰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등 중화권에서 볼 수 있는
‘거사림불교’입니다.
중국에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거사라 하는데, 거사들의
불교를 거사림불교라 합니다.

거사불교가 대만불교와
중국불교를 살렸습니다.
거사불교운동의 성공으로
승가가 살아났습니다.
거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승가보다 더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승가에서는 긴장했을 것입니다.
거사불교와 승가불교가 서로
경쟁하듯이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은 중국불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실천을 하면 사회가 완성된다

불교적폐청산은 미리 승려 몇
명을 몰아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더
오염된 자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불교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내부의 청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승가에
적폐청산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생활하고 사회적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제까지나 스님들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 되지
않는 한 제2의 서의현,
제2의 자승, 제2의 설정은
계속됩니다.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재가불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적 수행을 하면 개인이
완성되고 사회적 실천을 하면
사회가 완성됩니다.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불교의 적폐는
청산됩니다.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불교는
완성됩니다.

2018-06-10
진흙속의연꽃

**35.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6.9 평화촛불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
정의평화불교연대 깃발이
날렸습니다. 아마 불교계
깃발로는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월 정평법회를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광화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광화문
평화촛불에 참가하기 위하여
깃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6월
9일 하루에 두 번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잔뜩 구름낀
광화문에는 수십개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국민들은
제작된 광화문 촛불 때
나부꼈던 수백개의 깃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깃발문화는 익숙합니다.



깃발은 보기가 좋습니다. 깃대
끝에 천을 달면 바람에
휘날립니다. 각 단체명이 적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
구호가 있기도 합니다. 마치

전장에서 군기처럼 깃발은 그
단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권승들을 처벌해달라고

이날 광화문에는
불교적폐청산시민연대
자원봉사자들이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은 불교적폐를
알리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봉사자들은 적폐청산 조끼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권유했습니다.

최근 MBC 피디수첩에서
‘큰스님에게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2 탄까지
방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회할 줄 모르는 권승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렸습니다.
20 만명이 서명하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봉사자들은
6.9 평화촛불 현장에다 부스를
마련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3.24 평화촛불 때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약 천명 가량 모였습니다.
자료를 검색해 보니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첫 번째
평화촛불은 지난 3월 24 일
열렸습니다. 그때도

참석했습니다. 정평불 모임을 금전사에 갖고 하산 하는 길에 광화문에 들른 것입니다.

3월 24일 촛불 때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만은 막아 보자는 심정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종교단체까지 가세하여 수십개의 깃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교계는 잘 보이지 않았습다.

2.24 평화촛불에서 백기완선생이 연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기완선생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 부쳤습니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3.24 광화문평화촛불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제 2차 6.9 평화촛불은 그야말로 희망과 들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 최고책임자가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토록 원하던 북미회담에 따른 정전과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6.9 광화문촛불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구호도 세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입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것은 종전협정을 의미하고, 평화에 살자는 것은 평화협정을 의미합니다. 종전이 되고 평화가 오면 통일은 저절로 다가 올 것입니다.

삼시간에 우의로

광화문 하늘은 잔뜩 찌뿌린 날씨였습니다. 이날 일기예보에서는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이 어둑해져서 촛불이 하나 둘 켜질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우산도 준비 해 오지 않아서 빨리 자리를 뜰까도 생각했습니다. 이때 우의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가 올 것을 감안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우의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삼시간에 참가자들은 우의로 갈아 입었습니다.

불교는 없었다

올해 들어 두 번 열린
광화문평화촛불은 재작년
광화문촛불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촛불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간의 평화문제입니다.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날 평화촛불에는 86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단체 소개를 할 때 불교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단체는 있었지만
불교는 소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흙상임대표가 개신교
목사와 함께 결의문 결의문
낭독했습니다.

미국대사관을 한바퀴돌고

무대행사가 끝나고 다음은
촛불행진입니다. 이날 촛불은
양초촛불입니다. 요즘
촛불하면 LED가 대세이지만
6.9 행사에서는 종이컵에
양초를 끼워서 불을 붙이는
이제 고전이 되어 버린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행진 목표는
미국대사관입니다.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을 향해 세 가지
구호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를 계속
외쳤습니다.

촛불행렬은 미국대사관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바이블에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았다면
여리고성 공략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촛불은 한바퀴 도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시절이 인연이 되어서

내일은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회담결과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낙관합니다. 이제 시절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회자 되어
왔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인
시절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두 세대나 흐른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재작년 광화문촛불이 성공한
것은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익기 까지
 응축작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댓글사건이나
 세월호사건 등이 응축 되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북미회담에
 따른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역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광화문에 정의평화의 깃발이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교계만큼은 성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권승들 때문에 신도가
 3 백만명이나 빠져 나가는 등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서명운동을
 하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정의평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불교깃발이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정의의 깃발, 평화의 깃발을
 날려서 정의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흙속의연꽃

36. 청정한 삶은 음식청정으로부터, 구기동모임

청정한 삶을 위하여

누군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며 묻습니다.
 상대방은 “밥먹고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형편이 괜찮은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습니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세끼는 기본입니다. 두 끼를
 먹는다면 한 끼를 먹는다면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밥을 굶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수행자들은 오전에 한끼만
 먹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수행자에게 그다지 크게 힘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 똑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루 한끼만 먹어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루 한끼만 먹는 것은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한다면 신체를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식(淸食)제도가 있는데

불교에 청식(淸食) 제도가 있습니다. 결식에 의존하는 수행자들이 재가자의 요청에 초대받아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식에 의존하거나 신도들의 청식에 의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의존하는 이유는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사찰에 부엌이 없었습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청식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찢다는 수행승들에게 “존자들이여, 장로수행승들께서는 내일 재가 음식공양을 하겠사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41.2)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청식입니다. 이렇게 청하면 수행승들은 침묵으로 허락합니다.

재가자들은 수행승들을 위하여 최고로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은

“훌륭하고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손수공양을 올려 흡족하게 했다.” 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음식이란 “맛있는 버터크림 죽” (S41.4)같은 것입니다.

청식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재가자들은 서로 수행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탁발문화가 사라진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사찰에 공양간이 있고 부엌이 있어서 음식을 지어 먹기 때문입니다.

구기동 토굴에서

재가불교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청식이 있었습니다. 사찰음식전문가인 유병화선생이 구기동 토굴에 정평회원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올렸습니다.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것이고 오신채를 전혀 쓰지 않은 사찰음식입니다.

구기동에 토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굴개념이 확장되어서 주택도 토굴이라고 하고 심지어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토굴이라 합니다.

구기동 토굴은 지상 2층
지하 1층 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이북 5도청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택토굴은 꽤 넓직합니다. 일
층에는 거실과 안방과 주방이
있습니다. 이층은 방을 툇 터
놓아서 수십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에는 서고인
데 지상 보다 온도가 4-5도 낮
아서 서늘합니다. 비구니스님
이 거쳐하던 곳이라 합니다.
비어 있는 집을 정평회원이 관
리하고 있어서 모임 장소로 활
용한 것입니다.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

유병화선생은 수많은 반찬을
준비 해 왔습니다. 육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제철에 나는 것들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가짓수를 세어 보니 거의
20 가지 됩니다. 이름하여
사찰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자들이 사찰에서 먹는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면 대개
비빔밥을 줍니다. 그런데
불교박람회장에서 보는
사찰음식은 화려 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스님들이 저와
같은 웰빙음식을 매일 먹고
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유선생이 제공하는 음식은
일반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학조미료 등을
쓰지 않고 우리 고유의 장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은 좀처럼
접하기 힘듭니다. 시중에
오신채없는 사찰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음식만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반찬
가지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이런 음식은
10 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스님에게 청식(請食)을

유선생은 최상의 음식을 아무 조건없이 아무대가 없이 회원들을 초청하여 밥한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스님들도 초청했습니다. 현재 조계사 일주문에서 길거리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날 초청받은 스님은 도정스님과 허정스님, 그리고 묘운 비구니 스님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니 식구

식구들은 매일 밥을 함께 먹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사이임을 말합니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회식을 하는 것도 친밀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마련한 청정한 음식입니다. 스무가지 가까이 되는 음식을 조금씩 한접시에

담았습니다.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최상의 음식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듯합니다.

약이나 다름 없는 차(茶)

마치 보약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차담하기 위해 빙 둘러 앉았습니다. 부근에 사는 류상동 선생은 떡과 과자를 박스 단위로 사 왔습니다. 멀리서 오신 선생님들은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청정한 음식에는 청정한 차가 제격입니다. 빈집이기 때문에 다구는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유병화선생은 목련꽃차와 고욤잎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차는 이미 접한 바 있습니다. 약 2 주 전에 유선생이 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번 차 맛을 알게 되자 이전에 매일 마시던 커피와 발효차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련꽃차는 기관지에 좋다고 합니다.만드는 방법은 목련꽃이 피기 전에 봉오리진 것을 따는 것입니다.

겉질을기벗으면 응축된 꽃잎이 있는데 이것을 따서 만든 것이라 합니다. 고욤잎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감잎차는 쓴맛이 나지만 고욤잎차는 감미로운 맛이 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쯤 되면 두 종류의 차는 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몸은 민감하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불선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몸이 육류나 알코올, 약물 등으로 잔뜩 오염되어 있으면 건전한 생각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먹거리는 청정한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소주는 한잔만 마셔도 취기가 돕니다. 두 잔을 마시면 확실하게 반응이 옵니다. 세 잔, 네 잔을 마시면 술기운이 몸이 퍼져서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음주는 만약의 근원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오계를 어길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사에는 음주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 역시

음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음주가 나쁜 것은 집중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명상이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동이면 가능할까 음주는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 치명적입니다.

사람몸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조미료가 미량만 들어가도 맛에 변화를 일으키듯이, 알코올이 한잔이라도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약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청정하게 하려면 먹거리가 청정해야 합니다. 이날 접한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초대받은 세분의 스님은 이런 음식 처음 접해본다며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유선생은 스님들을 위하여 별도로 밥과 음식을 싸드렸습니다.

청정한 삶은 음식청정으로부터

초기경전에 ‘아라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정한
삶(Brahmacariya)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김 없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의 청정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먹은 밥한끼는 활력을 동케
만듭니다. 이날 먹은 음식과
차로 인하여 몸이 날아갈 듯
가쁘합니다. 덩달아 정신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려면 먼저
음식청정부터 실현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에서는 감관의 문을
수호하는 것과 함께 음식에
적당량을 아는 것, 그리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청정한 삶은
음식청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8-06-13
진흙속의연꽃

37. 선한 사람들이 기폭제가
되길, 설조스님 단식 나흘째

오늘 서울나들이 했습니다.
사는 곳이 안양이니
서울나들이인 셈입니다.
우정공원이 목표입니다.

이른 아침 우정공원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노숙인들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널부러져 자고
있습니다.
우정공원은 노숙인들의
아지트입니다.

“조계종이 청정해야 나라가
청정하다.”
설조스님 단식현장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구호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 현실을 보여
주는 듯 합니다.

설조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정평불 회원들과 노스님의
만남입니다.
삼배로 예를 갖추고
경청했습니다.
단식 나흘째의 노스님은
정정했습니다.

노스님은 나즈막히 말했습니다.
“내한몸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라 했습니다.
다비준비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라 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선한
사람들이 기폭제가 될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94 년 개혁은
미완성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투명화가
좌절된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94 년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승가이기주의 소산이라 봅니다.
결국 승가의, 승가에 의한,
승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가이기주의에
재가의 설 땅은 없습니다.
승가에서 재정관리 하는 한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총무원장 직선제와
승가복지제도는 승가의
문제입니다.
재가의 관심사는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재정에 대한 출재가역할분담론
없는
개혁은 허망한 것입니다.

명진스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얼굴이 익숙합니다.
스님은 두 손을 꼭 잡고
글 잘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나흘 째,
스님은 꼳꼳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스님의 바램대로 선한
사람들이
일어 섰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의 바램대로
재정투명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2018-06-23
진흙속의연꽃

**38. 아는 것만큼 알려주고
능력껏 보시하고, 자타가
이익되는 정의로운 삶을
위하여**

사회적 실천에 대하여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늘 화두처럼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실천입니다. 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따비에 대하여

사회적 실천방법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사회적
봉사입니다. 노숙자에게
밥한끼 제공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이미
책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회향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월과 2월에
을지로굴다리 노숙자
‘따비’에 참여했습니다.

따비라는 말은 큰 농기구가
역할을 못하는 모서리진 곳
등을 경작하는 데 사용하는
작은 농기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늘지고 소위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봉사라는 의미에서
따비라 합니다. 노숙자 봉사를
통하여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동시대를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언젠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자타(自他)의 이익을 위한 삶

사회적 실천은 개인적 실천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정평법회에서
지도법사인 박경준 교수가
“개인적인 수행은 개인적
완성으로 귀결되고,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완성으로
귀결됩니다.”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사회적
실천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실천이라 함은 세상의 약자에
대한 봉사도 포함되고, 세상의
강자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적 수행과 이익에만
올인하는 것을 지양(止揚)하고,
또한 오로지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이익에만 올인하는 것
역시 지양합니다. 이와 같이
자타의 이익을 위한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앗굽따라니까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갖추면, 수행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있는데, 그는 스스로 계행을 갖추고, 타인에게 계행을 갖추도록 권한다. 그는 스스로 삼매를 갖추고, 타인에게 삼매를 갖추도록 권한다. 그는 스스로 지혜를 갖추고, 타인에게 지혜를 갖추도록 권한다. 그는 스스로 해탈을 갖추고, 타인에게 해탈을 갖추도록 권한다. 그는 스스로 해탈에 대한 앎과 보을 갖추고, 타인에게 해탈에 대한 앎과 보을 갖추도록 권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갖추면, 수행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A5.20)

부처님은 수행에 따른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삶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에서는 계행, 삼매, 지혜, 해탈, 해탈지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것이 개인적 이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삶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타인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A5.20)라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자타(自他)의 이익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학의천을 가로 질러 일터로

매일 아침 학의천을 가로 질러 일터로 향합니다. 글에서 학의천을 언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만나는 사람들은 학의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의천은 수도권 대도시 중의 하나인 안양시를 가로지르는 생태하천입니다. 시시사철 하천의 일부를 출퇴근시에 걷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으면 상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시에 끊임 없이 좋은 생각이 샘솟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메모앱에 키워드만 저장해 둡니다.

오늘 아침 학의천을 걸으면서
개인적 실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개인적 실천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에 대해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준샘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다니라고 충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뒷짐을 지고 경행하라고
했습니다. 뒷짐을 지긴 지되
허리와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방법은 뒷짐을 허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와 가슴이
펴집니다. 매일 이렇게 이른바
‘뒷짐경행’을 실천하면
자세가 좋아질 것이라 합니다.
동시에 보기도 좋아 질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사람들은 지적 받으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알려 줍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지나칠
것입니다. 오히려 지적을
고맙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범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알려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현자와 교류하라.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으리.” (Dhp.76)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부류는 망신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모욕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한부류는 잘못을 그만 두게
하려는 애정어린 충고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을
말하고 잘못을 그만 두게
만들었을 때 고마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보아도 상대방을 보아
가며 말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할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잘못을 지적해 보았자
불쾌하게 생각하며 적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기쁘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꾸짖어야 할 것은
꾸짖어 말하고, 충고해야 할
것은 충고하여 말한다. 견실한
자는 건디어 널

것이다.” (M122)라고
말했습니다.

뒷짐경행 이틀 짜

뒷짐경행 이틀 짜 입니다.
아침에 학의천을 걸어 오면서
뒷짐 지고 허리와 가슴을 펴고
경행했습니다. 집에서든 틈만
나면 뒷짐경행합니다.
선천적으로 약골에다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많은 자에게
허리와 가슴을 펴는 자세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지적해 주신
샘에게 감사드립니다.

정평불에서는 선생 또는
선생님을 ‘샘’이라 칭합니다.
친구와 같은 말로 누구나
동등한 관계임을 말합니다.
나이와 지위와 관계 없이 모두
샘이라 합니다. 샘물처럼 끊임
없이 샘솟는다고 하여 샘이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샘이라 합니다.

뒷짐경행하여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개인적 실천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이익이 따릅니다. 수행하는
것은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수행은
개인적인 실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실천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었으면
사회에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붓다사사나(Buddhasāsana)

부처님은 개인적 해탈만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곳따라니까야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의
경(A5.20)’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A5.20)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붓다사사나(Buddhasāsana), 즉
부처님의 훈계 또는 부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개인적인 실천과 동시에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는
재가불교단체입니다. 정의와
평화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정의를 실천하여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른
아닌 자타의 이익을 위한
삶입니다.

자타의 이익을 위한 삶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노숙자
봉사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봉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틀을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
작업에 이르기 까지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우선 당면한 현실에 대하여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불교, 여법한
불교를 만들기 위한
불교적폐청산운동입니다.

현재 우정공원에서는
설조스님이 단식 6일 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88세의 노스님은 죽음을
전제로 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한국불교를 바꾸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한몸
바쳐서라도 선한 사람들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평불 회원들은 스님을
외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장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실천운동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령,
붓다사사나입니다.

**한국불교에 큰 도둑이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불교적폐청산운동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 보았자 바위에
계란치기라 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진즉
포기했다고 하면서 개인적
수행에나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패배주의는 제가자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출자가에게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권승들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 때 가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을 쫓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큰 도둑이 들었습니다.
큰도둑은 큰스님 행세를 하며
정치권에 로비를 하여 각종
국가예산을 챙기는가 하면, 그
동안 확보된 자금을 이용하여
종회와 교구본사 주지를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불교에 큰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돈이
 될만한 사찰을 점령하여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토지와
 문화유산을 사유화 하여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도둑이 들어 매일
 도둑질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도둑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도둑질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썰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Stn.281)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썰겨들을 날려버려라.”
 (Stn.282)

부처님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으면 힘을
 합하여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무서워 집을 나간다면

비겁한 행위입니다. 나중에
 집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또
 다시 도둑이 들었을 때 그때도
 집을 나가야 할까?

도둑이 무섭다고 하여 도둑의
 눈치를 보며 산다거나 아예
 도둑을 피해 멀리 떠나 산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와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터 나무토막 같은 반승반속(半僧半俗)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도둑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수행과 개인의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경전적 근거를
 갖습니다. 먼저 최악의 경우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화장용 장작은 양끝이 불타고
 중간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A4.95)

최악은 자신의 이익도 타인의 이익도 아닌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오로지 즐기는 삶을 사는 자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길거리에서 널부러 자는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향상에도 노력하지도 않고 사회의 성장에도 관심 없는 자에 대하여 화장터에서 타다만 장작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권승들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만을 추구하는 스님들은 반승반속(半僧半俗)이어서 화장터 나무토막과 같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와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초기경전에서는 명백하게 전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자신의 수행이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상구보릿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구보리도 되어 있지 않은 자가 하화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천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앞의 세 사람 가운데 보다 가장 훌륭하고 훨씬 탁월하다.” (A4.95) 라 했습니다.

한국불교 개혁을 위해 올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에 감탄합니다. 매일 하루 종일 조계사 일주문 현장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또 단식현장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장다니는 사람이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쫓다여,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M8)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봉사를 해도 먼저 자신의

수행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주말에
시간을 낸다면 훌륭한 봉사가
됩니다. 하루종일 봉사하는
사람이나 일주일에 한번
시간내는 사람이나 공덕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봉사하는 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수행이 없이 타인을 위한 삶만
산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천하는 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타인을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 보다 훨씬 더
수승합니다.

아는 것만큼 알려주고 능력껏 보시하고

보살행은
상구보리하화중생입니다. 먼저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실천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한 실천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으로도 확인
됩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사람 가운데
최상이고 수승하고 가장
훌륭하고 훨씬
탁월하다.” (A4.95)

일주일이 시작 되는 월요일
아침 학의천을 걸어 일터로
가면서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실천에 앞장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실천이 우선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남의 문제를 풀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알려 주는 것은
자타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수행으로
개인을 완성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한다.” 라는 정평불의
이념과도 맞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 밖에 알지 못해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 밖에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껏 보시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오늘 아침 뒷짐경행을 하며
걸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는 연습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인의 실천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행이
개인의 이익으로 그치지 않고
자타가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살아 간다면, 그것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여법한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라 봅니다.

2018-06-25

39.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간다, 리더의 조건에 대하여

대체 이 불쾌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아침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제
저녁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9일째를 맞이 하여 조계사
일주문 맞은편 템플스테이
기념관 앞에서 목요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없는

촛불법회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명으로 인한
불쾌했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6월 29일 목요일 종로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에
열리는 촛불법회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먹어야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종로 3가에 있는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오천원 이상 식사는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끼 때우는 데 있어서
햄버거만한 것이 없습니다.
빅맥이 4,900 원입니다.

요즘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는
설조스님 단식으로 인하여 뜻
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모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먹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개 함께 먹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 누군가
통크게 계산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과도한 지출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게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경우 차라리 분배해서
식사비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스스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고 오는
것입니다.

우정공원 단식현장에 오는
사람들은 자발적
참여자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다 보니 모든 것이
자비부담입니다. 그 자리에
얼어 먹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오후 7시 템플스테이 앞에서
깃발을 세웠습니다. 법회 때
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정의평화불교연대 깃발입니다.
녹색바탕에 흰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깃발은 단체의
상징입니다. 이 깃발을 법회가
열리는 내내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평회원 중의 A 샘이 이날
연대사를 하게 될 모재가단체
전상임대표 B에게 거칠게
항의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B는 무척 당황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뜬어 말려서 소동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흔히 인과응보라 합니다. 업을
지으면 반드시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업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업이 익어야
과보로 나타납니다. 이를
감마위빠까(kammavipaka)라
하여 업이숙(業異熟)이라
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한
것이 시간차를 두고 달리 익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템플스테이 앞 소동은
업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B는 지난 3년 동안
끊임 없이 한사람을
흔들었습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한것도 부역한
것이라 강변하며
입장표명하라고 끊임 없이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해서는
안될 말까지 거침 없이
표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예훼손감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거친 말과 거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나오기 까지 그 사람의 언행의 과보가 익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연대사를 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B는 또 다시 부역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무원 부역자도 있지만 학계 부역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중상모략에 해당됩니다.

이날 B가 연대사 할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소동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될 기운이 농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

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재단했을 때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청(兼聽)의 리더십

어느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좌우 됩니다. 벤처 회사의 경우 최대 경쟁력은 기술력도 아니고 자금력도 아니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해도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십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입니다. 양곳따라니까야 알라바까의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중을 세존께서 가르쳐주신 네 가지 섭수의 토대로 이 대중을 섭수합니다. 1) 저는 ‘이 사람은 보시를 베풀어 섭수해야 한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을 보시를 베풀어 섭수합니다. 2) 저는 ‘이 사람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을 사랑스런 말로 섭수합니다. 3) 저는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일로 섭수해야 한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을 도움을 주는 일로
섭수합니다. 4) 저는 ‘이
사람은 동등한 배려로
섭수해야 한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을 동등한 배려로
섭수합니다.” (A8.24)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섭법입니다. 사섭법의
원류가 초기경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라면 많이
배풀어야 하고, 사랑스런 말을
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조건에
겸손만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백명의 재가자의
리더인 알라바까를
칭찬했습니다. 리더로서
자질에 대하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믿음이 있고,
핫타까 알라바까는 계행을
지키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부끄러움을 알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창피함을 알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많이 배우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관대하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지혜를 갖추었다.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겸손을 갖추었다.
핫타까 알라바까는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라.” (A8.24)라
했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서
특히 여덟 번째의 겸손에
주목합니다.

리더는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듣는 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잘 듣는 것을
겸청(兼聽)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겸청의 리더십을
가진 알라바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승이여, 훌륭한,
훌륭하다. 그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겸손하다. 자신에게
있는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행승이여, 그러므로
핫타까 알라바까가 여덟 번째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 즉
겸손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A8.23)

누구나 동등한 모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띠 올리게

합니다. 마치 독재자스타일 같은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활용하여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마치 하느님처럼 그를 떠 받칠 것입니다.

독재자형 리더에게 사섭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쳐 내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에 실망하여 하나 둘 떠날 때 마치 광신도와 같은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단체모임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에게 지위에 해당하는 호칭과 경칭을 한다면 상하수직관계로 전락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관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정평불에서는 호칭을 통일했습니다. 모두 ‘쌤’으로 한 것입니다. 쌤님도 아니고 쌤님도 아닙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합니다.

한사람의 분노로 인하여

어제 촛불없는 촛불법회에서 불쾌를 맛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불쾌를 야기합니다. 더구나 아무 죄없는 청정하고 순진한 사람을 단지 침묵했다는 이유로 적폐라든가 부역자라고 한 것은 ‘인격살인’에 해당됩니다. 입장표명을 수년간 꿰질기게 요구 한다는 것은 ‘공개망신’을 주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사람의 분노로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리더가 편견을 가졌을 때 조직 전체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적폐청산시민연대 2기가 출범했을 때 불과 한시간을 앞두고 걷어차버린 사건입니다. 무리한 조건을 걸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하는 말은

“모든 비즈니스는 약속시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과옥조 같은 말입니다. 약속시간도 지키지 않은 자는 같이 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전화

해보면 “지금 은행가고 있습니다.” 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리더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립니다.”

글만 쓰다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한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재가불교활동을 하면서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워야 할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반면보살 내지 역행보살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단체의 리더의 리더십에 실망하여 글로서 맹비난한바 있습니다. 이를 알만한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사람이 찝막한 메일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저는 그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립니다.” 라 했습니다. 이 말을 보고 무척 충격받았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의 처세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점만 보이지만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단점만 본다면 이 세상은 홀로 사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있기에 장점만 보고 산다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나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모임에 나가면 회원들과 교류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산다면 모두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유지됩니다.

부처님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공동체는 화합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기를 바란다.” (Vin.I.352, M128)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화합하려면 단점 보다는 장점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고 하여 내치기 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점법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동등한 배려를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번 긴장과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모체가불교단체의 전상임대표도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단점보다는 그의 장점만을 보겠습니다.

설조스님 단식현장으로

6월 28일 설조스님 단식 9일째를 맞이하여 열린 템플스테이앞에서 촛불없는 촛불법회가 열렸습니다. 연대사가 끝난 후 약 150명 가량 되는 참가자들은 설조스님 단식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총무원 청사가

바로 옆에 있는 동그런 광장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설조스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올해 나이 88세의 노스님 치고는 무척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9일째이어서일까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다음 목요촛불은 7월 5일 입니다. 과연 그때까지 버틸지 의문입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됩니다.

찾집에서

모임이 끝난 후 찾집에서 회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복인사 사거리에서 광화문방향에 있는 로터스(Lotus) 찾집입니다. 주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추차 등 전통 차도 팔고 커피도 판매합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팔기도 합니다. 저녁을 알아서 간단히 배우고 찾집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음식점 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홀통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전철을 타고 귀가 하면 언제나 자정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 가는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되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모두
추억입니다.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2018-06-29
진홍숙의연꽃

40. 자타(自他)가 이익되는 삶을 위하여, 7월 정평법회안내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개인적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분리 되지 않아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은 완성은 곧 사회적
완성으로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도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탐, 진,치로
살아 가기 때문에 마치
축생같은 매우 저열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에도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 갈 때
비정상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타인의 이익에는
소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 가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자신의
이익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 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행, 삼매, 지혜,
해탈, 해탈지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갖추었을 때
부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A5.20)라 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자타(自他)가 이익이
되는 삶을 말씀 했습니다.

정평불은 자타가 이익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알려 주고 능력껏

보시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갑니다. 정평불의 이념은
개인적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매월
정기법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월 정평법회가 7 월 14 일(토)
오후 3 시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열립니다.
7 월법회 주제는 “지구촌,
참여불교가 대세다” 라는
제목으로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법문합니다. 우리나라
재가불자 신행의 새 지평을
여는 정평법회에서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2018-07-02
진흙속의연꽃

41. 카페는 한물 간 것일까?

카페는 한물 간 것일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카톡시대입니다. 그러나
카톡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팅에 불과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올리면 삭제불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카페는 여전히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카페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검색이
가능합니다. 올린 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명력을
갖습니다. 긴글도 가능하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페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정평카페는 현재
식물단계입니다. 현재
식물 49 단계로 다음 단계까지
4 점 남았습니다. 참고로
다음카페에서는 사람(1-10),
식물(11-50), 동물(51-90),
음식(91-130), 통신(131-170),
훈장(171-210)로 210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든지 3 달 된 정평카페는
식물 49 단계입니다.

카페 랭킹을 올리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위에 노출됩니다. 검색할 때
화면 상위에 노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정평이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활동 해야 합니다.

카페랭킹은 카페 회원들이 얼마나 자주 카페에 방문하는가, 글과 자료를 얼마나 많이 등록하고 읽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카페 활동을 하는가 등으로 매겨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활동하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 1) 가입한 카페를 매일 방문한다.
- 2) 카페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고 다른 회원들이 올린 글도 열심히 읽는다.
- 3) 카페를 검색공개한다.
- 4) 카페 자료실에 자료를 활발히 올리고 읽는다.
- 5) 가입한 카페에서는 꾸준히 오래동안 활동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글과 사진을 많이 올린다.
- 2) 사진은 한페이지 많이 올리는 것 보다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올린다.
- 3) 글쓰기 보다는 리플달기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댓글 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글쓰기는

+1 점이고, 사진올리기는 +3 점이고, 신규가입은 +5 점이고, 리플달면 +0.5 점입니다. 댓글(리플)은 간단히 달아도 +0.5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점)’ 만 찍어도 +0.5 점입니다.

정평카페에서 카페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방문자는 100 명 안팎입니다. 카페를 소개하면 방문자가 상승하지만 내버려 두면 100 명 이하입니다.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 카페가 활성화 됩니다. 카페랭킹이 올라가면 “개인적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한다.” 라는 정평불의 이념도 널리 확산 될 것입니다.

정평카페(<http://cafe.daum.net/justice-peace>)에 가입하시고 즐겨찾기로 등록하시어 바탕에 깔아 주십시오. 매일 22 명의 필진들로부터 주옥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한국불교 새지평을 열어갑니다.

2018-07-05
진흙속의연꽃

42. 왜 보시의 시대가 최후의 말법시대인가? 설조스님단식 16 일차

마음속의 촛불을

촛불없는 촛불법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16 일째를 맞이 하여 7 월
5 일 목요촛불이 조계사
일주문 맞으편 템플스테이
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보다는 더 많은
이백 수십명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과 참석자들은 마음의
촛불을 켜했습니다. 올해 나이
88 세 노스님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 빨리 불교적폐가
청산되기를 발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노스님의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도 이날
열여덟 명 가량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적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하는 이념을 가진
정평불의 참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불교인으로서
한국불교가 정법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법회는 여법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법회가 그렇듯이
삼귀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귀의문에서 승보와
관련하여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 했지만
운율에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평법회에서는 “거룩한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보님께” “법보님께”와
함께 운율에 맞아 무리가
없습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로 발언
위주로 진행 되었습니다.
승가와 재가에서 번갈아 현재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특히
포교사단에서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지역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들이
성명서를 낭독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용으로 알려졌던
포교사단에 대한 반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사입은 도둑이

조계종의 문제는 승가의
문제입니다. 승가에 도둑이
들어 공간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도둑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도둑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쫓겨난 형국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조계종의
현실입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을 쫓아
내야 합니다. 가사입은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며 공간을 털어
갈 때 도둑이 무서워 하나 둘
떠나 갑니다. 그렇게 떠나 간
불교인이 삼백만명입니다.
한국불교는 온통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출가부적격자들이 너무 많다

승가의 도둑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출가해서는 안될
자들이 출가한 것이 큰 이유라
봅니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출가부적격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다섯 가지 질병에
감염된 자들입니다. 이는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 등을
말하는데 질병의 치유
목적으로 출가한 자들입니다.

이밖에도 출가해서는 안될
사람은 많습니다. 왕의 신하,
강도, 감옥문을 부순 도적,
방부에 적혀 있는 도적,
태형을 당한 자, 낙인형을
당한 자, 빗 진 도둑, 노예,
삭발자, 생계형아동,
열다섯미만의 소년 등 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것은
출가해서는 안될
출가부적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람들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가사를 걸치고 있을 때
도둑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 같은 비구

초기경전 중에 테라가타와
테리가타가 있습니다.
장로계와 장로니게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계송입니다. 그런데 계송을

보면 그때 당시 도둑 같은
비구를 통렬히 비판하는
계송도 보입니다. 뽕싸장로의
삼십련시집이 그것입니다.
일부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노하고, 원한에 차고,
위선적이고,
완고하고, 교활하고, 질투하고,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많을
것이오.” (Thag.952)

“세상에 많은 위험이
다가오는 미래에 나타나리니,
잘 설해진 가르침을
어리석은 자들이
오염시키리라.” (Thag.954)

“덕성이 열악함에도
두려움 없이 떠드는
수다스럽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
참모임에서 힘을 얻게 되리라.”
(Thag.955)

“덕성이 갖추어졌고
의취에 맞게 말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욕망을 여윈
님들은
참모임에서 힘을 잃게 되리라.”
(Thag.956)

“금화와 황금 그리고
전지와 택지, 염소와 양,

남자노비와 여자노비를
미래에 어리석은 자들이
받아들이리라.” (Thag.957)

“어리석어 분개하기 쉽고
계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이
쟁투를 좋아하는 짐승이 되어
허세를 부리게 되리라.”
(Thag.958)

뽕싸장로는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 어느
때인가 가르침이 크게
후퇴했을 때 승가에 나타나는
징조를 마치 예견하듯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도둑입니다.

노랑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

승가에 도둑이 들면 도둑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무지한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재산을
축적하며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흰옷
입은 일반사람과 다를 없게
됩니다.

“우쭈하고, 푸른 옷을 입고,
기만적이고, 완고한 자들이
수다스럽고, 사특하게
고귀한 자처럼 돌아다니리라.”
(Thag.959)

“부드러운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세안제를 양 눈에 바른 가벼운
자들이
상아 빗깍의 옷을 입고,
수레가 다니는 길거리를
다니리라.” (Thag.960)

“흰옷을 탐하는 자들은
해탈한 님들이 싫어하지 않는,
잘 염색된,
거룩한 님의 깃발인
황색가사를 싫어하여 떠나게
되리라.” (Thag.961)

“이득을 얻기를 욕망하고,
나태하고, 정진이 없는 자들은
숲속의 생활을 싫어하니,
마을에서 살고자 하리라.”
(Thag.962)

“자제함이 없이 어울리며
교제하리니, 그들은
항상 샅된 생활을 즐기며
이득을 얻는 자를 좇으리라.”
(Thag.963)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
아주 훌륭하더라도, 그때에
그들은
현자로 섬기지 않으리라.”
(Thag.964)

“구리빛으로 물들인
자신의 깃발을 비난하고

어떤 자들은 이교도의
흰색 깃발을 착용하리라.”
(Thag.965)

“그때 그들은 가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수행승들 사이에서도
가사에 대한 성찰이 없으리라.”
(Thag.966)

가사는 수행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가사를 입을
자격조차 없다.” (Thag.969)라
했습니다. 마치 세속의
사람처럼 소유하고 이교도처럼
행위하는 그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장로는
이렇게 계승으로 일갈했습니다.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어리석고, 계행이 없는
자에게는
흰옷이 어울리지
어찌 가사가
어울리겠는가?” (Thag.966)

부처님 당시 노랑가사는
수행승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랑가사를 입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노랑가사를
입은 수행승은 표가 나기

때문에 계행을 어겼을 때
일반사람들의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뿔싸장로는 계행을 지키지
않는 수행승에게 세속에서나
입는 흰옷이 더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보시의 시대가 최후의 말법시대인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는
비구라 볼 수 없습니다. 흰옷
입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뿔싸장로는 “미래
시기에 최후의 시대가
다가오면 수행승들과
수행녀들의 행실이 이와
같으리라.” (Thag.977)라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가르침의 흔적만 남은 말법
시대를 말합니다.

한국불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오늘도 공간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테라가타
주석(ThagA.III.89)에 따르면
다섯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해탈의 시대, 삼매의 시대,
계행의 시대, 학습의 시대,
보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보시의 시대입니다.

왜 보시의 시대가 최후의
말법시대인가? 주석에 따르면
학습의 시대부터가 말법의
시대라 합니다. 계행이

무너지고 학습에만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습의 시대마저 사라지면
가르침은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행승들이 재물을
모아서 보시로서 베푸는
시대가 됩니다.

종종 어느 스님이 통 크게
수억원을 기부했다는 말을
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의문이 생겨납니다. 대체
일을 하지 않는 스님이 어떻게
큰 돈을 모았을까라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테라가타
주석에 따르면 다섯 시대 중에
최후의 시대가 보시의 시대라
했는데 딱 들어 맞는 말입니다.

말법시대가 되면 계행도
후퇴하고, 학습도 후퇴하고
남은 것은 그동안 축적된 재산
밖에 없습니다. 그 재산을
신도들에게 보시하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됩니다.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경전독송모임이 이곳저곳에 생겨나야

흔히 절에 가면 스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기복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신도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기도했을 때

신도들은 점차로 무지해 질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직자의 권위는 자꾸만 높아져 갈 것입니다.

성직자가 각종 기도로 막대한 부가 축적 되었을 때 성직자는 재가자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여 보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매수도 해당됩니다. 사실상 일반세속인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탐하는 자들’ 이라 했고 “황색가사를 싫어하여 떠나게 되리라.” (Thag.961)라고 했습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재가불자가 깨어 나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못지 않게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기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기경전을 접하여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하고 논장을 접하여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전독송모임이 이곳저곳에 생겨나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서로 토론하여 부처님과

가르침을 알게 되었을 때 기복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도둑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2018-07-06
진흙속의연꽃

43. 설조스님의 승의적 초월의 길, 단식 18 일차

“제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제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함께 간 의사의 말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18 일째를 맞아 7월 7일 토요일 정의평화불교연대 샘들과 함께 단식장에 갔습니다. 정년을 지났지만 현재도 진료를 보고 있는 샘이 한 말입니다.



현업 의사가 단식중단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로서 당연히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식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되돌아 올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88세의 노구의 단식이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유언을

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단식장에 갔더니 마치 유언을 하듯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무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 보는 사람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우정공원에는 사람들이

설조스님 단식 18일째인 우정공원에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듭니다. 방문자들은 방명록에 기록을 하고

설조스님에게 삼배합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멀리 지방에서 온 샘도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온 회원은 설조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회관 앞에서는

요즘 조계사 일주문 맞은편 템플스테이 회관 앞에서는 매주 두 번 법회가 열립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길거리 법회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문화공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호와 합성, 그리고 발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가고 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권승들이 성토 대상이지만,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스님들과 불자들도 대상입니다.

조계종은 임계점을 넘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계종은 임계점을 넘었다고. 여러 가지 지표가 증명합니다. 불자수 3백만명이 빠져 나간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를 주석용어로 설명하면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개신교와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종교인구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개신교에 추월당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신교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향 추세가 발생하면 여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하향추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온갖 악재가 다 드러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즉 바닥을 칠 때 그제서야 상향추세로 갑니다.

현재 조계종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계종은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이럴 때 추락을 멈추고자 하는 스님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흔히 ‘사즉생생즉사(死則生生則死)’라 합니다. 이 말은 “죽으려고 나아가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순신장군이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 한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조스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한몸 던져 정법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라밀행이라 봅니다.

대승불교에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을 말합니다.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전적 설명은 그다지 절박성이 없습니다.

2017년 초에 테리가타가 출간되었습니다. 빠일리원문과 주석을 모두 완역한 것입니다. 담마빨라가 주석한 것을 보면 십바라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바라밀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목숨’입니다. 바라밀행을 하되 목숨걸고 해야 함을 말합니다.

승의적 초월의 길 (dasaparamatthapāramī)

무엇이든지 목숨걸고 하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목숨걸고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단지
여유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보시할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을 기부하는 것은
일반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고,
손이나 발 등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우월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고,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승의적 초월의
길의 보시이다.” (보시바라밀,
dāna-pāramī)

세 가지 초월의 길(pāramī)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초월의 길
(dasapāramī), 우월적 초월의
길 (dasaupapāramī), 승의적
초월의 길
(dasaparamat thapāramī)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초월의 길을 보면
보통불자가 생각하는
보시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이 보살로서 삶을 살 때

초기경전에서 보시하고
지계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봉사하는 생활과 도덕적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끼는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를 해도 생색 낼 정도로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주석에서처럼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값비싼
재물을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불자들의 보시는 일반적
초월의 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십바라밀에 따르면 최상의
보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승의적 초월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살로서
삶을 살 때 그랬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기 전에
사아승지십만겁동안 목숨을 건
바라밀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를 다룬 자따까에 실려
있습니다.

결정바라밀(adhiṭṭhāna-pāramī)에 대하여

보시를 해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행을 해도 목숨걸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의적 초월의 길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 했을 때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결정바라밀입니다. 십바라밀 중에서 결정바라밀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과 같은 외적인 대상의 파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이 일반적 초월의 길의 결정이고, 그들의 손이나 발 등과 같은 신체기관의 파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이 우월적 초월의 길의 결정이고, 그들의 생명의 파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이 승의적 초월의 길의 결정이다.” (결정바라밀, adhiṭṭhāna-pāramī)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재물이나 아내, 아이는 외적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적

대상이 파괴되는 것은 일반적 초월의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가 파괴 될 정도로라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가락을 태운다든가 장기를 기증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보다 더 우월적인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내 놓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우월한 바라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의적 초월의 길이라 합니다. 설조스님이 단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승의적 초월의 길이라 봅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한국불교의 수치

하루하루가 안타깝습니다. 단식 19일째이면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났을 때 광화문에서는 유민아빠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료 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의사는 이번에도 설조스님을 진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임계점을 넘었을 말합니다.

죽어 가는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의사는 설조스님에게 “스님,
제발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호합니다.
이대로 죽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영상으로 유언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승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움직이지
않고 불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한국불교의 수치입니다.

2018-07-08
진홍숙의연꽃

44.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설조스님 단식 23 일차

오늘로서 설조스님 단식
24 일째 입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설령 단식이
중단되어도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로지 죽음을 향해
가는 나날입니다.

법회가 열린 날 오전에
페이스북과 카톡방에서는
단식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불교소설가 정찬주 작가는
새벽에 쓴 글에서 동참하지
못한 것을 죄스러워 하며
장문의 글을 교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부산에 사는 법우님이 가족과
함께 동참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라고

법회가 열리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설전아닌 설전을
보았습니다. 스님과
여성인권변호사 K 법우님과
견해차이로 인한 설전입니다.
K 법우님이 스님들의 동참을
호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구니스님은 “스님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권승에 빌
붙는 것이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맷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94 년 개혁당시 주체들이 한결
같이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 라는 논리를

편것입니다, 이에 K 법우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촛불집회는 그놈이 그놈인 상황인데도 그놈을 내리고 다른 놈을 올렸죠... 과거를 참회하는 놈과 계속 부역하는 놈이 똑같진 않을겁니다. 특히 각자 자리가 살만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한마디 안하는 놈들이 있는한 그놈이 그놈인 세상은 계속 되겠죠~~”(K 법우님)

그놈과 그놈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참회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역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모두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을 합리화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니까 참여하지 않음을 꼬집은 말입니다.

어용언론 출입금지

언제나 그렇듯이 깃발을 들고 목요촛불에 참여했습니다. 법회가 열릴 때 마다 늘 세우는 정의평화불교연대 깃발입니다. 먼저 단식현장에 갔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23 일 켜라 현장에는 전국에서 올라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설조스님 단식테트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용언론 출입금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테트에는 ‘불교신문과 법보신문 취재금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BBS와 BTN도 출입금지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문과 방송이 왜 출입금지된 것일 것일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은 비난 받아야 할 자를 칭찬하고, 칭찬받아야 할 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계 어용언론에서는 설조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23 일째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일체 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님들과 불자들은 이런 사실이 있는 줄조차 모릅니다. 설령 그들이 보도한다고 해도 왜곡보도하기 일쑤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설조스님 단식은 이제
매스컴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을 제외하고
뉴스전문채널에서 보도 되었고,
이밖에도 공영라디오와
팟캐스트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자들이 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는사실입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세워진 깃발을 보니

단식 23 일째가 되던 날 7.12
목요촛불법회는 조계사 일주문
맞은편 도로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참석자로 인하여 네 개의
차로 가운데 한 개의 차로가
확보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열리는
목요촛불법회입니다. 단식이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에도 목요촛불법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단식
30 일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세 번째
7.12 목요 촛불이 열리던 날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사람들도 두 배 이상 모였지만
무엇보다 깃발입니다.
이곳저곳 세워진 깃발을 보니
이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도 늘
그렇듯이 녹색바탕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법회는 여법하게

법회는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7 시
약간 넘어 삼귀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세
번 반배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참여자는 많아지
는 것 같습니다. 이날 7.12목
요촛불은 사오백명 가량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참여불교재
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불
력회, 용주사비대위, 대불련
등 단체 참가자가 많습니다.
개인참가자도 있습니다. 실시
간 소통되는 에스엔에스를 보
고 멀리서 온 참여자들도 그중
의 하나입니다.

대불련출신들 가세로

이번 설조스님단식
촛불법회에서 가장 돋보인

단체는 아마 대불련출신들일
것입니다. 대불련동문들이라
하는데 주로 89 학번이
주축입니다.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련출신들 중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날 새로운 노래를
선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불과 며칠만에 만든
것이라 합니다. 이를 ‘조계종
적폐청산 대동행 단체곡’ 이라
하는데 현장에서 함께
불렀습니다. 곡명은 ‘이젠
나가주세요’ ‘재가불자
출정가’ ‘조계종 개혁가’
이렇게 세 곡입니다. 세 곡
모두 유튜브에 실려 있습니다.
세 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젠나가주세요.

이젠 나가 주세요. 이젠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이젠 나가 주세요, 조계종에서
붙잡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나가주세요.
여자 도박 룸사롱 하고 싶은거
드러내고 못해서 고생많았죠
얼마든지 원한 거 할 수
있으니 이젠 나가주세요

당신들에겐 불교가 만만한
시긌돈 이겠지만
우리에겐 지켜나갈 소중한
부처님 법입니다.
말바꾸기 거짓말 그만하세요.
또 속을 줄 알았죠 그만두세요.
그냥 넘어갈래도 한두번이지
장난 그만하세요.
이젠 나가 주세요. 이젠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이젠 그만두세요 설정 원장님
한두건이 아니니 그만두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조용히 그만두세요.
총무원장 설정은 은처 거짓말
호계원장 법등은 자매 강간을
교육원장 현응은 유흥업소로
포교원장 지홍 까지도..
당신들에겐 불교가 만만한
시긌돈 이겠지만
우리에겐 지켜나갈 소중한
부처님 법입니다.

이젠 그만두세요 설정 원장님
한두건이 아니니 그만두세요.
그냥 넘어갈래도 버릇될까봐
절대 못넘어가요
그냥 넘어갈래도 버릇될까봐
절대 못넘어가요
그래도 안나가고 버티신다면
밤 길 조심하세요

(2) 재가불자출정가

우리들은 재가신도 불심깊고
청정하다
조계종의 부정부패 더이상은
못보겠다
서로의 손을 잡고 불교 개혁
동참했다.
파계승 설정은 퇴진시키고
부패승 자승이는 교도소
보내자

맘과 맘을 한데 뭉쳐 최후까지
싸워보세
돌진하는 재가신도 당할 자가
그 누구냐
불타의 참가르침 온누리에
펼쳐보자
파계승 설정은 퇴진시키고
부패승 자승이는 교도소
보내자

(3)조계종개혁가

다 같이 모여 조계종 개혁
아침 저녁 외치자 조계종 개혁
우리는 부패 종단 싫어합니다
우리는 청정 승가 좋아합니다
바둑이도 피켓 물고 조계종
개혁

설.정.퇴.진.자.승.구.속.

다 같이 모여 조계종 개혁
아침 저녁 외치자 조계종 개혁
우리는 부패 종단 싫어합니다
우리는 청정 승가 좋아합니다

바둑이도 피켓 물고 조계종
개혁

시대는 광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곳이
부패한 승가집단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자들이 인천의
스승이라고 대우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바가 없는
그들은 도둑으로 변하여
공간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깨어 있는 불교인들이
도둑을 축출하고자
앞장섰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날 7.12 목요 촛불현장에는
개인적으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원담스님과
진주선원불자들입니다. 지난
1월 인도성지순례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선연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면 반갑습니다. 처음 보면 어색하고, 두 번 보면 익숙하고, 세 번 보면 반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8박 9일 동안 좀 과장되게 말해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면 형제보듯 자매보듯 반가운 것입니다. 이날 아미화신도회장과 함께 문정, 현정 법우님이 함께 했습니다.

원담스님은 대불련의장을 한 바 있습니다. 스님이 77년에 입학했다고 하니 아마 79년에 대불련의장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진주선원에서 포교하고 수행지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주선원은 신도들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재가자들이 스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트렁크 하나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재가자들은 스님을 부처님처럼 따르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원운영시스템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원담스님은 왜 천리 먼 길을 애써 달려 왔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의리때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 대한 의리에서라도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정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테라가타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Jīvitam ca adhammena
dhammena maraṇam ca yaṃ,
Maraṇam dhammikaṃ seyyo
yaṃ ce jīve adhammikaṃ.

“여법하지 못한 삶과
여법한 죽음이 있다.
여법한 죽음이,
여법하지 못한 삶보다 낫다.”
(Thag. 670)

이 계송은 고달파 장로가 읊은
십사련 계송 중의 하나입니다.
장로는 여법하지 못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여법하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법하지 못하다는
것(adhamma)은 비법(非法)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법한
것(dhamma)은 정법(正法)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불교에서는 비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행위가
대세입니다. 비법이 득세하고
정법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달파
장로의 계송을 보면 그
시절에도 비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달파 장로는 여법한
삶을 이야기 했는데 계송을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불의에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dhamma)은
여법한 것이고, 법다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으로 산다면
여법하지 않은 것이고, 법다운
것이 아니고,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23 일 차에 정의로운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르침 아닌 것을 따르는
우리들을 몰아내고자
결의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 참회를 하기로

단식이 길어짐에 따라
참여자들은 점점 초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스님들과
불자들입니다. 도둑이 들어
공간을 털어가도 쫓아 낼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7.12 목요
촛불법회에서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양상입니다. 더
이상 설조스님의 죽음을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 참회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두 번의 증권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무원청사만 점거하면 성공한 쿠데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총무원청사 탈환을 위한 공방전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경찰이 막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공성전 할 때 해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성을 보면 해자가 있습니다. 성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있어서 성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조계사 대웅전으로 진입할 때 경찰들이 마치 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대웅전이 코 앞에 있음에도 건널 수 없는 해자가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도

조계사 대웅전은 경찰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범우님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벽창호 같은 권승들의

난공불락의 요새에 부딪쳐 본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으로 뚝뚝 뭉친 이해집단에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균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처음 시도해보는 공성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닙니다. 몇 번 공성하다면 권승들의 난공불락도 결국 균열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스님 살아야 합니다!”

7.12 목욕춧불법회 참석자들은 단식장 옆에 있는 원형광장에서 회향했습니다. 총무원청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날 단식 23 일차의 설조스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유언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신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스님과 불자들은 숙연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불자중의 한사람이 “스님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이끌어 주십시오! 스님,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스님은
단호하게 단식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무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선한 자가 각성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7.12 목요촛불은 예정시간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오후 7 시에
시작하여 9 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단식 24 일째를
맞이 했습니다. 다음 목요촛불
때는 단식 30 일째 입니다.

88 세의 노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입니다. 스님은 유언까지
하고 시신처리 방법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들과 불자들은 움직일 줄
모릅니다. 스님이 죽으면 우리
불자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님하나 살려 내지 못하는
불교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입니다. 스님의 죽음과
함께 한불불교도 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낫다.
(Thag.666)

지혜롭지 못하면서
높은 평판을 얻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서 평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Thag.667)

욕망에서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욕망을 벗어나
자기를 단련하는 괴로움이
낫다. (Thag.669)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불의에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Thag.670)

2018-07-13
진흙속의연꽃

**45.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참여불교, 2018 년 7 월
정평법회**

“정의를 따르다가

자타가 이익되는 삶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부처님도
이익되는 일을 장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애수행을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종교에 집착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 전도사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사회적 현상에
관심보이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평생 운동만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은 등한시 한 채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자타가
이익되는 삶입니다. 자신도
이익이 되고 타인도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자애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A5.20)라 했습니다.

정평법회는?

7 월 정평법회가 장충동에
있는 불광산사에서 열렸습니다.
법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당을 빌려서 법회를
본 것입니다. 자체 법당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법당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법당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매일
풀가동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몇
번 사용하고자 거액을 들이고
매일 상당한 비용의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손실입니다.
법당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평법회는 2017 년 11 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가위주의
불교현실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승가에서 못하는 것을 재가에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평불에서는 이미 눈부처학교를 통하여 사회적 실천을 해 왔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매년 한철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정평법회입니다.

정평법회는 매월 한차례 열립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한차례는 사회적 실천을 합니다. 최소한 한달에 두 번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실천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타의 이익이 되는 삶의 실천에 정평법회가 있습니다.

정평법회는 정평불의 얼굴이자 정체성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교류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오프라인 교류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달에 두번은 모여서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회를 연지 이제 9 개월 쯤입니다.

법회는 여법하게

명종과 함께 법회는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삼귀의 할 때에는

‘불보, 법보, 승보’ 라 합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승보개념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거룩한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승보가 상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보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보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라 합니다.

어느 법회이든지 입정이 있습니다. 대개 입정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입정시간은 최소한 5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정에 들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안정시켜 놓으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 월 정평법회 주제는 참여불교에 대한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 박정준 교수가 ‘지구촌, 참여불교가 대세다.’ 라는 제목으로 법문했습니다.



참여불교에 대하여

참여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아마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연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여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기명상으로 유명한 베트남 출신 틱낫한 스님이 최초로 사용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Engaged Buddhism’라 합니다.

참여불교라는 말은 실천불교, 민중불교 등과 동의어입니다. 공통적으로 ‘불교’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는 불교를 통하여 사회개혁을 하기 위한 실천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사회개혁운동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현실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기복의 극복을 위하여

현실적 실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기복의 극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 학업, 사업, 치유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 기복적 불교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가미니의 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이교도들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볼 수 있는 천도재와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을 들어올려 이름을 부르고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S42.6)라 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촌장이여,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커다란 큰 돌을 깊은 호수에 던져 넣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그것을 두고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라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한다면 촌장이여,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커다란 큰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합장하고 찬탄하고 순례한 까닭에 물 속에서 떠오르거나 땅위로 올라올 것입니까?”(S42.6)

경전에서 본 참여불교

여기서 큰들은 악행을 하여 악업 지은 것을 말합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아 악처에 태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하여 선처에 태어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반면 선업을 지었다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버터나 기름처럼 물위에 떠 오를 것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생활을 하여 선처에 태어날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여 악처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죽은 자에 대하여 천도재를 지내 주는 것이 의미 없음을 말합니다.

기복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 실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까르마(Karma)입니다.” 라 했습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여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로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업자성정견(kamassakatādiṭṭhi)’ 을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실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실천은 개인의 현실적 실천의 바탕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해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M8)라는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제어하고 수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킨 사람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수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M8)라 했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사회적 실천의 예로서 초기경전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자애경에서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남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Stn.149)라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애의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타인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자가 타인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Stn.147)라는 구절로도 표현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sabbe sattā bhavantu sukhittā)”가 자애실천의 핵심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또 사회적 실천으로 부처님의 탄생계를 들었습니다. 한역탄생계를보면 “천상천하유아독족 삼계개고아당안지(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라는 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계개고아당안지라는 말은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이 강력한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실천으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S4.5)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경전에는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틱낫한 스님이 참여불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부처님은 강력한 참여불교를 말씀 했습니다. 틱낫한스님의 주장한 참여불교라는 말이 처음이 아니고 또한 실천불교나 민중불교라는 용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문회의 거사불교운동

시대는 참여불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년대 유행하던 민중불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개인적 수행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현실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사님 불교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현실참여 불교의 예로서 근대 중국불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박경준 교수는 법문에서 두

사람의 참여불교를 실천한
자를 예로 들었는데
청말민국초의 양문회와
태허스님입니다.

양문회(1837-1911)의 경우
거사불교운동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양문회에 대하여
중국불학의 중흥조 또는
중국불교 부흥의 아버지라
합니다. 그것은 잠자는 불교를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가장 타락한 시기에 불경을
유포하여 대중들을 각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전에
바탕을 둔 거사불교운동은
각지에서 일어나 거사립불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륙불교는 승가와 재가의 두
개의 불교 축이 있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공부가 된 자들의
현실참여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날 대만불교 활발발한 것은

참여불교를 실천한 자로서
태허스님(1889-1947)이
있습니다. 태허스님은
중국대륙에서 거사불교에
자극받아 승가를 개혁한
스님입니다. 박경준 교수에
따르면 태허스님은
‘인생불학’을 주창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인생불교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의 인생을
중시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고, 조직을 통해 대중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태허스님의 참여불교는 양문회
등의 거사불교운동이 승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사불교운동 주창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오직 출가자만 승려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거사를 승려의 부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셋째, 거사를 전적으로
속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넷째, 거사를 복전(福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 재가자 중에 스승의
전범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여섯째, 백의의 일반인은
설법을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일곱째, 재가자는 출가자의
계본(戒本)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덟째, 출가자는 거사에게
가서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홉째,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열 번째, 출가자는 거사와 서열을 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교평론, 중국불교는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와 같은 거사불교운동은 결국 출가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승가에서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태허스님 등 개혁의지에 불타는 스님들은 승가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승가는 개혁되었는데 오늘날 대만불교에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만불교에서 태허스님의 승가불교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태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자재공덕회를 창립한 증엄스님과 불광산사를 창립한 성운스님 등이 대만불교의 주축입니다.

오늘날 대만불교가 이렇게 활발한 것은 청말민국초의 양문회 등의 거사불교운동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대륙에서 거사불교운동은 승가를 각성시켜 결국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참여불교

정평법회 7월 주제는 참여불교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입니다. 이는 개인적 실천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라는 말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참여불교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참여불교이고 이는 다름 아닌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극심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현재 25일째 이어지고 있는 설조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도 한국불교 타락을 저지하고 바꾸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불자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승가의 타락은 지속될
것이고 결국의 쇠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불자들이 깨어나면
한국불교는 자연스럽게 개혁이
됩니다. 제가불자들이 스님들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한다면 승가에 자극을 줄
것입니다. 중국대륙에서
거사불교운동이 결국 승가를
각성시켜 중국불교를
살려냈듯이, 한국에서
거사불교운동이 활성화 된다면
자동적으로 승가개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선봉에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있습니다.

2018-07-15
진흙속의연꽃

46. 권승들의 아수라 리더십, 설조스님 단식 25 일차

어색하고 기묘한 광경

“사진찍지마!” 조계사
부주지가 눈을 부라리며
말합니다.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의 일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25 일째를 맞아
조계사일주문 템플스테이 회관
앞에 백명 가량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한 가운데
조계사 부주지와 총무원 스님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어색하고 기묘한
광경입니다.

스피커에서는 금강경이

요즘 목요일과 토요일이면
조계사 일주문 앞은 확성기
소란으로 요란합니다.
설조스님 단식과 관련하여
조계종 적폐청산을 외치는
불자들과 이에 맞불 놓는
방승이 울려 퍼집니다. 이날
총무원측에서 일주문 스피커를
통해 들려 준 것은
금강경이었습니다.

정평깃발을 앞세우고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7월
정평법회가 끝난 후에 조계사
일주문 앞을 향하여
이동했습니다. 동대입구역에서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
내리니 목적지는 바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녹색바탕의
깃발을 세우고 이십명 가량의
회원들이 촛불법회가 열리는
장소로 갔습니다.

점점 격해져 가는데

설조스님 단식이 25 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것도 88 세 노인의 단식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단식에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일단 살리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중단할 명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총무원 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조스님 또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범희양상도 점점 격해져 갑니다. 단식일자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하루 빨리 끝내려면 권승들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힘으로 뚫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경찰들이 서로 양팔짱을 끼고 삼중 사중으로 겹겹이 있어서 뚫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여의어 가는

설조스님은 갈수록 여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힘도 없어 보입니다. 대중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다섯 걸음 걷고 한번 쉬고 하는 식이라 합니다.



스님의 단식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총무원측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청정하고 올곧은 스님 한사람 희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하기로 유명한 스님은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리더십이 있는데

앞으로 시위는 점점 과격해 질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번 한국불교는 마스크를 탈 것입니다. 자꾸 좋지 않은 일로 방승을 타면 신도수 감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힘 있는 자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제석천의 리더십입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옛날 신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악신 아수라와 선신 제석천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악신 아수라대왕은 힘에 의존합니다. 전쟁에 이기면 강력한 힘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어 하는 자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들은 전보다 더욱 화를 내네. 그러므로 강력한 처벌로 현자는 어리석은 자를 눌러야 하리.” (S11.5)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아수라에게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힘 있는 자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선신 제석천은 정반대입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보고 새김을 확립하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를 누르는 것이네.” (S11.5)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즉 일반 민중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강력한 처벌 보다 인내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대화와 관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싸움 좋아 하는 아수라의 경우 힘에 의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선신 제석천은 인내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결국 인내의 리더십이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인내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계승으로 표현됩니다.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없는 자에게 인내하네.
그것을 최상의 인내라 부르네.
힘 있는 자는 항상
참아내네.” (S11.5)

조계종 권승들은 힘 있는 자들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아수라의 리더십이 되기 쉽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를 힘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악신 아수라의 무리들과 다름 없습니다.

겸칭하는 자세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선신 제석천은 힘이 있어도 힘을 자제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아냅니다. 이는
겸청하는 자세라 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자비의
리더십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청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에 바탕을 둔 최상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2018-07-15
진홍숙의연꽃

47. 설조스님을 살려내려면

설조스님 단식 29 일째 입니다.
내일이 되면 한달째입니다.
사람이 한끼만 못먹어도
배고파 죽을지경인데 하물며
29 일 동안 먹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설조스님
단식을 맞이하여 이제
단식중단 분위기가 고조 되고
있습니다. 스님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고 스님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강제라도
단식을 중단시켜야 하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닥쳐서인지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제 모임에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스님의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더욱 더 투쟁의지를
다지는 듯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민사회단체의
명망가들이 망라된 큰 규모의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설조스님 살려내기
국민행동 연석회’ 입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설조스님을
살려 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단식중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신 이후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갈 수 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이후 일정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단식 18 일차에 정평불 고문인
서광태샘이 스님을
참배했습니다. 의사이기도한
샘은 스님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두손을
붙잡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18 일째라면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로부터 10 일
지나 이제 29 일째 입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스님은
29 일째 되는 날 아침
기침감기로 잠을 못이루었다고
합니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급성폐렴으로 발전하면
회복불능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식중단시키기에 좋은
찬스입니다. 9 월에
승려대회도 예정되어 있어서
명분이 좋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사망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강제라도 단식을
중단케 해야 합니다.

2018-07-18
진흙속의연꽃

48. 단식을 멈추게 하고자, 우정공원에서 올린 300 배

오전에 우정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조스님이
감기로 잠 못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29 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기침에 감기라니 대단히
위중한 상태라 판단했습니다.
혹시 폐렴으로 진행된다면
회복불능일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스님을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삼복더위에 우정공원은 그다지
덥지 않습니다. 나무가 많은
것도 이유이지만 요즘
불벌더위는 그들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청량해서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29 일째 입니다. 내일이 되면
한달째 입니다.

단식이 한달이라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선
것입니다. 설령 단식이
끝나더라도 장기와 골수 등의
손상으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88 세 노구로 버티는 것은
수행력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신력 때문이라
봅니다. 초인적인 단식에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려합니다.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단식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정충국 건물 뒤에
소나무숲에 단식텐트 두 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깨끗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단식
시작했을 때 보다는 기력이
쇠잔한 것이 한눈에 보기에
드러납니다. 그런 텐트 주변은
노숙인들의 아지트입니다.
노숙인들은 밤새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걸핏하면
싸웁니다. 한편에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막걸리를 마신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우정공원으로 달려 간 것은
혹시라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먹혀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고, 심지어
고명한 스님들과 사회
원로들이 요청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고하기로
소문났다는데 어느 누구 말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후에 두 건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건강체크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혈액채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장시간
이것저것 검진했습니다.
감기기운이 있는 스님에게
간단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하나는
‘KBS 뉴스라인’에서 취재 온
것입니다. 이틀 전에는 MBC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말미에
설조스님 단식이 매우
짙막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읽어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KBS
기자는 스님과 꽤 오랫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중과 방송 기자가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기자는
공정한 보도와 반론권을
생각하여 총무원으로 건너
갔습니다. 이와 같은 취재
결과는 밤 11시 뉴스라인에서
방영될 것입니다.

단식장에는 스님의 건강악화
소식을 듣고 정병봉 샘들이 몇
명 왔습니다. 샘들은설조스님
단식 중단을 위해서 108 배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
300 배가 되었습니다. 이를
KBS 카메라맨이 촬영 했습니다.
어쩌면 11시 뉴스라인에
방송탈지 모릅니다.

300 배 할 때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4 용지에 ‘스님생명을 존중합니다(정평불)’ 라고 매직으로 크게 써서 나무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스님을 위해서 108 배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지만 방명록에 기록을 하고 스님을 친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절 하는 모습은 주변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유병화샘, 임숙경샘, 김광수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살님과 함께 했습니다.



300배를 하고 난 다음 스님친견 하러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삼배를 했습니다. 임샘은 “스님, 단식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며 말 했습니다. 스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평불 회원들이 스님을 위해 300배 했다고

말하자 스님은 “종단개혁을 위해 기도 해야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종단개혁을 위해 불씨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 방법 밖에 달리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 백만촛불이 일어났듯이, 선한 자가 각성하여 일어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명분이 있어야 단식을 멈출 수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승려대회일수도 있고 범불교대회일수도 있습니다. 선한자들이 일어선다면 스님도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KBS 스에서 그것도 기자와 대담형식의 방송이 방영될 것입니다. 공중파방송에서 방송된다면 선한자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누구도 스님 단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스님 단식을 멈추려면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19 일)과

토요일(21 일) 촛불에 최대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명분으로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단식이 다음주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2018-07-18
진흙속의연꽃

조계종 권승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루가 급함에도 8 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49. 가만 있으면 다 죽는다

“기다려 달라”
일감스님 말입니다.
조계종 혁신위의 활동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29 일 쯤,
KBS 뉴스라인에서 단식소식 전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파 방송에서
양측의 주장을 반반씩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의 일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방송에서는
"가만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가만 있었던 학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8 월말이면 단식 60 일 가량됩니다.
단식하다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약육강식의 집단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 달라” 라거나,
“가만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가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2018-07-19
진흙속의연꽃

50. 건강보다 교단을, 설조스님 단식 30 일차

“내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호흡합니다.” 이말은 단식
30 일 째를 맞이하여
설조스님이 대중들에게 한
말입니다. 7.19 목요일
회향자리에서 설조스님은 둘러
앉은 대중들을 향하여 오로지
한 호흡에 집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은 부처님의
사수념(死隨念: maranasati)을
떠 올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한 호흡기간에도 죽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한시간 후에
죽을지, 한 호흡기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이
30 일 동안 이어지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순간 한 호흡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일까 노스님은
“여러분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단을
걱정해야 합니다.” 라며
나직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단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설조스님 단식 30 일째를
맞이하여 우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몇 주간 늘
그렇듯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저녁 7 시에 일주문
맞은편에서 촛불법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날
촛불법회는 30 일째 되는
날이라 ‘한달’ 이라는 무게가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30 일을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의 몸을 먹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방조직이 분해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살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체중감량을 목표로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몸에 불필요한
것부터 사라집니다.
암덩어리가 있다면 얇아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단식원에 가면 암치료를
목적으로 단식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태워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방부터 시작하여 차츰차츰
태워 가다보면 장기조직도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단식을
오래하면 생명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장기가 망가지면
회복불능으로 될지 모릅니다.

88 세 노구의 노스님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노스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교단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결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간청하고 때로 읊소했지만 스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를 바라보는 불자들은 물론 양심 있는 사회인사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스님의 단식을 중단하게 하려면 현재 총무원장직에 있는 설정스님이 퇴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정스님이 퇴진하면 단식중단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맛을 알아버린 권승들에게는 분신을 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맛을 알아버린 권승들에게는 명예보다도 돈과 기득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정스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법회현장에서는 설정스님 퇴진을 요청하는 이삼현

무용가의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삼현 무용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온몸을 구부리고 펴는가 하면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듯 연기합니다. 마침내 것발을 들었는데 붉은 글씨로 '설정퇴진'이라 쓰여 있습니다.



설조스님 살려주세요

설조스님은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 있어야 구심점이 될 수 있고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공중과 방송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꼬를 튼 것은 MBC 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28 일차인 7 월 17 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설조스님

단식소식을 전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단식 29 일차인 7 월
18 일에는 KBS 뉴스라인에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30 일차인 7 월 19 일에는 KBS
9 시 메인 뉴스에서
방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조스님 단식소식이 공중과
방송을 탔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단식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3 년전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KBS 에서 대놓고
방송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중파에서 방송하기 시작한
것은 설조스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날 하늘에
는 에드벌룬이 띄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단식
천막이 있는 곳 상공에 대형
풍선 두 개가 떴는데 ‘설조스
님 살려주세요’ 라는 대형 플
레카드가 휘날렸습니다.

총무원측에서 맞불집회를

이날 법회 현장에는
총무원측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종무원 등을
동원했는데 숫자는

이십여명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성능이 좋아
촛불법회를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30 일째를 맞이
하여 조계사길은 마이크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총무원측에서는 법회가
끝날때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를 틀어
놓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법회를 방해하는 방송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법회를
강행했습니다.

권승집단은 우리사회의 적폐

설조스님 단식은 이제 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으로
인하여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권승들은 점점
궁지에 몰려 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승집단은 불교의
적폐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적폐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한국국민들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피시가 발견된
것이 발단입니다. 그때 당시
KBS에서는 이런 사실을 보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도
하자 여타 방송매체에서도
잇따라 보도 했습니다.

제작년 광화문촛불은 KBS에서의 보도로 인하여 붓물 터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KBS 메인 뉴스에서 설조스님 단식을 보도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붓물 터졌다고 봅니다. 지금 부터는 불자들을 넘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굴러 갈 것이라 봅니다.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불교인들의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2018-07-20
진홍숙의연꽃

51. 불교도대회의 추억

이명박정권시절 불교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8.27 범불교도대회’ 라
했습니다.
범(凡)자가 의미하듯이 종파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불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8.27 대회는 조계종
종단주관이었습니다.

지관총무원장시절
이명박정부의
불교차별에 항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전세버스로 신도들을
동원했습니다.

2008 년 8 월 27 일 시청앞
광장에
모인 인파가 20 만이라
했습니다.
평일에 열린 이 대회에 생업을
잠시 접고 참가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불교도대회는
작년 촛불법회때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9.14 불교도대회’ 라 합니다.
종단과 반대편에 선 불교인들
수천명이 집결했습니다.

9.14 대회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승호피디가 복직하면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은 실현
되었습니다.

최승호피디는 복직되어
MBC 사장이 되었습니다.
MBC 피디수첩에서는 조계종
권승들의 민낯을 방송했습니다.

공중파방송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은인자중하고 있던
불교인들을 일깨웠습니다.
설조스님 단식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름하여
‘7.21 불교도대회’입니다.
종단 권승들과 반대편에 선
불교인들이 총궐기 하는
날입니다.

역사는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운 자들의 참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7.21 불교도대회날입니다.
오후 5시 조계사 일주문
앞입니다.

“정의를 따르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낫다.
(Thag. 666)

지혜롭지 못하면서
높은 평판을 얻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서 평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Thag. 667)

욕망에서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욕망을 벗어나

자기를 단련하는 괴로움이
낫다. (Thag. 669)

불의에 살 것인가,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불의에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Thag. 670)

2018-07-21
진흙속의연꽃

52. 7.21 범불교도대회, 설조스님 단식 32 일차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

역사는 기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군가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대개 영웅담이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이 역사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때로 발생한 사건은 후대로 내려 갈수록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설조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 역시 후대 사람들에게는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로 회자 될지 모릅니다.

7.21 불교도대회 날에

7 월 21 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역사에 남을 날일지 모릅니다. 설조스님 단식 32 일째를 맞이하여 불교도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기억하는 불교도 대회는 20008 년 이명박정권의 불교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종단차원에서 열린 8.27 범불교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파를 가리지 않고 지방에서도 참여하여 20 만명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9.14 대회로서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대회가 수천명이 참여하여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큰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7.21 불교도 대회는 생명에 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32 일째를 맞이하여 생명이 꺼져 가는 한 노스님에 대한 절절한 아쉬움에 대한 것입니다.

단식유발자들은 사라져야

이보라 의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 단식 40 여일을 한 유민아빠 건강을 체크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조스님 단식을 맞이 하여 단식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 가량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의사에 따르면 단식 중단은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88 세 고령의 노구의 생명이 꺼져 가고 있음에도 진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 합니다. 이날 불교도대회 발언대에 선 의사는 말미에 “단식유발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 단식을 유발한 근본원인이 제거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인적청산입니다.

중단은 살인자가 되려 하는가

설조스님 단식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단식이

이렇게 한달 넘게
지속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여겨
버티고 있는 단식자에게
생명은 한 순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단식유발자들은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
단식유발자들이 자신 사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구나 “기다려달라” 며
시간을 끈다면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인
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연단에서 선 포교사단 소속의
한 포교사는 조계종이
‘불살생(不殺生)’ 이라는
오계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교인들은 삼귀의와 함께
오계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신행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계에서 가장 핵심은
불살생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설조스님이 단식
하다 죽게 내버려 둔다면
불교인 전체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조계종
권승들은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권승들이 승단추방죄(pārajika)에 해당되는가

율장을 보면 승단추방죄가
있습니다.
승단추방죄(pārajika)는
한역으로 단두죄(斷頭罪)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머리를
자르는 중죄로서 승단에서
추방되는 죄를 말합니다.
경에서는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나.” (A4.242)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적교섭이나 도둑질, 살인,
신통위력의 과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엔
피디수첩에 방영된 큰스님들은
모두 머리가 잘릴 정도로

큰죄를 지었기 때문에
승단추방죄에 해당됩니다.

한달 넘게 단식하고 스님에게
단지 “기다려달라.”며
시간끌기로 방조한다면
살생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말 스님이
단식하다 사망하면 조계종단은
살인 집단이 되어 불교인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은 권승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만든 것은 이익과
명예와 칭송에 경도된
탐욕스런 권승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일삼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모두 승단추방죄에 해당됩니다.

율장 비구계에서 승단추방죄는
1)성적교섭에 대한 학습계율,
2)주지 않은 것을 빼앗음에
대한 학습계율, 3)인체의
살해에 대한 학습계율, 4)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에 대한
학습계율 말합니다. 모두
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단
권승들을 보면 이와 같은 네
가지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종단 권승들 상당수는
은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몰래 처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승단추방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찰을 소유화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방조한다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이 음행,
도둑질, 살인, 큰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권승들입니다.

설조스님이 사망한다면

오늘로서 설조스님 단식
34 일째 입니다. 이렇게 까지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가만있어라” 라든가,
“기다려달라” 라고 말한다면
모두 살인방조 내지
살인행위입니다. 만약
설조스님이 사망한다면 살인을
한 종단은 살인자가 되어
승단추방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종단으로서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2018-07-23
진흙속의연꽃

53. 승려대회는 열릴 수밖에 없다

어제 밤은 정평불
외호날이었습이다.
오늘 아침 설조스님 단식
37 일째 입니다.
스님은 별일 없습니다.
초인적인 의지에 모두 경의를
표합니다.

외호날 늦은 밤에 동그랗게
앉아서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허정스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생존권투쟁입니다.
80년대 말 노동자대투쟁을
연상케합니다.
가난한 스님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승려대회입니다.
불과 이삼주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8월 21일에 초헌법적인
승려대회가 예고 되어
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과 관련없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승려대회가 열리면
정국이 일거에 바뀝니다.
승려대회에서 결의하면
그것이 헌법이 됩니다.

승려대회를 성사시키려면
승려들이 천명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승려복지제도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출재가역할분담론이
실현 되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수행과 포교를
담당하고
재가에서는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출재가역할분담 없는
개혁은 의미없습니다.
개혁세력이 기득권이 되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승려대회에서 결의할 것은
총무원장직선제, 승려복지,
재정투명화 입니다.
승려복지는 매월 일정금액을
모두에게
지불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승려대회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조건과 환경이
무르익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노고한
보람이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작은 행위가 파장을
일으켜
우주전체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출재가의 노력이
8 월에는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2018-07-26
진흙속의연꽃

**54. 대통령님 설조스님을
살려주세요, 설조스님
단식 37 일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설조스님 단식
29 일째 되던 날 7 월 16 일
우정공원에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다신 한달
째라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평불회원 몇
명에서 300 배를 올리면서
설조스님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설조스님은 “저의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개혁을 걱정해야
합니다.” 라며 단식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단호히 내
비쳤습니다. 이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글의 말미에
“단식이 다음주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라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8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대로
한주가 지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어제
7.26 목요촛불이 열리던 날
설조스님 단식은 37 일째
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에도 단식을 계속할까?
다음주가 되면 단식 40 일
이상이 됩니다. 다음주까지

단식이 계속되는 것은 역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종각행

요즘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종각행을 하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안양 명학역에서 종각까지는
전철로 55 분 가량 걸립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나
삼사년전 오프라인으로
나오면서 이제 조계사 앞으로
가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고 지루했으나
자주 다니다보니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7 월 26 일은 목요촛불법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설조스님
단식 하기 이전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가불교단체의 행사입니다.
조계종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입니다. 권승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단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재가불교단체와 뜻있는
불교인들이 함께 모여 개혁을
이루어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청와대길에서

이번 7.26 목요촛불법회는
장소를 달리 했습니다. 최근
주로 템플스테이 기념관

앞이나 우정국로 1 차로를
확보하여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청와대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짐결지는
청운효자주민센터가 있는
곳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청운효자주민센터는 조계사에
버스로 네 정거장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교적폐청산을 바라는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 둘
모였습니다. 마침내 일개
차로에 이백명 가량
모였습니다. 낮익은 얼굴이
많지만 이날 평소와는 다르게
포교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들은 포교사 복
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포교사
단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 권
승들과 반대편에 서면 불이익
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십명의 포교사들이 보
란듯이 버젓이 포교사복장으로
참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계
점에 달했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마치 난파한 배
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오듯이,
권승이라는 큰도둑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반기를 든 것입
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설조스님을 살려주세요”

7.26 촛불법회가 열리던 날은 설조스님 단식 37 일째 입니다. 한달하고도 일주일이지난 것입니다. 초인적인 의지로 버티는 것에 사람들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경외의 마음을 갖습니다. 보통사람은 물론 스님들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님을 살려야 합니다. 목숨이 조계종 개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권승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대상이 개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승들 스스로 개혁이 되지 않을 때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방송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미 피디수첩으로 권승들의 민낯이 천하에 알려졌지만 설조스님의 단식이 장기화함에 따라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편은 물론 이제

공중파방송에도 보도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청와대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에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앞으로 가서 촛불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마이크를 청와대를 향하여 돌렸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애원 하듯이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작은 변화가 큰변화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 저편 언덕에 도달 되듯이, 설조스님을 살려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 청와대에 전달될지 모릅니다. 이날 플래카드에는

“문재인대통령님 설조스님을 살려주세요” 가 보였습니다.

광화문은 기억 할 것

불교인들은 청와대 앞에서 우정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백여명의 사람들이 서촌을 지나 광화문 앞으로 하여 긴 줄을 형성했습니다. 조명이

휘황찬란한 밤에 LED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거리로 따져 보니 2.2키로 거리에 도보로 약 35분 가량 걸립니다.

요즘 찜통 같은 더위입니다. 습도가 높아 무더위라 합니다. 낮의 온도가 37도 가량고 습도가 높아 불쾌감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밤중에 청와대길에서 조계사길까지 30여분을 찜통더위 속에서 걸었습니다. 선도하는 자는 목이 터져라 “설정되진 자승구속”을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긴 하지만 그다지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광화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 제발 단식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정공원 단식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급박하게 돌아 가는 것도 포착됩니다. 설조스님 단식이 한달하고도 일주일이지난 이 시점에 일단 살리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단측에서는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설정되진이라는 명분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정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종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자승을 구속하지 않는 한 중단개혁은 요원합니다.

설조스님을 살리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온 불자들은 설조스님에게 단식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에 가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식장 앞에 모인 대중들은 서서 삼배를 하며 “스님,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설조스님은 단식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애원입니다. 이번에도 설조스님은 “이 몸은 교단의 개혁을 위해 공양받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저편에서는 맞불집회를 하고

벌써 한달하고도 일주일째 매번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이 37일째 이기 때문에 단식과

관련한 목요춧불만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에다
직장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열리는 토요춧불까지
합하면 십여차례됩니다.
그럼에도 중단 권승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맞불 집회를
합니다. 총무원 직원들과
조계사 또는 화계사 신도들을
고작 이삼십명 동원하여
마이크로 신묘장구대라니를
크게 틀어 춧불법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청정한 자의 손을 들어 줄 것

한편에서는 생명이 꺼져
갑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항상 선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도들은 청정한 종교인 편을
들지 타락한 종교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선신과
악신의 대결이 종종
등장합니다. 제석천으로
대표되는 선신은 아수라로
대표되는 악신과 싸워
이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정의롭고 청정한 자의 손을
들어 줄 것입니다.

“소들이 강을 건너는데,
우두머리 황소가 잘못 가면,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길을 따르네.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라.
최상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하리.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왕국전체가 고통을 겪으리.

소들이 강을 건너는데,
우두머리 황소가 바로 가면,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모두가 바른 길을 따르네.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라.
최상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정의로우면,
그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하리.
왕이 정의로우면,
왕국전체가 행복을
누리리.” (A4.70)

2018-07-27
진흙속의연꽃

55. 정의로운
삶(Dhammacariya)을 위하여,
설조스님 단식 39 일차

점통 같은 무더위의 나날에

아침부터 폭폭 찌는
날씨입니다. 벌써 몇 일째
인지 모릅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나날입니다. 온도만 높고
습도가 낮다면 살만합니다.
열대지방이 아무리
덥다하더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그러나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았을 때
그야말로 점통더위가 됩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는 연일 점통
같은 무더위의 나날입니다.

습도가 높았을 때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온도까지
높아서 온도와 습도가
쌍끌이할 때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가만 있는 것이 낫습니다.
찬물에 샤워를 하고 살랑살랑
부는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접어두고 점통
같은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현장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매주 두 번 열리는
촛불법회에 참석하는
불교인들입니다.

어쩌다 세상에 나오니

“오늘도 걷는다마는” 으로
시작되는 옛날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촛불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정평불깃발이 든
길쭉한 가방을 메고 종각행
전철을 탑니다. 점통 같은
날씨이지만 전철에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전철 밖은
지옥이고, 전철안은
천국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열대야의
계절에 에어컨이 있는 집은
천국이지만, 오로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여 지내는
사람에게는 지옥인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꾸러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집과 일터만을 왕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다
세상에 나오니, 오프라인에

나오니 해야 할 일이 많아 진 것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두 세 차례 귀가 하는 시간은 자정에 가깝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수요일에는 설조스님 외호모임, 목요일에는 7.26 목요춧불, 금요일에는 전채성박사의 니까야강독모임, 토요일에는 7.28 촛불법회가 있었습니다. 한주에 네 번 자정 안팎의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불쾌지수가 극에 달합니다. 자정 무렵에 귀가하면서 “대체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지?”라며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남들은 일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저녁을 갖는데 불교개혁운동 한다고 하여 찜통 같은 더위와 싸우는 자신을 돌아 보게 됩니다.

설조스님 단식 39 일째 되는 날

설조스님 단식 39 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7.28 촛불법회가 보신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달 하고도 9 일째 되는 초인적인 단식입니다. 그럼에도 노장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한치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런 모습인 불교를 접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스님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저녁 6 시가 되자 보신각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듭니다. 불과 일이십분만에 보신각 광장이 꽉 찼습니다.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 온 불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온통 시멘트와 아스팔트투성이인 도심에서 ‘열섬’으로 인하여 가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 저녁입니다. 바람 한점 불지 않아 끈적끈적 한 것이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보신각 광장이 꽉 차면 천명

보신각 광장이 꽉 차면 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7.28 촛불법회에는 전국각지에 온 불자들이 천명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이삼십명 가량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계종 적폐청산과 개혁이 스님들이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승려대회를 8 월 23 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정도입니다.

출재가역할분담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스님은 천명이나 되는
대중 앞에서 승려복지제도를
말했습니다. 스님들을
승려대회에 참여 시키기
위해서는 승려복지제도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투명화입니다. 단순히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와 재가의 역할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재가역할분담론은
승가에서는 오로지 수행과
포교만 담당하고, 재가에서는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재가역할분담론이
불교개혁의 핵심임에도 이를
스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재가에서
모든 것을 가져 갈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때문이라 합니다.

승려복지를 말한다면 동시에
출재가역할분담론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가자의
참여명분이 됩니다. 이제까지
촛불법회가 매주 몇 달 동안
열렸는데 참가자는 대부분
재가자입니다. 만일 이번
승려대회를 열어 종권이
바뀐다면 과연
출재가역할분담론은 실현될 수
있을까? 또 예전처럼,
재가자는 ‘팽’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축제분위기 같은 촛불법회

확실히 많이 모여야 신이
납니다. 이날 보신각 광장에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불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불자는
울산에서 올라 왔습니다. 작년
스님들 단식현장에서 보았던
불자입니다. 블로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설조스님 단식 39 일 췌를
맞이 하여 도반과 함께 KTX 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또
처음으로 촛불법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면 설조스님
단식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불교신문과
불교방송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으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7.28 보신각촛불법회는
축제분위기였습니다. 민중가수
이수진님이 ‘바꾸어야
해’ 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모두 따라 부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대의 구리 빛 얼굴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
아무도 손을 내밀어 닦아주지
않았네 .

하지만 그대여 이젠 기다릴
수만은 없어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니 .

세상의 참된 주인아 이젠 그대
눈을 떠야 해 .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뛰어야 해 .

이제는 바뀌야 해 모두 다
바뀌야 해
우리를 가두었던 그 썩은 모든
것들을 부숴버려야 해 .

이제는 바뀌야 해 모두 다
바뀌야 해
그대와 나의 열정과 운명을
걸고.”
(이제는 바꾸어야 해, 이수진
노래)

수십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불자들의
모습이 환해 보였습니다.
조계사불교대학학생들과
조계사신도들도 참여 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참여한
단체로 포교사단도 있습니다.
총무원직할이라 볼 수 있는
단체의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불련과
대불청에서는 깃발이 여러
개이어서 기세를 올리는
듯합니다. 이런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고작 정평불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몇 개
단체회원 사오십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균열이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분위기
반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철웅성 같은 그들만의 리그에
균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설정되진 자승구속” 입니다.
설정스님은 총무원장에서
퇴진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자승스님도 방재시스템 비리
등으로 인하여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참여자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스님, 단식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날 법회는 오후 6 시에
시작해서 밤 9 시 반경에
끝났습니다. 무려 3 시간
반동안 끈적끈적한 날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보신각에서부터 행진을 하여
조계사를 한바퀴 돌아
설조스님 단식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천명이나 되는
대중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포위하듯이 둘러싸며
“설정퇴진 자승구속”을
외쳤습니다. 대중들은 차도에
앉았습니다.

이날 마지막 중요한 행사는
설조스님 단식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읊소하듯이
“스님, 단식을 멈추어
주십시오!”라며 연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단식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이야기로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삶(Dhammacariya)을 위하여

한국불교는 권승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힘센 자가
구역을 장악하여 이권을
차지하듯이, 마찬가지로
머리깎고 승복입은 권승들이
돈이 되는 사찰을 장악하여
매일 공간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스님들과 불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다면
도둑들은 더욱 더 활개를
칠것입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도둑들의 눈치를
보며 도둑들이 하자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초기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법문과
대조해보고 계율에 비추어
보아, 법문에 들어맞지 않고
계율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것은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른 깨달은
님의 말이 아니다. 이
수행승은 잘못 파악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해서 물리쳐야
한다.” (D16)

다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

실려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스님이 한말이라 해서 모두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면전에서 반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한말을 경장과 율장을 열어 보아서 대조하라는 것입니다. 대조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권승들의 행태를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경장과 율장에서 금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을 때 도둑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도둑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썰거들을 날려버려라.” (Stn.281)라고 말씀 하신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삶(Dhammacariya)’입니다.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둑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촛불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촛불법회에 참여한 자들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의파라

볼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찝통 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열기나는 아스팔트에 앉았을 때 자부심을 느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안락만 추구하는 자들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촛불법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일부로 시간을 내서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뿌듯한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이 일기도 합니다. 모임이 다 끝났을 때 나타나는 자를 보았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아예 참여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불자들을 생각할 때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 할지 모릅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했을 때 적극적 참여과가 있고 소극적 참여과가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극적 참여자는 불만의 대상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조계종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에 빠짐 없이 참가했습니다. 정평불 사무총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빠지는 사람이나 거의 끝날 때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예 참여하지 않은 일반사람들 보다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자만(mana: 慢)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 자만이 문제인가?

자만은 탐, 진, 치와 함께 제거해야 할 불선심입니다. 테라가타에 “다섯을 꿇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 가지 염착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흐름을 건넌 수행승이라고 불리운다.” (Thag.15)라는 계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을 버림은 오상분결로서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 자만, 흥분, 무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만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만은 탐진치와 달리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없어집니다. 아라한이 되어야 자만이 사라집니다. 그런 자만은 대개 “내가 누군데” 또는 “내가 누군데 감히” 로 나타납니다. 사장이라면 “내가 명세기 사장인데” 라는 자만이 있습니다. 스님이라면 “내가 스님인데” 라며 스님상을 세울 것입니다. 도와 과를 성취하여 아나함이 되었다면 “내가

아나함인데” 라며 미세한 불선심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아에 기반을 둔 자만

초기경전에 따르면 세 가지 자만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합송의 경’ 에 따르면 “세 가지 교만 곧,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 내가 동등하다는 교만, 내가 열등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Tisso vidhā: seyyo'hamasmi'ti vidhā. Sadiso'hamasmi'ti vidhā, hino'hamasmi'ti vidhā.)” (D33) 라 했습니다. 자만에도 우월, 동등, 열등이라는 세 가지 자만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만은 기본적으로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이라면 자신을 사장이라는 직함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박사라면 “내가 박사인데” 라며 자신을 박사라는 명칭과 동일시합니다. 그가 수행자라면 “내가 수행하는데” 라며 수행하지 않는 자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번 촛불법회에 참여한자는 찜통 같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에 바탕을 둔
자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행자의 자만을 보면

도덕적 우월감에 바탕을 둔
자만은 어떤 것일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뛰어나다고
보는 자만은 우월적
자만중에서도 우월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월한 자
가운데 나는 우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월중우월’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고행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느 출가자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행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만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계행-두타행
등을 통해서 ‘누가 나 같은
자 있으랴?’ 라고 교만을
만든다.” (Smv. 999-991)라
합니다. 재가자의 경우라면
“내가 오계를 지키고 팔계를
지키고 포살일을 준수하는데
나 같은 자 있으랴?” 라는
자만일 것입니다.

춧불법회에 나가는 것은
고역입니다. 찜통 더위에
남들은 편안히 쉬고 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다보면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나같이 매번
춧불법회에 나오는가? 누가 나
같은 자가 있으랴?”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는
고행자자의 우월중우월의
자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향후 한국불교에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런 조짐은
설조스님 단식현장에서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로 설정스님
진퇴 관련 기자회견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춧불법회에 참석한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견고한
범계승의 카르텔에
균열대기였습니다.

불자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매번 목요춧불을 통하여
불교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범계카르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
초헌법적인 승려대회가
열린다면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을 불자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만일
것입니다.

금강경에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긴 주되 ‘티내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상(我相)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에는 우월적 자만도 있지만 열등감도 자만입니다. 물론 동등감도 자만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아를 기반으로 한다면 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현장의 봉사자들과 촛불법회 참여자들을 매번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참으로 착한 일 하고 있다.”라는 아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상이 있다면 이런 찜통 같은 무더위에 굳이 나와서 땀 흘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상을 내려 놓았기에 오늘도 내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2018-07-29
진흙속의연꽃

56.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새로운 역사, 정평불 8월 정기법회 안내

매년 8월 첫번째 주는 국민휴가기간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부분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 역시 휴가에 들어 가기 때문에 공단의 거리는 한산합니다.

뜨거운 여름 팔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연일 더위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의 경우 39.6도로서 40도에 육박하는 초유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 열대야에 사람들은 지쳐 가고 있어서 어서 찬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평불에서는 8월 중에 주요한 세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평법회와 정평포럼과 정평수련회입니다. 정평법회는 8월 11일(토)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봉행됩니다. 정평포럼은 8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홀에서

열립니다. 정평수련회는 8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1박 2일로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에서 진행됩니다.

정평법회는 정평불의 이미지이자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매월 한차례 열리는 법회를 통하여 개인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정평법회 주제는 ‘암베드카르, 불교개종운동’입니다.

암베드카르는 정치가이자 동시에 종교지도자입니다. 불가촉천민 출신인 하리잔 계급으로 태어나 1947년에서 1951년까지 법무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에게는 힌두교도 20만명을 불교로 개종시킨 종교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율이 무너진 한국불교에서 승려들의 범계행위로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서 적폐청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한국불교에서 재가불교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평불에서는 미래 한국불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현재 정평법회와 정평포럼, 정평수련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한국재가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행으로 자기의 향상과 완성은 물론 적극적 사회적 실천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평불에서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8월 11일의 정평법회, 8월 13일의 정평포럼, 8월 25-26일의 정평수련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08-02
진흙속의연꽃

57. 불자들이여, 총궐기하라!, 8.4 촛불법회

“재가불자들은 총궐기해달라.” 설조스님 대변인 이학중 선생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8.4 보신각
촛불법회에서 설조스님의
영상메세지와 함께 이학중
선생이 단상에서 전달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학중 선생에 따르면
설조스님 건강은 점차 회복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미음 등으로 보식하고
있어서 잘 하면
8.11 촛불법회에서 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휴가기간에

8월 첫째주는
국민휴가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집단으로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상가 등도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주변은
한산합니다.

국민휴가기간에
8.4 촛불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폭염으로 열대야로
몹시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날
법회날에는 바람이 불고
그다지 끈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촛불법회가 그늘진 오후
6시반에 열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날 8.4 촛불에도 보신각
광장이 80% 가량 찼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백명 이상
불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승리를 만끽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국 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삼사십명에 불과 했는데
이제 천명 가까이 불어나
감개무량합니다.” 라고 인사말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처음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매주 촛불법회가 열릴 때 마다
빠짐 없이 참가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똑 같은 장소
보신각에서 모인 인원은
네다섯 개 재가불교단체
사오십명에 불과했습니다.
깃발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불력회 등
네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부터 삼사개월이 흐른
지금 참가가는 천명 가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깃발도 제작된 광화문촛불 때
깃발군단을 보는 듯 수십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깃발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네다섯개 재가불교단체
뿐만 아니라 대불련, 대불청,
포교사단, 불광사 등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기에서 일까 이날
8.4 촛불법회는 승리를
자축하는 듯 시종 유쾌하고
희망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재가불자들의 승리

사실상 재가불자들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견고하여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던 권승들의 카르텔에
균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도화선은
설조스님의 목숨을 건 단신
41 일이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익으로 뚝뚝 뭉친
범계승 카르텔은 여전히
강고했을 겁니다.

역사는 뜻 있는 소수에 의해
주도됩니다.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조계종 권승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종단권력에서 자유로운
재가불자들이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현총무원장 퇴진이
거론 되기에 이르렀고
8.23 승려대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상의 리더들을 보니

이날 8.4 촛불법회에서는
그동안 촛불을 이끌던 모든
단체의 리더가 단상에 올라
갔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 한마디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
리더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리더의 발언 하나하나를 들어
보면 역량이 드러납니다.
살아온 삶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상에 설
정도라면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동등한 배려인가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수많은 성공관련 서적에서
리더학을 이야기하지만
초기경전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수레나 되는
방대한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닦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더와
관련하여 양곳따라니까야
‘햇따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중을
세존께서 가르쳐주신 네 가지
섭수의 토대로 이 대중을
섭수합니다. 1) 저는 ‘이
사람은 보시를 베풀어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보시를 베풀어
섭수합니다. 2) 저는 ‘이
사람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사랑스런 말로
섭수합니다. 3) 저는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일로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도움을 주는 일로
섭수합니다. 4) 저는 ‘이
사람은 동등한 배려로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동등한 배려로
섭수합니다.” (A8.24)

이것이 그 유명한
사섭법입니다. 이제까지
대승불교만의 실천수행
지침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초기경전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섭법에서 동사에 대한 것을
보면 대승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대승에서
동사는 ‘고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빠알리원문
‘사마낏따야(samānattatāya
)’을 해석하면 ‘동등한
배려’로 됩니다.

왜 동등한 배려가 리더의
자질을 결정하는 항목에
속할까? 리더가 되려면
사섭법을 실천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섭법에서와 같이
보시(dāna), 사랑스런
말(peyyavajja), 도움을 주는
일(atthacariya)과 더불어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samānattatāya)이야말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만일 리더에게
이런 덕목이 없다면 권위를
내세우는 ‘보스’라 해야 할
것입니다.

동등한 배려는 타인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대개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자신의 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때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사섭법을 실천한 리더에게는
자신의 말보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를
겸청(兼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 여덟 가지

겸칭이란 겸손하게 겸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겸칭하는 자세를 갖추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덕목으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부처님은 알바바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믿음이 있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계행을 지키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부끄러움을 알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창피함을 알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많이 배우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관대하고,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지혜를 갖추었다. 수행승들이여, 핫타까 알라바까는 겸손을 갖추었다. 핫타까 알라바까는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라.” (A8.24)

초기경전에서 본 핫타까 알라바까는 오백명의 재가신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백명을 이끄는 힘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덕목입니다. 즉 1)믿음이 있는 것, 2)계행을 지키는 것, 3)부끄러움을 아는 것, 4)창피함을 아는 것, 5)많이 배운 것, 6)관대한 것, 7)지혜를 갖춘 것, 8)겸손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조건입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리더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여덟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수승할까? 이럴 때는 부처님 말씀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승이여,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겸손하다. 자신에게 있는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행승이여, 그러므로 핫타까 알바바가가 여덟 번째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 즉 겸손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A8.23)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최상의 리더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자만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내가 누군데”라며 남을 업신여기며 깔보기 쉽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자신에게 쓴소리 하는 자에게 “내가 누군데, 감히!”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재력이나 학력, 권력을 자아와 동일시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진 것이 얼굴밖에 없는 사람은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나 다름 없습니다. 얼굴에 잡티하나만 나도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자기 것이라 하여 자아와 동일시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돈, 학력, 지위, 권력 등을 자아와 동일시 하면 “내가 누군데”라는 자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만은 수행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행을 한 수행승이라면 “누가 나를 따를자 있으랴”라며 우월적 자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자만은 뿌리가 깊어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에게 자만이 발생하면 그 조직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금력이나 폭력으로 유지 되는 보스형 리더가 아닌 한 리더에게 “내가 누군데”라는 자만이 생겨났을 때 조직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조건은 초기경전에서 보는 핫타까 알라바까입니다. 오백명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기본조건은 사섭법에 기반한 것이고 구체적 조건은 믿음, 계행 등 여덟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건은 겸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배려 해주었을 때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연등축제하듯이 조계사로

8.4 촛불법회는 6 시반에 시작하여 8 시반에 끝났습니다. 연대사를 들고 문화공연을 본 후에 조계사로 행진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하게도 연등이 준비 되었습니다. 연등축제 때나 사용되는 엘이디 오색연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엘이디 촛불도 준비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는 밤 8 시만 되면 캄캄해집니다. 오색연등을 들고 불자들은 연등축제하듯이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설조스님 단식도 끝나서 일까
조금은 훌가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권승들의 카르텔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촛불법회한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에 대못을 박아 균열 내기
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총궐기하라!”

다음 촛불은 8월
11일입니다. 설조스님은
병상에서 메시지를 통하여
불자들이 8월 11일 총궐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마
8.11 촛불은 보신각 광장이
넘쳐 차도에 까지 인파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르면
8.11 촛불법회 때에는 가수
안치환도 올 것이라 합니다.

이번 8.4 촛불에서 불자들은
승리감을 맛 보았습니다. 절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었습니다. 범계승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한번 금이 가면 두 동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범계승 카르텔이라도
한번 균열이 생기면 견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자들이
총궐기하는 8.11 촛불과
스님들이 결집하는

8.23 승려대회가 고비가 될
것입니다.

2018-08-05
진흙속의연꽃

58. 자타(自他)가 이익되는 삶을 위하여, 8월 정평법회날을 맞이 하여

이번 달로 정평불 사무총장
말은지 만 4개월 됩니다.
동시에 디지털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평소 행사에 빠짐
없이 참가하고, 참가하면
반드시 후기를 남겨서 말긴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직을 수락하면서 딱
2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완전연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연소라는 말은
‘열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는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직책입니다. 모임의
총무(總務)와 같습니다.

더구나 생업을 겸하다 보니
돈과 시간과 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평불 행사는
물론 한국불교 적폐청산
현장에 까지 가다 보면
일주일에 두 세차례 종각행
전철을 타기도 합니다.

사무총장이라 하여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임원들
역시 자발적 봉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정평불의 이념은 자신의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타(自他)가
이익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은둔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길거리 전도사처럼
될 것입니다. 정평불에서는 이
둘 다를 모두 배격합니다.
자신도 이익이 되고 사회도
이익이 되는, 자타이익을 실현
하는 곳이 정평불이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추구합니다.
정평불에서 추구하는
자타이익이 되는 삶은
열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평불에서는 매달 한번
정평법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정평법회는 정평불의 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만나서 법문도 듣고 교제도
하는 만남의 장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처님도 장려했습니다.
요즘 한국불교에서 독송되는
'축복의 경(maṅgalasutta,
Sn1.8)' 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5)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6)

경에 따르면 가르침(Dhamma)를 듣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여 법사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이야말로 공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토론한다면 이것 역시 더 없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열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데 있어서 좋은 도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범구경에서는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으니.” (Dhp.61)라 했습니다.

매일 매일 향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실려 있는 경전을 항상 가까이 하고 때로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 못지 않게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 있어야 합니다. 도반은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자이어야 나의 길에 향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면 가까이 하지

말고 단지 연민의 마음만 내면 됩니다.

정평불의 꽃 정평법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평법회에서는 모든 재정이 공개됩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회비를 낸 사람은 모두 62 명에 달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명 꼴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연말까지 정평불이 목표 하는 108 명의 정회원이 탄생됩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이든 백명만 모이면 역사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평불에서는 108 명의 정회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가 이익이 되는 삶을 실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재가불교의 새지평을 여는 정평불과 정평법회에서 함께 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2018-08-11
진흙속의연꽃

**59.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과 함께 한
8.11 보신각촛불법회**

촛불법회에 늦게 참가했습니다.
매달 한번 열리는 정평법회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8월
11일 오후 3시 장충동
불광산사에 정평법회가
열렸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보신각 광장에서
8.11 촛불법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철로 이동하여
도착하니 시작한지 3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렇게 늦어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광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전 주
토요일과 비교하여 거의 세
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단축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어용불교신자들은
지난 주 모인 인원들에 대하여
아무 설명 없이 반토막 났다고
보도 했습니다.

지난주 촛불은 오늘 촛불을
위해 쉬어 가는 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촛불은 대형이
될 것임이 이미 예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중가수로도
포함 할 수 있는 안치환이

무대에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광장에 들어 서는 순간 열기로
후끈 했습니다.

안치환의 무대가 마련 되기 전
여러 사람들의 연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안치환의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는 가급적 3분 이내로
끝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일쭉입니다. 어느 발언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눈물을 머금고
내려갑니다.” 라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안치환의 무대 전에 민중가수
이수진 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님은 이제
불자들에게 익숙합니다. 작년
촛불법회 때부터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노래
“바뀌버려”는 관중들을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안치환이 등장하자

드디어 가수 안치환이
등장했습니다. 불자들은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웹자보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일까 평소보다 배나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광장이 꽉 들어찰 정도이니
1,500 명에서 2,000 명 가량
운집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가수 역시
자신을 불러 주는 것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수천명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바람 날 것입니다. 이날
초청된 가수 이수진과
안치환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날 8.11 촛불은 안치환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자들이 듣기에
많이 들어본 익숙한 노래부터
신곡에 이르기까지 네다섯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바람 났던 노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 불자들은
엘이디촛불을 흔들며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안치환은 재작년 광화문촛불
때도 보았습니다. 어찌면
광화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주역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은 수백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문화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의 잘 만든 콘텐츠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래는 하나가 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초청된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재작년 광화문 촛불에서도
양희은, 전인권, 안치환 등
민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대거 출연하여 촛불혁명을
이루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한 보신각 촛불법회 현장에
안치환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가수입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하는 민중가수로서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날 8.11
촛불현장에서도 안치환은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짚막하게
코멘트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안치환의 무대
하이라이트는 무어니무어니
해도 어깨동무 노래 부르기라
볼 수 있습니다. 촛불법회를
이끄는 각 단체의 리더들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일렬로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한사람의 가수가 분위기를 반
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 했던
사람들을 일깨워 현장으로 나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날
8.11 촛불에서는 한사람의 유
명가수로 인하여 축제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지금 이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다르다

불교적폐청산운동, 정확하게는
조계종적폐청산운동은
작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더
이전부터 운동이 시작되긴
했지만 재작년 광화문촛불이

성공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보수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뀐 6.9 대선에 크게 고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영역에서 적폐청산은
사회의 적폐청산과 달리
외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촛불로 탄생된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이어 받아
오년임기 내내 사회의
적폐청산에 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영역에서만큼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종교의
문제는 종교에서 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작년
일년 동안 매주 촛불법회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법회가
열렸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득으로
똥똥똥똥 범계승 카르텔에
균열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큼만은
다릅니다.

스님들은 왜 침묵할까?

범계승 카르텔은 건고합니다.
그들은 스님들이 아니라
도둑들입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니 승려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총무원과 종회,
교구본사 등 요직을
독차지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건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돈이 되는 사찰을
차지하여 매일 공간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혜택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승종권
8년동안 혜택을 받은
스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입바른
소리를 하면 확실히 불이익
받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체념적
침묵’이 지배합니다. 설령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한국의 불교적폐청산운동은
사실상 재가불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체념적
침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승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재가불자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현재
촛불법회는 스님이 아닌
재가의, 재가에 의한,
재가자를 위한 불교개혁운동이
되었습니다.

비구승독식시대는 무법(無法)시대

이제까지 한국불교는
비구독식시대였습니다. 소수에
달하는 비구승이 모든 것을
차지 했습니다. 비구니스님도
설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재가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소수의 권력승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 하였을 때 말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후오백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말법시대라
했습니다. 부처님 입멸후이니
기원전후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천년이 지났습니다.
부처님 입멸후 이천오백년이
흐른 한국에서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테라가타 주석 ‘ThagA.III.89’
에 따르면 다섯 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해탈의
시대, 삼매의 시대, 계행의
시대, 학습의 시대, 보시의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의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테라가타 주석에서는 보시의
시대를 말법시대 보다 더
아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주석이 쓰여진 시점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말법시대를

논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보시의 시대가 말법보다 못한 시대일까? 주석에 따르면 학습의 시대부터가 말법의 시대라 합니다. 계행이 무너지고 학습에만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습의 시대마저 사라지면 가르침은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행승들이 재물을 모아서 보시로서 베푸는 시대가 됩니다. 이를 말법시대보다 못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불교에서 돈이 많은 스님들은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모았을까? 스님들이 많이 소유한 시대는 말법의 시대보다 못한 시대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들은 스님이라기 보다는 반승반속의 재가불자라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의 무리들이 승가에 들어가 매일 공간을 털어가는 시대가 말법의 시대, 즉 테라가타 주석에서 말하는 보시의 시대는 무법(無法)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귀의(二歸依)만 있는 한국불교

현재 한국불교는 무법(無法)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부패한

승려들에게 기댈 것이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스님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불교에는 승가도 없습니다. 불법승 삼보 중에 승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승보가 없을까? 그것은 한글삼귀의문에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스님들에게 귀의할 수 없습니다. 재가자나 출가자나 귀의의 대상은 모두 승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하여 스스로 승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승가가 없는 한국불교는 불보와 법보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일부 불자들은 삼귀의 대신에 이귀의(二歸依)만 하겠다고 합니다.

광화문으로 촛불행진

안치환의 공연이 끝나고 불자들은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준비된 엘이디촛불과 연등을 들었습니다. 이날 촛불행렬은 특별히 광화문광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재작년 광화문촛불 현장입니다.

이순신장군 동상이 지켜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촛불의 행렬은 길게 이어졌습
니다. 천명 이상의 촛불행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이 보이
지 않을 정도입니다. 촛불혁명
의 역사적 현장인 광화문광장
을 돌아 우정공원으로 향했습
니다.

우정공원에 도착하니

우정공원에 도착하니 늘
그렇듯이 경찰이 조계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작년
촛촛불부터 늘 보아 오던
것입니다. 이날
총무원측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맞불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이삼십명에 불과합니다.

총무원측에서는 촛불을
방해하기 위하여 스피커를
최대 볼륨으로 울려 놓습니다.
경찰들이 귀를 막고 있을
정도로 큰소리입니다. 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아니면
금강경을 틀어 줍니다.

이날 불자들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향하여 자승구속을
외쳤습니다. 조계종 8년
적폐의 원흉입니다. 자승을
정점으로 한 범계승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 조계종
불교개혁은 요원한 것입니다.

출재가역할분담론에 한국불교 미래가

무려 세 시간에 걸친 8.11
보신각 촛불이 끝났습니다.
불자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벌써 이년 째 입니다. 권승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재가자들의
“비울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는 심정으로 매주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재가자가
주도하는 불교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스님들에게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 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남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스님들을
대신하여 매주 재가불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불교는 사부대중의
불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의 역할분담론으로
완성됩니다. 스님들은

출가목적에 맞게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재가의 전문가들이 교단과 사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승단과 교단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의 승단,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새와 우바이의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승단에서는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교단에서는 재가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출가자는 감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는 비구승독식으로 인하여 한국불교가 쇠락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출재가역할분담론에 한국불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2018-08-12
진흙속의연꽃

60. 암페드카르의 공정한 사회, 8월 정평법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을까? 외모에 대하여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의 성향은 이런 것일까?
외모 못지 않게 사람들 성향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차별이 있을까?

“바라문 청년이여, 못살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못살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M135)

맞지마니까야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M135)’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업자성정견을
말씀했습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

정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세간적 정견과 세간적
정견입니다. 출세간적 정견은
팔정도에서 정견에 해당되는
사성제를 뜻합니다. 세간적
정견은 업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업자성정견이
해당됩니다. 이는
맞지마니까야 ‘커다란 마흔의

경(M1170' 에서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올바른 견해인가?
 수행승들이여, 나는 올바른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번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어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올바른 견해가 있고,
 수행승들이여,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길의 경지에
 드는 올바른 견해가
 있다.” (M117)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간적
 정견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sāsavā)’ 이라 했습니다.
 탐진치 등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등으로 표현되는
 세속적 정견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업과 업의 과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적 정견은 ‘업이 자신의
 주인’ 임을 반조함으로서
 성립됩니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 하면
 ‘업자성정견(業自性正見)’ 이
 라 하며 빠알리어로
 까마삿갓따딤티(kamassakatād
 itthi)라 합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안다면
 얼굴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성향 또한 서로 다름을 알게
 됩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게 된다면 윤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나
 불가촉천민이 된다면 대단히
 억울할 것입니다. 정평불의
 8월 정평법회에서는
 불가촉천민출신 암베드까르의
 불교개종운동에 대한 박경준
 교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불가촉천민출신 암베드까르

암베드까르에 대하여 극히
 상식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법회를
 통하여 암베드까르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불가촉천민출신으로 태어나
 갖은 수모를 겪은
 암베드까르에게 있어서 사회의
 관습과 제도는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문자료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암베드카르는 사회와 개인의 고통이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정의의 중시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에 대한 불공정함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오직 정의만이 이 불공정과 비참함을 제거할 수 있다.” (암베드카르, 이상근 옮김, 203p)

태어나 보니
불가촉천민이었다면 대단히
억울할 것입니다.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촉천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사회가 크게 잘못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상놈으로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생에 따른 신분제도는
대단히 불합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암베드카르는
윤희설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윤희설은

힌두교의 교리가 유입된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암베드카르는
교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창작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초기경전에서 보는 불가촉천민

암베드카르의 최대 관심사는
사회의 불공정과 불합리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자신이
불가촉천민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계급을 정당화
하는 듯한 윤희설을 믿지
않았고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새롭게
창작하기도 하는 등 열린
경전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불가촉천민은 분명히
업자성정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윳따니까야 ‘사람의
경(S3.21)’에 따르면
부처님이 빠세나디왕에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켄달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S3.21)라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찐달라는 불가촉천민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신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라 했습니다. 전생에 악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과보로 악처에 나거나 인간과 같은 선처에 나더라도 낮은 지위의 가문에 태어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찐달라와 같은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은 업과 업의 과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업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비록 불가촉천민일지라도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지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듯이 선처에 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치가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 (stn651-652)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승(navayāna) 또는 신불교

불가촉천민출신 암베드까르는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와 관습과 인습을 바로 잡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힌두교로부터 불교로 개종하는 불교개종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암베드까르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불교에 대하여 신승(navayāna) 또는 신불교라고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 신승불교로 개종한 불교신자들에 대하여 신불교도라고 합니다.

삼보는 이보(二寶)만 있는

어느 사회나 모순과 위선과 거짓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귀의문에서 승보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승보에 대하여 ‘스님’이라 합니다. 물론 스님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거룩한 스님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삼보 중의 하나인 승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한국불교에는 삼보는 없고 이보(二寶)만 있다고 합니다.

한국불교가 개혁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삼귀의문에서 승보개념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승가를 스님으로 하는 한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 된 체로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너무 세월이 오래되어서일까 불자들은 물론 스님들까지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승보를 스님으로 본다면 승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불자들로 하여금 이귀의(二歸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삼보는 없고 이보만 있는 셈이 됩니다. 이는 제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암베드카르가 있다면 사회정의 실현의 차원에서라도 바로잡기 운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스님을 승보로 보았을 때 스님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동급으로서 계급입니다. 본래 삼귀의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는 동급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교단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가르침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승들의 커뮤니티는 모두 부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가의 자리에 스님을 놓았다면 부처님과 동급이 되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땀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암베드카르는 과학에 바탕을 두어 경전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불가촉천민과 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베드카르의 열린 경전과 과학적 접근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정의를 중시하다 보니 지나치게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창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서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설령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맞지마니까야 ‘앗살라야나의 경(M93)’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쌀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쌀라야나여, 만약에 귀족가문, 왕족 가문,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담마수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있고, 광채와 광명이 있어, 바로 그 불꽃으로만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째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죽세공 가문, 마차수리공 가문, 도로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도 개 먹이통, 돼지 먹이통,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없고, 광채와 광명이 없어, 그 불꽃으로는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M92, 전재성님역)

태생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바라문들에게 부처님은 땀감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땀감에서도 불이 붙고 그 불의 형태는 모두 똑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바라문이 고급 전단향나무에 불을 붙인 것이나, 불가촉천민이 돼지먹이통에 불일 붙인 것이나 불의 화염과 광채와 광명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불의 형태는 재료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말합니다. 어떤 땀감을 사용해도 불의 형태는 변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땀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라 말씀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땀감에서든지 불이 붙듯이, 불가촉천민일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면 누구라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가자도 재가자도 가르침을 실천하면 누구라도 지혜로워 질 수 있습니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앞에 평등합니다.

2018-08-12
진홍숙의연꽃

61. 재가의 힘을 키워야, 제 3 회 정평불교포럼

내버려 두면 엉망된다

어떻게 해야 이 난마처럼 얽힌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여기 얽힌 실타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풀려질까? 외도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웃따니까야 ‘견해의 큰 경(S24.52)’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 했습니다. 외도들은 굳이 청정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듯이, 한량없이 윤회하다보면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청정해진다는, 이른바 ‘윤회청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됩니다. 이는 엔트로피법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방치하면 허물어지고,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쁜 길로 가고, 회사를 관리 하지 않으면 부도의 길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적폐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더 망가질 뿐입니다. 때로 자극을 가하고 때로 충격을 주어서 청정한 길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가불교운동을 하는 당위성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평불교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 주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를 정평불교포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일개 재가불교단체에 지나지 않지만 포럼을 열만한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지식인들과 재가활동가들이 모인 정평불에서는 8월 13일 서울시민청 워크숍홀에서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방향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발제자는 정평불

의 이도흠교수와 박병기교수, 그리고 지지협동조합의 김경호 이사장과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김형남변호사가 말았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박경준 교수는 좌장겸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날 정평포럼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평일인 월요일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57명이 모였습니다. 워크숍홀 정원이 60명인데 거의 꽉 찬 인원입니다. 정평불 회원은 평일임에도 31명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교TV(BTN)와 불교방송(BBS), 천지일보와 불탐뉴스, 그리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포럼은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네 시간 반 동안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적다보니 무려 3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박

경준 교수는 ‘정리의 신’이라며 치켜 주었지만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줄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재가 불교운동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의 정평포럼을 보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제3회 정평불교포럼’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평불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이번에 세 번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럼은 문수스님의 분신 후에 열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불교 지식인들과 재가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하여 정평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문수스님의 유지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었다고 합니다.

정평불의 두 번째 포럼은 2016년 1월에 열린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깨달음 논쟁이 불붙었는데 정평불에는 ‘깨달음 역사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렇듯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마다 포럼을 열어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포럼은 자주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 열린 정평포럼의

주제는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수행과 재정을 분리해야

먼저 이도흠 교수가
총론으로서

‘포스트세속화/탈종교화
시대에서 한국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 34 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약 20 분에
걸쳐서 중단질서 안의 개혁
방안과 그 바깥에서의
개혁방향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요지는 중단 질서 안에서는
수행과 재정을 분리하고
직선제를 하고
사찰운영위원회를
민주화하자는 것이고, 중단
질서 바깥에서는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불자들이 시민보살이
되며 절을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돈을 만지고
관리하는 한 한국불교 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재정에 개입하는 한
오늘의 개혁세력이 내일의
적폐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불자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에서 “적폐청산”을
외칠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
되는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들은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재가전문가가 사찰과
교단을 운영하고 관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유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김경호 이사장은 ‘운영원리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성’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김이사장은 먼저 승가의
전근대성을 꼬집었습니다.
절에 가면 모든 사고가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속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문화재 지킴이로 전락한
승가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승가에서는 조상들이
물려준 막대한 토지와
문화유산을 사유화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
한합니다. 약 300 백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권승들이
불교재산을 독차지하여 매일
곳간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불교는 정법과는
거리가 먼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국민유산관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불음주계(不飲酒戒)를 지켜야

박병기 교수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계율정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경우
‘대승보살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은
출가승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스님의 경우 구족계를 받기
때문에 차별화가 생길
뿐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대승보살계를 함께 받는
측면에서 본다면 출가와
재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가자에게는
보살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재가자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승보살계를 받았다면
출가자나 재가자나 동등하게
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박병기 교수는 “도덕성에
기반한 청정성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승보살계는 출가승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실례로서 현재 정평불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음주계(不飲酒戒)’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재가공동체중의
하나인 정의평화불교연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불음주계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받을 만한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재가불교단체에서는
음주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지만 정평불에서만은
오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권력승 양성소인 중앙종회를 해체해야

김형남 변호사는 ‘바람직한
종헌종법 개정방안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김형남
변호사는 중앙종회에 대하여
권력승의 양성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종회의원이
되면 마치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특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이사가 되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군에서 장군이 되면 역시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승가에서도 종회의원이 되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권력의 맛이라 합니다. 종회의원이 종단정치를 하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에 도취되어 평생 이익과 명예와 칭송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회의원이 되면 종단정치를 하면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벌이 형성되면 합종연횡하여 종권을 창출해냅니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끼리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변호사는 “권력층 양성소인 중앙종회를 해체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종단임에도

네 명의 발제자가 각각 약 20 분간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사회자 겸 좌장인 박경준 교수는 발제자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요약하여 핵심을 짚어 주었습니다. 특히 출제가역할분담론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본래 교단은 출가와 재가의 이원구조라

했습니다. 이는 고대인도에서 탁발문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출가자가 탁발나가면 재가자는 먹을 것 등을 보시합니다. 이때 출가자는 범보시를 하고 재가자는 재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가와 재가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돕고 살아 갑니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본다면 비록 재가자가 현전승가의 일원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방승가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단은 비구승 독식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계종 종헌 제 8 조를 보면 분명하게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써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부대중의 불교가 아닙니다. 종헌 67 조를 보면

“총무원장의 자격에 대하여 ‘비구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교단이라면 비구니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고, 재가자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승단과 교단으로 분리 되어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중앙종회에는 재가자가

없을까? 중헌에는 사부대중이
종단의 구성원이라 했는데 왜
재가자는 총무원장도 될 수
없고 종회의원도 될 수 없을까?
재가자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원이 되면 큰 일 나는
것일까? 가만 따져 보면
출가자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원이 되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스님들이 종회의원이 되고
총무원장이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로 이루어진 승단에서는
대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처럼
행정업무를 다루는 것에
불과한 총무원과 국회처럼
법을 만드는 종회에 스님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장은 물론 율장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에 관한 일이나
입법에 관한 일이라면
재가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재가자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원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재가전문가에게
맡기면 출가스님 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단과 교단으로
분리 되어야 합니다. 비구와
비구니의 승단에서는
출가목적에 맞게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면

됩니다.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우바새와 우바이로 이루어진
사부대중의 교단에서는
재가전문가가 교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단에서 스님들은
감사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불교개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표충사 사건처럼

네 명의 발제자로부터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이날
정원 60명에 57명이 참석하여
관심을 집중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관심사는
'사찰재정투명화'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들은 공통적으로
스님들에게 재정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찰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가의 전문가가 관리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스님들은 감사의 역할 하면 될
것입니다. 재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주지가 되면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지가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 재정에

관한 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충사 사건처럼 삼보정재를 팔아 먹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를 타파해야

최연 선생은 재가자의 신행행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재가불자들의 잘못된 신행행태가 오늘날과 같은 갑을관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종현을 보면 사부대중의 교단이라 하여 갑을 관계가 아님에도 스님들은 갑이고 불자들은 을의 위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결과는 불자들의 기복적 신행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불자들은 복을 빌며 불전함에 돈을 넣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절에 가서 천도재를 지내줍니다. 이런 신행행태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을 보면 부정적 요인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복으로 인하여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연 선생은 갑을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출재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보시거부운동이나 문화재에 대한 국민참여 등으로 재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불교문화유산은 조계종 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모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전통문화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가의 힘을 키워야

채영해 선생은 재가의 힘을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찰재정투명화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조계종을 개혁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가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정평불이 모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정평불발 재가의 힘 키우기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박병기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박병기 교수에 따르면 대승보살은 출가보살과

재가보살로 나눌 수 있는데
출가보살이 잘못할 경우
재가보살이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스님”이라 했을 때 이는
수직적이고 굴종적이라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이나 똑
같은 대승보살계를 수계한
입장에서 스님에게 의지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면
오늘날처럼 각종 범계행위가
만연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가보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가보살 불교가 출가보살과
동등하게 양립했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8.11 촛불에 참여한 선진규
원장의 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규 원장은
글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양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진규 원장에 따르면 지금
비록 재가자들이 청정한
승가를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서 운동하며 애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재가보살
운동방향의 에너지를 재가
보살 날개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가의 힘을
키워야 함을 말합니다.

외부의 충격요법에 의해서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개최한
제3회 정평불교포럼은
한국불교가 위기상황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와
질문자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가불자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마처럼 얽힌 한국불교의
모순과 거짓과 위선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개혁의 대상이 개혁할 수
있을까? 승려가 ‘스스로
머리를 못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의 대상이 개혁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외부의
충격요법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율적
바탕위에서 성립된
한국테라와다 불교가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가불교가 한쪽 날개가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테라와다불교에서는 탁발하지
않지만 오후불식을 하는 등

율장정신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자들이 사찰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재정과 관리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재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라와다 비쿠들은 출가 목적에 맞게 오로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뿐입니다. 이처럼 계율에 바탕을 둔 테라와다불교가 성장했을 때 기성종단은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혁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또하나는 재가불교의 성장입니다. 포럼에서 거론 된 것처럼 재가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듯이, 종단은 승려들만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출가와 재가라는 양 날개로 날아야 높이 비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이 결집해야 합니다. 재가자들이 지역에 재가자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오계를 지키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재가불교가 숲을 이루었을 때 한날개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재가불교가 힘을 키워 성장했을 때 기성불교는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가불교의 성장은 결국 출가불교의 개혁의 추동력이 됩니다. 지금 재가불자들이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열기를 감내하며 청정승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재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앞장설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가르침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엔트로피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머지 않아 망하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단마처럼 얽힌 문제도 가르침대로 하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하늘사람]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였네 .

세상사람들은 매듭에 묶여
있네.
고따마께 이것을 여쭙니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구인가?” (S1.23)

[세존]

“계행을 확립하고 지혜를
갖춘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닦네.
열심히 노력하고 슬기로운
수행승이라면,
이 매듭을 풀 수
있으리.” (S1.23)

엷히고 설킨 매듭을 풀려면
먼저 계행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에 칼을 갈듯이,
삼매에 날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 무사가 두 손에 검을
단단히 부여 잡고 단칼에
열키고 설킨 난마를 베어
버리듯이, 수행자는 지혜의
힘으로 자신의 내부에서 자란
갈애의 그물을 모두 풀고
자르고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행과 정행과
혜행으로 엷히고 설킨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2018-08-14
진흙속의연꽃

62. 망해야 산다는데, 원로의원 설득

“더 망해야 돼.
더 망해야 된다니까.”
팔순의 노스님은 조계종이
망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 했습니다.

“스님, 다음 주에 망해가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찾아간 재가불자 리더들은
읍소하듯이 말했습니다.

“종회해산 쉽지 않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노스님은 말은 쉬어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습니다.

“스님, 종회해산하고
비상회의 만들면 됩니다.”
재가리더들은 재차 삼차
노스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고한 스님이 마음을
조금 열어 놓았습니다.
해법이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스님, 세 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현재 열 명은 동의했습니다.
열세 명만 동의하면 망해가는
불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가불교리더들은 구체적
수치를
들며 노스님을 설득했습니다.

“앞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노스님의 말에 변화를 감지
했습니다.
참석자들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스님, 창피해서
못살겠습니다.”
어느 여성 재가리더가
하소연 하듯 말했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것들이
불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더 망해야 해.
신도들도 고개 돌려
절에 안와야 해.”
노스님은 망해도 폭삭망해야
함을
재차, 삼차, 사차
강조했습니다.

“바른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재가리더들은 선진규 선생의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스님의 결심에 달렸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 해.
그러나 내가 참여할게.”
마침내 스님이 결심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운명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종회를 해산하고 비상기구가
구성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노스님들은 불교를 살릴 수
있을까?

2018-08-19
진흙속의연꽃

63.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정평불 하계수련회 1-예불

행복보다 평온

행복에도 거친 행복과 잔잔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욕락에 따른 육체적 행복은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 느끼는 잔잔한 정신적 행복은 긴 여운과 함께 꽤 오래 지속됩니다.

네 가지 선정에 따르면, 선정이 높아짐에 따라 희열도 행복도 버려집니다. 처음 것은 나중 것에 비하면 거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행복은 거친것이기 때문에 선정의 고리가 약하다고 거기에서 허물을 보고” (Vism.180)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띠가 있고 평온하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평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복은 거친 것이 됩니다.

정평불 하계수련회

행복보다 평온이 더 수승합니다. 수련회를 가는 목적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산중이 최적입니다. 정평불에서는 8월 25일과 26일 주말을 이용하여

서산으로 수련회 다녀 왔습니다.

이번 하계수련회 참석인원은 18 명입니다. 참가하기로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만 참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4 월 말에 월정사 1박 2 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계수련회는 8.26 승려대회와 겹쳤습니다. 본래 승려대회가 8 월 23 일이었으나 태풍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에 맞불집회를 계획한 총무원측에서도 태풍을 이유로 따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일요일 오후에 열리는 승려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전 일정을 당겨서 진행했습니다.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

수련회 참가자는 토요일 오후 5 시까지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 입니다. 서산 인터체인지에서 약 사오키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미황사 금강스님의 서산도량입니다.

서산도량은 유마선원을 인수한 것입니다. 법보신문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이학중 선생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학중 선생에 따르면 음심적으로 팔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불교도량이 고기냄새가 진동하고 술판으로 변질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금강스님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시주자가 나타났고 금강스님을 따르는 서울신도들이 십시일반 한평사기 운동을 하여 지금의 서산도량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서산도량은 평소에 비어 있습니다. 단체 수련회가 열리면 개방됩니다.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이삼백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산도량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막바지 여름철 주말이어서인지 아래 용현계곡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합니다. 계곡의

음주가무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서산도량의 선방 분위기

토요일 일정은 오후 6 시에 저녁예불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은 숙소에서 사오십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방에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선방건물 역시 현대식입니다. 사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팔작지붕으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듯합니다.

선방이라 하여 출가자들만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건물로 된 서산선방은 시민선방개념입니다. 재가불자들이 단체로 집중수행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방은 매우 넓습니다. 약 백명 가량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른 선방에는 쾌불과 관세음보살상만 있습니다. 이런 간소함은 선방의 특징입니다. 법당과는 달리 울긋불긋 탕화나 단청 연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산도량에 법당은 따로 없습니다. 너른 선방 한켠에 불단이 있어서 법당을 겸하고 있습니다. 괘불은 미황사괘불을 모사한 것이고, 관세음보살상은 세월호 당시에 팽목항 법당에 모셔져 있던 것이라 합니다. 선방의 간소함을 보니 선의 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에는 일곱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나열해 보면 1)간소(簡素), 2)탈속(脫俗), 3)자연(自然), 4)유현(幽玄), 5)고고(枯高), 6)정적(靜寂), 7)변화(變化) 입니다. 선은 소박하고 간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멀리 떠나 고요한 분위기에서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런 것이며, 동시에 변화무쌍한 것이라 합니다. 서산도량의 선방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예불을 올리고

저녁예불은 정평불에서 의례를 주관하는 이복우 선생이 주도했습니다. 준비된 목탁소리와 함께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으로 시작되는 예불문 중에 칠정례를 했습니다. 자비경독송과 반야심경

독송하는 것으로 예불을 마무리 했습니다.

어느 법회모임에서든지 예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빠알리 예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문식의 예불문 대신 빠알리어 예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모땃짜 바와또” 로 시작되는 예경문입니다. 다음으로 빠알리어 삼귀의문을 세번 합니다. 이어서 오계를 받드시 합니다. 오계는 학습계율이기 때문에 법회할 때 마다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삼보예찬입니다.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대한 찬탄문입니다.

한문식 예불문도 훌륭합니다. 특히 칠정례 같은 경우 장엄할 뿐만 아니라 불교적 이상과 목표가 잘 실려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비경을 예불문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불에서 가장 기본은 삼귀의, 오계, 삼보예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불을 마치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산란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명상만한 것이 없습니다. 죽비소리에 맞추어 입정에 들었습니다. 고요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분 이상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짧은 입정에서는 들뜬 마음을 진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서산도량 선방에 앉아 있으면 참선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들리는 것은 풀벌레소리입니다. 시각은 차단 됐지만 청각은 차단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집중하면 청각도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사라지겠지만 짧은 집중에서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육근이 청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되어야

마음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듯이, 마음에 장애가 생겨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장애에 대하여 1)감각적 쾌락의 욕망(kāmarāga), 2)분노(byāpāda), 3)해태와 혼침(thīnamiddha), 4)홍분과 회한(uddhaccakukkucca), 5)의심(vicikicchā)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를 오장애라 합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오장애에 대하여 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색깔로 물든 물로 비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치 물그릇이 불거나 노랗거나 푸르거나 새빨간 색으로 물들었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 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부글부글 끓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치 물그릇이 불에 달구어져 끓어오르고 거품을 일으켰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 했습니다.

해태와 혼침에 대해서는 이끼 낀 물로 비유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마치 물그릇이 이끼 낀 수초로 덮였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 했습니다.

홍분과 회환에 대해서는 바람이 불어 파도치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치 물그릇이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치고 물결친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 했습니다.

의심에 대해서는 흐린 흙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치 물그릇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흙탕물이고 어둠속에 놓여 있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장에 대한 물의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색물감 풀어 놓은 듯한 물이나 부글부글 끓는 물, 이끼 낀 물, 파도치는 물, 흙탕물에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면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흙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화 되어 바닥이 보이듯이, 마음을 깨끗이 하면 자신의 본래 바탕을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모습을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S46.55)라고 했습니다.

죽비소리에 아쉬워하며

더 앓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자리를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토론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죽비소리에 아쉬워하며

멈추었습니다. 다시 숙소를
향하여 이동했습니다.

2018-08-27
진흙속의연꽃

64. 한방울의 물에도 한알의 곡식에도, 정평불 하계수련회 2-식사

청정한 삶은 청정한 먹거리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먹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산해진미를 즐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먹는
재미를 인생삼락중의 하나라
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식도락가가 있습니다.
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자도 있습니다.

정평불회원 중에 호두마을에서
집중수행한 선생이 있습니다.
집중수행을 마치고 일반식당에
들어갔더니 피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집중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후각이 민감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선생은 선정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술과 고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육류는 물론
어류도 먹지 않습니다. 눈의
건강을 위해서 달걀만
허용합니다.

청정한 삶은 청정한 먹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를
즐기면 술을 찾게 되고, 술을
즐기면 고기를 찾게 됩니다.
고기는 육체를 혼탁하게 하고,
술은 정신을 혼탁하게 합니다.
심신이 혼탁해졌을 때 청정한
삶은 요원하게 됩니다.

유병화 선생의 음식봉사

정의평화불교연대, 줄여서
정평불이라 합니다.
정평불에서 이번 여름
서산도량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18 명이
참가한 수련회에서 회원들은
청정한 먹거리를 접했습니다.
회원 중에 사찰음식전문가
유병화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병화 선생은 이번 하계
수련회에서 음식봉사를
했습니다. 미황사 금강스님의
서산도량 공양봉사자이기도 한
유선생은 1박 2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청정한
먹거리를 공양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두 번의 식사시간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
저녁식사와 8월 26일 아침
식사가 그것입니다. 수련회
준비팀은 25일 점심식사를
해서 세 끼를 먹었습니다.
8월 26일은 승려대회가
열리는 관계로 오전에
출발했는데, 유선생은 차로
이동중에 먹으라고 주먹밥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채마밭에서 먹거리를

첫날 수련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채마밭에서
먹거리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서산도량 한켠에는 호박, 가지,
고추, 깻잎, 동과 등이 있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먹거리를
현지조달하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따 모으니 한 바구니
가득 되었습니다.

제철에 나는 것들로 싱싱한 먹
거리입니다. 수련회 카풀 제1
진으로 왔기 때문에 다섯 명이
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밥
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은 깻잎과 약초장아찌
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깻잎

은 일년 묵은 것이라 합니다.

제철 음식이 가장 맛 있듯이,
밥도 막 지은 것이 맛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은 밥
그 자체가 고소합니다. 그러나
20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대개 온장고에서
밥그릇을 꺼내 오는데
보관해서인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년 묵은 깻잎은 맛이
그윽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된장에 재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장에 재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된장에 일년 재워진 깻잎은
깊은 맛이 납니다.

약초장아찌가 있습니다.
약초라는 말이 들어가서일까
보약먹는 느낌입니다.
유선생에 따르면 집에는
갖가지 종류의 장아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약초 장아찌인데 깊고
그윽한 맛이 납니다.

오신채 없는 행복한 밥상

저녁 5시가 되자 수련회
멤버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공주에서 S 선생은 복숭아,
참회, 포도 세 박스를 가져
왔습니다. 양이 먹고도 남아서

다음 날 해산할 때 각자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련회 첫 날 식사시간은 오후
7시에 있었습니다. 유병화
선생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준비한 것은 채마밭에서 딴
것들입니다. 깻잎을 된장에 싸
먹도록 준비했습니다. 고추가
빠진 것은 고라니가 모두 따
먹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등그런 접시에 조금씩 담았습
니다. 밥과 깻잎과 약초장아찌,
오이 등 완전 채식입니다. 고
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화
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
다. 오로지 간장과 된장, 소금
등으로 맛을 냈습니다. 또한
과, 마늘 등 오신채를 전혀 사
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막
따온 깻잎에 오래 묵은 된장과
함께 먹으니 입안 가득 씹는
맛이 납니다. 소박한
식단이지만 고급식당에서
산해진미 먹는 것 못지 않은
행복한 밥상입니다.

밥을 할 때는 밥술을
사용합니다. 전기밥솥이 아닌
밥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룽지가 생겨납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먹고

그 다음 먹는 것이 누룽지가
있는 송늬입니다. 밥술에
뜨거운 물을 부우면 구수한
누룽지가 들어간 송늬이
됩니다.

이도흠 선생이 설거지 담당을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남김
없이 먹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먹었으면
치워야 합니다. 각자 먹은
것은 각자 치우기입니다.
그러나 비좁은 주방에서 각자
설가지 하려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평불 상임대표
이도흠 선생이 설거지 담당을
자처 했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야!”

다음 날 아침에 두 번째
전체식사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선방에서
아침예불하고 김진태 선생의
위빠사나 수행관련 강연과
실습을 할 동안 유병화 선생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울긋불긋
완성된 음식을 보니
경이롭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치 도깨비망망이로 똑딱
만들어내듯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음식 가지는
6 가지입니다. 어제

채마밭에서 따온 것이
주류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입니다. 큰 솥에
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치 전복죽처럼 걸쭉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육류나 어류가
들어 가지 않은 순수하게
곡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맛을
보니 감미롭고 부드러워서
“이런 맛 처음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방울의 물에도 한알의 곡식에도

식탁을 마주 하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중한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공양계를 읊었습니다.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의
공양계라 하여 유병화 선생이
낭송하면 따라 했습니다.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공양계는 미황사 금강스님
버전이라 합니다. 금강스님이
기존 공양계와 달리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이라 합니다.
계송의 키워드는
‘청정’ 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청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한방울의 물과
한알의 곡식을 즐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오관계에서 약으로
먹는다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공양계송이 있습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오관계(五觀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관계를 보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良藥爲療形枯)” 라는
문구입니다.

울장에 따르면 수행자가
아프면 약으로서 음식을
먹습니다. 울장소품에 따르면
“한때 병든 수행승이
약으로서 지방이
필요했다.” (Vin.I.200)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병든 수행승을 위하여
“수행승들이여,
지방약(脂肪藥) 즉, 곰의 지방,
물고기의 지방, 상어의 지방,
돼지의 지방, 당나귀의 지방을
올바른 때에 받고, 올바른
때에 조리하고, 올바른 때에
섞어 기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Vin.I.200)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돼지지방 즉,
돼지고기를 아픈 환자에게
약으로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관계에서처럼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良藥爲療形枯)” 라고
했을 때 음식을 약으로 안다면

어떤 음식이든지 약으로 알아
먹을 것입니다.

울장소품을 보면 약이 되는
음식으로 술도 해당됩니다.
빨린다 밋차 존자가 풍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기름을
끓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끓을 때
화주(火酒)를 섞어야 했습니다.
화주는 취기가 있는 것으로
독한 술입니다. 부처님은
풍병에 걸린 수행승을 위하여
“수행승들이여, 기름이 끓을
때 화주를 섞는 것을
허용한다.” (Vin.I.200)라
했습니다.

음식을 약으로서 간주하면
고기도 약이 되고 술도 약이
됩니다. 그러나 울장에 따르면
약으로서 음식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역 오관계를 보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良藥爲療形枯)” 라 하여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수행승도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는다면
환자가 먹는 것처럼 고기도
술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한역 오관계에서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라는

말은
 양약위료형고(良藥爲療形枯)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어 고(枯)자는 ‘팔다리의
 살이 여위어서 힘이 없어 잘
 쓰지 못하는 것’ 즉, 살이
 여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일까 어느 번역에서는
 “몸이 마르는 것을 막는
 약으로 여겨” 라 했습니다.
 ‘육신을 지탱하는 것’ 과
 ‘몸이 마르는 것을 막는
 것’ 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은
 ‘음식을 약으로 알라’ 라는
 것입니다.

초기경전에서 음식을 약으로
 알아 먹는 가르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픈 환자의
 경우에나 음식을 약으로 알아
 먹었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는 경우 고기도 약이
 될 수 있고 독한 화주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경전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을까?
 상윳따니까야 ‘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 을 보면 일종의
 빠알리 공양계라 볼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 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S35.239)

이것이 수행자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환자처럼 약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하는가? 경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S35.239)이라 했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는 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르듯’ ,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이라 했습니다.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지 즐기 위해서 또는
 약으로 먹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관계에서는 즐거울
 락(樂)자를 사용하여 이를
 약(樂)으로 알아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고

수련회 2일차에는 아침 식사만 했습니다. 오후에는 승려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 일정을 당겨서 점심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8월 26일 오후 2시까지 조계사길에 도착하려면 밥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병화 선생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차로 이동중에 먹기 위한 것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주먹밥은 즉석 아이디어라 합니다. 마침 채마밭에 깻잎이 있어서 깻잎에 찐 주먹밥입니다. 밥에 여러가지 재료를 섞어 버무린 것입니다. 각자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동중에 먹은 깻잎 주먹밥은 깻잎 특유의 향과 함께 고소한 맛이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주먹밥 두 개를 먹으니 포만감에 저녁 때까지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부처님의 주치의 의사 지마까는 울장에서 “약에 사용되지 못한 푸성귀는 하나도 없다.” (Vin.I.275)라 했습니다. 제철에 나는 식재료는 모두 약이 됩니다.

채마밭에서 갓 딴 것들은 최상의 음식재료입니다. 이번에 음식맛을 본 정평불회원들은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앞으로 수련회 하면 음식 맛 때문에 또 오게 될런지 모릅니다.

매일 밥을 먹습니다. 하루 세 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청정한 밥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식당에 사 먹는 음식은 온갖 조미료가 가미 되어 있어서 달달하고 맵고 짠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유병화 선생이 즉석에서 만든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은 청정 그 자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원 중의 한 선생은 “심신이 건강토록 세세히 살피시는 손길에서 엄마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라 했습니다.

음식절제를 하면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청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청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현세에서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번뇌의 소멸에 근본이 되는 원리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는 “감각능력을 수호하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과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 (S35.239)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세 가지 원리
중에 음식관련 항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행막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절제를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청정이 청정한 삶의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8-08-28
진흙속의연꽃

65. 가르침과 계율안에서 성장하는 모임, 정평불 하계수련회 3- 토론

정평불 하계수련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련회 1 일차
밤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회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
회칙을 개정하는 토론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법으로서
법중의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성문화 해
놓은 것이 회칙입니다.

정평불에도 회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만들어 진
것으로 10월에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회칙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초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의평화연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정의평화연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무엇일까?
회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회칙 전문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탐욕이
끝없이 증식하여 지구상의
생명체의 절반이 멸종위기에
놓고 가난한 자들이
생존위기와 죽음으로 치달는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불의와 부조리와 전쟁과
폭력에 맞서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와 평화를
실현한다.”

정평불의 이념은 정의와
평화의 실현입니다.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가르침을
담마(Dhamma)라 합니다.
담마를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담마네나(Dhammanena) 또는
담미까(Dhammika)라 하는데,
이 말은 ‘여범(如法)하게’
또는 ‘법답게’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정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일까 전륜성왕이라
칭송받는 아소카대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바위칙령 13)라고
‘담마비자야(Dhammavijaya)’
를 선언했습니다.

정평불에서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함께

추구합니다. 이는
회칙전문에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라는 보살도
정신으로 잘 나타냅니다.
자신의 수행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를 완성해
갑니다. 자타가 이익이 되는
삶이 정평불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108 명의 정회원을 목표로

회칙에서는 정회원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회원 조건은 “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하되,
일정액의 회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현재
정평불에서는 회비와 관련하여
매월 1만원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에
납부하는 연회비도 가능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이든지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됩니다.
정평불에서는 연말까지
108 명의 정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든지 100명 이상
모이면 힘이 생겨납니다. 그
힘으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화합의 모임(samaggā
parisā: 和合衆)이어야 하는가**

회칙을 읽어 나가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칙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불화를 위한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화합을 위해
존재합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합을 저해 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평불 회칙에는 회원자격
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정평불이 추구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을 저해했을 때 일
것입니다.

흔히 승가에 대하여
화합승(和合僧) 또는
화합중(和合衆)이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화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기를 바란다.”
(Vin.I.352, M128)라 했습니다.

기름과 물은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유와 물은
화합합니다. 화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유와 물이 다른 성분이긴
하지만 화합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이든지 성향은
다르지만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기 때문에 ‘화합의
모임(samaggā parisā:
和合衆)’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합의 모임이 있다면 반대로
불화합의 모임(vaggā parisā:
不和合衆)이 있을 것입니다.
불화합의 모임은 기름과 물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어서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과 물과 같은 모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초기경에서는 “다툼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서
논쟁을 일삼고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A3.93)라
했습니다.

**최상의 모임(aggavatī parisā:
最上衆)을 지향해야**

초기경에 따르면 세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합의 모임, 불화합의 모임,
최상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모임이란 어떤 것일까?
옳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최상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그 모임
가운데 장로수행승이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움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그의 후계자도
자각적으로 본 것을 따라 한다.
그들도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움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최상의 모임이
한다.” (A3.93)

최상의 모임(aggavatī parisā:
最上衆)이란 한마디로
‘정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화합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여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지낼 때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최상의 모임에
대하여 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에 따르면
“작은 강을 이루고 다시 큰
강을 이루듯이, 큰 강을
이루고 다시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는 것과 같다.” (A3.93)라
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강물이 되어 대양에 이르듯이,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는
가르침 안에서 성장했을 때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마침내 해탈과 열반의 대양에
이를 것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악작죄(惡作罪: dukkaṭa)를 고백하고

회칙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때로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실렸을 때는 불화합의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처럼 화합하지
못하여 입에 칼을 물고 찌를
수 있습니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샘의 이의
제기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나도 모르게 벌칙 화를
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악작죄(惡作罪:
dukkata)’를 지은 것이
됩니다. 이에 당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마무리
모임 할 때 참회 내지는
고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과 같이 대중참회
했습니다.

“이번 하계 수련회는 여러
모로 뜻 깊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청정한 사람들과
청정한 음식을 먹고 청정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달밤에
보원사지는 추억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위빠사나 강연과
경행수행 또한 큰
소득이었습니다.

회칙개정과 관련된 모임에서
악작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칙 화를 내었습니다.
불교에서 삼독은 죄업을 짓는
것이라 하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계율은
학습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키지 못해도 늘 받아
지니다 보면 배우고 익히게
되어 언젠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악작죄를 지었으면
참회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수련회 마지막 일정에
고백하려 했습니다. 일정에
죄담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방에 빙둘러 앉아 한마디씩 할
때 그 때 대중참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문자로
참회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사자, 참석자
모두에게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때문에 이에
대중참회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면 참회를
받아 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회죄는 “여러분,
나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라
합니다. 나무로 된 몽둥이로
맞을 정도면 승단잔류죄가
됩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고백죄입니다. 고백죄는
“여러분, 나는 책망 받아야
마땅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라 합니다.

별걱 화를 내었을 때 어느 선생은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고백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놀래키고 비난 받을 만한 악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르침과 계율안에서 성장하는 모임

정평불은 화합하는 모임입니다. 단체카톡방에서도 화합하는 커뮤니티라 한 바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아닌 우유 물처럼 화합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화합하는 모임(和合衆) 보다도 더 수승한 모임은 최상의 모임(最上衆)입니다.

최상중은 정진하는 모임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상중에서는 반드시 배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상중의 조건 중의 하나로서 “그의 후계자도 자각적으로 본 것을 따라

한다.” (A3.93)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이나 동료가 있어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정평불은 인적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정평불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반드시 배울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같이 되기 위하여 따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모임(aggavatī parisā: 最上衆)’의 특징입니다.

정평불은 화합하는 모임입니다.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는 모임입니다. 기름과 물처럼 불화한다면 갈마에 의하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율장에 따르면 갈마 하는 것은 화합중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칙에서 박탈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도 화합의 모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평불은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또한 계율안에서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그는 참으로 이 가르침과 계율 안에서 성장, 번영, 충만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M16)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평불은 회칙전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불의와 부조리와 전쟁과 폭력에 맞서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와 평화를 실현한다.” 라는 이념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2018-08-29
진홍속의연꽃

66. 폐사지 석탑의 교교(皎皎)한 보름달, 정평불 하계수련회 4-보원사지

정평불 하계수련회 네 번째 이야기는 보원사지에서 본 보름달 이야기입니다. 8월 25일 밤 토론회를 마친 회원들은 늦은 밤에 보원사지로 갔습니다. 서산도량에서 불과 2.8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차로 10 여분 거리에 있습니다.

보름달밤의 보원사지

보름달밤에 보는 보원사지가 환상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8월 25일은 음력 보름으로 하안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폐사지에서 보는 보름달은 어떤 것일까? 그것도 오층석탑만 덩그러려 남은 폐사지의 보름달은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거의 11시 가까이 되어서 보원사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밤이라 하지만 주변은 캄캄합니다. 특히하게도 보원사지 주변에는 농경지도 없고 사람 사는 집도 없습니다. 너른 황무지에 오층석탑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털구름이 떠 있어서 달을 막았습니다. 싯구 중에 ‘구름에 달 가듯이’ 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지나자 검은 하늘에 둥그런 달이 나타났습니다. 폐사지 석탑 위에 보름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이 차면 그 보름달에 사람들이 합장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타마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M98)

불교인에게 보름달은

보름달은 사람을 설레이게 만듭니다. 짝찬 보름달은 포만감이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에 지친 자들은 동그란 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보름달과 관련된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 ‘훌륭한 가문의 우다인에 대한 큰 경(M77)’을 보면 “외딴 거처에 지내다가 계율의 규범을 외우는 보름날 참모임에 참가합니다.” (M77)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숲속이나 외딴 거처에 지내는 수행승들이 보름날이 되면 한곳에 모여서 계율의 규범을 외운다고 합니다. 보름날은 계본(Pāṭimokkha)을 외는 포살일이기도 합니다.

보름날밤은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숫따니빠따 ‘해마바따의 경’에서는 야차가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신성한 밤이 가까웠다.” (Stn.153)라고 말합니다. 보름날밤의 포살일은 경건하고 신성한 밤입니다. 출가자들은 계본을 읽고 포살을 하며, 재가자들

역시 팔계를 지녀 청정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지키리라

숫따니빠따 ‘담미까의 경’을 보면 재가자의 포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살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각각 보름기간의 제 14일과 제 15일과 제 8일에 포살을 닦으라. 그 신성한 달에 올바로 갖추어진 여덟 고리를 준수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라.” (Stn.402)라고 했습니다. 재가자에게 있어서 여덟 가지 포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생명을 해치지 말라.
- (2)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 (3) 거짓말을 하지 말라.
- (4) 술을 마시지 말라.
- (5)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
- (6) 밤에는 때 아닌 때의 음식을 먹지 마라.
- (7) 화한을 걸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 (8) 깔개를 깔 바닥이나 침대 위에서만 자라.

이와 같은 포살에 대하여
앙곳따라니까야 ‘포살의
덕목의 경’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항목인
‘생명을 해치지 말라’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님은 목숨이
다하도록,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몽둥이를 놓아버리고,
칼을 놓아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애민히 여긴다. 나도 바로
오늘 낮 오늘 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몽둥이를 놓아버리고,
칼을 놓아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애민히 여기리라. 이러한
성품으로 나는 거룩한 님을
따르며, 포살을 지킬
것이다.” (A3.70)

불살생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곱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것을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과 관련된
것, 사실인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일곱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포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오늘날만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님, 즉
아라한이 목숨바쳐 지켜온
것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보름달은 포살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하루에 해당되는 신월일이
포살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름달과 신월일은 길일이라
하여 불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히 보름달 둥그런
달에 흥분하기 쉽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이날 모여서 계본을
외우고 여덟 가지 포살의
고리를 닦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를

보원사지에 둥근 달이
떴습니다. 너른 폐사지에
오층석탑만 하나 덩그렇게 서
있는 벌판에 사람들이
모여섰습니다.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자 석탑과 보름달이
일직선이 되도록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탑돌이
하기도 합니다. 폐사에서

맞이 하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초기경전에서
실려 있는 보름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아지따는 보았다.” (Stn.1016)

"보름달 밤에 떠오르는 달처럼
그대의 마음은 완전히
해탈되었으니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S11.17)

“그런 아는 사유가
원만함이 보름달과 같았다.
모든 번뇌 다했으니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없다.” (Vism.1.130)

“계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서
빛나듯이.” (Vism.1.159)

“구름없는 하늘에 둥근
보름달처럼,
황금색 돌 위에 놓인 보석처럼
청정하다.
그러므로 있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초대할만하다.”
(Vism.7.82)



낮에 본 보원사지는

밤에 본 보원사지는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보는 보원사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원사에서 경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로 인하여 일정을 취소 해야
했습니다. 한달 전에 답사차
방문했던 보원사지는 폐사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낮에 보는 폐사지와 밤에 보는
폐사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폐사지 주변에 민가도 없고
농사짓는 땅도 없이 황무지
벌판 위에 오층석탑만
딩그러니 솟아
있습니다. 보원사지는 폐사지
중에서 가장 장관입니다.

폐사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폐사지 석탑에 걸린 교교(皎皎)한 보름달

한때 3천명이 살았다는
보원사지라 합니다.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는데 밤을 지을 때 쌀뜨물이
하얗게 내려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3천명이라는
숫자는 모두 스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님을 포함하여 신도가
3천명이었다는 말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원사지에 서면 옛날의
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큰 가람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오가는
모습, 불공드리는 모습 등이
연상됩니다. 더구나 보름날 밤
오층석탑 주변에 모여 탑돌이
하며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원사지는
석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낮에 보원사지는 탁트인
벌판에 탑 하나만 우뚝 솟은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러나
보름날 밤에 보는 보원사지의
야경은 또 다른 장관입니다.
같은 보름달이라도 변형하는

사찰에서 보는 것과
폐사지에서 보는 것이 느낌이
다릅니다. 폐사지 석탑에 걸린
보름달은 한때 영화가
덧없음을 말해 주는 듯합니다.

“보름달 밤에 보원사지의
밤은 교교(皎皎)했습니다.
석탑 위에 달이 휘영청
걸렸습니다.

구름에 달 가뒹합니다.
구름사이에 둥근 달이
내비칩니다.
석탑만 남은 너른 절터에
달빛만 고요합니다.

달무리를 보았습니다.
무지개 같은 원이 달을
감쌀습니다.
사람들은 자정이 넘어도
달구경에 잠들지 않습니다.”

2018-08-30
진흙속의연꽃

67.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정평불 하계수련회
5-수행

“저건 아닐 것이다, 저건
틀린 것이다.” 김진태 선생이
한 말입니다. 선사들과 대화할
때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초기경전을 보니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었다고 합니다.

김진태 선생의 강연을 듣고

정평불 하계수련회 다섯 번째
이야기는 김진태 선생의
초기불교와 수행에 대한
것입니다. 수련회 두 번째 날
이른 아침 서산도량 선방에서
아침예불을 올린 후에 강연을
듣기 위하여 빙 둘러
앉았습니다.

김진태 선생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2007 년
도심포교당 에서 주최하는
특강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매달 한번씩 모두
열 차례 열렸습니다. 주로
수행관련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온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달변에 특유의
결쭉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었습니다.

부처님은 분별론자(Vibhajjavāda)

김진태 선생은 반야를
설명하면서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사들이
“분별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했습니다. 잘 분별해야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온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관찰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업장이 녹아지는데
이를 분별의 힘이라 했습니다.

선사들이 늘 하는 말이
“분별하지 말라” 입니다.
이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개념화
했을 때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분별하여
설하겠다. 그것을 잘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S12.2)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vibhajja’ 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분석 또는
해체의 뜻도 있습니다. 법은

분별하고 분석하고 해체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대념처경에서 백정의 비유로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하여 “이 몸속에는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있다.” (D2)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온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체 하여 관찰하면 법이 드러납니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공통적으로 무상, 고, 무아로 귀결됩니다. 어리석은 범부는 이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만 잘 관찰하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하는 망상이 사라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 청년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Vibhajjavādo kho ahamettha māṇava)” (M99)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분별론자(Vibhajjavāda)라 했습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김진태 선생의 강연은 약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체감 시간은 30 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이어서일 것입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 존자는 심오하고 승묘하고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고 미묘하여 오직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표현한다.” (A4.192)라 했는데, 미얀마에서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심소(心所)를 얻는 것이 수행입니다.”

김진태 선생에 따르면 수행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은 극기훈련도 아니고 괴롭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심소(心所)를 계발하라고 했습니다.

심소(cetasika)는 마음부수 또는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52 가지 심소가 있습니다. 오온에서 수온과 행온도 심소에 해당됩니다. 52 가지 심소중에서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saddha), 새김(sati), 부끄러움(hiri), 창피함(ottappa), 무탐(alobha), 무진(adosa), 몸의 경안(kāya-passaddhi), 마음의 경안(citta-passaddhi) 등 19 가지가 아름다운 심소입니다. 그래서 김진태선생은 “좋은 심소를 얻는 것이 수행입니다.” 라 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김진태 선생은 한시간 반동안 쉽없이 거침없이 말 했습니다. 모두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말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그런 말 중에서 ‘진정한 행복’ 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김진태 선생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일시적 행복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김진태 선생은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자기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 했습니다. 마음의 자재를 얻은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기가 마음에 두고자 하는 곳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김진태 선생에 따르면 부자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설령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 보았자 재산을 지키는 개(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려 하기 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의 자재를 얻었을 때, 마음을 통제하여 마음먹은 대로 했을 때 부자가 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재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칠성재(七聖財) 라 하여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일곱 번째로 지혜의 재물”(A7.6)라 합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김진태 선생은 용어에 대해서도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중생에 대하여 ‘사람들의 무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선생에 따르면 중생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에 있어서 하나 하나의 생이 수 없이 거듭된 것이 중생이라 합니다. 이런 해석은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엎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선생의 중생 개념에 대하여 숙고해 보았습니다. 중생이 범부들 또는 일반사람들이라 하여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오온으로서 중생의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윳따니까야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부속이 모여서 수레라는 명칭이 있듯이, 이와 같이 존재의 다발에 의해 못삶이란 거짓이름이 있다네.” (S5.10)

수행녀 바지라가 읊은 계송입니다. 악마 빠빠만이 “누가 이 못삶을

만들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답한 계송입니다. 여기서 못삶은 삿따(satta)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를 한역경전에서는 ‘중생(衆生)’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삿따의 의미는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living being’의 뜻입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과 전혀 다릅니다. 또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This term, just like attā, puggala, jiva” 라 했습니다. 삿따라는 말은 자아 또는 사람 또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삿따에 대하여 한자 ‘무리 중(衆)’자를 써서 중생(衆生)이라 번역한 것은 원어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채성박사는 못삶이라는 사용했는데 이 말 역시 ‘못’이라는 말이 ‘수효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못삶이라는 말이 자칫 ‘여러 사람들(衆生)’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빠알리어에서 삿따는 오온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송에 따르면 오온에 대하여 나, 사람, 중생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오온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가 있다면 개념화된 거짓 나로서 윤회하는 나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태 선생에 따르면 삿따의 의미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오온이 하나 하나 여러 생이 수없이 여러 생을 거듭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계송에서 삿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

하나의 살아 있는 존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못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윤회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 (S15.10)라고 했습니다. 번역에서 ‘못삶들’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말은 ‘sattānam’을 번역한 말입니다. 초불연에서는 ‘윤회하는 중생들’이라 하여 원문에 없는 ‘윤회하는’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빅쿠보디는 영역에서 ‘beings’라 하여

‘존재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삿알리어 삿따남은 사전에 따르면 ‘sattā + ānam’의 복합어입니다. 여기서 ‘ānam’은 복수여격입니다. 따라서 ‘sattānam’에 대하여 ‘못삶들’ ‘윤회하는 중생들’ ‘beings’라 하여 복수로 번역한 것입니다. 만일 한자어대로 무리 중자를 써서 ‘중생(衆生)들’이라 하면 이중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모순입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빅쿠보디의 존재들이라는 뜻의 ‘beings’가 타당해 보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인 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윤회합니다. 무명과 갈애 때문에 윤회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회는 오온을 자아로 여길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삿따라는 말은 일반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을 자아로 여기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삿따를 중생이라 번역했을 때 중생이라는 말은 오온을 자아로 여기는 자들이 여러 생을 거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에

덮인 못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S15.10)라 했을 겁니다.

발바닥을 수평으로 딛으라고

김진태 선생의 강연은 언제
들어도 유익합니다. 그냥 듣고
말 수 없어서 스마트폰
메모기능활용하여 키워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키워드만
보아도 기억을 되살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김진태 선생은
위빠사나 수행지도도 했습니다.
경행 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에 가면
법문과 좌선, 경행, 인터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법문과 경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행의 경우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땅에 내딛을 때
수평을 유지해서 딛으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발뒤꿈치가 먼저 닿는 식으로
했었는데 수평으로 딛으라고
했습니다.



경행은 좌선 못지 않은
수행입니다. 선종에서는
포행이라 하는데 시간도 짧고
몸을 푸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행은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좌선과 경행 시간을 동등하게
배정합니다. 경행이 수행인
것은 지혜가 계발되기
때문입니다. 경행을 하면
‘정신과 물질은 아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계발됩니다.

경행을 할 때는 오로지 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발이 나가고, 멈추려는
의도가 있어서 발이
멈추어집니다. 멈추어 설 때는
몸 전체를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스캔합니다. 이렇게 세 번

스캔한 뒤에 천천히 돌아
경행하라고 했습니다.

경행공덕 다섯 가지

경행하면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을 갈 때 산정을
쳐다보며 가면 피곤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경행
하듯이 왼발, 오른발에
집중하면 쉽게 정상에 이를
것입니다. 길거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왼발, 오른발 하며 옮기는
발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이는
것이라면 “보임, 보임”이라
하고, 들리는 것이라면 “들림,
들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하야의 경에서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Ud.6)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대상에
실체는 없고 단지 인식작용만
있음을 말합니다.

김진태 선생에 따르면 길을
걸어 가도 수행하며 걸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발
한발 마음을 집중하면
경행수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행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경행의 공덕이 있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긴 여행을
견디게 하고, 정근을 견디게
하고, 건강해지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경행이 목표로
하는 집중을 오래 유지시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경행의 공덕이
있다.” (A5.29)

경행을 하면 장거리 여행 갈
때 좋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자 한다면 마음만 급해서
지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발 한발에 마음을 집중하여
걸으면 금방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또 경행을 하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들은 것을 기억하고 사유해야

법을 들었다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한 것을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요청이 있어야만 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설한다면
길거리 전도사가 말 붙이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법문을 청할 때는 삼세번
청합니다. 앙굿따라니까야
‘뽀니야의 경(A8.82)’에
따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째, 찾아 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둘째, 가까이 앉지 않으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셋째, 질문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넷째,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여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훌륭한 강연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삶에 영향을 주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듣고 말
뿐입니다. 강연이 끝남과
동시에 반납한다는 말이
있듯이 깨끗이 잊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평불 하계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김진태 선생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경행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최대의 성과라 봅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매우
유익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2018-08-31
진흙속의연꽃

68. 회비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어느 모임이나 단체든지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기꺼이 낼
것입니다.

정평불에서는 최근
불음주계(不飲酒戒)를 선언
했습니다. 불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공식적
회식자리에서만큼은
불음주입니다.

또 정평불에서는
각자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내는
것을 생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값은 만원,
차(茶)값은 오천원 하는
식입니다. 남은 돈은 정평불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돈을 다 냈다면 되돌려
줍니다.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통장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정평법회에 나오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프린트하여 법회날 회람을
돌립니다.

통장에서 임원 차값이나
식사비가 지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폐청산
분담금이나 향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바라밀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큰 보시자 보다 월만원의
회원이 더 소중합니다. 만원
회원 108 명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70 여명입니다. 앞으로
30 여명 채우면 108 명 달성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18-09-03
진홍숙의원꽃

69. 개혁이 좌절 되었을 때

사회에 대한 분노가 내부로
향했을 때 희생자를 필요로
합니다.
개혁이 좌절되었을 때
내부에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동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거친구호가 비난의 화살이
됩니다.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자멸합니다.
우리 내부의 적폐를 봅니다.

분노에는 가혹성(加虐性)이
있어서
욕먹은 자를 욕하고, 맞은
자를 때립니다.
꼭지에 꿀, 뿌리에 독처럼
분노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분노는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분노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고객과 싸우면 주문이
끊어집니다.
망하고 싶거든 분노하면
됩니다.

“나는 살아 있는 한 화내지
않으며
만약 나에게 화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제거하리라.”
(S11.11)

제석천 일곱 가지 서원중의
하나입니다.
천수경에
‘진애중죄금일참회’와
같습니다.
분노는 불선법으로 불선과보를
받습니다.
분노했거든 참회해야 합니다.

여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에 항거하는
자입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침묵한다면

그들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하는 이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르침 안에서 여법(如法)하게
사는 것이 고귀한 분노입니다.

여법하게 사는 자가
정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정의롭게 살면 평화가
따릅니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자입니다.

2018-09-12
진흙속의연꽃

70. 한국불교가 죽어야 한국불교가 살아난다, 9월 정평법회

“그 스님은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의 9월
정평법회에서 박종린 선생이
한 말입니다. 박종린 선생에
따르면, 휴암스님은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철스님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휴암스님의
비판에 단 한사람도 살아 남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9 월법회는
휴암스님의 장군죽비를 주제로
동국대 불교대학 박경준
교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정평법회는 ‘우리함께빌당’
6 층에 있는 ‘우리는 선우’
법당입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열립니다.



9 월정평법회에서 휴암스님의
개혁사상에 관해 법문한 것은
요즘 한국불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년전에도,
십년전에도, 이십년 전에도,
아니 더 오래 전에도 늘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한국불교가 문제 있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휴암스님이
활약하던 80 년대와 90 년대의
문제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한 휴암스님은 어떤 것을
주장했을까?

민중불교마저 비판한 휴암스님

휴암스님의 불교개혁론에
따르면 불교의 근본및
정체성회복, 숙명론적
인과사상의 혁파,
호국불교비판, 민중불교비판,
불교교육발전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스님 답게
호국불교를 비판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80 년대
새롭게 탄생한 민중불교를
비판한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휴암스님은 왜 민중불교마저
비판의 대상으로 보았을까?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불교의 내적동기와 원칙에
근거한 사회참여 운동이
아니다.” 라 하여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80 년대
사회적 분위기와 시류에

편승된 불교운동으로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휴암스님은 1967년에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파로호에서 입적했습니다. 휴암스님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출가한 이후 청담스님, 성철스님, 전강스님 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선방에서는 무(無)자화두를 들었다고 합니다.

휴암스님이 한국불교를 전면 부정하고 심지어 성철스님 등 기라성 같은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휴암스님은 오로지 산중에서만 사는 은둔불교,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불교, 권력의 하수인이 된 호국불교, 문중에 따른 파벌주의, 그리고 새롭게 대두된 민중불교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무차별적 비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활화산 같은 뜨거운 열기로”

9월 정평법회에 처음 참석한 박종린 법사는 눈부처바라보기 시간에 휴암스님을 회상했습니다. 박종린 선생이 정평법회에 참석한 것은

휴암스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정평법회를 알리기 위해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이곳저곳에 올렸습니다. 그 중의 한곳이 재가결사 카톡방입니다. 박종린 선생은 재가결사 카톡방에 휴암스님과 개인적 인연을 다음과 같이 써 놓았습니다.

“70년대 중후반 구도회 청년대학생부 활동 시절에 큰 감명을 주신 분이 휴암스님입니다. 활화산 같은 뜨거운 열기로 저희 청년 여래들을 몰아치던 그 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눈에 선합니다. 저를 개혁성향의 불자가 되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암스님의 비판정신이 한국불교 현실에 온전히 적용될 때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휴암스님의 각령이 이 땅에 원력 보살로 나투시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아미타불 _(())_”

박종린 선생은 최근
 삭발했습니다. 불력회
 법사이기도 한 선생은 8 월
 21 일 전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검찰의
 공개수사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에
 국민혈세 2 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를 알고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차원에서 삭발한 것입니다.

박종린 선생에 따르면 70 년대
 중후반 휴암스님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스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상합니다. 가까이 오면 모두
 타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름 있는 스님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사해탈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휴암스님이 한국의 불교현실을
 전면 비판한 것은 한국불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경준
 교수는 불교평론에 발표된
 ‘[휴암 (休庵)]불교의 세속화,
 기복화를 막아라’ (2012-02-
 10)라는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여 휴암스님의
 불교개혁사상을 설명했습니다.

휴암스님이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가까이 오면 데일
 정도로 정열을 가졌던 것은
 깨달음을 위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사해탈’ 입니다.

생사해탈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불교는 문제투성이
 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복불교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1985 년에
 출범한 민중불교마저 생사해탈
 측면에서 본다면 시류에
 편승된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중불교마저 비판한 것은
 박종린 선생의 말대로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부정했고, 한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혁명적 선언

휴암스님은 가까이 오면 데일
 것 같은 사람이었고, 훨훨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생사해탈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불교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에 대하여 전면

비판했고, 이것이 전면 부정으로 까지 비추어졌는데, 이는 다름 아닌 ‘자기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은 자신에 대한 전면 긍정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부처님 가르침에서도 확인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M22)

여기서 ‘나의 것’은 같애이고, ‘나’는 자만이고, ‘나의 자아’는 유신견(有身見)을 말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누구나 견고한 자아를 바탕으로 두고 사는데 부처님은 자아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혁명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정신-물질의 과정에 지나지 않은

부처님은 오온에 대하여 부정했습니다. 오온에 집착한 것에 대하여 유신견이라 했습니다. 몸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물질을 자아로 여기거나, 물질들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S22.99)라 했습니다. 느낌도, 지각도, 형성도,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은 내것이 아니라 조건발생하고 조건소멸하는 정신-물질적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전면 부정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라 믿고 있었던 오온이 사실은 연기적으로 생멸하는 정신-물질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M22)라고 했습니다. 유아를 버리고 무아의 삶을 살았을 때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이라 합니다.

고귀한 삶으로 거듭 내려거든

앙굴리말라는
연쇄살인자였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앙굴리말라의 경에서는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86)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이라는
말은 이전의 자신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말합니다. 유아에서 무아로
거듭 태어남입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려면
유신견을 타파 해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온을
전면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여, 이 세상에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은 고귀한
님을 보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을 알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의식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의식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의식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의식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아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아
속박되지 않지만, 그 의식은
변화하고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장자여, 이렇게
하면 몸은 괴로워하여도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S22.1)

오온 중에서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의식이 나의 것이
아님에 대하여 “의식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라
했습니다. 몸도, 느낌도,
지각도, 형성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한국불교가 환골탈태하려면

휴암스님은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한국불교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생사해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면 부정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전면
부정했을 때 전면 긍정으로
전환 될 것입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자신의 것이라
여겼는데 이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M22)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전면 부정했을 때
자아라는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자아를 부수었을 때
무아(無我)가 되어 대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가 환골탈태하려면
기복불교, 미신불교 등 지금
여기에서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또한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암스님은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당대의 고승
성철스님마저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
부처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되돌아 갔을
때 한국불교는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한국불교가
죽어야 한국불교가 살아납니다.
연쇄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 거듭 태어난
것처럼.

2018-09-16
진흙속의연꽃

71. 그들만의 리그에 맞서

당동별이(黨同伐異)라 합니다.
같은 편이면 함께하고
다른 편이면 처nem을 말합니다.
조계종 권승들을 지칭하는 말
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 합니다.
이권으로 뚫뚫 뭉친 삼백명
가량의 권승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재가불자들이
끼여들 여지는 없습니다.

이익집단에서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을 침범하면 전쟁이
납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밥에 그나물이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수장을
뽑습니다.
그승려가 그승려 입니다.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불교입니다.

새로운 재가불교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맞서는
재가불교 리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체의 고유성은 성장-발전
시키고
제단체는 연대해야 합니다.

출가이유가 불분명한 스님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생계형과 도피형 스님은 더
이상
이시대의 사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가의 인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1% 만
활용해도
한국불교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21세기 불교는 재가불교
시대입니다.

재가불자는 참여해야 합니다.
제단체의 법회나 강연에
참여하여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맞서는
강력한
재가불교리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09-19
진흙속의연꽃

72. 아젠다를 설정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야, 10월 정평법회

10월 정평법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입니다.
9월 이전에는
불광산사법당에서 열렸습니다.
법당이라는 것이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공유하면 여러 모로
좋을 것입니다. 법당이 없어서
법회를 못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10월 법회에 28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참고로 사무총장 말은 이래
4월부터 통계를 내보니
4월법회 29명, 5월법회 24명,

6 월법회 30 명, 7 월법회 32 명,
8 월법회 26 명,
9 월법회 19 명이었습니다.
6 개월간 통계를 내보니
월평균 26 명입니다.

여법한 재가불교가 출현하면

정평법회는 2017 년 11 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계종
적폐청산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다시
권승들의 기득권 유지가
계속됨에 따라 재가운동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집단에겐
언제나 매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재가의 역량을
키워야 했습니다.

승가에 필적하는 여법한
재가불교가 출현하면 승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중의 하나가
재가불교단체의 법회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가
정평창립법회를 전하는
교계신문에서는 ‘승려타락
보다 못해
시민법회창립’ 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평법회는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작년 11 월 법회 때 처음으로
법회가 열린 이래 이번 10 월
법회까지 내리 11 번 법회가
빠짐 없이 열렸습니다. 이런
일은 재가불교단체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대부분 재가단체들이 여법한
법회를 여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작년 11 월 처음 법회가 열린
이래 개근했습니다. 법회가
 끝나면 후기를 남겨서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 합니다.
한번 행사는 것으로 그치거나
한번 듣고 마는 것으로
그친다면 시간낭비, 돈낭비,
정력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득이 있을 때 참여
할 것입니다. 이득이 없다면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하여
무언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 법회는 성공이라
봅니다. 후기를 남겨서
공유하는 것도 이런 사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백명이 모이면 큰일 낸다

이번 10월 정평법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108명의 회비납부하는 회원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현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117명입니다. 처음 108명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 11월 창립법회 때입니다. 박경준 선생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뜻을 함께 하는 백명이 모이면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가불교단체에서 조계종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지만 그다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 봄의 경우 삼사십명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백명은 되어야 목소리가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평불에서는 작년 11월 처음으로 108명 회원확보를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11개월만인 2018년 10월 현재 108명을 넘어 117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상보다 목표가 한달 앞서 달성된 것입니다.



아젠다를 설정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야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목표달성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평불에서 108명을 달성했다하여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회원배가운동입니다. 108명이 216명이 되기 위한 목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팽창도 좋지만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평불에게 요청된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평불은 불교지식인들과 현장활동가, 그리고 의식 있는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모인 재가불교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득권 집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을 불온시하고 싫어합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계종 권승집단들은 이익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여 ‘지금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지만, 대부분 불교인들은 조계종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지면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 재작년 광화문촛불처럼 결국 언젠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한국불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걸쳐서 조계종 적폐청산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응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날 요인이 됩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 힘이 응축되는데 응축된 힘은 언젠가 큰 지진이 됩니다.

화산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산활동이 잦아 보면 응축된 힘이 작용하여 언젠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불교적폐청산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정평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메꾸어 주는 역할입니다. 조계종 권승집단이 적폐의 온상이라면 이를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불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를 메꾸어 주는 역할입니다.

모임은 모여야 모임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월 법회를 갖는다는 것은 재가불교단체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권승들 집단을 각성케 할 것입니다. 더구나 회비 내는 회원이 108명 확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정평불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평포럼 같은 일입니다.

정평불에서는 사회각층의
프로페셔널이 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발생되는 이슈에 대하여
포럼을 열어 아젠다를
설정한다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정평불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평불 7년 성과를 보면

정평불에서는 정평포럼 뿐만
아니라 ‘눈부처학교’라 하여
매년 한 두 차례 단기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강사를
초청하여 매주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정평불 창립 이래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처학교 역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시류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정평불 7년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평불창립

2011년 10월 29일: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법에 따라 불교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기로
하여, 최연, 이희선, 이지범
등 민중불교운동 주도자,

박경준, 김광수, 이도흙,
박병기, 유승무, 조준호,
서재영 등 진보적 교수불자,
최경애, 최은영, 류정길 등
재가불교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17인의 발기인으로
창립했습니다.

2) 종단개혁운동 참여

2012년 5월 24일: 재가연대,
민불동지모임 등과 함께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4부대중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2013년 10월 10일
경까지 종단 개혁 및 자승
연임 반대운동했습니다.

3) 눈부처학교 개설

2014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 “우리의 불교, 우리가
만들자!”라는 취지로
천태차문화대학 강의실에서
눈부처 학교 1기 개강, 이후
6기까지 개최했습니다.

4) 광화문촛불 참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박근혜 퇴진운동 시 19개
단체가 참여한 ‘박근혜 퇴진
불교행동’ (공동대표: 법일,
이도흙), 34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 및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공동대표:

법일, 일문, 해웅 스님,
이도흠, 전준호)에
참여하였으며 이도흠이
불교계를 대표하여 퇴진행동에
들어가서 운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5) 조계종적폐청산운동 참여

2017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운동: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
운동에서 연석회의와 시민연대,
불교개혁행동에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 개혁운동을
수행했습니다.

6) 사회현안 참여

2011 년 이후 현재: 4 대강
사업 반대, 희망버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투쟁,
세월호 참사, 사드반대 투쟁,
평화동일운동에 이도흠이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였고, 회원들이
추모법회, 희망뚜벅이,
삼보일배, 오체투지 투쟁
등으로 연대했습니다.

7) 정평법회 실시

2017 년 11 월 18 일:
불광산사에서 박경준 법사를
모시고 첫 법회를 했습니다.

이후 매달 셋째 토요일에
정평법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 종교개혁선언 동참

2017 년 12 월 28 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개혁선언에 참여했습니다.

9) 108 회원 운동

2018 년 1 월: 박경준 고문이
2018 년 안에 108 명 진성회원
확보 운동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집행부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2018 년 10 월
4 일: 108 명 목표 달성하고,
10 월 18 일 현재 117 명입니다.

10) 워크숍 개최

2018 년 4 월과 8 월: 4 월
21 일과 22 일에 월정사에서
총계 1 박 2 일 워크숍 및
사찰순례를 실시했습니다.
8 월 25 일과 26 일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에서 하계
워크숍 및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11) 정평포럼 개최

2018 년 8 월 13 일:
서울시민청 워크숍홀에서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방향을 탐색하다.' 라는

주제로 제 3 회 정평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정평불에서 2011 년 창립 이래 7 년 동안 한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고 또한 연대하여 시대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폭력에 맞서 부처님에 가르침에 따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평화연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식순에 오계(五戒)를 추가했는데

10 월 정평법회는 특별하게 열렸습니다. 1 부와 2 부로 나누어 열렸습니다. 1 부는 법회가 열렸고, 2 부는 108 회원 달성 축하이벤트가 열렸습니다.

1 부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식순에 ‘오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불교 법회의식에서 오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 법회의식에서는 오계는 필수입니다. 삼귀의에 이어서 오계를 받드시 받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오계가 ‘학습계율(sikkhāpada: 學戒)’이기 때문입니다. 불살생계에 대하여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킴으로써.”라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오계를 지킬 만한 형편이 되지 않지만 법회에 참여할 때마다 받아 지니다 보면 언젠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습관 들이는 것처럼, 오계를 지키는 것은 습관 들여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또는 학습으로 완성되는 계율이라 하여 학습계율(steps of training)이라 합니다.

108 회원 달성 축하공연

2 부 행사에서는 조현덕 선생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평불에는 재능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노광희 선생, 박금재 선생, 조현덕

선생이 108 명 회원달성
축하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노광희 선생은 ‘살풀이’ 춤을
추었습니다. 곱게 한복을
입고 말 없이 춤사위 하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입니다.
장평법회에 빠짐 없이 참여해
주시고 조계종 개혁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신 선생의 또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금재 선생은 국악 중에 ‘사
철가’를 불렀습니다. 현재 중
학교 교장이기도 한 선생은 국
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날
바쁜 와중에도 특별히 참석하
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조현덕 선생
은 만능 재주꾼 같습니다. 그
리고 여장부 같습니다. 사회도
잘 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
기도 잘 다루어서 만능 엔터테
이너 같기도 합니다. 원래 음
악이 전공인 선생은 이날 ‘협
한 세상 다리가 되어’ 등 팝
송을 원어로 열창 했습니다.

최원녕 선생의 축시

최근 등단한 최원녕 선생은
축시를 낭송했습니다. 자필로
된 시를 낭송했는데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는게 아픔이 되고
불신의 벽이 담을 쌓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힘써 얘기하자.

저마다 다른 색깔
저마다 다른 향내로 모인 우리
나와 다름이 한울림이 되고
나와 다름이 맑은 햇살로
비치면
극락이 따로 없으리니
무소부재의 불성만이 피안의
세계임을 노래하자.

혼돈과 공허가 난무하는
시대에
불멸을 논하기 보다
하찮은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도
거기 그렇게 있어야 함을
불꽃으로 피워내자.”

최원녕 선생은 최근 시인으로
등단 했습니다. 정평법회
108 회원 달성을 기념하여
멋진 시를 즉석에서 지은
것입니다. 시를 보면 마치
온갖 잡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배움의 장, 교류의 장,
자자(自恣)의 장

정평법회 특징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법회가 ‘배움의 장’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류의 장’ 이고 또한 ‘포살의 장’ 이기도 합니다. 법회가 법문위주라면 다소 경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애써 찾아 준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법회는 ‘교류의 장’ 입니다.

교류의 장으로 ‘눈부처 바라보기’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동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서로가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출 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라는 연기송 구절처럼 서로 의지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법회는 ‘자자(自恣)의 장’ 이기도 합니다. 정평법회에서 삼귀의에 이어 오계를 식순에 넣은 것은 참회와 자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포살일이라 하여 불자들은 보름마다 사원에 가서 수행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교회에 가서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의 법회는 단순하게 법문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실천

재가불교단체의 성패는 법회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모여야 일이 됩니다. 모임이 없는 모임, 모임이 있어도 계를 지키지 않는 등 여법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재가단체가 법회를 열어 모였을 때 기득권 집단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백명 가량 모인다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백명이 천명이 되고, 천명이 만명이 된다면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단체마다 여법한 법회가 열려야 합니다.

정평불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내리 11 개월동안 빠짐 없이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법회는 단순하게 법문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교류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고 동시에 자자의 장이기도 합니다.

법회는 반드시 법당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곳곳이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곳, 시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곳이라면
법당아닌 곳이 없습니다.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실천입니다.

2018-10-22
진홍숙의연꽃

73.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정평법회 1주년

11월 정평법회가 17일
우리는함께빌딩 6층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정평법회
창립 1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신행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라는 캐치프레이지로
작년 11월 창립법회가 열린
이래 한번도 빠짐 없이 매달
개최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가단체에서 법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일은 드문
현상이라 봅니다.

정평법회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열한 번의 법회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늘 여법하게
열렸습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사계절이 지남에
따라 다시 1년 전 그 계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주년을 맞이한
정평법회에서는 처음 발원대로
108 명의 회비회원이
초과달성되었고 재정자립도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회적 실천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11월 정평법회에서는 총회도
결들었습니다. 정평법회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법문’과
‘눈부처바라보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참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법회가 단순히 법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한
이들에게 교류의 장과 소통의
장, 그리고 자자의 장을
마련키 위해서입니다.

이번 11월 법회에서는
눈부처바라보기 대신에

특별하게 총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칙개정과
임원선출 등을 하기위함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하나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22 명이 귀한 시간
내주었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정평법회 전반부는 박경준
선생의 법문시간입니다.
이번달부터는 준비된 교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입보리행론’입니다.
다람살라에 있는 청정스님이
지은 것입니다.
법당비치용으로 법회때만
배포됩니다.

법문은 입보리행론을 함께
독송하고 설명해 가는
형식입니다. 박경준 선생에
따르면 입보리행론은 보살행을
실천하기에 좋은 책이라
했습니다. 특히 대승에서
말하는 바라밀행을 실천하기
위한 주옥 같은 계송이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실천을 행하는 정평불의
이념과 맞아서 교재로 채택
했다고 합니다.

입보리행론 제 2 품을
독송했습니다. 첫번째 계송을
보면 “보배로운 이 마음을
간직하고자 모든 여래와

정법과 티 없는 삼보와
불보살의 공덕의 바다에
지성으로 공양올립니다.” 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으로
시작되는데 아홉번째 계송을
보면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
되어 있어서, 제 2 품을
죄업참회품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준선생에 따르면
티벳사람들은 입보리행론을
하루 세 송만 외웠다고 합니다.
음미하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보리행론에 대하여
박경준선생은 저자 산티
데바의 ‘신앙고백론’ 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송을 보면
“받아 주소서.” 라든가
“원하옵니다.” 등의 표현이
말해 줍니다.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해야

입보리행론은 총 10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후반부에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등이 있어서
대승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에
대한 계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보리심 일으키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리심에 대하여
박경준 선생은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은
입보리행론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방법이라 합니다.
초기경전에서도 강조된
것이기도 합니다. 율장대품
‘꼬삼비의 다발’ 에 따르면
아누룻다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이러한 저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에 따라 살면
어떨까?’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Vin.I.351)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남을 바꾸기 위한 수행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나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에
따라 살면 어떨까?”
(Vin.I.351)라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되었을 때 몸은 서로 다르지만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정평법회에서 행하고 있는
눈부처바라보기도 이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으로

정평법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그러나 위아래로
30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법문이 있고
후반부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이날 11월 정평법회에서는
후반부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회칙개정과
임원선출입니다.



총회에 앞서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눈부처바라보기할
때도 이와 같은 자리를
갖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를
참석자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로 개정될 회칙과 내년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내년에 해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정평불교포럼, 보리행법회(정평법회), 자비행법회(실천행), 눈부처학교, 정원스님추모, 문수스님추모, 기자회견 및 집회물품, 사찰순례, 수련회 등입니다. 이 중에서 정평불을 정평불답게 만드는 것이 정평불교포럼일 것입니다. 모두 3회 개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칙개정입니다. 상임대표가 읽어 나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 반영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보다는 중지를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집단지성이라 할 것입니다.

정평불의 정체성은?

회칙개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문구 하나 하나 세밀히 심사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둥그렇게 앉아 소통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칙에서 말하는 정평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회칙에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우주 삼라만상이 연하여 생기고 연하여 없어지니, 모든 것이 공하고 나라는 것조차 없다. 우주 삼라만상에서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속에서 오직 차이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이를 깨우치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탐욕, 자기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연을 착취하고 타인을 해치는 바람에 생명체의 절반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생명들은 우리와 한 몸이자 우리의 의지처이며, 중생이 아프면 보살 또한 아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올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고통 속의 생명들에 대한 자비심을 수 수레바퀴로 삼아 팔정도를 닦아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안으로 수행을 통하여 모든 편견과 망상, 탐욕을 없애고 무분별지를 얻고, 밖으로 모든 갈등과 폭력, 이를 떠받치는 구조를 없애는 실천행을 한다.

지혜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 말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으니, 돈과 권력과 명예와 환락은 모두 무상하고 온 세계가 모두 고통임을 깨달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리고 열반에 이르며, 내가 비록 열반에 이르러 부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가볍게 여기어 부처됨을 미루고 내려와 고통을 주는 모든 것에 정법의 칼로 맞서며 그들을 구제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혜를 닦는 데 한 시도 게을리지 하지 않는 동시에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섬기는 자비행을 행한다.” (전문, 정평불회칙)

편의상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정평불회칙 골자는 실천행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살행입니다. 개인적 수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를 사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지혜행과 자비행입니다. 정평불에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법회를 하는 것은 지혜행에 해당되고, 정평불에서 매달 첫째 일요일

오전에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은 자비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혜와 자비를 추구하는 정평불의 삶의 방식이 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평불의 정체성이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평불은 비영리단체입니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평불은 모두 평등합니다. 나이, 지위, 성을 떠나 모두 친구입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평불에서는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울장대품에 따르면 “저희들 가운데 마을에서 탁발하여 돌아오는 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음료수와 세정수를 마련하고 남은 음식을 넣을 통을 마련합니다.” (Vin.I.352)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평불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는 자신이 주도가 되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있을 때 이를 남에게 맡기기 보다는 자신이 추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목표로

11 월 법회가 여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달 한번
열리는 법회이지만 귀중한
시간 내시어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법회
중간에 실천행이 있습니다.
매달 첫번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도량청소입니다. 이번
실천행 장소는 관악산 관음사
등산로입니다. 12 월 2 일(일)
오전 10 시에 지하철 2 호선과
4 호선의 사당역 5 번 출구에서
모입니다. 사당역에서
관음사까지 약 1.4 키로
구간에 대하여 휴지 등
오염물질 등을 수거하는
실천행을 합니다.

법회가 끝나고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평불에서는
공식적 회식모임에서는
‘불음주제’를 선언 했으므로
식사만 했습니다. 식대는
기도비에서 각출 되었습니다.
법회 끝나고 눈부처바라보기
하기 전에 석가모니정근이
있는데 각자 능력껏 보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남은 금액은
정평통장에 입금하고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보시합니다.

한국불교에서 새로운 신행의
지평을 여는 정평법회입니다.
일년을 여법하게 보낸 것처럼
다음 일년 또한 여법하게 보낼
것입니다. 정평법회칙에 써
있듯이 “부처님 말씀에 따른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2018-11-19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
이병욱

74. 한태식총장의 연임반대와 직선제 지지, 정평불성명서

도덕적 책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더 고상하게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본래
프랑스어로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리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의 오블리제가
함해진 말입니다. 요즘과 같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널리 회자 되는 말입니다.

한젊은이가 조명탑 위에 올라
갔습니다. 동국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입니다. 11 월 26 일자로
고공농성 14 일째 입니다.
동국대 한태식총장 연임반대
농성입니다. 아직까지 연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기득권을 가진 권승들의
입장에서 연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10 미터 이상 되어
보이는 조명탑에 올라 간 것은
스스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고
제작년 광화문촛불에서는
사회도 보았었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 밖에
없다’ 라고 판단 했을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날씨가
추워집니다. 겨울이 가까이
와서일까 아침 날씨는 거의
영하에 가깝습니다. 고공에서
날씨는 더 추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한 없는 농성을
하는 것은 스님총장의 연임을
강력히 저지 해 보겠다는
염원일 것입니다. 논문표절 등
온갖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스님총장이 동국대에 있는 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고공농성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대를 리드하는
재가불교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비록 함께
농성하지는 못하지만
연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8 년 11 월 26 일
오후 5 시에 만해광장앞
조명탑에 모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우선 고공농성자를
격려 했습니다. 조명탑 위를
쳐다보면서 건강상태등을
물었습니다. 농성자는 건강에
이상 없고 잘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사람은 이도흙상
임대표를 비롯하여, 최연, 이
희선, 이병욱, 유병화, 조현덕
선생으로 모두 6명입니다. 농
성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컵
라면 한박스과 빵을 준비 했습
니다. 그리고 ‘한태식 총장
연임반대! 총장직선제 지지!’
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도 준비
했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고공농성사태를 맞이하여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성명서는 박병기선생이 작성한

것입니다.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연대성명서(2018.11.26.)
한태식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총장 직선제를 지지한다.

밤이면 영하의 추위를
견디기도 해야 하는
초겨울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두툼한 외투를 챙기며 나서는
아침에 우리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동국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14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요구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미
처음 임용될 때부터
조계종단의 대학운영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스스로도 표절 의혹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한태식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이제는
학생들의 참여도 보장하는
직선제로 총장을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의 총장은 그 대학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태식총장은 논문표절시비에
휘말림으로써 그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했음에도
억지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더 나아가
재임을 노린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와 동국대는 물론
조계종단까지 흥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한태식총장 스스로
명확히 그럴 의도가 없음을
밝혀야 하고, 조계종단 또한
더 이상 개입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총장직선제는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유린된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 이미 되살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들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이런 대세를 외면하지 말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직선제를 이번 선거부터
즉각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의 기치를
높게 들었던 만해와 용성,
석전 등의 정신이 지탱해내고

있는 대학이자, 불교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한태식총장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동국대는 이런
기대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단 적폐의 핵심
영역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등
질곡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태식총장은 부디
승려총장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계율정신을 되새겨
동국대 학생들의 안타까운
호소에 귀기울여주시를
바랍니다.

우리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국대 학생들이
고공농성을 건디며 내놓은
외침에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성장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불교계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동국대와 한태식총장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정평불
구성원들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 동참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정의평화불교연대



이상 성명서 내용입니다. 매번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
습니다. 한태식총장과 관련된
고공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5년 5월에도 만해광장 조명
탑에서 고공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장훈군이 고공농
성 했었습니다. 이슈는 한태식
총장의 논문표절에 대한 것입
니다. 그때 고공농성장의 구호
를 보면 ‘표절총장 반대 보광
스님 사퇴’ ‘총장선거 재실
시! 종단개입거부!’ 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란의 주역
은 한태식총장입니다. 그리고
종단 권승들의 개입에 대한 것
입니다.

보광스님은 총장이 되지 말았
어야 했습니다. 논문표절 등
술한 문제를 안고 있는 스님이
총장이 되었을 때 조명탑농성
이 벌어졌고 또 한학생의 목숨
을 건 단식투쟁으로 이어졌습
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총장연임을 하려 한다면 정의로운 불교인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태식총장은 더 이상 욕심부려서는 안됩니다.

2018-11-27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 이병욱

75. 왜 자비실천행을 하는가? 관음사길 등산로청소를 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구도자의 삶의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단계적으로 성취되듯이,
깨달음 역시 단계적입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위하여 이번 생에 발판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는
자비행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첫 번째주 일요일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산로와 도량청소,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유인물
배포에 대한 것입니다.

자비행을 하면 도량을
청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는 1석 3조의
효고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관악산 관음사까지의 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득과 즐거움이 없으면

2018 년 12 월 2 일 오전
10 시에 지하철 2 호선과
4 호선이 교차하는 5 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0 시 이전에 도착해 보니 5 번
출구에는 등산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아 만남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카톡방과 밴드, 카페 등에 수
차례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모인 사람은 모두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복우,
조현덕, 유병화, 이병욱
이렇게 네 명입니다. 지난달
첫 번째 자비실천 했을 때에는
14 명 모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2 월 들어 날씨도

영하 가까이 떨어져 추워진
이유도 있고, 일요일이라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승기신에서도 이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을 읽었을 때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물며
일요일 오전 귀중한 시간을
내서 등산로와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즐거움이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노부부가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요즘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시대에 등산로와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는 결코 즐거운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득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본 노부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매일 학의천을 따라 일터에
갑니다. 지난 여름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데 노부부가
학의천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계를
들고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주어 비닐봉지에 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노부부는 누가 시켜서 쓰레기
줍기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해 뜰 때 쓰레기 줍는 모습이
세상을 깨끗이 하는 거룩한
성자처럼 보였습니다. 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5 번 출구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음을 확인
했습니다. 네 명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관음사까지는 1.6 키로 가량
걸립니다. 긴 주먹가를 지나면
하천이 하나 나오는데
이곳부터 등산로이자 사찰로

가는 길입니다. 준비한 집게와
비닐봉지를 받아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주택가에는 온통
쓰레기 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가를
청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쳤습니다.

이전에는 앞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아래를 보니
보이는것입니다. 마치 현미경
들이 대듯이 들여다 보니
쓰레기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담배꽂초가
많습니다. 휴지조각과
비닐봉지 등 갖가지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커다란 쓰레기도 있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는 패트병, 먹다 남은
음식물 등 갖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집게로
들어 올려야 역겨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너른 플라스틱
널판지도 보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누군가 치워 주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 갈 것이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여름날 일시적으로 수백미리의
폭우가 쏟아지면 대부분의
쓰레기는 깨끗이 쓸려
나갑니다. 폭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천으로, 강으로, 대양으로
흘러간 쓰레기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커다란 물고기
배에서 패트병 등 다량의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차선은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쓰레기 주우면서 생각 드는 것
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버리는 사람만 있고 치우
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쓰레기로 가득할 것
입니다. 그래서일까 이복우선
생은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라 했습니

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청소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하찮은 직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청소부가 돈을 받고 청소할 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숭고한 일이 됩니다. 길거리 청소하는 것이 단지 생계때문이라 한다면 노동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됩니다.



왜 자비행이라 하는가?

쓰레기를 줍다 보니 관음사에 이르렀습니다. 관음사 소각장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했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 하는 것에 대하여 유병화선생은 자비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행’이라 할 것입니다.

자비행은 실천행의 범주에 속합니다. 실천행은 다름 아닌 ‘바라밀행’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 하여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여섯 가지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에 자비를 뜻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에는 자비를 뜻하는 말, 즉 자애와 연민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에서는 ‘자애바라밀(mettā-pāramī)’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비행이라는 말은 대승의 육바라밀보다는 초기불교의 십바라밀행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자애바라밀(mettā-pāramī)을 보면

- 십바라밀은 (1)
보시바라밀(dāna-pāramī) (2)
계행바라밀(sīla-pāramī) (3)
출리바라밀(nekkhamma-pāramī) (4)
지혜바라밀(paññā-pāramī) (5)
정진바라밀(viriya-pāramī) (6)
인내바라밀(khanti-pāramī)

(7) 진실바라밀(sacca-pāramī)
(8) 결정바라밀(adhiṭṭhāna-
pāramī) 9) 자애바라밀(mettā-
pāramī) (10)

평정바라밀(upekkhā-pāramī)을
말합니다. 십바라밀에서
자애바라밀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애바라밀(mettā-pāramī)
예를 들어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과 같은 외적인 대상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초월의 길의
자애이고, 그들의 손이나 발
등과 같은 신체기관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월적 초월의 길의 자애이고,
그들의 생명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이
승의적 초월의 길의
자애이다.(Jat. I. 73,
Vism. 318-325)

십바라밀(timsapāramī)은
부처님의 전생담인 자따까와
청정도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 가지가
아니라 30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반적
초월의 길(dasapāramī),
우월적 초월의

길(dasaupapāramī), 승의적
초월의
길(dasaparamatthapāramī)
이렇게 세 가지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애바라밀의 경우 일반적
초월의 길에 대하여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과 같은 외적인
대상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 이라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월적 초월의 길에 대해서는
‘손이나 발 등과 같은
신체기관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 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승의적 초월의 길에
대해서는 ‘생명의 파괴가
도래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떠나지 않는
것’ 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량심을 확장하면 십바라밀이 된다

십바라밀행을 보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바치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각오로
바라밀행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살로

삶을 살 때 4 아승지 10 만겁을
이렇게 바라밀행을 해
왔습니다.

바라밀행은 자비가 없으면
행하기 어렵습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사무량심을
달성하면 열 가지 초월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사무량심과
십바라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청정을 최상으로
삼는 등의 그것들의 위력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이것들이
모두 보시 등의 일체의 선한
원리들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1) 못삶들의
이익을 바라고, 2) 못삶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3)
이미 얻은 수승한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4) 일체의
못삶에 편견이 없고 평등하게
마음을 일으키는 위대한
못삶은 ‘이 사람에게는
주어야 하고 저 사람에게는
주지말아야 한다.’ 라는
구별을 하지 않고 일체의
못삶에게 행복의 원인인 (1)
보시를 실천한다.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2) 지계를 실천한다.
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 출가를 실천한다. 못삶들의
이익과 불익에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4) 지혜를 닦는다.

못삶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5)정진에
매진한다. 최상의 정진으로
옹맹을 얻었지만, 못삶들의
여러 다양한 허물에 대하여
(6)인욕한다. ‘그대들을 위해
이것을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7)서원을 하면
여기는 일이 없다.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는 (8)결정을 한다. 그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9)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 (10)
평정을 통해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초월의
길을 완성하여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여섯
가지 고유한 앞과 열여덟 가지
깨달은 님의 원리로 분류되는
일체의 선한 원리들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킨다.” (Vism.9.124)

자애, 연민, 기뻐함,
평정이라는 사무량심을
확장하면 십바라밀이 됩니다.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는
사무량심을 십바라밀과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테리가타 주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담마빨라가 주석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체의 못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일체의 못삶의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 보시를
행한다.

(2)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행을
지킨다.

(3) 계행을 통한 초월을
이해하기 위해 여움을 닦는다.

(4) 못삶에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지혜를 닦는다.

(5) 못삶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정진을 닦는다.

(6) 영웅이 되고 최상의 힘을
얻고 보살이 되기 위해 못삶의
잘못에 대한 인내를 연마한다.

(7) 보시나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면, 진실 때문에 그것을
깎 수 없다.

(8) 또한 흔들림 없는
결정으로 못삶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

(9) 또한 흔들림 없는 자애로
일체의 못삶을 돕는다.

(10) 그리고 평정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본 테리가타 18 번 각주)

십바라밀을 보면
육바라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다섯 가지는
같지만 여섯 가지는 다릅니다.
선정이 빠지고 더 추가된 것은

출리, 진실, 결정, 자애,
평정바라밀입니다. 어찌면
평정바라밀이 선정바라밀은
대신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랑심에서
평정은 네 번째 선정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밀행을 초월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자들은 초월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합니다.

바라밀을 뜻하는

빠라미(parami)라는 말이
완성(perfection)을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목숨을 바쳐
행하는 것 자체가 초월의
길임을 말합니다.

초월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 놓을 수
있고(일반적 초월의 길),
신체의 일부를 내 놓을 수
있고(우월적 초월의 길), 하나
밖에 없는 몸숨까지 던질
각오가 되어 있음(승의적
초월의 길)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건데?”**

네 명의 봉사자들은 관음사
한켠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유병화선생이
준비한 약초로 만든 차입니다.
감기에도 좋고 몸의

저항력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잣과 생강을 말린 것
같은 다과도 준비해 왔습니다.
양지바른 한켠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단연 관심사는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세 분의 선생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이제까지
수년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제 있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막행막식
하는 등 무절제한 삶을 살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깨달음의
조건 중의 하나로서
음식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음식은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분노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하나 먹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섭생을 잘 하면 장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런
의문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래살아서 뭐 할건데?” 라는
말입니다. 단지 좋은 음식으로
몸 잘 관리하여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방테라와다에서는 장로가
재가자들에게 “아유 완노
수캉 발랑(āyu vanna sukham
balaṃ)” 라고 축원해줍니다.
이를 사대축원이라 하는데
법구경에서는 “예경하는
습관이 있고 항상 장로를
존경하는 자에게 네 가지
사실이 개선되니, 수명과
용모와 안락과
기력이다.” (Dhp.1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축원하는 것은
수명(āyu)과 용모(vanna)와
안락(sukha)과 기력(bala)에
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사대축원이라 하는데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살아서 뭐하자는 건가?
아무 하는 일 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소극적
공리주의로 일관해서 될까?

장로가 사대축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공덕
쌓으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그만큼 공덕 쌓는 기간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십바리밀을
뉘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네 명의 봉사자들은
관음사에서 참배했습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구배(九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라와다불교 삼귀의에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삼세번 하여 아홉번
귀의합니다. 대웅전에서
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삼배만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면서 삼보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대웅전에서 참배가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육류와 어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청정한 식단입니다.
성찬은 아니지만 절에서
언제나 맛이 있습니다. 아마도
움직여서 일 것입니다. 절에
가면 많이 걷게 되는데 운동을

해서일 것입니다. 긴 거리를
걸어 오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 귀가
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거친행복과
비할 바 없는 잔잔한
행복입니다. 무엇보다
법우님들과의 대화시간입니다.
이동 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배울점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 했을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최상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그 모임
가운데 장로수행승이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윌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그의 후계자도
자각적으로 본 것을 따라 한다.
그들도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윌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최상의 모임이
한다.” (A3.93)

모임에는 반드시 배울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고자 합니다. 모임이 단지
즐거거나 교류를 하는 등의
화합의 모임을 넘어서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는 정진의
모임이야말로 최상의 모임이라
합니다.

일요일 오전 한때 등산로
쓰레기를 주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말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학의천에서 보았던 노부부가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2018-12-03

담마다사(진흙속의연꽃)

76. 영광스런 한해를 보내며, 정평불송년회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광속같다는 말입니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이고,
월초인가 싶으면 월말이고,
봄인가 싶으면 차가운
겨울입니다. 매년 연초를 맞이
하지만 늘 지는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합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든지
연말에는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만납니다. 예전에는 망년회라
했습니다. 지나간 시절이
괴로웠다면 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송년회는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에서
2018년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12월
15일 정평법회와 함께 열린
송년회입니다.

정평불의 꽃, 정평법회

12월

정평법회는 우리함께빌당 6층

‘우리는선우법당’에서 열렸습니다. 매달 열리는 정평법회는 ‘정평불의 꽃’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에 처음 열린 이래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열렸습니다. 재가불교단체에서 이런 현상은 보기 드뭅니다.

정평불의 꽃, 정평법회는 매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립니다. 대부분 사회적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 실천은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평법회는 그때 그때 시류와 관련된 주제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올한해 조계종적폐청산운동도 그런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12월 정평법회는 김광수선생이 법문했습니다. 먼저 입보리행론 제4장 ‘불방일품’을 함께 독송했습니다. 이어서 각 계층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바라밀행에 대한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정진하는 구도자의 삶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주로 육바라밀행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회적 실천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올 한해 정평불에서는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정평불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매달 정평법회를 열어 사회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위선과 모순을 청산하기 위해 적폐청산시민연대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올 봄부터 시작된 보신각촛불법회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삼사십명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조스님 단식을 기폭제로 하여 뜨거운 여름날에는 수천명이 참가하여 크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평불에서는 불교개혁운동에 빠짐 없이 참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촛불법회는 물론, 기자회견, 동조단식, 삼보일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적폐의 층은 무척 두터웠습니다. 이익으로 뿔뿔 뭉쳐진 범계승집단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에 균열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가득찬 총무원장을 몰아 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평불의 지난 일년동안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책의
형태로 소량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날 12월
정평법회에 참석한 사람은
23명입니다.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으로

정평송년회는 자리를 문화살롱
기운으로 옮겨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조현덕선생이
보았습니다. 송년회와
관련하여 특별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찰음식과
3분스피치와
선물나누기입니다.



첫째, 사찰음식입니다.
사찰음식전문가 유명화선생이
준비했습니다. 오신채와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또한 무공해
친환경의 재료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일까 맛이
깊고 그윽합니다. 먹어 본

사람들에 따르면 몸이
정화되는 듯 하다고 합니다.

십인십색의 3분 스피치

둘째, 3분 스피치시간입니다.
이날 송년회에는 37명이
참석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불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정에 없이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분 스피치는 문자그대로 3분
동안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사회는 조현덕샘이
맡았습니다.

3분 스피치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덕권샘은 자신의 수행담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테라와다불교에서 아비담마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체험 했던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수행담과
관련하여 김명관샘은
“초기불교를 알고나서부터
석가부처님이
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인십색입니다. 각자 준비한 발언을 했는데 모두 다릅니다. 지구과학 교사이기도 한 박금재샘은 지구환경을 염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 명확관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빨리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십년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 합니다.

3 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다 보니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명이 3분동안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3분이 초과하면 마무리 유도하는 말로 환기 시켜 주었습니다. 대체로 3분을 잘 준수한 것 같습니다.



3 분스피치 시간에는 노래자랑도 있었습니다. 3분동안 해야 할 이야기 대신에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박병기샘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 노래를 하나 멋지 불렀습니다. 무반주임에도 뜨거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열적인 노래를 불러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Y 샘의 출가선언에

Y 샘은 3 분 스피치시간에 출가를 선언했습니다. 샘은 “제가 아무래도 머리를 깎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훌륭한 스님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참석 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Y 샘은 나이가 오십세라 했습니다.

Y 샘의 출가이야기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Y 샘은 대상이 되는 스님으로 설조, 범륜, 금강, 일묵스님을 거론 했습니다. 그러자 카톡방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금강스님에 대해서는 2 명이 추천했고, 일묵스님은 5 명입니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의 뽀냐와로 스님도 1 명이 추천했습니다. 차라리 미얀마나 태국과 같은

외국으로 출가하는 것도
팬찮을 것입니다.

추천스님을 보면 모두 이
시대에 존경받는 스님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계행이 청정합니다.
또한 포교를 잘 하는
스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파와나선원의 일목스님이
가장 많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보는 눈은 매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출가에 대한 우려의
글도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불교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말합니다.

출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승가를 잘 알고 있는
L 샘은 출가하더라도
주변환경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습니다. L 샘에
따르면 “훌륭한 스님이라면
자기에게 출가하지 않았다
해도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찰에 출가하면 나중에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라
했습니다. 출가를 하더라도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찰에
출가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M 샘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승가의 현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녹록치가
않음을 말합니다. M 샘은
장문의 글에서 “승려가 되어
목적하는 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꼭 출가여야 하는지가 먼저
분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라 했습니다.
무작정 출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출가해도 늦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교적폐청산운동을 하고 있는
P 샘은 출가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한국적 불교현실이
출가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P 샘은
단도직입적으로 “출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출가하지
마십시오.” 라 했습니다.
이어서 “출가를 결심할
정도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시라면 재가에서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했습니다.

P 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일까? 이는
한국불교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P 샘은 “우리가 요
몇 년간 그토록 한국불교의

적폐청산을 외친 것은 드러난
몇몇 타락한 출가사문들의
일탈행위만을 질타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출가불자들은 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이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라
했습니다.

P 샘은 출가만류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출가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출가자집단의
문제’ 라고 했습니다. 계행이
청정하지 않은 승단에
출가하면 거기에 몰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Y 샘의 출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금강스님과 일목스님과 같이
계행이 청정하고 수행이 있는
스님에게 출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국적
현실에서 출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현재와 같은
출가승 그룹에 들어가면
오염되기 쉬움을 말합니다.
차라리 재가로 살면서
재가법사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물나누기

셋째, 선물나누기시간입니다.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는
행위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선한 마음이 되어 선업공덕이
됩니다. 원한 맺힌 자라도
선물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를 길들이고 보시는 일체의
이익을 성취하게 하는 것,
보시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말로써 머리를 들고 그리고
머리를
숙인다.” (Vism.9.39)라
했습니다.

시물을 받은 자는
시주(施主)에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거든
선물을 해야 합니다. 백번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 보다
한번 선물한 것 보다 못합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선물 나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선물과 관련해서는 미리
공지했습니다. 참석자는 각자
만원안팎의 선물을 준비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따로
선물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가져와도 됩니다.

선물을 탁자 위에 모아
놓았습니다. 각자 가져온
선물로 가득합니다. 김과 같은
먹을 것도 있고 비누와 같은
생필품도 있습니다. 책도 있고
우산도 있습니다. 쇼핑백에
포장되어 있는 선물은 열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선물나누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퀴즈를 내서
알아맞히면 먼저 선물을
고르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분 스피치가
끝난 후에 선물을 고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큰 일을 해낼 것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정평불에 있어서 2018년 올
한해는 묵은 해, 잊어야 할 한
해가 아니라 어찌면 영광스런
한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정평불이 창립된
이래 공식적으로 처음이라
합니다.

정평불에서는 매월 빠짐 없이
정평법회를 개최 해 왔습니다.
재가불교단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또한
수련회와 정평포럼을 개최

했습니다. 여기에도
불교적폐청산 운동에 힘을
써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108 명의 회비를 내는 회원이
달성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은
더욱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흔히 백명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천명이
모이면 종단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회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임에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하면서 동시에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정진의 모임과 관련하여
정평불에서는 법회 할 때
삼귀의와 함께 오계를 반드시
받아드립니다. 또 공식적
회식자리에서는
불음주계(不飲酒戒)를
선언했습니다. 정평불에서
재가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지식인들과 현장활동가들,
그리고 의식있는 불자들로
이루어진 정평불에서 내년에는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2018-12-17

정평불사무총장 이병욱

